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



장단기발전위원회 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

장단기발전위원회 편

발행인 : 신경하

편집인 : 권오서

발행일 : 2007년 12월 20일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http://www.kmc.or.kr>

편 집 :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제 작 : 밀알기획(☎ 335-6579)

(비매품)



감리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The God's design is not to form any new sect; but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1789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존 웨슬리)

신경하 감독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감리교회 모든 지체와 신실한 감리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를 발간합니다.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정리한 감리교회의 문제의식과 대안적 노력, 목회자 의식조사 및 통계와 복음화지도 등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마련한 현주소이며, 오늘에서 내다 본 내일의 청사진입니다. 사실 《백서》는 완벽한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5,825교회와 153만 감리교인이 함께 풀어갈 과제입니다. 그러나 《백서》의 의미는 다시 출발할 지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은 한국 기독교 대부흥 100주년의 해였습니다. 지난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운동이 불붙어 평양에서 꽃을 피운 지 100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연합행사를 치르면서, 회개와 갱신을 통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자정노력과 변화의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많으나 그 열매가 부족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120여 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온 교회가 21세기 벽두에서 정체와 쇠퇴를 고민하게 된 것은 커다란 위기신호입니다. 무엇보다 그 위기가 복음의 능력이나 교회의 성장 노력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 상실로 비롯되었다는 진단은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태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의 선자리가 지나치게 세상의 방법을 닮았고, 설자리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졌고, 진리로부터 변질되고 있다는 고백이며, 고발입니다.

저는 감독회장에 취임하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의 근심이 되고, 비판을 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돌아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진단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교회가 상실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



린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향함으로써 가능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우리는 감리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살펴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깊은 영성과 구원의 열심,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위대한 각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회심으로 심령과 교회를 갱신하였고, 개혁으로 사회와 민족을 향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나 깨나 존 웨슬리를 자랑하면서도 그의 철저함을 본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자기성공에 도취되어 겸비함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두려움으로 외적 제도뿐 아니라 내적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부끄러움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했는가’라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행여 본질과 진실, 바탕과 절대성을 잃어버렸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며,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날이 새롭고, 든든히 서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고,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다. 《백서》는 논의의 실마리이고,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매듭입니다.

저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희망 브랜드가 되고, 감리교인들이 가장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꿈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영성과 예배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우리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적 나침반이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 봅니다. 그것은 우리 먼저 썩어짐으로써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일이며,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 발간을 위해 같은 심정으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오서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난 1년 반 동안 산통 끝에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루 지혜를 모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단기발전위원회를 통해 감리교회의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인지 새롭게 눈떴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우리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을 새삼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교회적 토양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히 지난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고, 신정하 감독회장님의 임명을 받아 직속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합리적인 회의문화에 익숙하고, 찬반 등 다수결제도에 승복하지만 이런 방법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성과 교회의 모델 그리고 미래의 지도력을 고민하는 데 요청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고, 신앙의 근본문제를 진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단기발전위원회처럼 연구를 위한 위원회, 토론의 기회가 열려있는 위원회, 이견과 차이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제도를 바꾸어내겠다고 눈앞의 법 개정엔 연연해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방식이었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상이 있었기에 서로 신뢰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고민한 것은 감리교회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종일관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 교회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입장이 거론되었습니다. 제1분과가 웨슬리영성을 실천하는 리



더십을 고민한 것이나, 제5분과가 미래에도 계속 성장이 가능한 감리교회상을 꿈꾸며 그 대안으로 ‘섬김의 영성’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물음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백서》를 통해 제기하려는 것은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 감리교회의 공통유산인 ‘존 웨슬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제기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의 영성’을 그 결과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토대 위에 제2분과는 건강한 감리교회의 모델을 모색하였고, 제3분과는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목회자 수급대책과 통합대학원 운영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4분과는 감리교회의 구조개혁을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훈련이 없다면, 감리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다면, 이러한 신앙적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 함께 감리교회를 세우려는 공감이가 없다면 그런 기웃거림은 계속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 발간은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후속작업을 통해 이번에 세운 방향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프로그램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정리한 <감리교회 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와 각종 통계 그리고 복음화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감리교회의 미래와 내일을 새롭게 할 정책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기간 책임을 맡아 애쓰신 모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4 발간사 (신경하 감독회장)

6 편찬사 (권오서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10 백서 발간 작업을 위한 비전 선언문

분과별 보고서

14 제1분과 :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제1부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 16

제2부 웨슬리 영성 실천을 위한 훈련체계 · 29

제3부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감리교회 신앙교육의 과제 및 실천정책 · 40

47 제2분과 :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 교회 부흥정책

제1부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 49

제2부 건강한 교회 모델 연구 · 62

제3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 85

96 제3분과 :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제1부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 97

115 제4분과 :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제1부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 117

131 제5분과 : 미래형 감리교회상

제1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 · 133

제2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역사적 반성 · 160

제3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 186

제4부 미래 교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 · 199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213

감리교회 기초 통계 자료 361

1. 한국의 종교 현황 · 362
2. 남북한 장래 인구 추정 통계 · 368
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세 현황 · 370
4. 연회 및 지방 평균 교세 현황 · 374
5. 연회별 교회 평균 결산액 · 374
6. 결산액별 교회 통계 · 375
7. 연도별 교회 창립 현황(1885-2006년) · 376
8. 각 대학교별 대학원 과정 졸업생 현황(1997-2006년) · 378
9. 연회별 잔급자 현황 · 380
10. 향후 30년간 은퇴 예정자 현황 · 381
11. 여교역자 현황 · 382
12. 대륙별 파송 선교사 현황 · 383
13. 선교사 현황 · 385
14. 2007년도 군선교 현황 · 387
15. 연도별 교회학교 현황(1998-2007년) · 388
16. 사회평신도국 모금 현황 · 389
17.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현황 · 390
18. 사회선교 현황 · 412

감리교회 복음화 지도 417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 및 집필자 명단 437

백서 발간 작업을 위한 비전 선언문

1.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선교 123주년을 맞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전래되었다. 이 빛은 개항과 근대화의 시기에는 희망의 여명으로, 민족의 암흑기에는 희망의 등대로, 성장과 부흥의 시대에는 희망의 발전소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구원의 빛의 전달자였다. 오늘 5,825곳 감리교회와 153만여 명에 이르는 감리교인은 구원의 열매요, 선교의 증인으로 존재한다.

2006년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인 14만 4천명 감소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가톨릭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달리 개신교회의 쇠퇴는 그 동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소통 방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하였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성장제일주의, 대형화 경쟁으로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2004,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진단을 요약하면 한국 교회가 복음 그 자체에 대해 진실하지 못하였고, 시대적 요청에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개신교회의 위기 수준은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잃고, 본질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근본적이다. 개신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 결과 가장 낮은 종교 호감도를 갖게 되었고, 새 신자가 늘지 않는 등 전도의 한계점에 이르렀다(2004,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그것은 개신교회의 이미지 개선과 제도의 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레 11:45)함으로써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와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 ‘웨슬리 영성’과 ‘섬김의 영성’으로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우리 감리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호 12:6)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일은 내적 갱신과 외적 변화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가 바로 서려는 당면과제이고, 더 나아가 장기적 전망을 바라보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

전을 모색하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이 일은 본질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히 13: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시대에서도 참되게 증언하려는 구원의 도구로서 자신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비하는 일이다.

초대 교회의 복음전도를 위한 헌신과 공교회의 정통성을 세워나가는 과정, 낡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종교개혁전통 그리고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란 신앙유산은 한국 감리교회의 존재 근거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전통을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세속화의 흐름에 휩쓸려온 복음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영적 가난보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온 교회의 선 자리를 아래에서부터 성찰함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음세대와 미래세대의 도전에 진지하게 응답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오늘의 시대는 물론 다음세대에도 지켜야 할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섬김의 영성’(눅 22:25-27)에서 찾고자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의미를 압축하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믿음의 바탕이 된다. 한국 감리교회가 우리 자신을 “신실한 사람들”로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로드십)을 말하면서도, 그 피흘림과 거룩한 희생의 삶(서번트십)을 상실했다고 하는 회개와 자성에서 비롯된다.

3.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이제 우리는 역사적·선교적 체험을 기초로 우리 감리교회가 지닌 장점과 강점을 살려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직속으로 조직하기로 의결한 장단기 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소중한 과제를 부여받았다(《교리와장정》 2005년판, 247단 제147조 3항). 이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전도의 활력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 가며, 하나님의 선물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 등 정체성을 강화하여 한국형 감리교회의 모델과 모범을 개발하고,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성직의 바른 본과 위상을 강화하며, 모든 교인들이 깊은 영성과 경건훈련, 표준화된 메도디스트 삶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연관적 교회로서 감리교회의 시스

템을 합리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감독제도와 의회제도 및 감리교 본부에 대한 개혁안 제시와 높은 수준의 성직 양성을 위한 훈련체계 마련 그리고 안일과 부패를 용인하게 하는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는 일이다. 이것은 침체된 교회의 부흥과 감리교회 안에서의 신뢰와 협력,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 현장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항구적으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에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대안을 구하는 신앙적 모색이다.

이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전체 감리교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감리교회 전도환경을 확장하며,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역할은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민족복음화를 위한 교회이며, 세계선교와 인류평화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거룩함을 품은 채 세속 안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교회, 지구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참여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나라를 위한 감리교회의 사명과 직결되며, 우주적 구원(골 1:6)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분과별 보고서

제1분과 :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제1부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제2부 웨슬리 영성 실천을 위한 훈련체계

제3부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감리교회 신앙교육의 과제 및 실천정책

제2분과 :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 교회 부흥정책

제1부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제2부 건강한 교회 모델 연구

제3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제3분과 :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제1부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제4분과 :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제1부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제5분과 : 미래형 감리교회상

제1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

제2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역사적 반성

제3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제4부 미래 교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개요

세계 선교역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신교인 수는 14만 명 이상이 감소하여 그 감소율이 1.6%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적 성장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도 이런 침체적 흐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히 제1분과에서는 감리교의 근간을 이루는 웨슬리 영성의 재발견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과 훈련체계를 마련하여, 감리교회의 부흥과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제1부에서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2부에서는 ‘웨슬리 영성 실천을 위한 훈련체계’로서 웨슬리 전통에 기초한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 운영(가칭), 다양한 전통의 “감리교 수도회 창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성수련”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3부에서는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감리교회 신앙교육의 과제 및 실천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이다. 지난 세대 동안 물질과 과학만능으로 살아왔던 인류는 이것들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과 고갈을 체험한 후 비물질적이고 비과학적인 영적인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영성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이다. 히피문화, 신비주의, 동방종교, 점성술, 명상, 세계 정부, 루시퍼, 마인드 컨트롤, 영매 등은 단순히 현실세계를 도피하려는 운동이 아니고, 물질과 과학만능으로 대변하는 산업사회, 과학사회를 증오하면서 신성하고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찾고자 하는 새로운 종류의 종교적 열광현상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감리교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감리교의 근간을 이루는 웨슬리 영성이 바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 영성을 중심으로 바른 영성, 건전한 영성을 회복하면 감리교회에 미래가 있다.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의 굴레를 벗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웨슬리의 영성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 감리교회가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감당하게 되리라 믿는다.

1. 웨슬리 전통에서 영성의 의미

웨슬리가 이해하고 가르친 기독교 영성의 의미는 그의 완전성화론과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화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됨(Christlikeness)이다”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그리스도 모방(imitation of Christ)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메도디스트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에서 “메도디스트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와 진리와 우주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삶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혼을 조종하는 거룩한 습관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성결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것이요, 모든 거룩한 기질과 하늘나라 성품을 소유하고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의 모범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웨슬리에게서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방이다. 이것은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완전성화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악을 피하고 소멸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도디스트란 자기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웨슬리에게서 완전성화는 이와 같이 ‘사랑에 의하여 완전케 되는 믿음’을 의미한다. 메도디스트 완전성화의 영성은 수많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에 감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통치하소서
당신만이 내 마음에 살으소서
내 속의 모든 생각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처럼 의롭고 순전하게 만드소서

당신의 이름 내 맘에 새기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의 이름
천사들처럼 당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사랑 이루기까지

당신의 새 창조 완성하소서
우리가 순결하여 흠이 없도록
당신의 위대한 구원 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완전히 이루소서
사랑으로 나를 완전케 하소서

웨슬리는 그리스도교의 참된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formation of Christian heart and life)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아무리 정통 신앙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형성에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은 거짓된 신앙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형성에 충실하고 유익한 신앙만이 정통 신앙이라고 주장한다.

2.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경건의 행위)과 둘째는 사랑의 실천(자비의 행위)이다.

1) 경건의 훈련(경건의 행위; works of piety)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는 데, 즉 그리스도인 형성(Christian formation)에 필수적이다. 경건의 행위란 신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 자기성찰, 성경탐구(searching the scripture), 가족기도회, 공중예배, 성만찬, 금식, 성도의 교제(Christian conference; 신도회, 속회, 반회),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애찬회, 편지의 날, 영적 독서, 계약예배 등은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인들이 꼭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해야 하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매일 규칙적인 자기성찰

웨슬리는 매일 여섯 번 기도와 자기성찰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였다. 물론 그날그날의 일에 따라서 6회의 기도는 못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대체로 6회의 규칙적인 기도를 하였다. 6회의 기도는 아침 4-5시와 저녁 9-10시,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6시, 9-10시였다. 웨슬리는 모든 메도디스트들이 이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인 기도와 자기성찰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한 중간에 짧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훈련시켰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촉구하였다. 매일 규칙적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영성생활의 출발이요 기본이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의 한 가지 특징은 기도와 자기성찰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완전성화를 이루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메도디스트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다. 규칙적인 기도와 자기성찰은 마귀의 유혹에 틈을 주지 않고 신자들에게도 죄지을 틈을 주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수적인 일이었다.

(2) 매일 중보기도

메도디스트 기도는 성화를 위한 기도와 중보기도에서 그 장점이 잘 나타난다. 이것은 메도디스트들이 속회와 같은 작은 모임의 영성훈련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며 서로를 지켜주는(watch over)” 영적인 협동이였다. 또한 메도디스트 기도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사랑의 기도와 인류를 위한 박애운동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한국 감리교회는 매주일 주보나 신문이나 《하늘양식》에 감리교인의 중보기도를 실을 수도 있겠다.

(3) 메도디스트 기도집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집, 즉 개인 기도집, 가족 기도집, 어린이 기도집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메도디스트 기도집에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매일 실려 있으며, 개인 기도집에는 매일 자기성찰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집들은 웨슬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셀 수 없이 출판되어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을 위한 실천신학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도로 형성되는 것이며, 기도문 속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기도’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와 같이 거룩하고 모범적인 기도문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영국 교회의 ‘공동기도서’를 통해서 기도생활을 했으며, 평생토록 ‘공동기도서’를 애용하였다. 웨슬리는 기도문 없는 자유로운 기도도 잘 했고 기도

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잘 하였다. 그는 두 가지 기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메도디스트들에게 가르쳤다. 한국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기도집을 만들거나 감리교인의 매일 가정 예배서인 《하늘양식》에 기도와 자기성찰을 수록할 수도 있겠다.

(4) 가족기도회

가족기도회는 본래 청교도의 강력한 전통이었는데, 수산나 웨슬리가 애플에서 실천하였으며, 이것을 웨슬리가 메도디스트 경건생활에 적극적으로 모방하였다. 당시 영국 교회는 성직자들 중에도 가족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는데, 거의 모든 메도디스트는 매일 가족기도회를 실천하였다. 그래서 가족기도회는 가정의 성화를 이루는 중대한 방안이었다. 가족기도회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중심이 되는 전통이다.

(5) 성경 탐구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언제나 성경책을 네 손이 닿는 곳에 두라고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을 탐구하는(searching)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분량을 차례대로 읽되 자주 멈추어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실천하면서 읽으라고 가르쳤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교인들의 일치된 성경 탐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6) 영적 독서

웨슬리는 성경 좀벌레였으며, 독서광이었다. 일생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는 무학 무지한 메도디스트들을 독서운동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으로 교육시켰다. 영적 독서는 메도디스트들이 영국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웨슬리는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으나 독서운동을 통하여 설교자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길러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필독서를 제정하여 읽게 하였다. 필독서 중에는 성자들의 생애(life)가 많았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성자들(saints)의 생애야말로 살아있는 교리요 메도디스트 교리의 생생한 표준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영적 독서는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7) 매주 금요일 금식

웨슬리는 신성회(Holy Club)에서 금식을 시작하여 일평생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였다.

웨슬리 사후에는 메도디스트들이 금요일만 금식하여 금요일은 메도디스트 금식일로 오랫동안 실천되었다. 그는 금식의 목적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가르쳤다.

- ① 죄를 슬퍼함 - 회개
- ② 육체의 정욕을 죽임 - 자기포기, 자기부정
- ③ 전적인 순종
- ④ 더 깊고 간절한 기도
- ⑤ 이웃의 고난에 동참
- ⑥ 신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금식은 오로지 기도 응답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다. 웨슬리에게서 금식은 선행과 성화의 방편이요 영성훈련이다. 웨슬리는 금식을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필수적인 일로 정하여 실천하였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 메도디스트들은 금식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도왔다.

(8) 규칙적인 성만찬

웨슬리는 열성적인 성만찬 경건주의자였다. 그의 영성은 성만찬적 영성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매주 규칙적으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성만찬을 받으라고 촉구하였으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지칠 줄 모르고 가르쳤다. 성만찬은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공급하는 위대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성만찬을 신자의 칭의와 확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화의 훈련으로 사용하였다. 메도디스트 영성은 성례전적 영성이다.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은 성만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웨슬리는 개신교회가 범하기 쉬운 설교 중심의 기형적인 영성을 피하고 말씀과 성례전이 조화된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그렇게 하여 메도디스트 신도회를 성례전적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이다.

(9) 고백적 영성훈련을 통한 성화의 장으로서 속회

메도디스트 속회의 제일 목적은 성경공부나 전도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적 고백과 영적 나눔을 통한 영성생활의 훈련이다. 속회는 영성훈련의 장이요 성화의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공과 중심 속회를 속히 그치고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의 경험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 교정하고 지원하고 나누는 성화의 훈련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속회의 진정한 공과는 속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다.

(10) 규칙적인 자기성찰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자기성찰(self examination)의 기도를 하였다. 자기성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경건 행위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학생 시절 자기성찰의 주제와 일람표를 만들어 자신의 영성생활에 철저히 적용하였다. 그는 매일 정해진 주제와 규칙에 따라서 매일 저녁 자기성찰을 실천하였다. 그는 ‘메토디스 매일 기도집’에도 매일 기도에 자기성찰 일람표를 달아 놓아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서 자기성찰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에 집중하였다면, 또는 자기들의 교회나 신앙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결코 이루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였다. 그들은 자기성찰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들의 삶에서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소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고 이웃과 사회에 해로운 것을 분별하여 버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성찰의 기도에 집중하였다.

메도디스트란 매일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holiness of heart and life)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성찰의 기도가 없이는 진실한 신앙도 없고, 경건도, 영성도, 성화도 없는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도 웨슬리 전통의 영성생활을 회복하려면 교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기도 훈련을 시켜야만 한다. 자기성찰의 주제와 표와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성찰은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에 필수적이며 중심에 있어야 한다.

2) 사랑의 실천(자비의 행위; works of mercy)

웨슬리는 어느 특정 교파나 교리나 신학에 매어 달리지 않았으며, 일생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정통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아무리 정통의 교리와 정통의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반대하거나 낳지 못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교리 또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비판하였다. 웨슬리에게서 믿음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선행을 위하여, 선행은 성결을 위하여, 성결은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요, 통로요, 길이다. 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낳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줄기차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서 정통의 믿음은 ‘사랑을 낳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믿음’이다.

웨슬리는 신자의 영성생활을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다. 두 번째 자

비의 행위는 곧 사랑의 실천이요 선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비의 행위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과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어둠과 무지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권하여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전도와 교육과 상담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와 교육과 상담의 일도 자비의 행위로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둘째,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돌보면서 전도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자비의 행위는 사실상 적극적인 의미에서 실천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할 수 있으며, 꼭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선을 행하는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들에 대한 별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선행자들’(good doers)이라는 것이다. 메도디스트들이 사회 모든 면에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선행자들’이라고 불렀다.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구원한 것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만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자비의 행위를 펼쳐서 열심히 많은 선을 행함으로 된 것이다. ‘선행자들’이라는 이름은 사회에 비친 메도디스트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이미지였다. 당시 메도디스트 신도회는 기도처와 예배당인 동시에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집이었다. 그곳은 상담소, 직업 안내소, 탁아소, 학교, 약국, 병원, 쉼터, 집 없는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안식처, 고아들의 집, 과부의 집, 장애인들의 집, 노동자들의 쉼터와 도움의 집이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자신이 지키는 선행의 규칙을 주어 따르게 하였다.

메도디스트 선행 규칙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2) 정직한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모든 악을 피하였다. 그들은 일체 남에게 해롭고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 사치와 방종, 비도덕적이고 불건전한 오락을 피하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병자들, 노동자들을 위하여 선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예법을 충실히 지키었다. 주일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교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었다. 웨슬리 시대에 메도디스트들은 사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요 사회와 나라의 가장 분명하고 큰 희망이었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모든 사회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산업혁명이 발발하던 시대와 도시에서 모든 상거래는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였으나 메도디스트들은 모든 산업활동과 상행위에서 일체 거짓말하지 않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산업지대에서 고용주들은 메도디스트들을 신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를 좋아하였고 승진에서도 우대하였다. 메도디스트들은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사회와 국가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시간과 약속을 조금도 틀림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메도디스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여 부흥운동 초기에는 초기 메도디스트들이 핏박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정직한 감리교인’(honest methodist)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신앙이며 동시에 생활이었다. 그것은 메도디스트들의 복되고 영광스런 이름이었다.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부흥운동이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메도디스트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메도디스트들이 없으면 안 된다. 메도디스트들이 우리의 희망이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 사회 어디서나 ‘신실한 사람들’이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인정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3) 많이 주는 감리교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는 선행을 위한 세 가지 경제생활 규칙을 만들어 메도디스트들을 가르쳤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만 메도디스트들에게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세계 기독교와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위대한 영향을 주었다.

선을 행하려면 많이 주는 생활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선을 행하기란 어렵다. 초기 메도디스트들 중에는 십일조만 아니라 십의 이조와 십의 삼조와 그 이상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삶’은 메도디스트 실천적 영성의 기본이다.

(4) 규칙적으로 주는 감리교인

초기 메도디스트 표어 중에 “칭의, 성화, 일주일에 일 페니”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메도디스트 신앙생활을 가장 짧게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일 페니가 현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천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다. 초기 감리교인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일 페니를 이웃에게 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선행을 보였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이 운동으로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운동으로 많은 고아원,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병원, 학교, 나그네 공동체들이 지어졌고 운영되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일주일에 천원” 또는 “일주일에 만원” 주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웨슬리 영성의 목표

1) 개인의 성화

웨슬리 영성은 분명한 목표를 지향한다. 그는 우선 개인의 성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 영성운동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목표이다. 먼저 신자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holiness of heart and life)이라고 표현하였다. 메도디스트들은 마음과 삶의 성화와 완전성화를 얻기 위하여 규칙적이고 열성적인 영성훈련에 참여하였다. 성화는 메도디스트 영성훈련의 기본적인 목표다. 웨슬리는 지칠 줄 모르고 “성결이 행복이다”(Holiness is happiness)라고 가르쳤으며, 메도디스트들은 성화, 즉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 한국 감리교회도 이러한 성화 신앙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2) 가정의 성화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멸망의 위기까지 간 것은 가정의 타락과 파괴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웨슬리 영성운동의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더럽혀진 가정의 성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메도디스트들에게 가족기도회를 매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가정의 파괴와 불행이 곧 사회의 파괴와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정 목회를 성실히 한 목사였다. 그는 가난하고 문제 많은 신자들의 가정을 열심히 심방하고 상담하고 도왔다. 메도디스트 신앙이 부흥하는 곳에서는 불성실한 남편들이 성실한 남편들로 변하고, 부도덕한 아내들이 도덕적인 아내들로 변하고, 집 나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붕괴된 가정들이 회복되었다.

3) 교회의 갱신

당시 영국 국교회는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을 핍박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보고서 자신들의 교회 갱신의 계기로 삼았다. 웨슬리의 영성운동은 새로운 교단을 차리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국 교회 자체를 갱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당시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세상에 보여주려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 갱신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한다.

4) 민족의 개혁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의 위대한 목표는 ‘민족의 개혁’(reform of the nation)이다.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영국인의 생활습관과 도덕생활을 개혁하였다(reformation of manners and morals). 즉 웨슬리의 영성운동은 영국인의 성품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인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 그들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회의 성화와 민족의 개혁은 하나님이 메도디스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었다. 민족을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진정한 열매다.

5)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

1744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웨슬리는 메도디즘(감리교)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결론과 제안

1) 세속 속의 성자들;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 역사가들은 옥스퍼드 신성회(holy club)를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운동, 즉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었다고 평한다. 신성회에 뒤이어 나온 메도디스트 신도회는 말 그대로 세속 속의 수도원이었으며, 메도디스트 영성운동은 세속 속의 수도원 생활운동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칙이 수도원 생활규칙과 같았으며, 그들의 삶이 수도원 영성생활을 꼭 닮았기 때문이다. 영성생활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다. 엄격한 규칙과 규칙에 따르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18-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메도디스트들은 웨슬리가 가르쳐준 영성의 규칙을 지키고 훈련하여 세속 속의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마음과 삶의 성화를 이루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였다. 영성생활은 규칙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에 따르는 지속적 실천이 그리스도같이 됨의 축복을 얻는 것이다.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성서적인 성결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려면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도디스트 수도원 영성훈련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웨슬리와 메도디스트들은 수도원 밖에서, 즉 세상에서 수도원 영성의 규칙에 따라서 사는 세속 속의 성자들이었던 것이다. 초기 메도디스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속생활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메도디스트 영성은 세속 속의 수도원생활이다.

2) 다양한 수도회 창설과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산속에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마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을까? 대체로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개인의 삶에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든지, 개인이나 가족이 중병이 걸려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또는 자기 교회의 부흥이나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다. 대부분 현존하는 개 교회의 세력 과시나 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도원은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기도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된 기독교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흐리고 어두운 데 빠져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

교의 영성을 찾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찍이 사무엘 웨슬리(존 웨슬리의 부친)는 영국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수도원을 다 없애버린 실수를 개탄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수도원에서 참된 경건을 훈련하였는데, 우리 시대의 자손들은 어디서 그런 경건을 배워야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한 바 있다. 사무엘 목사의 개탄이 있은 지 얼마 후 영국에서는 수도원 복구운동이 진행되었고, 존 헨리 뉴만이 ‘옥스퍼드 운동’을 통하여 가톨릭 복귀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영국에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다양한 영성의 전통을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수도회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수도회들, 즉 도미니크 수도회, 프라니시스 수도회, 예수회 수도회, 시스터시안 수도회 등 수도회들과 또 새로운 종류의 수도회들이 일어나 영국 교회의 영성생활에 개혁이 일어났다.

수도원 영성생활은 반드시 수도원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원 건물이 없이도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모상,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거룩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고 평생토록 실천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회인 것이다. 초대 교회나 중세 교회, 그리고 웨슬리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도원 영성훈련은 꼭 필요하다. 웨슬리는 그것을 세속 속에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실천하였다. 우리도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체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세속 속의 수도원 운동이다. 우리도 진정한 기독교 영성훈련과 웨슬리 전통의 영성생활을 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사에 나타났던 다양한 전통의 수도회들을 본받고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각종 수도회가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웨슬리 수도회’, ‘메도디스트 수도회’, ‘이용도 수도회’, ‘아펜젤러 수도회’, ‘하디 수도회’, ‘유관순 수도회’, ‘전덕기 수도회’, ‘최용신 수도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회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시급한 과제다.

3) 신학대학의 수도원 공동체화

언제부터인가 거의 모든 개신교의 신학대학은 영성훈련보다는 신학 지식을 쌓는 지적 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장 심하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낳았다.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의 윤리는 그 수준이 밑바닥을 친다. 한국 개신교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을 이루었지만 한국 교회의 윤리는 사회보다도 못한 면이 많이 발견된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에서부터 영성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학대학 학생들은 지식훈련에 치중하면서 영성훈련에 무지하고 소홀히 하고 회피하는 실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목회자의 영성, 즉 성품이나 인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치열한 세속적 생존경쟁과 같은 목회현장에 몸을 던지고 마는 것이다. 겸비, 순종, 진실, 헌신, 희생, 청빈, 사랑의 실천, 성결, 성화, 이런 가치보다는 각박한 목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고뇌와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강단의 설교에서 비판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현실주의,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명예주의, 권력주의, 인기주의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못하다.

일찍이 웨슬리는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에 교회 개혁을 이루었다. 그것은 곧 목회자 개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을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였다. 즉 모든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이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에 일치하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성자(saint)가 되도록 훈련하였던 것이다. 그는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이 실천할 수도원 생활과 같은 영성생활의 규칙을 만들어 경건의 행위와 목회적 실천과 자비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초기 메도디스트 목회자들은 수도원 영성생활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미 세속주의에 깊이 오염된 오늘의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거룩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하게 여겨지는 길은 감리교 목회자 양성 신학대학을 수도원 공동체로 만들어 모든 목회 후보생들을 수도원 같은 영성훈련을 받게 하여 일생 성직자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와 건전한 영성운동을 펼친 교회들의 수도원 영성을 연구한다.

* 현재 가톨릭교회와 성공회의 수도원 영성생활을 연구한다.

* 감리교회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도회들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 연회나 지방 단위로 메도디스트 수도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 한국 감리교인의 영성생활 규칙이 제정되고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감리교 목회자 양성 신학대학을 수도원 공동체로 만들어 지적 훈련과 함께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신학대학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감리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수도원 영성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1. 웨슬리 영성수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메도디스트 수도원 설립’에 대하여

1) 웨슬리 영성수련의 목적

웨슬리 영성과 그 수련을 말할 때 대체로 세 가지 큰 공통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웨슬리 영성수련의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성화이다. 둘째, 웨슬리의 영성은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이 특징이다. 셋째,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의 영성수련은 세상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세속 수도원 운동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웨슬리 영성수련은 모든 한국 감리교인이 성경에 뿌리를 둔 웨슬리 영성으로 충만하여 개인적인 성결에 힘쓰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돕고, 나아가 이 나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변혁해 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2) 웨슬리 영성수련의 실제

(1) 일상적 은혜의 방편 실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 자기성찰, 성경탐구(searching the scripture), 가족기도회, 공중예배, 성만찬, 금식, 성도의 교제(Christian conference; 신도회, 속회, 반회),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애찬회, 편지의 날, 영적 독서, 계약예배 등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2) 일상적 성결한 삶을 위한 웨슬리 영성수련 지침(경건독서목록, 기도문 활용)

- ① 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에 참석한다.
- ② 매일 30분 이상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 ③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매일 매시간 묵상한다.
- ④ 매일 10분 이상 침묵기도 한다.
- ⑤ 하루에 한 끼 또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한다.

- ⑥ 경건도서목록을 따라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한다.
- ⑦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경건일기를 쓴다.
- ⑧ 하루 한 가지 남을 위한 온전한 봉사의 일을 한다.
- ⑨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30분 이상 중보기도 한다.

(3) 영성생활의 회복을 위한 웨슬리 영성수양회의 실제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실행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생활을 배우고 준비시켜주는 영성수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웨슬리 영성수양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① 2박 3일의 예

	구분	아침	오전/강의	오후/노동	저녁
첫째 날	선재적 은총/ 회개/칭의/거듭남		웨슬리 영성수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적용과 노동	성찰과 나눔
둘째 날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인기도와 말씀묵상	관상기도와 말씀묵상 (렉치오 디비나)		
셋째 날	세상 속으로			경건독서와 일기	

② 4박 5일의 예

	주 제	아침	오전/강의	오후/노동	저녁
첫째 날	선재적 은총과 회개	개인기도와 말씀묵상	웨슬리 영성과 수련	적용과 노동	성찰과 나눔
둘째 날	칭의와 거듭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셋째 날	성화		관상기도		
넷째 날	그리스도인의 완전		말씀묵상(렉치오 디비나)		
다섯째 날	세상 속으로		경건독서와 일기		

(4) 적용

이 같은 웨슬리 영성수양회를 각 형편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도록 한다.

- ① 각 지방 및 교회의 웨슬리 회심주간 영성수련 프로그램으로 활용
- ② 평신도 교육 훈련과정(장로, 권사)으로서 영성수련 프로그램

- ③ 신학생 수련과정으로서 영성수련
- ④ 연회원 진급과정을 위한 영성수련 프로그램
- ⑤ 정회원 연수교육과정으로서 영성수련

3) 영성수련의 심화 - 수도공동체

(1) 비전과 사명

웨슬리의 신성클럽과 초기 감리교 신도회는 재가 수도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영성수련을 위한 수도공동체는 웨슬리 영성수련을 견인하고 그 섬김이(도우미)들을 양성하며, 영적 중심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감리교 수도공동체는 이렇듯 한국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가진 중심으로서 감리교인들의 일상적 영성수련을 견인하고 영성수련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세계를 위해 중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된 말씀 실험 공동체를 지향한다.

(2) 목적

웨슬리 영성 수도공동체는 웨슬리 영성수련을 통해 수도공동체로서 가능성을 실험하고 감리교인의 일상적 영성수련을 이끌며 영성수련 지도자를 양성하고 목회자와 선교사의 회복을 돕고 은퇴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한다.

(3) 수도원 일과

수도원 일과는 웨슬리의 구원의 7질서에 맞춘 한 주간 단위의 일과로 하되 기본적으로 기도와 묵상, 학습, 그리고 노동의 세 가지 요소를 담도록 한다.

(4) 영성수련

웨슬리 영성수련은 각기 다른 형편에 따라 알맞은 내용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단기 헌신자와 장기 헌신자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구분과 수련 목표를 설정한다.

① 방문자

주말 2박 3일 혹은 주중 4박 5일의 방문자들이 재가 수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수련을 제공한다.

② 단기 헌신자

3개월 혹은 6개월의 단기 헌신한 이들에 대한 수련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예 : DTS 등)

③ 장기 헌신자

1년 혹은 2년의 헌신자들은 능력 있는 영성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예 : 성경연구학교, 상담학교, 세계관학교 등)

④ 목회자, 선교사 회복 프로그램

목회 혹은 선교사역에 헌신해온 사역자들이 안식년 혹은 회복을 위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얻고 회복되도록 돕는다.

(예 : 내적치유, 사역 컨설팅, 리더십 개발, 성령의 은사, 성경 집중연구 등)

⑤ 은퇴 목회자, 은퇴 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영성수련을 도와 중보기도자로서 지속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예 : 전인치유과정, 중보기도학교, 상담학교 등)

4) 수도권 설립을 위한 제안

(1) 시설

- ① 성전 및 개인기도처
- ② 학습 및 수련을 위한 공간
- ③ 목회자, 선교사 회복센터(가족 단위의 생활이 가능한 시설)
- ④ 은퇴 사역자를 위한 공간(공동생활과 돌봄이 가능한 시설)
- ⑤ 노동을 위한 농장 등

(2) 재정 확보

- ① 수도권 기금 모금
- ② 은퇴 목회자의 기부
- ③ 원로원 이전합병
- ④ 개체 교회 및 지방, 연회, 본부 부담금 등

(3) 인력 확보

- ① 영성수련 전문가
- ② 관리인력 등

(4)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 적극모색

- ① 일영연수원에 수도원 시설을 보강
- ② 기존의 기도원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거나 지정제로 운용

5)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

(1) 준비팀 꾸리기

- ① 감리교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분과를 중심으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과 수도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제와 추진사항 등을 기초로 준비팀을 조직
- ② 심포지엄을 통하여 관계전문가들의 대화와 정리의 계기를 마련

(2) 준비팀 확장

- ① 심포지엄과 중보기도 등으로 확대된 팀 꾸리기
- ② 준비팀이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실행팀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갖추어 가도록 경험과 이론에서 준비되도록 함
 - ㉠ 수도공동체 방문 및 수도생활 체험 - 예수원, 가나안농군학교, 떼제공동체, 은성수도원, 고려수도원 등
 - ㉡ 웨슬리 영성과 수도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학습
- ③ 프로그램 마련과 실행팀의 역할 분담
 - ㉠ 경험과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의 시안 마련
 - ㉡ 연구팀, 진행팀, 강의팀 등 역할 분담
- ④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화를 위한 웨슬리 영성회복운동의 필요를 알리고 후원자들을 모음
 - ㉠ 정회원 연수교육 등 목회자들의 모임 때 활용
 - ㉡ 희망 프로젝트로서 공식 채널 이용 - 감독회장의 목회서신, 감리사 회의(연회 실행부회의) 전달 사항 등
 - ㉢ 과정을 통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팀에 합류케 함

(3) 모델 마련을 위한 시연

- ① 1차 영성수련 프로그램 진행 - 목회자, 사모 또는 평신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 ② 프로그램의 평가 보완 작업 - 실행팀과 1차 경험자들의 나눔과 토론의 성과물

(4)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진행

- ① 웨슬리 영성수련만의 특색과 장점을 지니도록 하여 영향력을 극대화 함
- ② 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영성수련으로 자리매김

2. '감리교 수도회 제도의 재건'에 대하여

1) 왜 필요한가?

(1) 교회의 세속주의

70년대 이후 한국 교회를 지배해온 주류사상은 뭐니 뭐니 해도 '교회 성장주의'이다. 90년대 중반까지 36년간 한국 개신교회는 교인 수에 있어서 14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교회 수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교회 성장과 그 가능성은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이 성장에 집중하도록 했다.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교회적 상황은 지난 시대와 크게 달라졌다.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가고 성장의 부정적 측면들이 가시화되었다. 교회 간의 성장 불균형과 대형 교회의 출현으로 야기된 개 교회 중심주의는 공교회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의 상실로 이어지고, 미자립교회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부재, 교단의 정치적 분열, 대형 교회의 세습화와 사유화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목회자의 성윤리의식의 부재와 골프·최고급 승용차 등으로 표현되는 목회자의 사치스런 삶 등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mammon을 같이 섬기려는 무분별한 세속화는 교회에 대한 도덕적 권위와 존경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 모든 결과들은 다시 교회 성장의 둔화로 악순환되고 있다. 이런 부정적 상황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진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2) 수도제도의 필요성

지금 이 사회는 교회에게 청빈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교회만큼은 모든 세속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언제나 세속적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각성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세상과 교회의 모델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수도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성서와 전통,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감리교회는 수도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실한 수도자였다. 그는 청소년기 6년 동안 카투시아 수도원학교에서 매우 충실하게 수도사 생활을 마쳤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영적 독서와 기도를 통하여

수도생활을 이어갔다. 특히 그가 이끈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클럽도 수도원생활을 대학에 적용한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3)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젊은이들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자 한다. 그러나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갈 곳이 신학교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세속에 물들어가거나 이상한 집단들에 빠져가고 있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목회자의 수급문제가 심각하다. 신학교를 나오면 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수도자의 길이 허락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수도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수도회 영성을 갈급해 하는 감리교회의 몇몇 목회자들은 이미 수도회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수련해 오고 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수련과정을 겪고 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길이 있다면 바로 수도회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렇게 만들어가자

(1) 수도회의 원칙

수도회는 기본적으로 청빈, 순결, 순명 그리고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도자의 기준

수도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의 세속적 욕구를 완전히 포기한 자라야 한다. 자기를 비우고 사는 삶을 그 기본으로 하며 청원, 수련의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수도자가 된다.

(3) 법적 요건

수도회는 감리교회의 신앙과 전통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재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며, 그 인준을 총회의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매년 연회에 활동을 보고한다.

3) 다양한 수도회

수도원 영성생활은 반드시 수도원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원 건물 없이도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모상,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거룩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고 평생토록 실천하는 수도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회인 것이다. 웨슬리는 그것을 세속 속에 수도회 운동을 통하여 실천하였다. 우리도 시대에 맞는 세속 속의 수도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사에 나타났던 다양한 전통의 수도회들을 본받고 웨슬리와 초기 메도디스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각종 수도회가 감리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웨슬리 영성을 추구하는 ‘웨슬리 수도회’, 이용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용도 수도회’ 또는 ‘청빈 수도회’ 등등 다양한 수도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다.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웨슬리 영성수련

1) 레너드 스위트의 미래 교회론

정보화 시대성의 특징을 중심으로-정보화 시대의 사회 변화는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는 그의 미래 교회론에서 21세기 교회를 영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교회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이 교회의 변화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이다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문화는 교회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의 교회, 전통 교회사역자, 교회제도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삶에 이르는 방식을 느낌을 통하여 체득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새로운 의식을 느낌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2) 상호작용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허락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상호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치는 참여를 원한다는 것이다.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이미지와 은유로 사고하는 교회이다

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뿐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인데 특별히 영상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인들에게 문화와 종교의 개념체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은유와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의 의미는 공동체(communitiy)를 넘어서서 관계성(connectedness)을 의미한다. 문화가 디지털화될수록 더욱 생기 가득한 인간적인 것이 매력을 끌며, 경제,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비인격화될수록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은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라이프(e-life)에서 새로 만난 사이버 친구들과 접속은 얼굴을 직접 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자극할 것이며, 전자기기를 완비한 각자의 집이 전 세계로 연결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도전은 교회를 향하여 영성의 문제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피에르 바뎡의 정보화 시대의 영성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에서 영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정보화 시대의 영성은 다음과 같은 사고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에르 바뎡은 설명한다.

- ①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요구되는 교회 정신과 사명의 형태를 새신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과 변화 사이의 긴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청중의 기대를 부응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
- ② 교회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수용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목 위에서 다원화된 문화와 대화해야 한다. 여기서 다원주의적 대화란 쌍방이 평등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쌍방의 자유로운 결론을 인정하는 대화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 ③ 기독교 영성은 개인적 경험과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해 내며 자신이 경험한 삶의 의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의 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 ④ 영상 시대의 영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과 상징을 통하여 종교적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그림, 음악, 노래, 전례 및 시청각기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는 일은 매체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즐거움이라는 범주 속에 기독교의 뿌리를 심화시키는 일이다.

3) 영성 추구를 위한 교육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영성에 대한 추구가 정보화 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 되었다면 이를 위한 교육적 구성은 어떤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 ① 가장 우선적으로 영성 관련 정보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아울러 전담하여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해 갈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들을 업데이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서자료 및 좋은 책들 속에서 간추린 내용들, 예술자료들을 매일 매일 새롭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② 일반적인 영성 관련 자료들을 올려주는 이상의 다양한 음악, 미술, 생태 및 생명에 관한 묵상이 가능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이 영성수련에 있어서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김순현 목사의 카페인 “영혼의 오솔길”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나 매튜 파스와 같은 신학자들의 영성에 관한 논의의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그림 및 동화들을 제공함으로써 영성적 사고와 삶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③ 영성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색깔이나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감리교가 지향하는 신앙적 가치관 및 지향점을 이미지와 상징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사이버 공간의 만남뿐 아니라 정기적인 오프라인 공동체의 영성수련 기회를 가짐으로써 공동체적 신앙 형성 및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영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테마 영성수련, 이동 영성수련, 폐제 영성수련, 예술 공동체와 같은 유형의 영성수련이 대면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⑤ 관계적 삶을 위한 영성수련으로서 사회봉사와 참여를 지향하고 격려하는 감리교인 운동을 통해서 기도와 노동, 삶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영성수련이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 ‘긴급구조 활동’ 운동; 일상생활의 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food spirituality, 생명밥상 차리기 운동 연계; 생태적 감수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생태, 생명 영성수련회, 농어촌과 연계한 생명 농사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생명주일, 생태주일 반포, 광야체험 및 녹색 영성 추구 등; 통일과 평화를 위한 영성교육: 탈북 주민 및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및 선교 프로그램 등이 영성수련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발됨으로 개인적 차원의 영성수련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삶으로 연결되게 할 필요가 있다)

- ⑥ 웨슬리의 신앙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웨슬리의 삶 안에서 실천되었던 영성적 실천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웨슬리의 기도문 만들기(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단계별), “책만 읽어도” 운동의 구체화, 본부 차원의 도서 선정과 도서 소개 및 독서 장려를 위한 행사 실시, 가족 기도를 위한 기도문 배포 등의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인 차원의 활동과 아울러 감리교가 추구하는 웨슬리 영성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거시적 차원의 연구와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수도원의 영성생활을 연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교단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며, 감리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수도원 영성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부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감리교회 신앙교육의 과제 및 실천정책

웨슬리 영성은 감리교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실천 적용되어야 한다. 웨슬리 영성은 신학교육과 목회자 교육, 그리고 평신도지도자 양성에서 다양하게 반영되어 교육 실천되어야 한다.

1. 신학교육의 갱신

- ① 교과과정에 웨슬리 영성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이론과 실제)
- ②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학대학을 수도권공동체화

2. 정회원 연수교육

(1)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목회자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 ① 성경통독 : 성경의 기록된 연대를 따라 통독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과정(예/ 네비게이션 성경통독, 어 성경이 읽히지네, 성경의 파노라마 등)
- ② 귀납법적 성경연구학교: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각 권별로 각자가 연구하게 하여 성경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는 과정
- ③ 성경묵상 및 암송 : 매일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구절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새김하는 삶을 살게 한다.
- ④ 침묵기도훈련 : 구송기도 중심의 기도를 침묵기도를 통해서 기도생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게 한다.
- ⑤ 경건일기 쓰기 : 매일의 경건훈련을 일기를 통해 점검하고 성찰하게 한다.

[경건일기를 통한 경건훈련]

경건일기는 크게 아침기도와 말씀묵상, 그리고 저녁성찰기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쁜 생활들을 고려하여 기본형과 간편형으로 나누었다. 각자의 사정과 단계를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경건훈련은 실제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꾸준히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쉽게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때때로 거르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해 나간다면 좋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성실함일 것이다.

1. 아침기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도하되 일기로 쓰면서 하면 상투적인 기도를 피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① 찬양 - 가능한 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한다.
- ② 감사 - 조용히 마음에 떠올려주시는 것들을 고백한다.
- ③ 회개 - 기억되는 죄를 회개하고 혹 자백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성령님의 비추심을 구하며 잠잠히 더 나아간다.
- ④ 내어맡김 - 마음에 짐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하나님께 내어맡겨 드린다.
- ⑤ 도움간구 -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들을 적극적으로 간구한다.
- ⑥ 중보기도 - 기도 중에 생각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이들, 그리고 책임 있게 기도해야 할 이들을 위하여
- ⑦ 오늘의 봉사 - 오늘 하루를 지내며 내가 직접 해야 할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하여
- ⑧ 성령의 음성 - 아침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2. 말씀묵상

말씀묵상 시간은 아침기도에 이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따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묵상에는 다양한 방식과 전통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성서일과에 따른 한 구절 묵상법과 묵상구절 암송을 제안한다. 혹, 묵상을 못하는 경우라도 한 구절 암송은 하여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묵상구절(영문본문) 암송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된다.

- ① 본문쓰기 - 제시된 한 구절의 본문을 읽고 국문(가능하면 영문도)으로 옮겨 쓴다.
- ② 제목 - 묵상을 마치면서 묵상한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여 음미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한다.
- ③ 관찰하기 - 6하 원칙에 따라 본문을 관찰하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 ④ 주목하기 - 본문을 읽고 쓰고 관찰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목하게 하신 것을 기록한다. 깨닫게 하신 내용들도 기록한다.
- ⑤ 하나님의 행하신 일 -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어 기록한다.
- ⑥ 하나님의 성품 -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비추어 그분의 성품을 발견한다.
- ⑦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를 묵상한다.
- ⑧ 적용 -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내가 오늘 순종할 일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⑨ 기도 - 묵상한 내용들이 삶의 내용이 되도록 기도한다.

3. 저녁성찰기도

저녁성찰기도는 경건의 수련과 자비의 수련과 마감기도로 구성되는데,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의 마무리가 내일의 아침을 결정한다.

- ① 경건의 수련 - 아침기도, 말씀묵상, 성경읽기, 성경암송 등을 점검한다.
- ② 자비의 수련 - 경건의 수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자비의 수련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점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봉사를 점검하고 성화훈련을 위해 새로이 결단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중보기도 해야 할 제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 ③ 마감기도 - 하루를 전체적으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혹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려라.

4. 기타

- ① 성경통독 - 성경통독은 1년 1독이 바람직하며 성경이 기록된 시간 순서를 따라 읽는 1독, 교회력에 따른 1독, 맥체인식 1독 등 다양한 방법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② 성경연구 - 성경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귀납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 소그룹, 교회적인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교재는 별도의 안내가 필요함)
- ③ 학습 - 꾸준히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30분 이상 경건서적이나 영어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 ④ 소공동체 모임의 내용으로 활용하기 - 앞에서 제시한 말씀묵상과 암송과 경건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소그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리더의 역할은 겸손하게 경청하며 나눔을 규모있게 안내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면 될 것이다.
- ⑤ 중보기도 - 소그룹모임을 할 때, 나눔의 과정에서 제출된 기도제목이나 몫을 지어 담당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특정 선교지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중보하는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안내'를 따라하면 좋을 것이다.
- ⑥ 자녀를 위한 기도 - 개별적인 기도제목 외에 자녀들을 위한 일상적인 기도는 안내문에 따라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된다.

〈양식〉

(년 월 일 요일)

① 아침기도

찬양	
감사	
죄고백	
내어 맡김	
도움 간구	
중보 기도	
오늘의 봉사	
성령의 음성	

② 말씀묵상

본문	제목	
본 문 쓰 기		
관 찰 하 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 문장으로	

주 목 하 기	
------------------	--

③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적용	
기도	

④ 저녁성찰기도

경건의 수련	아침기도	
	말씀묵상	
	성경읽기	
	성구암송	
	성경연구	
	학습	
자비의 수련	오늘의 봉사	
	성화훈련을 위한 새로운 결단	
	중보기도 제목	
마감 기도		

- 목회자 속회 운영: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제로 공동체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목회자들부터 속회의 생명력과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목회자 속회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속회를 통해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가 경험되고 실천되게 한다. (지방별, 유형별, 관심별 등 실제적인 유용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편성)

(2) 웨슬리 영성의 현대적인 이해와 적용 개발훈련

-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 웨슬리신학의 기초 위에서 은혜와 깊은 교제를 경험케 하는 검증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봉사훈련과 개 교회주의를 넘어서는 연합과 양육을 경험하게 한다.
- ‘웨슬리 영성수양회’ : 앞의 글 제2부 영성수련의 실제에서 소개한 대로 한 주간의 기도, 학습,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영성회복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

(3) 목회적 차원에서 웨슬리 영성의 적용이론 개발

- 목회자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현장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준회원 교육

(1) 웨슬리 영성의 이해와 체험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엠마오 가는 길’

(2) 웨슬리 영성의 목회적 적용을 위한 실천적 교육 제공

- ‘웨슬리 영성수련 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웨슬리 영성수련원에서 공동체 교육

- 일정 기간 동안 ‘웨슬리 수도원 생활’ 을 경험케 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신도 지도자 양성

(1) 웨슬리 영성에 기초한 평신도지도자 양성

- ‘엠마오 가는 길’ 경험

(2) 장로고시와 진급 과정에 웨슬리 영성의 이론과 실재를 교육 및 훈련

- ‘웨슬리 영성수양회’ 경험

(3)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웨슬리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엠마오 가는 길’ 경험

(4)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 웨슬리 영성에 기초한 지도자 교육 및 훈련 실시
- ‘엠마오 가는 길’, ‘웨슬리 영성수양회’ 경험

(5) 속회공과 등에 웨슬리 영성에 기초한 개인영성 실천사항 등을 기재

5. 교회학교 지도자 양성

(1) 웨슬리 영성에 기초한 미래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웨슬리 영성수련 지도자 과정’

(2) 교사대학, 교사수련회에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웨슬리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6. 지방 및 연회 차원의 웨슬리 성회 갱신

(1) 현재 부흥회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웨슬리 성회를 웨슬리 영성훈련 과정으로 갱신
- ‘웨슬리 영성수양회’를 개체 교회 또는 지방회 단위로 경험

(2) 웨슬리 영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본부와 연회, 지방 차원에서 웨슬리 영성학교를 개설하여 규칙적으로 웨슬리 영성을 교육 훈련할 수 있는 훈련된 지도자 양성

제1분과

위원장 : 김진두

서기 : 전준구

위 원 : 김영민 엄마리 정용치 조은하 표석은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 교회 부흥정책

개요

2007년은 한국 기독교 대부흥 100주년의 해이다. 1903년 8월, 남감리회 하디 선교사의 원산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한국 교회 전체가 영적 대각성의 영향권에 존재하였다. 올해는 유난히 영적 각성과 부흥이란 주제로 한국 교회가 들떠 있었다. 이것은 지난 2천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주제가이며, 후렴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가 건강함을 노래하는 것은 지난 성장 시기에 양적 팽창과 함께 부정적인 면들도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숫자의 논리에 치우쳐 교회의 성장에 걸맞은 성숙함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은 쉽게 간과되었다. 교회 분쟁과 물량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교회 안팎에서 벌어진 수많은 갈등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진일보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저마다 교회의 건강도를 우려하였고, 교회 내부의 염려를 넘어 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제2분과의 주제는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 교회 부흥정책이다. 이러한 주제를 채택한 계기는 가파르게 성장하던 교회에 둔화와 쇠퇴의 조짐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가 모두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성장통이며 동시에 시대적 표징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결과였다. 이제 건강한 교회를 모색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성장과 사회봉사를 통한 교회 성숙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교회의 보편적 과제처럼 여기게 되었다.

제2분과는 요즘 우리 교회들의 고민을 담아냈다. 제1부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존 웨슬리의 경우를 끌어내어 현실에 적용시켜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 제2부 ‘건강한 교회 모델 연구’는 특별하고 대단한 예외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각별한 눈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세 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사례로 꼽았다.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남짓 묵화하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

시킨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 제3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위에서 다룬 이론과 실례를 근거하여 우리 시대에 건강한 목회와 교회상을 제시해 보았다.

존 웨슬리의 후예답게 감리교회다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장점과 강점을 살리려는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할 것이냐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1. 건강한 감리교회를 찾아서

초기 한국 감리교회의 눈물 나도록 감동 깊었던 연회 현장을 기억한다. 각 교회들의 성장 보고에 온 연회원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화답하고, 눈물로 파송기를 읽으며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갔던 그 감동을 오늘날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너무나없이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체성 없는 영성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인은 분명한 영성을 갖고 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구령열에 바탕을 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다. 때로 그에게 과격한 개혁적 발상들이 나왔지만 이는 그의 뜨거운 가슴 그리고 깊은 영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열정과 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다양한 선교적인 전략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웨슬리의 이러한 원리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오늘을 사는 감리교회의 과제요 사명일 것이다.

이 연구는 감리교장단기발전위원회 제2분과 과제를 위한 것으로 감리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감리교회가 지향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세우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감리교회의 개체 교회들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동안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성장 위주의 논리에 의해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 왔다는 것이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교회간의 적대적 경쟁주의, 개 교회 중심주의, 목회자 중심주의, 건물 중심의 교회 성장으로 인해 대 사회적인 신뢰와 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이고, 이 목적이 교회 전체의 균형을 지탱해 주는 교회이다. 또한 NCD(자연적 교회 성장)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여덟 가지 질적 특성들과 여섯 가지 생명체적 원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릭 워렌의 주장은 미국의 백인사회라는 상황적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고, NCD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교회만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감리교도로서 우리는 웨슬리가 시작한 초기 감리교회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 건강성을 비취

봐야 할 것이다. 17세기의 웨슬리 운동이 21세기의 한국 사회에 정확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웨슬리 운동이나 지금의 감리교회 신학과 교회구조가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바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형식의 규격화된 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이라는 큰 접근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델들을 세우는 것은 현장에서 씨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2. 감리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한국 교회 건강성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 우리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교의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웨슬리는 그 당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던 변화 주도적 인물이었다. 그의 정신을 가진 한국 감리교회 역시 변화를 통해 건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크게 다섯 가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해 본다.

1) 사명 중심의 교회(Mission-centered Church)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2004년 KBS와 여론조사기관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9.3%)이 한국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무분별한 성장제일주의와 개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사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위해 비복음적인 수단들까지 동원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시대적 요청

우리가 선교의 뜻으로 사용하는 ‘mission’이란 단어는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 사명(mission)은 상황(context)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상황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하

게 된다. 선교(mission)는 보낸 주체인 하나님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현장(context)과의 상황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선교는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상황 중심적이지도 않은, 개체 교회 중심적인 형태를 띠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체 교회가 편리한 대로 선교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다. 과정에서 수많은 선교자원들이 분산됨으로써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했고, 선교사역들이 경쟁적으로 중복 투자되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는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진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명에 대해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God's mission)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그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수직적인 차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사명의 고백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

둘째로,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섬겨야 할 세상(context)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명은 그 사명을 수행할 현장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현장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crying needs)에 집중한다. 그럴 때 교회는 성서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성육신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다리를 고쳐주셨으며, 5,000명을 먹이셨다.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집중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육간의 구원 - 총체적 구원을 이루셨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성육신한 교회는 섬겨야 할 세상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Mission-centered Church)이고,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세상에 열려 있는 교회이다.

1) 장성배, 《글로벌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서울: 성서연구사, 2001), 12-14쪽.

(2) 웨슬리 운동의 경우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다. 성공회가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허락한 데 반해 웨슬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거리와 탄광 등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나갔다. 이것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교회 중심적 선교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웨슬리의 은총론은 ‘복음적 신인협동설’로 설명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곧 인간의 선교적인 책임도 강조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에 응답하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그의 선행적 은총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여 그의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여 세상 속으로 나갔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할 수 있었다.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론은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소망과 힘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 안에서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²⁾

2) 세상으로 확장되는 교회(Extending Church)로!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행 8:4).

오늘날 불신자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자기교파,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 그리고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의 교세 확장이 복음의 순수성이나 거룩성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성장 지향적인 확장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며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1) 시대적 요청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이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은 개 교회주의적 성장, 모이는 구조만을 강조한 성장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마 28:18).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206-207쪽.

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행 1:8).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흠어지는 교회이다. 이는 교회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the people of God)이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다.

이러한 신학적 고백을 개체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건강한 교회는 세상으로 확장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의 방향을 크게 4개로 나뉘볼 수 있다. 그것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과 세계이다.

먼저 교회는 가정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선교와 사역의 장이다. 또한 교회는 직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체 교회들을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 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국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육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참된 희망이 될 것이다.

(2) 웨슬리 운동의 경우

웨슬리 운동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웨슬리의 주요 관심과 사역은 주로 제도적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그가 성공회 목사로서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의 주요 관심은 신성클럽(Holy Club)을 통한 성화와 사회봉사적 삶에 있었다. 후에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접촉을 통해 복음체험을 하고 봉사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후에도, 그의 관심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선행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웨슬리는 제도권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현장 중심의 선교를 감행해 나갔다. 웨슬리의 접근방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가서 그들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었다.³⁾

3) Theodore W. Jennings, Jr. *Good News to the Poo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pp.47-70.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는 거리에 나가 대중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체험과 영혼의 귀중함을 배웠다. 그들은 변했고,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그 안에서 훈련받고 성화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타고 순회전도여행을 하던 52년 동안 22만 5천 마일을 달리면서 5만 번의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다. 거의 50년 동안 웨슬리는 매년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캐슬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순회전도여행을 하였으며 매일 설교하고 가르쳤다.⁴⁾

그러나 웨슬리는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실제적인 사역들을 개발했다. 감리교인들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조직적으로 봉사와 구제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의류, 식량, 연료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했으며,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웨슬리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들 예를 들면 의료시설, 탁아소, 양로원, 고아원, 구빈원, 무료 진료소, 주일학교 등을 운영하였다.⁵⁾ 웨슬리의 선교본부였던 런던의 화운다리는 과부들을 위한 방직공장, 문맹소년들을 위한 학교, 극빈자들을 위한 병원, 가내공장, 직업소개소, 신용대부금고와 도서관 그리고 교회 등 다 목적으로 쓰였다. 그는 극빈환자를 위하여 243개의 병에 대한 752개의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⁶⁾ 또한 웨슬리는 제도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웨슬리는 전도의 열정과 실제적인 사회개혁을 묶은 본보기로서, 모이는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확장되는 선교를 감행한 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3) 다양성 속의 일체(Unity in Diversity)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다원화의 모습은 19세기 이후, 당시 사회 운영의 기본 틀인 상업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반성과 서구 문명 중심의 세계질서를 거부하면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시각, 관점, 태도가 생

4) Howard A. Snyder, *The Radical Wesle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0), pp.2-4.

5) 이원규, “한국 사회 계층 갈등과 웨슬리적 답변,” 세계신학연구원 편, 《상생신학》(서울: 조명문화사, 1992), 124-125쪽.

6) 변선환, “웨슬리와 민중,” 기독교대한감리회 편,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민중》(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1988), 66쪽.

겨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감리교회는 어떤 사회 인식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1) 시대적 요청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는 세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다원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사회의 변화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점차 많은 학자들이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지구화가 가속되는 것과 함께 지구는 더욱 국지적으로 나뉘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조건들이 상호 관계, 경쟁, 갈등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구는 하나의 정보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전통적 산업사회 전체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 정보화와 함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다원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 다원화된 사회를 인식하기 위해, 교회는 보다 상황 중심적이며, 사람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필요들이 생기게 된다. 한 사회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20세기 초 미국인의 평균 욕구는 전체 72가지 정도였는데, 그들 중 18가지가 필수불가결한 욕구였다. 그러나 50년 후인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욕구에 496가지가 기록되었고, 그중 96가지가 인간생활의 필수품목이 되었다고 한다.⁷⁾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부문에 걸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필수욕구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며, 신앙의 욕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과 욕구,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섬기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교회는 당연히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작은 교회들은 그들만이 감당할 영적 몫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는 중소형의 작은 조직들이 각자 독특한 기능을 감당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선회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를 조사 분석하고, 사역을 발굴하여 목회자 자신이 가진 개인적 성향과 특성, 성격 유형들과 접목시켜 그 지역에 그 교회만의 특화된 브랜드로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해야 한다.

대형 교회 역시도 그 안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는 다양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기존의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사역구조로 전환하여 그들의 역량을 세워주고, 다양한 공동체

7) J. R. Taylor, *God's miraculous plan of economy* (Nashville: Broadman press, 1975), p.126.

를 통해 교회 안에 소외된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각 지체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사회를 향한 다양한 섬김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격려하는 우리는 또 하나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일치의 문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치(Unity)와 획일화(Uniformity)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획일화된 형태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일치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비전 또는 사명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뤄가는 교회다.

(2) 웨슬리 운동의 경우

웨슬리 운동은 이러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뤄가는 좋은 모델이 된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조직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 핏필드 또한 많은 회심자들을 내었지만 웨슬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조직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은 데 있었다. 반면에 웨슬리는 작은 회심자의 무리만 생기면 속회로, 조로 조직을 했다. 이러한 조직의 관리야말로 웨슬리 교회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조직은 기성 교회의 중앙 집권적 조직이 아니었고 개방성과 역동성을 잃지 않으며 상황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였다. 뛰어난 조직가였던 웨슬리는 결코 큰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영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⁸⁾ 그는 순간적인 결단 보다는 결단 이후의 시간에 더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혁신 비결은 작은 모임(bands)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는 데 있었다. 즉 회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⁹⁾

그는 이러한 공동체를 다양한 성격으로 분리해서 조직했다. 작은 것은 ‘조’라는 모임에서부터 크게는 ‘연합 신도회’ (The United Society)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직된 모임들은 서로의 분량에 맞는 일을 맡아 행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그 외에도 웨슬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열린 구조들을 개발했다.

8) David Lowes Watson,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87), pp.67-91. 그의 조직은 영국의 Religious Societies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Moravian Bands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존재방식은 Ecclesiola in Ecclesia의 형태를 띠었다.

9) Howard A. Snyder, *The Radical Wesley*, pp.2-4.

10) 그 외에도 사회사업을 위한 많은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이원규, “웨슬리 전통과 사회운동,” 70-72쪽을 참고하라.

그러나 웨슬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성이 있었다. 특히 그는 항상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연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¹¹⁾

“나의 마음이 그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그런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만일 그렇다면 서로 약속하자. 의견이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파괴하지 말자.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대에게 우정의 오른손을 내놓는다.”¹²⁾

우리는 신앙의 소신이나 목회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유의사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조직 방법이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단순성과 경건한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신앙과 양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비록 그와 다른 신앙의 계보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편적 정신은 그의 보편적 교회관에 뿌리박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의 영과 하나의 소망과 한 분의 주님과 하나의 신앙과 한 분 하나님과 만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미신적 방법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쉽게 참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편적 교회 울타리 안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¹³⁾

이러한 웨슬리의 정신은 현재의 다양한 신앙노선들과 목회방법의 다양성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웨슬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뤄내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4)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통전적(Holistic)이란 어원적으로 전체적(whole)이라는 의미이다. 개체성을 무시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개체를 인정하는 총체로서의 통합을 뜻한다. 각기 다른 부분적인 사역을 무시하지 않고 그

11) 웨슬레사업회 편, 제2권, 122쪽.

12) 웨슬레사업회 편, 제9권, 41쪽.

13) 웨슬레사업회 편, 제9권, 56쪽.

자체를 인정하면서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선교관의 대립이 아닌 화합을 통한 선교관이 필요하다.

(1) 시대적 요청

지금까지 선교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져 왔다. 그 하나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표방하는 진보적 입장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복음주의로 대표되는 흐름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진보적(Ecumenical) 선교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되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교회-세상’이라는 도식 속에서 교회가 지녀 왔던 선교와 구원에 대한 전권이 ‘하나님-세상-교회’라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교하시는 현장에 교회는 도구로 참여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구원을 인간 복지(Human well-being) 또는 인간화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류의 현재적, 정치적, 구체적 삶과 직접 연관된다.

복음주의(Evangelical) 그룹이 주장하는 선교의 개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¹⁴⁾ 이러한 입장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성서 중심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성서가 영감의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기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주장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원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자들의 혼합주의나 만인구원론, 다원주의가 배격된다. 특히 교회가 갖고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긴박성 속에서 절실하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전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복주의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문화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발전된 일면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대립한 모양이었던 이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통전적(Holistic) 선교관이다. 진보적 흐름의 선교가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서로 올라가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복음주의 흐름은 성서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강점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두 흐름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총체적인 선교관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변혁 일면도를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사용되던 일반적인 복음전도(Evangelism)의 개념이 총체적 변화(Total Transformation)의 개념으로

14)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서울: 성광문화사, 1991), 46-133쪽.

바뀌게 되는 것이다.

개 교회가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정책을 세울 때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러면 단순한 지역 복음전도의 사명을 뛰어넘어 총체적인 선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②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풍족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③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④ 진정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⑤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조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가? ⑥ 그 결과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웨슬리 운동의 경우

웨슬리는 통전적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 그는 ‘복음주의자,’ ‘경건주의자’ 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가’ 이기도 했다. 그가 원했던 개혁은 기독교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변혁이었다. 그는 하나님 외엔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온건 개량주의자’ 였다. 즉 체제 내에서의 변형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영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¹⁵⁾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직시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신앙의 쇄신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의 변혁은 또다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급진적 체제 변화보다는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를 택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간의 개조와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이였다. 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 상극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조화관계를 추구했던 것이다.¹⁶⁾ 이러한 그의 운동은 후에 하나의 교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의도한 것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의 활동 결과가 되었다.

실로 그의 신학과 선교운동은 신앙과 행위,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앞으로 웨슬리의 선교신학은 복음주의적 입장과 에큐메니칼적 입장의 화합에 있어서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세계에 대한 내용과 의도를 성실하게 삶과 신앙과 증거를 근본적 특징으로 삼은 것은 적어도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는 18세기의 웨슬리 운동이다. 주창자인 요한 웨슬리(John Wesley)의 지

15) 이원규, “한국 사회 계층 갈등과 웨슬리적 답변,” 121쪽.

16) 김외식, “웨슬리의 목회와 상생의 영성,” 《상생신학》, 195-207쪽.

도와 영감 속에서 초대 감리교도들은 복음에 관한 통전적 개념과 세계에 관한 통전적 관점에 따라 선교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신앙과 노동,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관심, 복음화, 친교, 예배와 봉사(diakonia)를 통전시켰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통전적 세계의 관점에서 그의 목회적 선교를 정의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¹⁷⁾

5) 선교권 구조(Zonal Structure)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교회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역시 건강함을 잃어버린 채 개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신자가 새로이 전도되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교회 간의 수평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사실도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1) 시대적 요청

Zonal Structure란 선교를 개 교회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접근하자는 제안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교회 중심적이었다. 선교는 영혼들을 사회로부터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문제(Coming-Structure)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중심적인 선교는 개인주의적이며 분파주의적인 교회 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선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즉 개체 교회의 그것보다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선교권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교회다.

우리가 지역(Zone)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신학적 개념들이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된다. 또한 선교의 대상을 지역적 구조 안에서 이해할 때, 인간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통전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들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 지역 안의 교회들은 서로 다른 사역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저마다 특징 있는 선교의 영역이 개발되어 있고, 노하우들이 있을 때, 교회들의 연합은 다차원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똑같은 성격을 지녔을 때는 큰 교회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독특한 사

17) O. E. 코스타스, 《성문 밖의 그리스도》, 김승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78쪽.

역들을 감당하는 작은 선교적 교회들은 어느 큰 교회들도 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대등한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직 자립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도 협력체제 안에서 작지만 자신들의 일을 담당함으로써 그 특별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은 함께 지역을 분석하고, 하나님나라의 빛에 비추어서 지역을 변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합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의 교회들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과도 공동전선을 펴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¹⁸⁾

(2) 감리교 전통의 경우

감사하게도 감리교회에는 ‘지방회’와 ‘연회’라고 하는 지역(Zone) 중심의 단위가 존재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감리교회가 한국 교회에 기여하도록 부여하신 소중한 강점이다. 감리교회는 이러한 단위를 통해 각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묻고, 지역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함께 연대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호남, 제주, 영남선교대회를 통해 감리교회 선교권 구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개발되고 발전되어 지역을 향한, 세상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본 분과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가능한 다양한 목회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 다섯 가지 제안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가 통합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지역 교회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역과 지역 안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18) The Western European Working Group and North American Working Group of the Department on Studies in Evangelism, *The Church for Others*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7), pp.30-33.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교회론에 입각하여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즉 성경적, 역사-전통적, 그리고 상황적인 근거들에 비추어 다만 제한적으로만 논할 수 있다. 성경적이란, 성경의 본문에 근거하여 교회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추론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과 원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록 성경 본문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를지라도 하나의 통전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역사와 신학의 전통적 근거들에 입각한 건강한 교회란, 지나온 교회의 역사적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 경험의 종합과 이로 인하여 구체화된 신학의 전통에 따라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역사와 전통에 기인하기에 대부분이 교리 등으로 수용되어 현실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수월하기는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인간의 상황이 반영되었을 경우 성경에 근거한 원리보다는 그 절대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건강과 이것이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된 교회의 건강은 역사 속에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 다음 세대에 전승되고 다시 이 전통은 성경과 함께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귀중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적이라 함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건강에 대한 것으로 성경의 원리와 전통의 원리의 계속적 연관성과 함께 현실에 맞추어 다시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정당화시켜주거나, 교회의 불변하는 원칙을 성경과 전통으로부터 확인하고 변화의 한계를 확인하여 준다. 왜냐하면 선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응답이고 여기서 생겨나는 사명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위의 세 가지 교회론에 입각한 정의는, 이 모든 것들은 순서적이나 체계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면서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교회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먼저,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틀(예수에게로부터 근원이 되는 건강한 교회)을 찾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웨슬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는가)를 검증하여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역사신학, 조직신학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론)을 정립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다른 시대적 조건과 상황(한국 감리교회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오늘날의 입장 정리)에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감리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 본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하기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을 만든다거나, 전통 속에서의 건강을 이

론적으로 정립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려는 목적보다는 실제적으로 오늘 한국 감리교회에서 너와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교회의 건강성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이기에 성경적 또는 전통적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건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한 교회의 건강성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란 건강이라는 개념이 그렇듯이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통해 얼마나 더 건강할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 교회와의 비율 가운데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수긍할 만한 그런 절대적 가치로서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교회가 개척하여 약 6개월이 지나 40평 정도의 임대 건물에 40명 정도의 교인들과 1명의 전임 사역자, 그리고 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물론 한 명의 전임 사역자가 생활하고 월세와 교회를 유지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어 개척 교회치고는 경제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을 제자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는 또 증가하는 교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역자가 한 두 명 더 필요하고, 공간도 더 필요하다.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 진행하자면 사역자와 예산,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교인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건강치 못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30명 남짓한 교인들이 친인척 관계로 뭉어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연합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모든 일이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에서 결정되어 교회 공동체로서 친인척 이외의 사람들을 포함하기가 힘든 건강치 못한 구조로 발전하기도 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개척 후 10여 명의 새 신자를 전도하였다지만 기존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분리하여 본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같은 장소를 임대하여 개척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만일 이러한 교회의 상태가 한 10년 정도 지속된다면 그때는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 교인 수, 새 신자 증가, 예산, 교인 구성, 교회 공간, 개척 동기, 목회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강성을 말하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¹⁾

그런가 하면 그리 적지 않은 수의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늘어나는 교인 수를 자랑하며, 교인들이 목사의 말에 따라 불가능한 건축이나 해외 선교, 그리고 거대한 행사 등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낸다면 과연 이런 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목사의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교인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커다란 교회 내 부대 시설이 갖추어지고, 열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교회

1) 이 교회는 2005년 2월 개척된 서울남연회의 “SU” 교회로 실제 상황을 전제한 이야기다.

성장의 좋은 모델들로 여겨지고 있는 대부분의 초대형 교회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러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일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세습에 대한 시시비비로 세간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거론된다면 과연 이러한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전체를 건강치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 정말로 난감한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상황에 근거한 교회의 건강성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인가? 특히 요즘처럼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병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전체 교회의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교회의 건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병 들었다’는 말은 ‘더 이상 건강치가 못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어떤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면에서 ‘어떤 상태’로서의 건강한 교회에 관하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어떤 상태’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가 여기서 신학적 규정으로서 건강한 교회의 이론을 펼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현장을 전제한 사례들을 통하여 ‘이런 교회’의 ‘이런 상태’가 건강하다 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좀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가 밝히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듯 성장하는 교회의 기본을 열거하고 그것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는 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건강이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요인들을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통하여서만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몸말

1) 건강한 교회에 관하여 언급한다는 것의 한계로서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건강’

우리는 교회의 건강에 대하여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건강인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 당시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허덕이던 갈릴리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건강과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변화한 도시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변영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헬라의 도시들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그들의 건강성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 시대에 친일 행위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늘어나서 칭송을 받는 교회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록 부자 간에 승계한 교회지만, 후임자가 목회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장하는 교회의 건강성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하루하루 노동을 하여야만 먹고 사는 가난한 교인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오랫동안 수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장애인이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의 건강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교회의 건강성은 절대로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다. 또한 어느 교회가 병든 교회의 온갖 불의와 폭력 속에 마침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냈다면, 한 사람의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는 것처럼, 지나간 교회의 건강치 못한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의 건강만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의 건강성이나 전체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기에, 또 어떤 요인들에서만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한 교회의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항상 상대적으로, 즉 ‘어떤 한 교회’의 ‘어떤 한 건강’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연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를 선정하였고, 또 문제가 제기된 교회는 제외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의 건강을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상태’나 ‘어떤 면’을 의미하는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²⁾

2) 건강한 교회의 모델들: ‘이런 교회’의 ‘이런 건강’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른 유형의 ‘어떤 교회’의 ‘어떤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교회의 건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모델’과 ‘원리’의 혼동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강한 하나의 교회만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교회는 ‘이렇게 하여’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했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리’라는 것은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델들을 여럿 연구하였을 때, 종합적이고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로서, 대부분의 교회의 건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강한 교회의 원리가 아닌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의 개별적인 모델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³⁾

(1) K-P교회⁴⁾ (인격적인 목회자의 개척과 성장에서의 건강한 교회)

K-P교회는 SU 목사가 88년 10월 말, 85년 개척한 전임자가 유학을 가게 된 빈자리를 대신하여,

-
- 2) 여기에서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모델로 소개된 교회들은 그간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건강한 목회 연구소’(건목연, 이사장 류자형 목사)에서 그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교회들임을 밝혀둔다.
 - 3) 이러한 원리와 모델에 관한 구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연적 교회 성장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크리스찬 슈바르츠(Christian Schwartz)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4)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회의 실례를 소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해당 교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구체적 실명이 거론되었을 경우 해당 교회와 교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본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교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교인 한 명 없이 지하 18평에서 시작한 교회로, 2007년 9월 현재 약 700명의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교회는 그간 세 번의 건축을 하였는데, 2004년 세 번째 지은 교회는 일반 다른 건축물과 경쟁하여 평택시가 수여한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라는 건축상을 받았다. 지역 어린이도서관을 최고의 설비로 개관하였고, 지하와 지상 1층뿐인 교회 본당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지역에 갑자기 많아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 인도네시아인 선교사를 전액 교회가 지원하여 국내에서의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다. 비기독교 가정에서 신학을 하고 의지할 인맥도 경제적 여유도 없이 열달 동안 뛰어나다니며 시도했던 개척이 좌절되었던 SU 목사가, 우연한 기회에 교인 한 명 없는 개척과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한 목회자 자신이 목숨을 건 성실한 목회를 통하여 오늘과 같이 건강한 목회자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서 목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럼 SU 목사의 인격적 목회가 드러나는 몇 가지 이야깃거리를 소개해 보자:

SU 목사는 개척 초기, 사람이 오지 않아 할 일이 없을 때, 밤 12시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새벽기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밤 새워 작정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SU 목사에게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환상에 따라 첫 교인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 가정이 더 교회에 오자, 그들에게 “일년간만 나와 성경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기회를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겨우 동의를 얻어내고는 그 사람들과 매일 저녁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4시간씩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그들이 일년 만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SU 목사의 목회 가능성이 열렸다고 한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 교회의 수적 성장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교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촌이 들어선 것이다. 매주일 주일예배가 새로운 신자로 넘쳐나기 시작할 때, SU 목사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전도 중지’를 권고하였다. 아파트 상가에 40-50개의 개척 교회가 한꺼번에 들어와, 다들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도 중인데, 건물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기 교회가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다 예수를 전하는 분들인데…… 결국 교회는 노방전도를 그만두고 아파트 단지 안에 화단을 가꾸는 봉사로 선교를 대신하였다 한다.

SU 목사는 후배들에게 절대로 교회 유치원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유는 교회가 사회에 봉사를 하려면 다른 곳보다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작은 교회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SU 목사 스스로도 유치원을 하면서 목사가 하루 종일 차량 운전만 하고 원생들 먹이느라 자기가 굶어죽을 뻔했다고 한다. 그러나 SU 목사의 헌신적인 유치원 봉사와 관리 덕분에 그 지역에서 소문난 유치원이 되었고 그것은 곧바로 교회의 좋은 이미지로 이어

저 선교에 도움이 되었다 한다.

SU 목사의 남다른 목회 행보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건물보다도 사람이 들어가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대지(자연)가 조화를 이룬 쉽고 편안함이 있는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SU 목사는 통상적인 교회 건축이 돈이 없어 너무나 경제적으로 싸게 지으려는 것과, 교회를 예배 위주로만 생각하여 짓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와,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신학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아예 교회 건축을 경험해보지 못한 건축사에게 창의성을 살리는 건축을 의뢰하였다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SU 목사는 의도적으로 성장 지향적으로 교회를 짓지 않았고, 두 번의 건축을 통하여 아쉽게 느낀 것을 실천에 옮겨 교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서 큰 무리 없이 교회를 짓기로 하였다.

이렇게 목회에 있어서 철저한 신학에 근거한 실천을 중시한 SU 목사는 자기 교회만의 성장이 아닌 지역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에 관한 신학이 분명했기에, 목회 내내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 와서 등록하기 원하면, 오히려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에게 연락하여 잘 달래서 모셔가라고 하고, 지금도 자기 교인이 이사를 가면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는 그 지역의 교회에 다니라고 권고를 한다. 지난번에 이 교회를 방문한 학생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주중인데도 교회에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

K-P교회의 건강한 성장이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 교회가 오늘까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① SU 목사는 목회에 있어 영적 체험을 절대적인 요소로 중요시한다. 종교는 초월자에 대한 자기 체험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을 만하게 제의(비슷하거나 같은 체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와 방식)와 교리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이해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그가 소개하는 개척 초기 마귀와의 환상이나 교회 건축할 때의 기도 응답으로서의 환상, 그리고 목회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말이 SU 목사의 영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② SU 목사의 목회는 성스럽고 세상과 구별되는 최고 의식으로서의 건강성이 있다. 이는 교인을 최고로 여기는 그의 목회적 삶과도 일치한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세상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가 아니면 세상이 하게 하고 교회가 하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 섬김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이름이 설명하듯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목회자가 봉사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기쁘지 않은 교회는 교인들도 기쁘지 않다고 말한다. 교인들은 죽도록 일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으려고, 목사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SU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의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교인들이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자기의 은사에 따라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 신바람이 나서 봉사를 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SU 목사는 이러한 교인들에 대하여 목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섬김은 준비된 설교라고 한다. 마치 주부가 따뜻한 밥, 맛있는 밥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듯,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자신이 감동 받아서 설교하는 설교가 될 때까지, 밥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하기에, 새벽기도 시간 15분 설교를 위해 가끔 밥을 지새우며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다.

- ③ SU 목사의 목회는 교인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연계적인 교육을 통한 장기목회가 준비되었다. 처음 목회 시절 밥을 새우며 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한 성경공부가 크로스웨이 성경공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이 계속적인 성경공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SU 목사는 비전문가로서 목회자가 성경공부 교안을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이미 현장에서 인정받은 교재를 자기 교회와 교인들에게 맞추어 편집, 수정 보완하는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교인들의 눈높이와 성장에 따라 계속적이며 연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 건강한 교회의 원인이라고 판단 된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에 3-4시간씩 제자 교육을 하는 K-P교회의 전통은 교회를 이루는 봉사자들에게 담임목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 ④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좋은 입소문이 많듯이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교회를 이루어간다. 아직도 주일 오후예배 등에 담임목사가 기타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부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가면 잔디와 나무 그늘이 있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웃음짓는 교인의 미소에서 우리는 K-P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 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SU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다. 자신은 그런 겉모습 덕택에 교인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어서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이용할 줄 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관리를 중요시한다. 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쉼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외부 모임을 사양하고 교회에서 머문다고 한다. 휴가 기간도 교회에 머물면서 쉰다. SU 목사에게는 자기의 목회와 교인들을 위하여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는 건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 참고서를 다 섭렵할 정도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안 해도 되고, 자기가 못 해도 되는 일은 절대로 뛰어들지 않는다. SU 목사는 일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중요시한다.

- ⑥ 올바른, 정도를 지킨다. 그는 목회 초기에 K-P교회 임원 공천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 때문 그 근거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번 지키기로 한 원칙이기에 괴로워도 지켜 나간다. 예를 들어 그 해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과락이 되고 그러면 누구도 장로가 될 수 없다. SU 목사는 목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교인들과 함께 지키기로 한 분명한 기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 의하여 직분자가 선출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말 당회 때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는가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며, 건강한 규칙을 심사 숙고하여 만들고 그 만든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얻어지는 건강한 교회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목회자로서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SU 목사가 “교역자가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 모습(성장)의 기초이다”라고 말하면서 목회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부탁의 말이다:⁵⁾

- 목회자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이다. 욕심은 버리되 열심은 더 사모하라. 셋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유혹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삼가라(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지역의 교회들은 같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커져야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 비록 전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지만 ‘먹느냐 먹히느냐’의 ‘교인 쟁탈전’에 빠지지 말고 나의 욕심을 버려라.
- 목회자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개척은 불가능하다. 교회는

5) 본인은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손 목사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변하지 않고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적어 본 것이다.

목회자의 것이 아니다. 교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인을 목사의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이상과 같은 SU 목사의 말들을 학생들과 함께 들으면서 결코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는 것은 그 말을 SU 목사가 하기 때문이라. SU 목사의 인격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말이기 때문이다. SU 목사는 인격이 잘 갖추어진 목회자다. SU 목사에게는 그런 면에서 '앞서서 먼저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오도록 하는 힘을 가진 리더십(Leadership)을 갖춘 목회자'라는 말보다는, '덕(德)을 갖춘 군자(君子),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고루 갖춘 지도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자신이 가진 개인적이거나 주변적인 요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목회가 사명이기에 개척을 시작하였고, 순간 순간 준비가 되지 않고 처음 겪는 어려운 일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철저하게 교인들 위주로 그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오늘도 가진 것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최전방에서 몸바쳐 일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그 후보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른 인격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날 공신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건강한 목회자라고 평가된다. 건강한 이성과 윤리적인 의식을 가진 한 목회자가 때론 건강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조차도 건강성을 유지한 모습,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교회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더 이상 교인 수가 늘어난다면, 교회를 늘려서 짓기보다는 다른 목회자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교인들까지 떼어 주어, 분리 개척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교인을 떼어 주려면 절대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정말 준비된 목회자, 자기의 양을 위해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는 목회자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SU 목사의 이야기는 한 교회의 몸집만 불리는 끝 없는 성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풍토에 경종을 울리며, 자기 교회 성장만이 아닌 지역과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한 교회가 자기 개체 번식을 통한 영원한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마저 갖게 한다. 이러한 SU 목사의 목회에 대한 건강한 의식은 성실하게 목회하며 실력을 갖춘 목회 후보자들에게 소망을 줌과 동시에, 기존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건강한 길을 제시한다 하겠다.

(2) E-S교회 (지역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

E-S교회는 SK 목사가 1990년 도시 변두리 공단 지역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30평 남짓한 상가에 개척을 하여, 16년이 지난 2006년 250명 정도의 교인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봉헌하여, 현재 예배 출석 인원이 장년 기준으로 180여 명, 교회 예산 2억 원 정도의 교회이다. 1979년 신학을 시작하여 불의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신학 수업보다는 사회운동의 이론에 더 관심 갖고 민주화 운동

에 앞장서서 사회 변혁운동을 몸으로 실천하다가 감옥까지도 갔었던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사역이기에 더욱 관심이 간다. 노동자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공장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SK 목사는 어느 날, 인천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장 주변의 수출 4공단, 공단 외곽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이것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E-S교회의 시작이었다. 처음에 갈산동에서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근처에 1,500 세대의 서민을 위한 영구주택이 세워지게 되자, 평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SK 목사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처음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15명 나오던 교인들이 3개월 만에 1명만 남고 모두 다 떠나버리게 되자 자신의 목회에 커다란 절망을 맛보았다. 그런 SK 목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진단해 보자.

이 교회는 사회봉사를 철저하게 실천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는 교회다. 교인들의 30%가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의 30%를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하여 투자한다. E-S교회는 노방전도와 같은 직접적인 전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SK 목사는 교인이 몇 명 나오느냐를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교회가 봉사하는가에 더 관심을 쏟는다.

SK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늘까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가 변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오는 기술이 탁월하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일하는 모습은 교회가 해 온 그간의 다음의 일들 속에서 볼 수가 있다.

- ① SK 목사는 교회 개척을 한 후에 제일 먼저 공장지역의 맞벌이 아동들을 위해서 ‘서로사랑선교원’ (공부방)을 시작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이고 별이가 넉넉지 않아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사설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길 때는 월 13만 원을 주어야 하던 것을, ‘서로사랑선교원’ 을 통해서 반값인 6만 5천 원을 받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5년 정도 사역을 지속하였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법’ 이 새로 생겨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아무 곳이나 쓰지 못하게 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공부방 중심의 선교원을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새롭게 운영을 하는데, 마침 구청에서 새로운 ‘어린이집 법’ 에 따라 좀 규모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마련하고 이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

할 단체를 찾고 있다. 이때 SK 목사는 그 시설을 교회가 위탁 받아서 좀더 전문적인 선교를 펼쳐볼 기회라고 여기고 지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YMCA, YWCA, 대형 교회 및 불교계에서까지 무려 여덟 군데에서 이 어린이집을 위탁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경쟁하였으나, 인천에서 최초로 장애아와 일반인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체계에 대한 사업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었던 E-S교회가 위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이웃사랑어린이집’을 97년에 위탁 받아서 장애아동, 다운증후군, 자폐아와 일반아동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시도를 하여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 반에 장애아동 2-3명과 일반아동 20여 명을 통합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어 특수교사 5명, 일반교사 10명으로 일반 전문시설에서도 어려운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장애아가 일반인과 함께 공부함으로 인해 서로간에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효과를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 근거하여 추구한 것으로 요즘은 이러한 E-S교회의 어린이집 모델이 다른 일반 어린이집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회 봉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② 1997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시작된 결식아동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했을 때, SK 목사는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결식아동급식과 공부방을 시작했다. 교회를 이전 하면서 갈산동에서 혜택을 받던 어린이들을 버스 3-4정거장,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 삼산동에 데려올 수 없어서 지금은 그 장소에 공부방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일에 감신대 동아리 중에 빈민아동을 돕는 ‘도시빈민선교회’와 ‘노동과 예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나, 노무현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법을 제도화하여 지금은 아이들 밥 먹이는 것과 운영비를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교회가 직접하고 있다(매달 280여만 원 정도 정부 지원).

③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E-S교회의 이웃사랑나눔회에서는 홀몸 노인들, 만성질병에 고생하는 노인들, 장애노인들을 돕고 있다. 직접 의료방문도 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약을 타다 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을 하고 있다. 1년 전부터는 ‘요구르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노인들을 돕다 보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시키게 하여 요구르트가 쌓이면 교회로 바로 연락하도록 하여 미연에 큰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요구르트 사업이다.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여도 매일 요구르트를 통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기에, 한 가정이 한 달에 5,000원을 내어 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있다.

④ 3년 전부터는 ‘이웃사랑발달센터’를 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이웃사랑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받다가 졸업하게 되면 그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교회 근처에 빌라를 얻어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통합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설기관보다는 싸고 복지관보다는 비싼 중간 정도의 비용이다. 지금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40여 명 된다. 이들은 이곳에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해 치료받고 있다.

⑤ E-S교회는 도시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품앗이 운동, 즉 이웃사랑 품앗이 통장을 통해 교인들과 도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83년도 캐나다에서 시작한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을 교회에 도입한 것으로, 대전의 한밭 레츠, 송파 품앗이,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등 봉사를 통해 필요할 때, 서로 봉사료 빚지고 또 사랑의 봉사료 빚을 갚게 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화폐 없이 ‘인간의 얼굴’이 화폐가 되어 서로 사랑의 봉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운동의 모색이다.

⑥ 요즘은 나눔 장터를 시작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이미 두 차례를 개최하였는데, 교회와 지역이 교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장터를 여는 것이다. 교회가 주관이 되어 모든 시설과 설치를 책임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좌판을 벌여서 서로 나누는 장터이다.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생활을 정착시키는 목적이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말한 목회자의 차별된 거룩한 삶과 신학이 그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SK 목사 말대로 ‘이미지 미션’ (Image Mission) 때 문이다.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비록 상가교회고 볼품 없어도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SK 목사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분명하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헌금의 10%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간 교인들이나, 다른 교회(부흥회를 간 교회 등) 교인들(가정방문, 의료심방, 봉사하던 학생 등)이 낸 헌금이다. 교인들이 이러한 자부심에서 스스로 교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껴 더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봉사에 대한 교회의 틀이 지역 내 봉사만이 아닌 교인들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SK 목사가 지켜본 바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삶의 고통을 알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교회 나눔회 회장은 10년째 주부습진 때문에 고생하며, “하나님께 봉사할 테니 낮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홀몸

노인 돕기 봉사를 하는 중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교인들이 봉사를 하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을 혼자 하기보다는 지역의 건강한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루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 독거노인을 돕는 일에 푸드뱅크(food bank)와 함께 한다. 공부방을 하여도 지역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하고, 어린이집과 발달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일단은 교회가 지역의 필요에 먼저 뛰어든더라도 사업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나 회원의 후원을 얻어 함께 참여를 이끌어낸다. 매번 지역의 거리를 청소하면서도 일부러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공받음으로써 그들의 실적을 올려주며 함께 참여하여 서로 감사하는 일로 만든다.

SK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처음 목회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자신이 목회하면 반겨줄 줄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그 역경을 믿음 안에서 해결한 것이다. 부흥회, 부흥사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그가 '부흥사'(물론 좀 다른 의미지만)를 자처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훈련에 참가하여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 받고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은 목회자를 영적인 문제의 치유자로 손을 내밀고 바라보는데, 이러한 면이 목회자로서 자신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먼저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SK 목사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인터뷰한 교인들은 SK 목사가 그들에게는 상담사 같고, 오빠와 형님 같다고 한다. SK 목사가 권위를 부리지 않고 설교할 때 자기 가정의 부끄러운 면, 자신의 상처까지도 스스로 없이 내보이면서,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되는 목사로 다가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권위로 포장된 담임목사의 길을 버리고, 실력과 사랑으로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한번은 이 교회의 신학생이 교회에서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치우려고 할 때, 목사가 절대로 치우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당신이 치우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K 목사가 그 개는 자기 개이고 자기의 일이라며 전도사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다. 그 후로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

여러 가지 면에서 SK 목사의 목회는 21세기 한국 감리교회가 치중해야 할 지역을 섬기는 사회복지 목회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선교 초기 시절,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전도에 치중하며, 교회 스스로가 살아 남기 위하여 혹여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사회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마음은 있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E-S교회의 모델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돕되, 관할 지역의

관이 함께 도와서 정책과 지원이 따라 상시적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지목회의 사역은 그런 면에서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제자화하여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사역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3) G-C 교회 (지역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을 29장을 쓰겠다는 교회가 있다.⁶⁾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꿈이 있는 전원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음악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로 주변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김포시의 외진 자락에 PJ 목사가 목양하는 G-C교회가 있다.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좇아서 호기심에 9시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감격하여 11시예배, 그리고 오후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돌아왔던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다.

서울에서 강화로 가는 국도에서 김포로 들어서는 초입에 있는 고촌마을의 끝 쪽에 즐비한 연립 주택 단지를 빠져나가 포장된 길이 없어지면서 산과 만나는 지점에 교회가 있었다. 약 20대 가량의 차들이 들어설 만한 주차 공간을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두 동 놓여 있고, 오른쪽으로 산기슭에 산을 등지고 마을을 향하여 약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얀색의 예배당이 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회의 인상은 하얀 예배당의 몸체와 고깔을 씌운 듯한 원통형 모양의 파란색 유리로 두른 두 개의 입구, 그리고 예배당 앞 쪽으로 높게 치솟아 올라 파란 모자를 살짝 올려 쓰고 있는 듯한 교회의 외형은 무엇인가 깊은 뜻을 담고 지어진 교회임을 짐작하게 한다. 입구는 들어오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파란 유리로 만들었으며, 고깔을 씌운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호롱불 밝히던 것을 상징하는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얀 색은 백의민족의 순수한 상징과 화려하지 않고 청빈한 교회의 모습을 담고, 가장 높은 곳은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되는 통로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한다.

당시에 약 20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아치형 지붕을 두고, 지붕이 높은 1층 예배당에 들어서면 특이한 실내장식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종이로 만든 관(두루마리 휴지 속에 있는 속이 빈 원통형의 종이 관보다 더 딱딱하고 큰 형식)을 이어서 벽과 천장의 실내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온과 방음효과 그리고 검소하고 투박한 인상을 준다. 교회의 내부는 제단 앞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커튼을 걷으면 밖의 산을 직접 보면서 자연 채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회 건축

6) 이 교회는 실제로 주보에 교회의 목표로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라고 크게 제목을 붙여두고 홈페이지도 www.acts29.or.kr라고 하였다.

은 자연, 환경친화적 건물이 되도록 설계를 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조건을 살리기 위해서 2층 예배실 강단 중앙 뒷면은 유리로 해서 커튼을 열면 언제든지 주변 산이 보이고, 1층 교육관은 사면을 전부 유리로 해서 어느 곳에서도 밖의 자연환경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 PJ 목사의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양식은 돈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보다는 구석구석 정성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미 5년이 지난 2002년, 본인이 직접 G-C감리교회를 방문하여 쓴 이야기다. 그때 당시 ‘무엇이 1984년 고촌이라는 서울의 외진 시골에 세워진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되게 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시간만 흘렀을 뿐, 항상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의 현 모습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소개하고 그것과 건강한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G-C교회는 1984년 수기지역의 다락방을 빌려서 시작되었는데, 1988년 2대 부임자로 PJ 전도사가 올 때까지 뚜렷한 성장이 없는 교인 8명의 미자립교회였다. 그러나 PJ 목사가 목회한 지 3년 만인 91년 4월 교회부지 53평을 1억 6백만 원에 구입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고, 마침내 1995년 3월 300평의 새로운 교회부지를 구입하여 1999년 12월 입당예배(건축비 3억 원)를 드렸다. 현재는 김포 신도시 계획으로 교회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교회 자리를 내어주고 대신 단지 안에 종교부지를 얻어 김포시에 오케스트라가 공연할 수 있는 아트 센터 형식의 교회를 2008년 8월 예정으로 2007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주일 출석 400명, 공사비 총 60억 이상을 들여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가치와 코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G-C교회는 홈페이지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궁금한 모든 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다” 할 정도로 치중하는 사역이 홈페이지 관리이다. 거의 매일, 그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된다. 특별히 PJ 목사의 오전 심방이 몇 시간 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이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방문자들의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PJ 목사님의 답신이 올라오고 상황에 따라 전화까지 한다고 하니 그 대단한 열심을 알 만하다. 홈페이지가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주로 간단한 소식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많다. 교인들의 편에서 보면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각 부서의 방들이 따로 있고, 교인 사업체 소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신앙상담, 행사 기록과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행사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사람들이 둘러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 또 교회가 하는 문화교실 정보, 그리고 음악감상 코너도 마련되었다. 홈페이지 사역은 문화적으

로 앞서가려는 PJ 목사의 의지가 반영된 사역으로 PJ 목사는 이러한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현재 감리교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능한 젊은 부목사를 스카우트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중요한 사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G-C교회가 문화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지만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면서 도심 지역의 교회에 식상해 있는 교인들을 전원 교회로 인도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들과 같은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하겠다. 실제로 교회의 인원 구성은 40대 전후가 주를 이루고 있고,⁷⁾ 50% 이상이 고촌 지역을 벗어난 서울 지역에 살면서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과 만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접촉이 좋은 수단이 된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지향하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대상이 인터넷과 만나는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⁸⁾ 이 말의 의미는 이 교회가 인터넷을 중요한 전도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를 계속 올릴 만큼 부지런한 교회로 다채로운 행사와 이야깃거리가 많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면서도 일을 이루어나가는 규모는 큰 교회 못지않게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 달에 한 번 중견 음악가를 초청하거나 음악단체를 초대하여 지역 음악회를 벌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축제를 벌이고, 지역봉사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 교회의 목사는 세상에 알리고 싶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많은 목회자이다. 이 교회는 스스로가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도 쓰이기를,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소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교회는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있고, 매년 김포시민을 위한 음악 축제인 예사제를 벌이고,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수화찬양교실’을 열고, 부활절마다 ‘계란 십자가 콘서트’를 열어 일반 방송사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올해 여름은 미국 순회공연을 다녀오고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는 등 작은 교회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해내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인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 구체적인 문화선교의 예를 들어보자:

- 예사제(예수사랑, 이웃사랑 축제): 예사제는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10년 전 처음 시작하였다. 복

7) 실제로 2002년 당시 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20세 이상의 재적인원 254명 중 51년생부터 70년생까지가 157명으로 전체의 62%에 해당된다.

8) 오늘날의 사회를 ‘인터넷 사회’라고 하는데 피에르 바뱅(《디지털 시대의 종교》, 이영숙 편역, 서울: pcline, 2000)은 “21세기 미디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종교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실제로 이미 2002년 9월 말에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인 56%, 2,412만 명(<http://saebich.co.kr/educa/e3.htm>)에 달했고,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 3명 중 1명 꼴이다(인텔리서치 1만 명 대상 조사 <유봉석> www.intelresearch.co.kr). 인터넷 인구가 앞으로도 당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다. 인터넷 사용 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61대 39로 나타났다. 2001년 10월 남녀 비율은 67대 33. 여성 인터넷 사용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7-19세가 33.7%, 20대 33.4%, 30대 20.2%, 40대 9.7%, 50대 이상이 3%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선도를 위하여는 그리고 젊은 층과의 원활한 대화는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힘든 실정이다.

음 전파의 목적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에게 합창, 무용, 연극, 드라마, 오케스트라 연주 등등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예사제의 장소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등등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참여로 준비,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볼거리를 위해서 매회 조승미 현대무용팀, 부친시향 부라스팀, 필그림 현악 앙상블팀, 성악가 등 전문팀을 초청하고 교인들에게 꿈을 갖게 만든다.

-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 예사제와 교회 문화행사 때마다 준비해온 G-C교회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2002년 봄에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다. 이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고촌과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로 확대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에 모여 연습을 하는 오케스트라는 ‘꿈이 있는 음악회’를 통하여 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매년 1회의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행사에 찬조 출연도 하고 있으며, 2006년 5월에 열린 김포시 예능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 이 오케스트라는 김포시의 지원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까지 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 보람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교회가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PJ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촌지역은 서울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서울의 변두리 지역인데 처음 이곳에 와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소외되고 서울로부터 밀려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1988년 처음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목회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바로 문화사역이었다. 즉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 그로 인한 가정의 혼란, 자녀교육의 문제, 문화적 혜택의 한계가 지역의 큰 문제점이었기에 지역적 상황을 선교의 접착점으로 삼아 문화선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세우고 목회철학, 교회비전을 갖게 되었다. 도시에서 억울하게 밀려난 것에 대한 소외감을 그들의 문화적 수준에 맞춰 문화적인 보상감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PJ 목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적은 수의 교인이었지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여 이 지역에 예수와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장년 8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면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문화선교, 교육 선교 프로그램들이었다.

PJ 목사는 가장 중요한 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의 건축부터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다. 교회 건물을 영상, 음향, 조명시설을 갖춘 전용극장 스타일로 건축을 해서 오케스트라 공연, 영화 관람, 음악회, 피아노학원 발표회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설들은 항상 지금처럼 개방되어 교회의 청소년들이 영상, 음향문화를 가까이 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교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②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우는 교회

이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프로그램은 개 교회주의와 팽창선교의 차원을 극복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들어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내 교회 나와라!”는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 모으기 선교가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베드로에 의하여 유대지방에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헬라와 유럽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가 28장에 써 있다면, 이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에 고촌의 한 교회가 자기 개 교회와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한국의 오지에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관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지역과 교회의 선교 훈련을 위하여는 ‘어린이 미래학교’와 ‘Spring Camp’를 들 수 있다. 매년 초등학교 봄방학을 이용하여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어린이 미래학교는 지역 어린이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게 하는 목적에서 열게 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미래학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여 유명인사를 초대하거나 과감한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 개그우먼 박미선, 농구감독 최희암,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 동네 의사선생님 등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모델들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새롭게 갖게 하였다. 미래학교의 활동은 쥐불놀이(불깡통 돌리기), 전통 연 만들어 날리기 같은 민속놀이와 눈싸움, 눈썰매 타기 등등 야외활동을 했으며, SBS 방송국, 기독교 성지, 기독교 박물관, 서울시내 친구들과 찾아가기 등등 여러 곳을 탐방하고 있다.

새 학기 시작 무렵에 열리는 학생부 Spring Camp는 영적 각성과 학교생활에서의 활력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7년 전부터 시작된 Spring Camp는 낮은올타리 간사를 초청하여 문화강의를 하고, CCM 가수 초청 공연을 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담임목사의 영성집회를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PJ 목사가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인들의 분포도⁹⁾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교육에 있어서 어린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9) 이 교회는 2002년 당시, 장년 250명의 95%가 부부교인이며 대부분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G-C교회에는 유아들을 위하여 헌신된 유아 담당자들과 잘 꾸며진 유아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 당시 홈페이지 중에서

인식과 또 인재 양성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을 넘어선 적극적 전도를 위하여 여름 휴가철에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의 오지, 미자립교회의 선교를 돕기 위해 자비량 선교여행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선교여행 기간 동안 모든 교우들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낮에는 가가호호 또는 일터(논밭)를 방문, 1대1 식의 전도를 하며, 저녁에는 경로잔치와 음악회를 연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학교를 빌려 의료봉사와 미용봉사를 한다. 여름성경학교를 열기 어려운 주변 교회들과 연계하여 여름성경학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매해 여름철 휴가를 선교여행으로 낙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불태우지만 자기 교회 교인 만들기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만드는 영혼 구원의 선교에 봉사한다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사명을 몸으로 이해하는 귀한 체험적 교육이 된다고 한다.

③ 감동이 있는 주일예배

앞에서 보았듯이 이 교회는 예배당 중심의 전형적인 작은 교회로서 예배에 큰 비중을 두고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교회의 예배는 담임목사가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그에 따른 감동된 결과를 유출해낸다 하겠다. 이것은 설교와 기도 그리고 중간 중간 목사의 영적 감각이 뛰어난 메시지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설교가 예배의 가장 강조된 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 등의 순서를 설교 앞에 놓고 설교 후에 그 설교에 대한 통성기도와 축도로 마치는 형식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겠다. 그리고 설교에 따라 헌금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하게 강조되는 헌금시간도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게 되어 있고 역시 설교 전에 봉헌을 한다. 그럼 실제적인 설교를 조망해 보자!

첫째, 그의 설교는 교인의 생활에서 예를 드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설교의 승패는 초반 5분 안에 결정난다고 할 때 PJ 목사의 설교는 시작부터 교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설교라 할 수 있다.¹⁰⁾ 둘째, 그의 설교는 예를 드는 데 있어서 성경과 일반적인 예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예는 대부분 교인들의 삶을 포함한 목회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들고 있다.¹¹⁾ 대학원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한 그는 성경의 예들을 상당히 분석적으로 다루고, 본문을 전후 맥락과 역사 속에서 조심스럽게 해석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성경과 인생에 대한 심오한 해석을 인용하는 틀을 가지고 있

10)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6월 8일 설교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그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인 학생들이 고촌 초등학교 대표가 되어 김포시 예능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하여 결국 경기도 대표로 나갈 기회를 갖게 되어 믿지 않는 초등학교 교장이 전화하여 학교 이름을 날리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선지자적인 교회의 위치를 교인들의 영광으로 돌리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지자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다.

11) 교인의 장례식에 있었던 일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4월 27일 “죽음 이후”라는 설교의 중요한 예로 등장을 한다.

다. 셋째 그의 설교는 전적으로 청중을 향하는 설교를 한다. 설교는 원고를 준비하나 대부분 설교 중에 눈이 청중에게서 떠나지를 않고, 두 손과 몸동작 그리고 얼굴의 변화 등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전하는 그의 설교는 먼저 자신이 감동받은 후에 설교로 그 감동을 전하는 노련한 설교자로 보인다. 전체 설교를 다 써놓고 읽는 설교라기보다는 A6사이즈의 작은 용지에 중요한 사항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그의 설교에 이어지는 기도는 충분한 개인적인 명상과 의미를 생각하여 결단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설교를 맺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청중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준다. 본인이 참석한 예배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설교를 하고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라고 물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역을 한 삶이 청중에게 있음을 알리고 그러나 “하나님, 이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통성 기도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기도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난을 가지고 온 것은 잘한 것이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죽겠다고 지금 고백하라고 하니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눈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다섯 번째로, PJ 목사는 전체적으로 위로의 설교를 한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끝을 맺는 그의 설교와 통성기도 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음을 선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세상에서 힘 있게 살라는 말과 함께 예배를 마치는 예배의 마지막이 축제의 분위기로 끝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눈물과 감격의 예배는 설교를 “늘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고전 4:15)으로 준비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쉽게 듣고 삶에 적용하며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려는 PJ 목사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G-C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인다.

④ 목회자의 소중한 경험을 목회에 실천하는 목회

PJ 목사의 목회는 음악적인 바탕 위에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목회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의 목회철학과 신학적 바탕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PJ 목사는 그의 삶의 경험이 목회에 잘 드러난 지도자라고 여겨진다. 그는 1958년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서울시 경찰국 경목으로 활동하면서 야학을 운영하고, 중앙선교신학교(예장 호헌)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소중한 산교육을 받은 듯하다.

그리고 그의 남다른 음악에 대한 사랑과 목회적 특징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경험과 발전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는 초등학교(강원도 인제군) 3학년 시절 총각 담임선생님의 열정으로 상당수의 가곡을 공부하며 깨달은 음악적 재능을 꾸준히 키워왔고 그것을 목회에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음악적 소질과 발전은 초등학교 합주부, 고등학교 합창부를 거쳐, 그리고 남성중창단을 조직하여 활

동하면서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남성복사중창단의 멤버로 한국 최초의 남성중창단 연주회를 명동 YWCA 대강당에서 하기도 하였다. 건대 전기공학을 공부한 PJ 목사¹²⁾는 고등학교 교목으로 만난 황방남 목사에게 감동되어 황 목사를 따라 배광교회에서 개척 시절부터 성가대를 조직 지휘하였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관하는 음악지도자 세미나에 수년 참가하면서 최시원 교수(작고, 한국 최초 합창박사)에게 지휘를 배웠다. 그는 어른 성가대 뿐 아니라 어린이 성가대를 지도하면서 한국의 빈 소년소녀 합창단 만들기를 꿈꾸면서 합숙훈련까지 시키며 빈 합창단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여 서울시내에서 소문난 초청받는 성가대로 활동을 하게 하였다. 목회 현장에서도 한동안은 성가대를 직접 지휘하였고 김포지역의 연합합창 지휘를 담당하면서 김포의 합창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서 지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목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찬양은 영혼을 맑게 하기에 올바른 찬양이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재능과 목회 현장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고 연단한 음악에 대한 정열을 불태우는 목회를 꾸준히 해오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PJ 목사는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꼭 이루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을 지녔다 하겠다. 그가 처음 깨닫고 정진하기로 한 교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목회 정신에 입각하여 꾸준히 한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교우들과 함께 김포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간절함)와 그것에 맞는 구체적인 사역 프로그램과 실행 및 사역 배치기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 교회가 끝까지 한 가지 일에 정진하게 하고, 힘을 한군데로 모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로서 자각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겠다. 결국 이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사역의 5대 목표¹³⁾에 충실한 교회로 교인들의 자발적 동의와 창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의 한 모델로 여겨진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변화하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된 미래 교회의 창조적 상상

12) PJ 목사는 건대를 졸업한 후에 황 목사의 인도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M.div)을 87년 졸업하고 88년부터 GC교회를 섬겨왔다.

13) 1. 감동 있는 예배(생명예배) -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준다. 2. 민족구원 전도(예수사랑) -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해준다. 3. 예수제자 훈련(인재양성) - 하나님의 원리들을 따라 살게 해준다. 4. 하나되는 교제(생활교제) -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준다. 5. 열매 맺는 사역(이웃사랑) -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해준다.

력과 그것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기독교 중심의 서구 역사 발전은 전에는 모든 학문의 전통이나 국가 지도권에 교회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독교의 도움, 아니 대화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가 문화의 발달은 기독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교회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문을 굳게 닫고, 교회의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선교의 대상인 그들을 멀리 하며, 자기들만의 만족과 현실 안주에 빠져 있다.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선교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포기되고 교회는 본질을 잃은 채 ‘이미 믿는 옆집 교인들’에게 선교의 눈길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나님나라와 땅끝까지 선교가 아닌 자기 교회와 우리 교인만이 중요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회의 병든 현상으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바로 이 면에서 G-C교회의 건강한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교회의 경계를 넘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의 눈높이, 즉 문화의 눈높이에서 만나, 교회가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오랫동안 꾸준히 섬겨온 것이 교회의 성장이 되었다.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는 G-C교회의 결실은 세속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여준다.

PJ 목사는 교회를 짓고 예배당 전면을 한국적으로 꾸미고자 전문교수에게 위탁하여 완성을 하였다. 그러자 한국적인 색과 감각을 토속 종교로 곡해한 교인들의 반발이 있었단다. PJ 목사는 즉시 모든 설치물을 다시 내리고,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그의 의도와 색채, 상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교인들과의 대화를 하여 6개월 후에 변형된 치장물의 일부만을 설치하고, 다른 것은 새로 입당할 교회에 하기로 7년을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서도, 그 교인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여유와 고집이 분명한 목회자다. “목사님은 교직자 회의를 하다가도 교인이 찾으면 회의를 잠시 멈추고 교인을 상담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전도사의 이야기는 그가 왜 아직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5년 전 교회 방문을 마치고 마당에서 만난 한 어린이가 PJ 목사에게 가진 호감이 아마도 PJ 목사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교인들의 인상일 것이라 여겨진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다: “너 왜 이 교회가 좋니?” “그냥 교회가 편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재미있어요!” “너 다른 교회는 가봤니?” “아니오. 이렇게 좋은데 왜 가요?”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처럼 숫자가 큰 교회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병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한된 지면과 시간 내에 그간 있어 왔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어찌 보면 평범한 가운데 건강한 교회, 너와 나도 한번쯤 가능하다고 느낄 만한 교회들의 건강성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교회의 건강성에 대하여는 다만 언급을 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주로 연구소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지켜보던 교회로 한정을 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다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의 모델들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들에’ ‘이러한 건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교회들이 건강치 못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누가 보아도 건강한 교회의 어떤 점이 건강한가를 들추어낸 것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의 건강한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철저하게 목사들의 관점에서만 보아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목사들만 건강하다면 교회의 건강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한국 교회의 형편상 목사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다. 물론 교회의 건강에 평신도들의 영향은 목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병든 교회의 전적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이러한 병든 교회의 모습은 목사의 건강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룬 ‘이러한 교회들’의 ‘이러한 건강’을 근거로 하여 3부에서 건강한 교회의 대강을 성서적 관점에 비추어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제3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1. 건강한 교회의 성장 요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면들이 두드러진다.

1) 목사의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목회를 좌우한다

어려운 삶의 여정 중에 목회자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생기는 문제에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신앙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흔적이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은사, 사역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과 교통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분명하다.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모든 종교가 가지는 근본적인 요소인 신비한 체험이 기이한 것들로 여겨지지 않는다.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여러 다른 유대교의 개혁운동, 메시아운동이 있었지만 왜 예수 운동만이 그렇게 급속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살아계실 때 예수의 사역의 대부분은 기사와 이적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최고 절정이었고,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이 보여줄 수 없는 예수의 최고의 가치였음이 분명하다. 예수운동은 무엇보다도 영적 은사운동으로 기사와 이적 등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에 의하면 예수의 사역은 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고, 예수 주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로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들은 그 이전에 예수가 귀신을 쫓는 모습 속에서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능력 있는 새 교훈의 권위자임을 알았다(막 1:27). 사람들은 질병만이 아닌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예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였다(5병2어의 기적). 예수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으로 보았고, 이것을 이어받은 제자들 역시 능력과 권능의 소유자로 소개된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주된 사역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병 고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1:32-34, 3:7-12, 6:53-56). 거라사 광인이 기뻐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한 사실도 병 고침의 소식이요(5:20), 예수가 나타나는 곳마다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관심 또한 병 고침이었다(6:56).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미문에 앉은뱅이를 고친 이야기나 바울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역이 예수운동의 핵심가치였음을 분명히 해준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영성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데 이는 예수님에게도 마찬

가지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성령의 능력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되고, 그런 면에서 예수운동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예수운동은 이런 면에서 당시의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민중의 영적 필요성에 입각한 종교적 눈높이에 가장 잘 반응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운동은 그들의 눈높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의 가치를 보여준 운동이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침묵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진가는 예수운동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신비적인 주술을 부리는 종교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의 정권 창출이나 경제적인 부나 입신양명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평화와 화해임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자기가 일궈놓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세상에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인간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신이 되게 하셨다. 어찌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리고 조심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누구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의 위치에 올려져서는 안 되고, 다만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2)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목사의 인격적인 건강함이 있다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과 만나 인터뷰를 할 경우 그들만이 가지는 목사에 대한 신화들이 있다. “우리 목사는 2% 더 교인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저녁에 목회자 회의를 하다가도 교인이 문을 두드리면 회의를 중지하고 그분 상담을 해서 몇 시간씩 기다린 덕이 있어요. 목사님이 2%만 더하자는 요구에 저희가 죽어납니다”는 부목사의 볼멘 소리는 “예수님께서서는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래요”라던 제자들의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교인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한 목회자의 모습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목사님께서서는 금방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십니다”라는 교인의 감동은 바로 목사의 숨길 수 없는 진실된 목사의 인격이 아닐까? 대부분이 자기 교인에게서는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고, 대화적이고, 온유한 사랑을 품은 모습이다. 자신의 치부까지도 설교에 솔직하게 풀어내는 목사가 오빠 같다는 교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항상 통한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된다. 문제가 드러난 교회들의 목사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대부분 목사의 허위 사실 유포나, 비윤리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아무리 내 속이 다 타 들어가도 교인들에게는 이빨을 보이려면서 항상 웃으시는 한 목사님의 신출내기 목회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그 목회자가 왜 안양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켰는가를 설명해 준다. 건강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래서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때론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섬김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였을 때, 다락방에 숨어 있던 그들을 찾아가 배반을 나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평안이 깨어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어다” 힘을 주셨다. 또 다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선교의 사명을(내 양을 먹이라!) 주셨다.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를 사랑으로 감동시켜, 사역자가 되도록 하셨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러 설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은, 다른 말로 왜 다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가의 설명이 되기도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의 인격, 그래서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러한 모습은 웨슬리가 말한 “사람들이 설교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 실천한 모습에서 다시 찾아지고, 목사는 교인을 위해 존재하기에 개인적인 일을 너무 즐기면 교인들을 위해 힘쓸 여력이 없다고 휴가마저도 집에서 쉬는 목사의 마음에서 다시 느껴지는 것 같다.

3)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 선교지향적이다

선교는 분명한 예수님의 분부에 근거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니라”(마 28:19-20).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선교하라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초대 교회는 숫자적으로나 지역, 계층 간으로나 급속한 확장과 증가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가 죽은 후에 교회는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하여 급격히 확산되어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퍼져가는 공동체로, 유대인에서 시작된 운동이 헬라 유대인을 넘어 전세계의 이방 민족들에게로, 그리고 계층의 경계를 넘어 식민지의 가난한 자와 병자들의 모임, 남녀 노소와 빈부와 귀천을 뛰어 넘는 모습(갈 3:28)으로 드러난다. 기독교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한 세대의 사건들에 기인한다. 1세기 말경에 로마의 도미시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수효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모든 도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예수의 삶과 그가 부활 후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분부’¹⁾한 말씀 때문이었다. 신약성서는 이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부활한 예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명령

1) 일반적으로 예수의 선교 ‘분부’(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명령’이라는 말로 해석함으로써 갖게 되는 선교의 폭력적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명령 대신 분부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형으로 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선교 분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복음전파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선택받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까지 바쳐서 살 수 있게 하였다. 마가 복음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막 13:10)고 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선교적 이해를 따라, 당시에 만연된 종말론적인 사상(예를 들면 막 13장, 마 24장 이하, 눅 17과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서 볼 수 있는) 속에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던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불의한 죽음, 그리고 부활과 부활한 자의 ‘선교 분부’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예수운동에 새로운 전환점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종교적 신비의 사건으로 세상에서 불의하게 당하는 그들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다가올 의로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가올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분부로 이해한 것이다.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말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중인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다. 초기 감리교회의 사역자들이 모두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형태를 갖춘 것은 오늘날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근원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있다. 폴 킬리히는 자기 종교 안에 안주하며 다른 종교와 대화(선교)하지 않는 종교는 타락하고,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경고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를 통하여 자기를 확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계층, 다른 민족을 이해하게 되어 자기를 뛰어넘어 남에게로 나아가 경계를 넓히는 선교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데려오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교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성장 외형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되는 오늘날의 교회 성장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의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교회의 성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오늘날과 같은 단일 교회의 성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처음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작은 가정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장하는 교회로 출발하였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람이 중심이었음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므로 건물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가정 중심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모이고 기도하는 공동체(마 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특징이 있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쓴 서신들의 표현(롬 16:5)을 통해서도 큰 차이 없이 계승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내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전 세상을 염두에 두고, 선교사업의 출발점이 나의 교회가 되어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4)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제자들을 양성하여 새로운 교회 지도력을 생산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고 12명의 제자를 두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그 제자들의 선교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자연적 교회 성장(NCD)은 성장하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한다. 목사의 일을 위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을 손님으로 만들지 않고 일정 시간의 고된 훈련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으로 사역자로 세운다. 오늘날처럼 이사가 일반화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3년을 주기로 이사에 의해 교회를 이동한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인들은 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스스로를 사역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런 사역자의 교육을 항상 담임목사가 감당을 한다. 한번에 3시간씩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자훈련을 한 주에 3-4개까지 소그룹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 바로 이것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라는 것과 같다. 사역자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목회자와 같은 교회의 사역자를 만드는 일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에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지도력으로 승리하셨다. 즉 당시의 유대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랍비들을 찾아가고 랍비들은 그들을 가르쳐 제자화하는 형식의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식’(Top-down)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적 개혁’을 단행한 종교운동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인 병든 여인을 찾아가고, 회당의 귀신들린 자를 찾아가며,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무덤가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거라사의 외로운 귀신들린 사람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예수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셨다. 그는 또한 당시에 소외된 여성들을 받아들여 예수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만드셨다(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예수에게 부은 여

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 등). 예수와 제자들은 너와 나 같은 부족함을 안고서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듯(고후 12:10, 13:9),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이름보다 높임을 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사탄이라며 혼까지 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제자였고, 선생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였고, 예수가 부활하고 마지막 만나는 갈릴리의 산 위에서조차 의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다(마 28:17, 예수를 뵈옵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28:18,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성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제시하지 않고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는 안셀름 그윈(안셀름 그윈/ 마인라트 두푸너, 전현호 옮김, 《아래로부터의 영성》, 분도출판사)의 통찰이 바로 예수운동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감격이었을 것이다. 나와 같은 천한 사람, 보통 사람도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나라의 개혁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설득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훌륭하게 보여주었듯이,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알리는 데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에는 이 땅의 서러움 받던 한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통한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 낸 결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천하게 여기던 여인들이 개신교 선교 초기에 전도부인, 매서인으로 크게 활동한 것이나 상놈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직분의 성장을 경험하여 이를 은혜로 체험한 일은 너무나도 폭 넓게 일어난 현상이었다.

5)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목회자의 신학이 분명하다

지킬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그러기에 한번 시작을 하면 꾸준히 끝까지 해낸다. 그래서 된다는 경험에 있고, 그것을 인정받는다. 교인들은 그러기에 장로가 되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권사가 되거나 속장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기에 혼돈이 안 생긴다. 개척 초기에 만들어 놓은 교회 규칙이 너무 엄격하여 그 법에 따라서는 장로를 못 세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켜나가기에 교인들의 신뢰가 생기고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다. 교회 건축을 하든, 행사를 하든,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규칙과 지켜야 할 규칙이 있기에 언제든지 누가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교회는 이렇게 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누구라도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는 교사는 회의에 꼭 참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교사회의 말고 다른 회의에 바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벌금을 많이 자주 내시는 분이란다.

6)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목회를 즐기며 열정이 있다

열정은 긍정적이라는 말과도 통하겠지만,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신바람나게 앞서간다. 그렇게 많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스케줄을 만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잘한다. 바쁘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목사들은 간혹 교회의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도, 성실과 한결같은 열심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을 자주 본다. 물론 열정이 있다는 것은 목회의 영역이다. 기도, 심방, 예배 설교, 새벽기도 등 자기의 영역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7)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있다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행 연습까지 하며, 모든 환경과 순서 음악 등에 세밀한 배려를 한다.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말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신령과 진정이 감동으로 이어지게끔 한다. 대부분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고, 알아듣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감사를 전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치유가 들어 있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실하다. 대부분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고, 간혹 크게 꾸짖더라도 예배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위로와 권면의 축복으로 맺는 형식이다. 교회를 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집을 이사하는 등의 이유로 궁정적 의미에서의 이동)의 중요한 척도가 설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전달하는 목사에게 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토요일은 거의 사람들하고 모든 것을 끊고 설교 준비를 위해 전념한다.

8) 건강한 교회는 목사의 자기 관리를 통하여 성장한다

대부분 남의 목회에 기웃거리거나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독학형이 많다. 필요를 느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배워오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 상황화시키는 재주가 있다. 개척해서 20년이 지나도 새로운 교재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한 권의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설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자기 독창성이 드러난다. 이런 자기 관리는 생활과

건강 관리에도 나타나,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시간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찾아 방황하거나 옛 것을 마치 새 것처럼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결코 준비되지 않은 장기목회는 건강, 프로그램, 자원의 부재로 위기를 만나게 되어 건강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9)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는 자기 교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에 맞는 목회를 하고, 지역에 적합한 목회를 하여, 교인들만이 아닌 지역의 자량이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즐겁게 교회를 다닌다. 이런 교회는 예배시간 30분 전에 본당에 입장을 해야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출석 교인이 재적 교인보다도 많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투자하고 어려운 일에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편다. 교회의 사업과 본인의 신앙에 대한 투자하는 일에 관대하고 포용적이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대대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관대하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 시설을 개설하거나, 지역의 복지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2.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 성장

끝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건강’이 교회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정리해 보자. 크리스찬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자연적으로 건강하여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란, 성경 말씀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지켜보고(마 6:28), 그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 이상의 배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혀 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즉 백합이라는 식물이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질소, 인산, 칼리, 석회석)가 꼭 있어야 성장하듯이 건강한 교회도 여덟 가지의 중요한 질적 요소(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자연적이고 건강한 성장이란 식물이 이러한 질적인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부족하여 성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족한 것의 최소치를 집중적으로 채워줄 때 다시 성장이 일어나는 원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마치 높낮이가 다른 나무로 물통을 만들어 그 통에 물을 부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물이 넘쳐서 더 이상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듯, 교회 성장도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고, 나무통이 새는 곳에 나무를 높게 막아주면 계속 물을 담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낮은 곳에서 다시 물이 새듯이, 교회 성장도 부족한 한 가지만을 너무 채워주면 이것도 기형적으로 성장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 건강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를

연계적(처음은 인산, 그리고 석회, 칼리, 질소 등)으로 채워줄 때,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별하게 슈바르츠는 교회의 성장을 '자연적'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자연의 자연적 성장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물이 성장하게 된 자연적 성장성이 인간과 환경이 만든 인위적인 '그 어떤 요소'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성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 주게 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이론은 지금까지의 다른 어떠한 교회 성장이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론을 우리의 건강한 교회의 성장에 접목시켜볼 때,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교회와 성장의 요인들의 모든 점을 다 갖춘 교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병들어 가는 교회를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듯이 건강한 교회는 항상 어떤 면으로든 세속의 상황에서 병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선교 123년의 감리교회가 노력해야 할 건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어쩌면 지금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이미 '가진 자'로 이해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금 납부, 폭력적 전도, 세습, 사회복지, 문화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 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와 분위기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대화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으로서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신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에 이제 오늘날 교회가 힘써 애써야 할 과제가 되었다.

작은 교회지만 각자가 처한 지역에서 주민을 위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왜 어떤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왜 어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다른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을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가 속한 지역의 부족한 부분이 목사들의 영적 감각에 의하여 느껴지고 최소한이라도 채우려는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생각을 한다(교회는 처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사명에 충실한 것).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의 필요를 인지한 어느 목회자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겠다(지역 교회의 사명에서 전문적 목회로 대처하는 기술). 작은 일 같지만, 또 힘이 들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부족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영적인 길을 찾아 헤매는 목회자들의 여정이 지나고 보면 건강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역).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지역이 함께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살려는 목회자의 자세에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은 그 교회 교인들이 사는 사회의 건강과 무관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가가 교회의 자랑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존경 받는 교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교회의 건강 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건강은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가에 있지 않고, 교회와 교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건강하게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노력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목회자에 의하여 계속적인 교회와 주변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성령의 음성을 좇아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한 후에 잠을 자고 나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기에 인간은 어찌 된지 모르고 감격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비유하였던 것과도 같다(막 4:26-27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인간의 역사와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하나님의 우발성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교회란 자연과 인간 어느 것과도 일대 일로 유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근거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전개되는 하나님의 ‘교회’ 자체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다만 교회일 뿐이고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 교회’ 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건강성이란, 인간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우발성 속에서 항상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 주어진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되, 새로운 상황에 열린 체계를 가지고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성서와 전통에 일치되는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개신교의 건강한 교회 모델을 몇 개 교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어떠한 요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가를 설명해 보았다. 이 모든 우리의 관심은 사실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 아니 한국 감리교회가 직면한 교회의 존재 위기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20년 후에까지 존재하는 그리고 세상을 선교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놓여 있다. 과연 한국 교회는, 감리교회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종교는 진화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한국 감리교회의 발전을 볼 때, 어떡해서든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성장이라면 감리교회의 존재 위기에 대한 염려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사명을 받은 2000년 전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교회는 존재하겠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예수와 무관하

고, 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신학적 전통을 저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의 상황을 무시한 교리만을 강요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현실의 선교의 대상과 단절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장이 목표가 되고,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와 교단의 노력이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감리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2분과

위원장 : 김종훈 서기 : 최현영

위 원 : 최선길 이원재 방인순 최은영 김종복 문상욱 박정훈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개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감리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로나 신앙적 성숙도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종교계에서 가장 많은 계통학교들을 통해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를 선도하여 왔다. 또한 병원과 각종 복지단체를 설립 운영하여 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일들은 일찍부터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종교계 혹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의 질적 저하와 영향력 감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회는 그 목사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목회자들의 질적 저하와 영적 해이는 곧 교회의 질적 저하와 성장과 성숙의 둔화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총회 산하에 설치하여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하고 연구해나가는 노력은 현재 감리교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노력일 것이다. 이에 위 위원회는 5개분과 중 제3분과에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제3분과는 본래 ‘통합대학원과 목회자 수급조절’의 연구과제를 주었으나 3개 신학대학원들을 통합하여 한 개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는 비난과 처음부터 통합신학대학원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일부 신학대학원의 반발이 있어 도중에 그 연구과제를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으로 다소 변경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대학원을 설립하여 목회자 양성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로 간주된다.

제1부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1. 서론

현재 감리교회 목회자의 문제에 있어 그 심각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역자 수급 조절의 문제이다. 우리 감리교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들은 그 동안 실력 있고 성실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각 신학대학교들은 학교 재정의 확충을 위해 감리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 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수 이상의 과도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졸업시켜 해마다 실업자가 된 예비목회자들을 누적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둘째 문제인 교역자 자질의 문제와 직결된다. 정원을 억지로 채워서라도 등록금 수입을 늘려야 했던 신학대학교들은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조차 선발하여 목회자의 질적 저하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예비목회자들의 수의 문제는 어떻게든 목회지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인해 출신학교별 극심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3개 신학대학교 출신별 갈등은 곧 세 번째의 문제인 학연 갈등의 문제로 된다.

본 연구는 위 세 가지의 목회자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10년의 각 학교별 신학생 배출 수와 현재의 문제 그리고 향후 30년간 필요한 목회자 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목회자 수급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 다음 장에서는 목회자 자질 향상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장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대학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은 대안으로 제시된 통합대학원에 대한 단계적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하여 제언하려고 한다.

2. 본론

1) 현황

(1) 과거

① 1997-2006년 각 신학대학원 졸업자 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구 분	대학원 (박사)	신학대학원	목회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세계선교 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수	23	83		37	2	145	1998. 2
	13	37		17	4	71	1998. 8

1998학년도 졸업생 수	22	101		39	2	164	1999. 2
	11	20		12		43	1999. 8
1999학년도 졸업생 수	22	91		28		141	2000. 2
	21	26		10		57	2000. 8
2000학년도 졸업생 수	44 (1)	99	34	15	1	194	2001. 2
	10	18	5	6	3	42	2001. 8
2001학년도 졸업생 수	30	74	27	24	4	159	2002. 2
	17	49	4	1		71	2002. 8
2002학년도 졸업생 수	32	134	40			206	2003. 2
	6 (1)	41	5			53	2003. 8
2003학년도 졸업생 수	36 (1)	101	39	1		178	2004. 2
	5	27	4			36	2004. 8
2004학년도 졸업생 수	44 (1)	96	28	1		170	2005. 2
	9	17	5			31	2005. 8
2005학년도 졸업생 수	54	111	33			198	2006. 2
	6	12	3			21	2006. 8
2006학년도 졸업생 수	52	116	34			202	2007. 2

(감신대 제공 : 2007년 7월)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구 분	대학원	신학 대학원	목회 대학원	목회신학 대학원	선교 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수	7	44				51	1998. 2
1998학년도 졸업생 수	5	50				55	1999. 2
1999학년도 졸업생 수	10	61				71	2000. 2
2000학년도 졸업생 수	11	74				85	2001. 2
2001학년도 졸업생 수	3	103				106	2002. 2
2002학년도 졸업생 수	8	138				146	2003. 2
2003학년도 졸업생 수	16	106				122	2004. 2
2004학년도 졸업생 수	11	93				104	2005. 2
2005학년도 졸업생 수	10	110				120	2006. 2
2006학년도 졸업생 수	17	88				105	2007. 2

(목신대 제공 : 2007년 7월)

•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구 분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수	—	28	77	46	151	1998. 2
1998학년도 졸업생 수	—	75	26	8	109	1999. 2
1999학년도 졸업생 수	—	104	20	2	126	2000. 2
2000학년도 졸업생 수	—	148	42	—	190	2001. 2
2001학년도 졸업생 수	15	118	—	—	133	2002. 2
2002학년도 졸업생 수	12	127	—	—	139	2003. 2
2003학년도 졸업생 수	9	140	—	—	149	2004. 2
2004학년도 졸업생 수	11	133	—	—	144	2005. 2
2005학년도 졸업생 수	14	83	—	—	97	2006. 2
2006학년도 졸업생 수	18	95	—	—	113	2007. 2

(협신대 제공 : 2007년 7월)

② 1998-2007년 연회별 허입자 수

연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합계
1998	9	18	36	57	—	42	22	38	—	42	16	280
1999	12	23	36	37	—	32	20	24	19	30	10	243
2000	24	22	51	54	—	20	19	20	28	26		264
2001	20	35	45	72	—	49	32	32	33	42	13	373
2002	31	32	61	40	31	38	20	36	25	46	16	376
2003	37	40	63	40	31	46	35	25	31	36	19	403
2004	46	52	68	41	26	39	28	39	27	44	13	423
2005	33	35	39	44	19	26	21	29	21	32	14	313
2006	33	30	59	38	29	31	9	26	22	29	11	317
2007	31	42	54	38	26	28	23	36	20	34		332
평균(명)	27.6	32.9	51.2	46.1	27.0	35.1	22.9	30.5	25.11	36.1	14	

(연회자료 : 2007년 7월)

③ 2003- 2006년 연회별 교회 수(교회 총수 및 개척, 폐지, 미자립교회 수)

• 2003년

연회 \ 구분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미자립교회 수
서울연회	339	8	6	69
서울남연회	380	9	3	126
중부연회	854	21	6	265
경기연회	601	9	8	211
중앙연회	460	11	3	157
동부연회	588	3	1	299
충북연회	341	7	3	167
남부연회	475	13	1	183
충청연회	549	10	3	115
삼남연회	556	13	6	302
미주특별연회	243	34	2	67
합 계	5,386	138	42	1,961

• 2004년

연회 \ 구분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미자립교회 수
서울연회	343	6	2	68
서울남연회	381	11	9	114
중부연회	860	24	12	269
경기연회	611	25	12	218
중앙연회	471	14	4	164
동부연회	594	8	1	227
충북연회	347	7	1	171
남부연회	482	13	1	185
충청연회	549	10	3	165
삼남연회	560	9	6	264
미주특별연회	294	25	10	67
합 계	5,492	152	61	1,912

• 2005년

연회 \ 구분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미자립교회 수
서울연회	344	4	2	93
서울남연회	384	14	8	150
중부연회	859	15	14	306
경기연회	611	22	6	261
중앙연회	514	10	7	186
동부연회	605	8	2	253
충북연회	351	6	2	191
남부연회	484	12	7	220
충청연회	563	15	2	197
삼남연회	560	5	3	165
미주특별연회	298	33	15	137
합 계	5,573	144	68	2,159

• 2006년

연회 \ 구분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미자립교회 수
서울연회	346	6	4	86
서울남연회	387	10	7	144
중부연회	878	27	7	308
경기연회	639	18	5	258
중앙연회	527	17	7	187
동부연회	604	5	1	240
충북연회	356	6	1	194
남부연회	499	22	8	238
충청연회	573	11	1	199
삼남연회	569	11	1	161
미주특별연회	314	19		137
합 계	5,692	152	42	2,152

④ 2001- 2007년 연회별 은퇴자 수

연회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연회	11	5	10	13	9	13	8
서울남연회	8	3	4	10	11	8	10
중부연회	15	7	8	17	12	9	14
경기연회	9	2	5	4	10	9	9
중앙연회		7	6	4	2	3	10
동부연회	9	4	5	5	5	6	8
충북연회	2	5	1	1	3	7	3
남부연회	6	3	8	11	8	4	7
충청연회	6	4	9	11	5	6	11
삼남연회	4	3	4	2	5	8	5
미주특별연회		3	1	10	4	3	
합계	70	46	61	88	74	76	85

(2) 현재

① 현재 진급 과정자 수련목회자, 담임목회 진급자, 기관 진급자 수

(2007년 7월 기준)

연회	담임자					수련목회자					기관목회자(선교사 포함)					총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울	7	5	8	3	23	35	24	35		94	6	5	6		17	134
서울남	9	10	11	8	38	31	15	16		62	2	2	9	1	14	114
중부	25	18	20	8	71	32	29	33	1	95	11	8	10	1	30	196
경기	16	18	21	1	56	32	17	11		60	10	2	2		14	130
중앙	15	13	7	2	37	11	12	15		38	3	3	1	1	8	83
동부	18	21	21	1	61	7	4	9	1	21	4	0	3	1	8	90
충북	8	22	8		38	6	3	1		10	1				1	49
남부	17	16	18	1	52	14	18	11	1	44	3	4	1	1	9	105
충청	11	12	17	1	41	7	6	7		20	3	4	1		8	69
삼남	26	30	25	9	90	2	4	2		8	0	0	1		1	99
합계	152	165	156	34	507	177	132	140	3	452	43	28	34	5	110	1,069

(3) 미래

① 2008년 이후 각 신학대학원 졸업 예정자 수

2007년 2월 기준으로 졸업 후 감리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비목회자는 감리교신학대학원 202명,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105명,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113명으로 420명이다. 이 숫자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언제까지라도 매해 이 정도 수의 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예비목회자가 배출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각 신학대학원이 대학원생 숫자를 줄여 졸업자의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현행 교육법상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원 감소를 요청하면 다시 그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을 때 그 정원을 확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 신학대학원들이 인원을 축소할 경우 그만큼의 수입이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신학대학원 선배 졸업자들이 후배 인원들이 줄어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학교에 인원 감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② 2008-2037년 은퇴 예정자 예상치

구분 연도	총인원	정년	현재 자원 및 공상은퇴, 퇴회자	현재 퇴회자	현재 별세자	생년월
2008	83	31	41	1	10	1937. 4-1938. 3
2009	87	45	34	3	5	1938. 4-1939. 3
2010	111	72	27		12	1939. 4-1940. 3
2011	92	61	25		6	1940. 4-1941. 3
2012	117	91	18	2	6	1941. 4-1942. 3
2013	103	92	5	1	5	1942. 4-1943. 3
2014	92	82	5	1	4	1943. 4-1944. 3
2015	94	85	2	3	4	1944. 4-1945. 3
2016	77	66	5	1	5	1945. 4-1946. 3
2017	127	119	1		7	1946. 4-1947. 3
2018	122	117	2		3	1947. 4-1948. 3
2019	125	118	2	1	4	1948. 4-1949. 3
2020	109	104	1	2	2	1949. 4-1950. 3
2021	97	93	1		3	1950. 4-1951. 3
2022	121	117		1	3	1951. 4-1952. 3

2023	163	157		3	3	1952. 4-1953. 3
2024	153	147			6	1953. 4-1954. 3
2025	189	184		1	4	1954. 4-1955. 3
2026	219	209		4	6	1955. 4-1956. 3
2027	245	238		3	4	1956. 4-1957. 3
2028	258	246	1	4	7	1957. 4-1958. 3
2029	240	227	1	7	5	1958. 4-1959. 3
2030	295	289		2	4	1959. 4-1960. 3
2031	343	339		2	2	1960. 4-1961. 3
2032	322	313		7	2	1961. 4-1962. 3
2033	342	335		2	5	1962. 4-1963. 3
2034	284	279		3	2	1963. 4-1964. 3
2035	302	297		1	4	1964. 4-1965. 3
2036	283	277		3	3	1965. 4-1966. 3
2037	302	299		1	2	1966. 4-1967. 3

(4) 교역자 수급 조절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

▷ 10. 목회자 수급 문제 해결 방안

- ① 신학대학 졸업생 수 축소 - 51.2%
- ② 기관목회 진급제도 확대 - 15.9%
- ③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 10.5%

▷ 11.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

- ① 찬성 - 69.4%
- ② 반대 - 22.3%

▷ 12.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

- ①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 44.4%
- ② 교역자 수급 조정 - 37.3%

▷ 13. 신학대학원의 통합 방식

- ① 3개 신학대학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 -51.2%
- ②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앴 -28.4%
- ③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대학원을 교단에 설립 -15.2%

2) 교역자 수급 조절에 대한 제 방법론 연구¹⁾

(1) 교역자 수급 조절의 필요성

대한민국 감리교회 122년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1976년부터 1985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감리교회는 감리교신학대학과 목원대학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회사역을 위하여 연회신학교를 설립하여 사역자 후보를 양산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목회자가 부족해서 담임자를 모시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개 교회별 교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1986년도에는 316.1명까지 치솟았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교회학교, 청년부와 대학부의 성장이 멈추자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와 사역할 수 있는 곳의 숫자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잉여자원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우리 감리교회의 잉여교역자 자원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통계적으로는 1980년도부터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감리교신학대학과 목원대학교에서 졸업하는 521명으로 부족하여 신설한 연회신학교에서 이 기간에 무려 1,77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때부터 매해 잉여교역자가 적체되어, 통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인원은 4,647명으로 매년 평균 193.6명의 잉여자원을 배출한 셈이다.

최근에 졸업하는 신대원생들이 매해 400-440명인 데 비하여 사역지로 나갈 수 있는 수를 250명(교회 증가 100 + 은퇴 80 + 선교사, 부담임목사 70) 정도로 보면, 여전히 적체되는 인원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정확히 최근 10년간 각 신학대학원 졸업자 수와 모든 연회에 서리 허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 이 연구는 2007년 5월 1일 종교교회에서 실시한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포럼에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구분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소 계	허입자 수	잉여자
1997년	216	51	151	418		
1998년	207	55	109	371	280	138
1999년	198	71	126	395	243	128
2000년	236	85	190	511	264	131
2001년	230	106	133	469	373	138
2002년	259	146	139	544	376	93
2003년	214	122	149	485	403	141
2004년	201	104	144	449	423	62
2005년	219	120	97	436	313	136
2006년	202	105	113	420	317	119
2007년					332	88
						1,175

1997년 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감리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 총수가 418명이고 이들이 그 이듬해인 1998년에 허입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 허입자 수는 280명이다. 이런 거친 비교로 볼 때 138명이 목회지를 찾지 못하는 신학대학원 졸업 잉여 인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누적된 인원은 최근 10년 동안 1,175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목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들, 유학을 가거나 기타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목회를 하지 않는 인원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신학교가 배출하고 감리교회에서 목회자로 흡수하지 못하고 누적되는 인원이다. 한 해 평균 117명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면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2) 목회자 수급 인원에 대한 조절 방안

①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절되게 하는 방안

교회가 계속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신학대학원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스럽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일례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교회 성장에 따라 감신대와 목원대의 신학생 배출이 교회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자, 신설된 연회신학교에서 매년 300명 이상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부터 감신대가 50명에서 127명으로, 목원대가 40명에서 86명으로 졸업생을 증원하자, 연회신학교는 100명 이하로 그 수를 줄이게 되었다. 이것이 자연적인 수급 조절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저 신학대학원 졸업생 수에 대하여는 그 수를 조절하지 않고 현장의 수요에 내어놓는 방식이나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② 목사 고시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안

졸업생이 얼마든지 교단에서 목사 고시 합격생의 숫자를 줄이면, 목회자 선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외형상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만일 목사 고시 응시 자격을 학교성적으로 응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실력까지 향상시키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수련목회자 선발 고시만 치르고 개체 교회 담임자는 고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예비목회자가 개체 교회를 담임함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수를 조절하는 기능과 실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고시로 선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보았듯이 목회자 자격 고시로 그 수를 조절하겠다는 방안은 각 신학대학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므로 목사 고시를 치러 조절하는 방안도 입법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요원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

③ 입학생을 줄여 조절하는 방안

신학대학이 입학하는 학생의 숫자를 줄이면 질 좋은 학생들을 선택하여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번 줄인 입학정원은 현 교육법상 다시 정원을 확대하기 불가능하므로 각 신학대학원들은 좀처럼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각 신학대학원에 재학생 수는 수입에 직결되므로 학생들을 줄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리교회 차원에서 신학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본부의 한 해 교역자 양성기금 4억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정원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가 힘들며 나아가 각 교회의 부담금을 거두어 이 금액을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몇 년 전 신학대학 부담금을 각 신학대학들이 원칙 없이 사용하는 바람에 부담금을 내어 각 신학대학들을 돕자는 의견이 힘을 잃게 된 사례도 있다.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수급과 정원 축소를 향한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다.

④ 다양한 목회의 길을 열어 신학대학원 졸업생을 흡수하는 방안

㉠ 목회자의 과정을 이원화하여 조절한다. 현재 인턴 과정과 담임목회자의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인턴 과정은 교회 내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약 5년까지 그 분야에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전문사역자들을 배출한다. 특히 신학대학원의 재원을 공급하는 교회학교, 대학 청년부, 찬양리더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게 함으로 사역을 발전시킨다. 기존방식대로 사역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바로 담임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 선교사 사역의 길을 확대한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는 2006년 말 현재 약

17,000명이다. 이중에 감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73개국에 676명이다. 한국기독교인의 숫자를 줄잡아 1,000만 명으로 보다면 한국 감리교회는 5,692개 교회 1,508,434명이다. 교인 수로 보면 약 15%에 해당되는 데 비하여, 선교사의 숫자는 4%를 밑도는 수치에 불과하다.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 ㉟ 기관목회를 확대한다. 원목, 형목, 교목, 캠프목, 선교단체목(군, 경찰, 직장, 기타 선교단체), 기독교 기관목회(상당, 출판, 공회, 방송 등), 초교파 연합(한국기독교연합, 기타연합단체 활동) 등에서 하는 선교적 활동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대한다.

다양한 목회를 인정하고 촉진하여 사회선교와 목회의 문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와 법망을 빠져나가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진급하고 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학원선교사로 파송받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8명 중 단 1명만이 학원선교사의 어려운 길을 갔으며 나머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소속된 교회의 부목사로 가기 위한 편법이였다. 혹자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냐고 하겠지만 도처에서 일어날 예견된 양심 불량한 목사를 안수하여 양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은 좁게 하되 안수 후 활동을 보장하는 안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 그리고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떤 방법이든 교역자의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목회자 자질 향상에 대한 제 방법론 연구²⁾

(1) 목회자 자질 향상에 대한 문제 제기

어떤 목회자가 존경 받는 목회자이고 어떤 목회자가 '비난 받는 목회자인가?' 오늘날 서글프게도 비난 받는 목회자들이 많아 그 '자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목회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인격, 전문성에 해당되는 목회능력, 경건생활, 지도력 등 다양하다.

특별히 세속적인 문제 즉 경제적·윤리적인 문제에 있어 자유해야 할 대상을 목회자라고 간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심각한 몸

2) 이 연구는 2007년 5월 1일 종교교회에서 실시한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포럼에서 고신일 목사(기독교회)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살을 앓고 있다. 성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목회자의 윤리 저항에 특별히 삽입해야 했다.

나아가 과도한 목회 예비자에 대한 목회지의 부족은 담임목회지에 있어 은퇴목회자를 예우한다든지, 전임자의 개척비용을 지불한다는 등의 미명으로 교회담임지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의 길이 쉽지 않아 목회자 자질에 대한 문제가 타 교단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으나 우리 감리교회에도 상식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장단기 3분과 위원들과 각 신학대학원장들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3분과 위원들은 각 신학대학원장들에게 현재 각 교회에 실습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의 질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들의 주장은 믿음이 좋고 사명감이 투철한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면 사명감과 믿음을 상실하고 고민에 빠져 교회 활동에 회의마져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학대학원장들은 신학생들을 대변하여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중 부리듯 시켜 신학대학원생들이 자기 개발이나 공부할 시간조차 없다고 교회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회의 책임이든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책임이든 양방이 장차 감리교회의 미래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질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 목회자의 자질

보통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질의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① 강렬한 ‘소명감’ 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일의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고, 유명무명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불타는 ‘사명감’ 이 있어야 한다. 그 부름 받음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열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열정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은 사람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 ③ 철저한 ‘책임감’ 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기 목장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영적인 목자이다. 그러므로 목장과 양 무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 ④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목회자는 현실을 넘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적·지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씨름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회자는 영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

우고 큰일을 여러 개의 작은 성취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사람과 일을 조직하고 권한을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표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까지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계획된 일을 추진하여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설득하고 조직하여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여 그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 방법과 문제

① 목회자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신학대학에 적극 추천하여 보내야 한다. 국가 수능시험이 목회자의 실력을 기능하는 잣대는 아니지만 수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형편없는 학생들이 신학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학대학의 입학 수준을 하향 조정시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형편이며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는 표현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체 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실력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젊은 인재들을 신학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② 훌륭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신학교 교육과정 및 영성훈련 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두 차례의 장정 개정을 통하여 신학대학 및 대학원의 교과 과정에 영성 수련과 교회 성장에 대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회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과목들을 배제하고 목회와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과목들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일부 신학대학의 교수는 신학을 가르침에 있어 신학대학은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는 곳이니 나머지 실제에 대한 것은 감리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27차 입법의회는 예비목회자 교육을 실시하려고 장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신학대학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일부 교수는 교역자 수급대책위원회에서는 목회자 고시와 예비목회자 교육에 대하여 찬성한 후 학교로 돌아가서는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영성훈련 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학교의 이기심과 일부 교수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길임을 알 수 있다.

③ 양질의 목회자 양성과 수급을 위해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미 전 장에도 보았듯이 목회자 자질 문제와 신학대학원생의 과다 배출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기 위한 수준 미달 학생의 입학은 목회자 자질 문제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미 엘리트 목회자 양성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던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그 신학대학원(M.Div)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와 같이 신학수업의 처음부터 멘토 시스템과 소수 정예 교육도 참고할 만

한 가치가 있다.

- ④ 목회지 계속 교육에 있어서도 목사 안수만 받으면 평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자질을 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이는 정회원 연수 교육의 강제화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으나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더욱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하여야만 할 것이다.
- ⑤ 목회자 자질 문제에 있어 목회에 한계를 느끼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명예퇴직 및 은퇴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좀 더 강력한 성직위원회 활동으로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선교를 저해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강제 퇴직 및 퇴출도 제도적으로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결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4) 신학대학원 통합에 대한 제 방법론 연구³⁾

(1) 통합신학대학원의 필요성

이미 전장에서 보았듯이 교역자 수급의 조절 문제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감리교회가 총회 및 본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교역자 수급 조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신학대학원 설치는 절실한 방안이다.

전문적 소양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또한 감리교적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통합신학대학원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나 수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3개 신학대학 및 대학원의 구조로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목회전문대학원을 지향하는 구조로 구도적 영성 훈련과 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전 감리교회적인 차원의 통합대학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감리교 목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과 전문성을 겸비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통합대학원이 필요하다

학연에 의한 지나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신학대학원이 필요하다. 제3분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찬성 69.4%, 반대 22.3%였으며, 신학대학원이 통폐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44.4%, 교역자 수급 조절 37.3%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 보더라도 현장의 목회자들은 현재 감리교회 안에서의 학연 갈등을

3) 이 연구는 2007년 5월 1일 종교교회에서 실시한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포럼에서 전준구 목사(가양교회)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신학대학원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팽배한 감독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있어서의 학교 간 갈등은 감리교회의 미래 발전에 있어 제거해야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과 연회뿐만 아니라 전 감리교회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되는 학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통합대학원을 설치하여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한 학교 출신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거의 모든 한국인의 뇌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학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통합신학대학원 문제에 대한 제안

장단기발전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제3분과를 위한 설문 중 ▷ 13. 신학대학원의 통폐합 방식에 있어서 ① 51.2%의 응답자는 3개 신학대학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하는 안에 찬성하였고, ② 28.4%는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애는 안에 찬성하였으며 ③ 15.2%는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대학원을 교단에 설립하는 안이었다. 이 설문의 응답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통합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① 첫째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방안은 3개 신학대학 학부는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하는 안이다. 이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첫째로 학부를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식으로 학부를 출신학교로 보는 현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학연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당한 방안이 아니다. 나아가 둘째로 통합신학대학원을 현재의 어느 한 대학원에 설치할 경우 다른 두 신학대학원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으며 또한 셋째로 현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을 재배치할 방안도 없어 이 방안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

② 둘째로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위 첫째의 방안보다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통합대학원이 설치되는 학교는 학부생을 배출하지 못하여 학연 갈등에서 빚겨 갈 수 있으며, 교수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금번 입법총회에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신학대학원이 석사과정에 있어 MA과정보다 M.Div.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신학을 전공한 학생들조차도 3년의 M.Div.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추세라면 출신 학부보다는 통합신학대학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난제는 현 교육법상 이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3개 신학대학원은 감리교회 자체 학교법인 이 아니라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속해 있는 감리교신학원, 목원대학교가 속해 있는 감리교학원, 협성대학교가 속해 있는 삼일학원 등으로 학교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 있다. 현재 감리교회 총회가 아무리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 독립된 학교 법인을 정책적으로 어찌 할 수 없다.

③ 셋째로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대학원을 감리교회에 설립하는 안이다. 비록 찬성률이 가장 낮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통합신학대학원에 대한 문제는 다음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해결하면서 실행하여야 한다.

첫째로 통합신학대학원 개설에 관한 논의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두고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한다.

둘째로 현재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감리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비추어진 감리교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 현재 감리교 목회자가 되고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질은 어떤 수준인가, 현재 3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과정과 영적 훈련이 과연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바람직한 길을 걷고 있는가, 교단에서 바라는 감리교 목회자 상과 신학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 간에 발전을 위한 토의의 장은 마련되고 있는가, 사명을 받고 들어온 신학생들에게 교단과 학교가 협력해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지도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감독만 했지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책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돕는 일을 바로 하고 있었는가 등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어떻게 신학교육을 시켜야 할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신학교육, 목회자 양성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바람직한 감리교 목회자상'을 그려보고, 바로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성과 영성, 감성이 풍부한 감리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문적인 목회자, 목회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정을 두어야 하는가? 교육과 훈련, 정체성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 환경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현재의 근본적 문제인 교역자 수급 조절, 목회자 자질 향상, 학연 갈등을 해결하며, 현재의 교육법상의 학교 법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대학원을 감리교회에 설립하는 안이다. 통합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향후 로드맵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결론 : 수급 조절과 신학교육을 위한 통합신학대학원 설치 향후 로드맵

아쉽게도 올 10월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준비한 목회자 고시 및 예비목회자 교육 안이 부결되었다. 앞으로 2년 동안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교역자 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2009년 제28차 총회 입법의회에서 예비목회자 훈련과정을 일차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2010년부터 제1차 예비목회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15년 6차까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예산이라도 교역자 양성기금은 4억 원이 넘는다. 이 기금으로 예비목회자 교육을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등록금을 받아 6년간 실시한다면 목회전문신학대학원의 기틀을 잡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목회전문신학대학원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2011년 제29차 입법의회 혹은 2013년 제30차 총회 입법의회에서 각 교회 부담금 “신학대학 지원금” 1% 안을 상정하여 통과된다면 2007년 현재 전국 교회 1%의 부담금 총액이 약 50억이 넘고 있으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부담금은 현재의 가치로도 약 250억이 넘을 것은 분명하다. 이 기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혹시 만약 2011년 이 입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씩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라면 산술적으로 2014년까지 통합신학대학원 설립 기금으로 쓰일 부담금이 약 100억 이상 모일 것이므로 2014년 대학원 건물 설립을 위한 100억을 기준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의 기금으로 통합신학대학원의 건물들을 완공한다면 2019년도에 통합신학대학원을 개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제3분과

위원장 : 전용재 서기 : 김학중

위 원 : 윤형노 정양희 강석봉 김두범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개요

감리교회는 중앙집권적인 감독제 교회로서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목회자 파송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원화 감독제를 채택하여 각 연회마다 감독(2년 임기의 비상임)이 있고 총회는 4년 전임의 감독회장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 인해 본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감리교회의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감리회 본부에서 준비된 정책이 총회를 거쳐 각 연회의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감리교회는 발전과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회 본부 운영이 초기에는 부담금이 적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체제여서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재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본부에 대한 불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러한 불만 때문에 결국 정책과 사업을 분리시켰으며 감사도 주로 회계감사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로 ‘정책은 본부, 사업은 연회’가 하도록 이분되었다. 이로 인해 본부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반쪽 본부가 되었으며, 그 정책에 대한 시행과 평가는 어디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정책의 입안과정을 검토하는 본부의 감사나 또는 그 정책에 따른 사업의 실행을 살펴야 하는 연회의 감사 내용 중 어디에도 이런 문제는 지적되지 않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체제가 된 것이다.

또한 현재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도력의 문제다. 감리교는 감독제 교회이며 모든 교회는 감독의 교회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감독이 금품으로 얼룩진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불신을 받고 있다. 감독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감리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산되는 감독으로 인하여 감독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감독선거의 폐해는 지도력의 약화로 나타

나고 있다. 지도력의 약화는 감리교회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과 교권의 불신으로 나타난다. 감리교회는 어느덧 선거에 관여하는 정치집단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목회자들의 학연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으며 또한 일부 정치장로들의 세력화는 감리교회의 병폐가 되었다. 최고 성직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과 혜택이 오고 갔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누구도 감독을 감리교의 최고 지도력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도덕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상실한 감리교회는 돈과 성 문제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모습은 이렇다 하더라도 감리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감리교회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래는 젊은이의 몫이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젊은이들이 각종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감리교회는 총회 대표를 연급 순으로 배치하고, 장정에도 없는 법이나 규정들을 적당히 해석하여 원로원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나이 많은 이들의 경륜과 지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빠진 회의는 창조적일 수도, 생산적일 수도, 개혁적일 수도 없다. 이런 의회제도 하에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감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올바르게 풀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희망을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단기발전위원회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하기에 제4분과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단기 방향을 세워보고자 한다.

1. 본부 구조개혁

감리회 본부는 문자 그대로 감리교회의 핵심이며 사령부이다. 감리교 최고의 전문가들과 엘리트 그리고 행정가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감리교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본부에서 일해 보기를 소원해야 할 터인데 이제는 본부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웬만한 목회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생활이 목회하는 것보다 못하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본부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많이 탄다. 본부 직원들은 다 연줄로 들어갔다. 부담금은 내는데 혜택이 없다. 외국만 다닌다.” 등등 부정적 인식과 피해의식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부의 인원을 구조 조정해야 하며 예산을 아껴 선교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예산을 들여 전문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어 효과적인 본부 구조 방안을 연구하였다. 컨설팅 연구 결과는 이대로는 안 되며 팀장제도로의 전환을 조언하였다. 물론 종교단체의 특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구한 것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구조 조정과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감리회 본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정책과 사업의 분리에 있다

정책과 사업의 분리는 본부를 반쪽 본부로 만들었다.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업과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막았고, 정책과 사업은 어디에서도 검증받지 않고 있다. 본부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이런 구조는 직원들이 일을 창조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해왔던 일만 되풀이하는 복지부동의 관료제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각 부서들 간 정책과 사업이 때론 중첩되고 충돌하곤 한다. 그런데 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본부 내에 없다. 이제는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본부 구조를 개편하여 정책부서와 기획부서, 사무부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인사가 만사라 한다.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되었다기보다는 학연과 지연 등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혹은 평가 없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부가 운영되므로 자진 사직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무능하여도 교체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부 업무에 대한 감사권의 강화가 필요하고 잘못된 법 집행이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서는 총회실행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문책이 따르는 구조로 변화하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연공서열을 분명히 하여 승급 혹은 정직 등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개발 없이는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무직 여직원들은 그 부서의 스태프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비서 기능에 더 가깝다. 전문화된 간사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련목회자의 활용을 검토하고 젊은 목회자를 중간 관리자(과장, 대리)로 채용하여 모두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본부가 되어야 한다.

(3) 선교사 관리가 취약하다

현재 676명의 국외 선교사가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다. 선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지역마다 선교사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태국-성추문, 필리핀-폭력사태). 참으로 중요한 국외선교가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된다. 미연합감리교회의 세계선교부(GBGM)처럼 국외선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선교사 관리와 교육을 하는 부서를 구분하여 확대하고 선교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장정개정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재 감리교 최고 상위의 조직처럼 되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총회실행부회의보다도, 감독회의보다도 상위에 있는 조직이 되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총회의 한 위원회에 불과하다. 독립적 기능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 위에 있는 조직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리교의 정책과 사업은 법으로 입안된다. 그런데 그 입안을 현재와 같이 장정개정위원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법률 개정의 권리를 각 국과 연회에서 직접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개정안을 수납하여 처리하는 법사위 정도의 기능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법의 집행을 위해 헌법과 법률, 정관 및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만 입법의회에서 다루고 시행규칙과 내규 등은 총회실행위원회 수준에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각국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야 한다

연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각국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어서 국 위원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임되어 계속해서 위치만 바뀔 뿐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국 위원을 마치면 교육국 위원으로 가고, 교육국 위원을 마치면 재단이사회 위원으로 가는 등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총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렴하고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본부의 개선방향

(1) 정책과 사업의 통합

전통적으로 본부가 정책을 담당하고, 그 정책에 따른 사업은 지방이 담당하여 실시해 왔다. 그런데 본부에 대한 불신과 연회의 확대로 이런 기조가 바뀌어 감리교회의 정책과 사업은 ‘정책은 본부, 사업은 연회’라는 기조 속에서 최근까지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기조 속에 전개된 정책과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변변한 평가조차 받아보지 못하였다. 연회는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못했고, 본부감사와 연회감사 모두 정책에 따른 사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시행되었는가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년 전임감독제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아 여러 모순을 낳았다. 4년 전임감독제에서는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과 사업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본부가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연회는 인사와 행정을, 그리고 지방은 본부와 손을 맞잡고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일하는 본부

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본부는 일하는 본부가 되어야 한다. 본부는 감리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정책을 입안하는 브레인 집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실천집단이 되어야 한다. 본부의 임직원은 본부에서 일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을 하며, 감리교인 누구든지 본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꿈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일하는 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사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직무평가제가 도입되어 자격(전문성, 자세)있는 사람들만이 근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열심히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연회총무와 본부총무는 급여는 비슷하지만 주거환경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연회는 총무나 간사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본부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다. 일선 교회에서는 부목사라 하더라도 주택문제는 해결해 준다. 생활에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부에 일하는 부장

목회자들은 주박을 자신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거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재산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총무부터 무상임대하고, 각 부장에게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본부 내 모든 부서의 획일적인 구조 조정에 대해 말해 왔으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즉 지금의 정책부서는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전제로 최소한의 부서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과 사업의 통합은 그야말로 ‘일하는 본부’에 맞게 요구되는 부서와 인원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관리업무는 전산행정의 발달로 그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명세서를 통해 업무의 가중도를 파악하고 인원배정을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고 인사고과를 통해 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총무 인사위원회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지려면 본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정치색으로 선출되는 인사시스템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선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위원들은 각 분야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외부인사 1/5로, 감독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각국 총무, 실장, 원장의 후보자를 모집하며, 이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심사한다. 서류심사를 통하여 개인비리와 전과기록 등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즉 교회재산의 재단등록과 각종 부담금 납부현황(정회원 이후 현재까지)을 재단 사무국의 확인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각종 범과기록서도 함께 제출한다.

위원회는 두 번째로 후보 청문회를 구성한다. 청문회는 후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 전문성을 검증한다(감독후보 청문회는 감독제도에서 논함). 출마하고자 하는 ‘국’에 관한 정책과 업무에 관해서 그 동안 무엇을 해왔으며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그 ‘국’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총무는 감리교의 실무책임자다.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의 시행을 지휘하는 직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지도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현대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다. 그 동안 일해 온 교회와 기관에서 정책과 사업을 결의하고 시행해온 과정에서 어떻게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해 왔는지를 살핀다.

위원회는 세 번째로 청문회의 결과(평점)를 임명권자에게 보내 임명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4) 행정기획실 신설

비서실은 행정기획실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한다. 전임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현재 비서실을 감리교 산하 각부를 조정·연결시켜주는 행정기획실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획실에서 감독회장의 정책과 실제 지침사항을 각부 산하 기관의 사업과 방향에 잘 반영되도록 연결해 주며 부서들 간의 업무 충돌 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며, 감독회장의 일관된 명령에 따라 그 업무를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5) 세계선교국 신설

선교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외선교 업무를 세계선교국(局)으로 승격시켜 해외선교 사업을 운영 관리하게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감리교회는 73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 모든 선교사를 관장하고 해외선교를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려면 세계선교국으로 독립하여 세계선교정책을 세우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선교사 훈련기관을 관리하며, 선교사들의 현지 상황과 업무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조직으로는 해외선교사들의 지도 감독 및 통제가 전무한 실정으로 작년 필리핀 사건의 고통을 겪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해외선교에 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계선교를 위한 부서의 확대와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6) 장정개정위원회에 관하여

장정개정위원회는 국회의 법사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모든 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작성하여 입법의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처럼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현재의 법률체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법사위에서 살펴 통과하듯이(물론 법사위 자체로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에 속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낼 수는 없다) 해야 한다. 본부와 연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의와 작성이 이뤄진 후 이 개정안이 감리교의 장정에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 조정하여 통과시키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 즉 총회의 한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

(7) 국 위원 임기에 관하여

몇몇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 위원을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마쳐야 한다. 과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 몇몇 사람들이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면서 일을 맡았으나 지금은 달라졌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풍부해졌다. 일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 위원 임기 2년을 마친 사람들이 계속 연임하거나 바로 다른 국 위원으로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 국 위원이 된 사람은 그 임기를 마친 후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다른 국으로도 갈 수 없어야 한다. 반드시 한 번을 쉬어야 한다. 즉 2년 임기를 마친 후 반드시 다음 2년 동안은 어떤 국 위원도 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여 한 번 쉬 후에는 다시 국 위원에 선출될 수 있다.

(8) 새로운 특별위원회 제도를 신설

현재 각국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 제도를 보다 전문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게 한다. 즉 현재의 위원회는 각국 총무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으나 새로운 특위는 자문기능이 아닌 각국과 연계하여 직접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재정은 자립적으로 한다.

예: <군선교회/ 농촌선교회/ 교정선교회/ 감리교장학사업회/ 학원선교회> - 현존 위원회
<별세목회자사업회/ 교회개혁선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장애인선교회/ 사랑의쌀나눔위원회>(예를 들어 감리교 농촌교회에서 생산된 쌀로 하며 가급적 친환경쌀로 한다) - 신설 위원회

위에 신설된 각 위원회는 5,825교회 개 교회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케 하며, 스스로 사역을 계획, 활동케 하여 모든 인력과 재정은 참여한 교회가 스스로 분담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신설된 각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 특별위원회에서 일할 수련전도사들을 허용토록 한다. 또한 개 교회 파송자원 봉사자들을 영입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각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본부 내 신설부서 혹은 국(局)으로 승격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9) 각 재단과 사무국의 분리에 관하여

현재 일각에서 재단사무국을 분리하여 재단 기능과 사무국 기능을 분리하여 각국으로 독립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첫째, 회계업무의 통합이라는 원칙이 사라지게 된다. 그 동안 본부에 대한 불신 중의 하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회계업무의 통합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흔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재단이 따로 독립된다 하더라도 재단의 수익관리는 일원화하여 사무국 회계 업무에 종속시켜야 재정의 투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분리론의 논거 중 하나는 목회자와 평신도 동수에 관한 사항이다. 즉 선교국/교육국/홍보출판국 3국의 총무가 목회자이고 사회평신도국 총무만 평신도이므로 이를 동수로 하자는 논리

가 배후에 있다. 그래서 재단도 독립하고, 홍보출판국도 분리하고 기독교타임즈도 독립시켜 동수로 하게 하자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나눠먹기 식 인위적 구조개편으로는 감리교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2. 감리교 감독제도

1) 현행 감독제도의 문제점

“제가 여러분을 위한 성직자라는 사실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 자신이 감독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전자는 제가 떠맡고 있는 직능의 이름이지만, 후자는 제가 받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전자는 위험을 뜻하지만, 후자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의 설교집에 나오는 말이다. 제 2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인용된 말이기도 하다. 무릇 교회 정치에 뜻을 둔 이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경구가 아닐 수 없다. 교인들을 위해 섬기고 치리도 하기 위하여 감독이나 감리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도 필요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능의 이름’ 일 뿐 교인들과 더불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즉 ‘은총의 이름’에 앞서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권의 자리가 항상 위험을 수반한 자리인 데 반하여,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교인들과 함께 있는 낮은 자리는 구원의 자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감리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감독제도이다. 물론 중앙 집권적 감독제가 시작된 미국 감리교의 경우 파송권을 가진 강력한 감독의 치리를 통해 눈부신 성장과 효율적 행정 관리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고도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가지는 술한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감독제를 그대로 수용한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와 분열주의로 인해 많은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결국 단일 감독제에서 복수 감독제로, 다시 4년 임기의 전임 감독회장과 2년 임기의 10개 연회 다원 감독제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이른바 ‘한국적 감독제’의 정착을 위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온 우리는 감독제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파송권과 순회 목회제를 상실한 채, 그 상징성만 보유하게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감독의 실질적 치리권을 대폭 잃어버린, 명예만 남은 감독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연과 금권을 매개로 한 선거 열풍은 날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으며 술한 후유증을 놓고 있어서 감리교를 병들게 하는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겨우 16.8%에 그쳤으나 불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63.2%에 달했다. 더욱이 현행 감독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대답은 13.8%였으나 불만을 표출한 사람은 73.3%나 되었다. 불만 이유는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며, 학연과 지연에 근거한 갈등이 증폭되며, 총대 숫자가 적어 대다수 목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는 인물난까지 겹쳐서 전현직 감독이 100여 명에 이름으로써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감독직이 감리사 급으로 추락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물론 제도가 변한다고 해도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감독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현행 감독제에 대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감독제의 두 가지 개선안

현행 감독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로, 감독제를 폐지하고 연회장 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감독제가 떠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즉 성직의 계급화를 막고, 선거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감리교의 교조인 존 웨슬리는 감독제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미국 감리교의 아버지 프랜시스 애즈베리가 감독이 되었을 때에도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연회장 제도가 미국 감리교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웨슬리적 혹은 감리교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 감독제를 거부하고 의장제를 채택한 영국 감리교가 더욱 더 웨슬리적이라고 할 때, 연회장제는 웨슬리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연회장제는 장로회 전국 연합회도 지지한 바 있고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연회를 통폐합한 광역별 전임 감독제는 20.2%, 연회 수는 그대로 두고 2-3개 연회를 관할하는 전임 감독제가 16.2%의 지지를 받은 반면에 연회장제는 52.5%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사실에서도 감리교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회장제 역시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된다. 후보 자격자를 선정하는 기준, 구체적인 선거 방안, 감리사와의 관계 설정 등등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뜰이나 중앙 집권적 감리교가 지역 분권적 감리교로, 혹은 연대의식이 날로 줄어들어 개 교회주의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는 판에 감리교의 구심점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기존의 감독으로 상징되던 교단적 권위 혹은 실무적 권한 행사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연회장의 위상 격하 내지 무력화를 촉진시켜 연회 총무 중심으로 전환될 염려 또한 지을 수 없다. 연회장이 각 연회를 대표

할 경우 타 교단장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감독제로 고착되어 온 감리교의 정체성이 손상되어 그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연회장제가 감독제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4년 전임감독제를 기반으로 한 연회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교단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연회장제를 취하면 연회는 인사와 행정만을 담당할 터인데 그때 연회장과 총무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좀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로, 현행 감독제를 살리되 수정 보완하자는 안이 있다. 이 경우 한국에 감리교가 들어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온 감독제야말로 감리교의 기본 체제이므로 정체성 차원에서 그 어떤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쳐나가야지 그 본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 수정 보완안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크게 두 갈래가 있다.

먼저 임기 4년의 전임 감독 회장직은 그대로 살리되, 현 10개 연회를 절반 수준인 5개 연회로 축소 통폐합해서 4년 전임제 감독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광역별 4년 전임 감독제인 것이다. 이 경우 분권화되어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줄어든 현행 연회 감독제를 감독 회장 수준 정도로 격상시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독회장과 임기를 함께 할 뿐 아니라 전임으로 연회를 돌볼 수 있기에 감독회장은 전체 감리교의 행정 수반으로서, 연회 감독들은 사업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양자 사이에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2년마다 대량으로 양산되는 감독 수에도 제동을 걸어 감독의 권위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금권과 각종 이해관계로 얼룩져온 감독 선거의 근본적인 타락상을 방지하기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비대해진 연회가 됨으로써 당장 연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장소 물색이 어렵고 효율적인 치리 문제 역시 썩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회 수는 그대로 두고 4년 임기의 전임제 감독이 2-3개 연회를 동시에 치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장점은 연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각각 다른 독립 연회를 1인 감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치리할 수 있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선거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타락상을 막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감독 수를 줄여 희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장점	단점
연회장제	1. 감독선거의 타락상 방지 2. 감독의 귀족화 및 위상 실추 방지 3. 성직의 계급화 방지	1. 연회의 무력화 촉진 2. 개 교회 분권주의 가속화

4 년 전 임 감 독 제	광역별 통합 연회 4년 전임 1인 감독제		1. 감독선거의 타락상 방지 2. 연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소집 난항 3. 연회의 통폐합 및 분할 난항
	2-3개 연회 4년 전임 1인 감독제	1. 감리교의 정통성 및 연속성 확보 2. 감독 수 축소를 통한 감독의 권위 상승 3. 감독회장과의 효율적 공조 체제	1. 감독선거의 타락상 방지 2. 업무의 효율성 저하 3. 통솔력 저하

3) 감독선거제도의 개선안

치열한 선거를 마치고 당선된 감독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다가 감리교 다 망해!” 선거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이 얼마나 비 신앙적이었으며 일반 사회의 선거보다도 더 부끄러운 과정이었던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당선된 감독들은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지만 선거과정에서 부스러기를 먹어본 선거꾼들은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막아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부끄러운 선거양태를 지속케 하였다. 진실로 보다 근원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감리교회를 이뤄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며 선출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처럼 감독후보청문회를 제안한다. UMC에서는 인종, 성비, 출신국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감독후보가 먼저 선출된다고 한다.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후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연회 내 결산의 몇 퍼센트 이내의 사람들만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회원은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 교회의 크기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위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이나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마쳐야만 비로소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후보청문회 구성 시 청문위원들은 선교·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예: 군선교, 학원선교, 환경선교, 교회 성장 등등)들과 청년, 여성으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청문회는 감독후보자가 편중된 사고와 활동이 있는지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식견과 경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청문회 결과(평점)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원들이 결정토록 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비뽑기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마친 후보는 다 제비뽑기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야기되는 제비뽑기제는 투표로 2-3인을 거른 후 그중 한 명을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현재의 부끄러운 선거풍토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독에 나오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이 최소한 2-3명 안에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지금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를 할 시에는 그 관리를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3. 의회제도 개선과 총회대표

1) 의회제도 개선

(1) 연회

현재 연회장제도와 권역별 감독제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만일 연회장제도로 간다면 연회는 인사와 행정만 담당하고 본부가 정책과 사업(지방을 파트너로 함)을 관장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권역별 감독제도로 가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된다. 그중 하나는 앞서서 지적된 것처럼 한 사람의 감독이 2-3개 연회를 치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며 정책과 사업의 분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27차 총회 입법의회에서 권역별 감독제도가 부결되었으므로 이같은 고민은 줄어들었다.

또한 권역별 감독제도는 지금과 같이 본부는 정책을, 사업은 연회가 담당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연회가 거의 없다. 각 연회당 유지비(인건비, 경상비, 관리비 등등)가 평균 3억이다. 10개 연회의 부담금을 대략 합산하면 약 60억이 되는 데 이중 30억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연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립하려면 최소 연회결산이 15억은 되어야 자립이 된다. 그러므로 권역별 감독제보다는 2개 이상의 연회를 통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감독이 비상근일 경우 총무제도는 행정직으로 보다 전문직화하여야 하며, 만일 권역별 감독제 등 감독이 상근이 될 경우 총무보다는 수석 간사가 더 적합할 듯하다.

(2) 지방

지방은 감리교 행정과 사업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런데 현재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이 별로 없다. 즉 지방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지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소한 50-60개 교회가 지방의 구성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감리교 사업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되면 부부 동반하는 교역자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혜를 발휘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교역자 회의는 매달 하되 부부 동반하는 교역자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그때는 이를 치를 수 있는 교회에서 하면 될 것이다.

(3) 당회와 구역회

당회와 구역회를 합해야 한다. 그런데 당회와 구역회의 그 기능과 역할이 너무 다르므로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구역회가 가졌던 재산관리와 인사관리는 연회로 이전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처럼 미자립교회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개체 교회를 3년간 담임해야 한다. 인사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척 교회는 미자립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회를 떠나 그 교회가 폐교회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역회의 본래 목적은 목회자 생활비의 담당인데 현재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간판을 걸고 구역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자립교회는 양산될 수밖에 없으며 미자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대로 입교인 12명 이하일 때는 기도처로 하며 입교인 12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회로 하여 교회로서 최소한의 기틀을 갖고 시작하게 해야 한다.

2) 총대제도

현재 우리 총대의 구성은 연급 순으로 하고 있다. 전체 총대 수가 정해지면 위로부터 연급 순으로 총대를 뽑고 있다. 연료와 경험이 돋보일 수 있으나 총회의 창의성이나 생산성 분야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장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장정에 의하면 모든 정회원은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총대는 세대별 균형과 성비의 조화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세대별

먼저 목회자의 경우 연회별 30대는 2명, 40대는 3명을 세대별 대표로 뽑고, 평신도의 경우 현재 규정대로 연회별로 청년회장, 청장년회장을 당연직 대표로 한다.

(2) 성비

가급적 30% 조항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개폐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 감리사가 당연직 대표인 것처럼 지방 여선교회장을 당연직 대표로 한다. 연회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도 현재대로 당연직 대표로 한다.

(3) 전문성

총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다음의 10개 분야(법률, 회계, 경영, 교육, 환경, 노동, 문화예술, 농업, 사회복지, 인권통일)의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다양한 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킨다(이들에게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특히 감독회장은 목회자와 평신도 각 2명씩 10개 분야의 대표를 총회대표로 2명씩 총회에 추천한다.

이하 남은 숫자는 연회 자체에서 민주적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세대별로 총대를 뺏을 수도 있다. 1인1표주의 원칙에 따라 각 연회마다 연회원의 세대별 구성비로 총대를 선출한다. 이때 세대별 대표는,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가 선출하는 것처럼 그 세대에서 선출기로 한다.

3) 파송제도

감리교회는 중앙집권제이며 형식적이거나 파송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 하나는 개 교회주의와 교회의 사유화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물질주의는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 ‘내가 세운 교회,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결국 교회를 세습하기에 이르렀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스스로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져든 격이 되었다.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형식적인 파송제를 실질적인 파송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물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소유의식을 버리고 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감리교의 오랜 전통인 파송제를 다시 복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파송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왜 파송제가 실질적으로 무너졌으며 형식적인 제도가 되었는지를 세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이 주는 장단점을 잘 헤아려 시험적이라도 실시해 보는 것이 ‘희망의 감리교회’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4. 나오는 말

희망이 있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야 할 것이다. 불신 받는 지도력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존경받는

지도력이어야 감리교가 새로워질 수 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각종 회의 구조가 타파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미 감리교회에는 이 정도의 인적 구조는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발붙일 수 없는 총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독 선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존경받는 지도력이 되어야 하며, 감리교회의 모든 회의구조에 참신하고 청렴한 인재들이 등용되어야 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총회가 되기 위해서 세대별 직능별 총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회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뜻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리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다. 위에 기술한 여러 제안들을 포함한 장단기발전위원회의 내용들을 감리교회가 잘 받아들여 진정 희망이 있는 감리교회, 새로운 감리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인 것이다.

제4분과

위원장 : 박상철 서기 : 차흥도

위원 : 고신일 김흥규 유광조 홍은파 김영동 신동선 유희용 조명동

미래형 감리교회상

개요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제5분과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 주제가 미래와 관련되었기 때문이고, 아무도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미래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그것은 시간공학에 바탕을 둔 세계성격에 대한 이론일 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쇠퇴기를 겪고 있는 서구교회에서 모델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교회의 유럽 전통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찾는다는 것은 그 출발과 경로가 너무 달라 오히려 혼란스럽다. 다만 신앙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의 심성과 점점 비종교화하는 사회적 양태는 서양이나 한국 사회나 너무나 유사하여 예외로 삼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제5분과가 찾고자 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와 손에 잡힐 만한 예측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근본과 교회의 원형질이었다. 그것은 교회가 지닌 영적 DNA에 관한 문제이고, 신앙의 뿌리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섬김의 영성’이란 실마리를 찾았고, 그 신학적 기초와 역사적 경로, 한국 교회의 요청 그리고 미래적 변화라는 논리적 흐름으로 과제를 전개하게 되었다.

장단기발전위원회 제5분과는 제1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 제2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역사적 반성’, 제3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제4부 ‘미래 교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백서〉’를 통해 상찬한다. 이미 기독교타임즈와 공동으로 목원대학교에서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선을 보인 바 있고, 월간 〈기독교세계〉를 통해 지면에 맞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제 감리교 공동체 모두의 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자 평가의 장에 나섰다. 앞으로 신학적·선교

적·목회적인 측면에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위가치와 실천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 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리교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1. 왜 섬김의 영성인가?

영성(靈性)이란 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vita christiana)의 질, 곧 삶의 신적 높음과 인간적 깊음과 우주적 넓이를 지닌 성품과 자질을 말한다. 우리는 교회사에 나타나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고 메말라 가는 심령을 축축이 적셔준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을 떠올릴 수 있겠다. 최근 ‘영성’이란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과학기술과 시장경제에 의한 일상생활의 지배를 들 수 있다. 근대 합리주의와 과학기술, 특히 최근의 나노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은 생명까지도 조작 혹은 제작 가능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종교 공간까지 지배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각 민족의 장벽을 허물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무한 경쟁과 맘모니즘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 인간의 삶에서 ‘성스러움’의 아우라는 상실되고 잊혀졌을 뿐 아니라 맘몬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범람하고 있어 ‘영성’과 ‘도덕성’은 커녕 일반 상식조차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 시대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 삶을 파괴하는 정보를 원하지 않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를 원한다.

둘째, 교회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고 도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속적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운 일이다. 위기를 극복할 방도는 있는가? 최근 감리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기와 몰락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중에는 ‘성공적인’ 교회를 연구하고 그 교회를 흉내내기도 하고 ‘복음주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재무장함으로써 더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실용주의에 성서적이고 웨슬리적인 것은 없다. 웨슬리는 결과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성서적 성화의 달성으로, 다시 말해 ‘영성’으로 측정하였다.

하여 ‘영성’이 치료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교회와 신학에서도 그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더 나아가 남발되고 있어, 혹자는 영성이 영성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신학대학에서는 영성 신학이 개설되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심령 부흥회 대신 소규모 그룹의 만남과 영성 수련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프레스디아스 등 여러 종류의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가 늘고 있다. 또 하나의 유행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영성은 유행 속에서 싹틀 요소가 아니다. ‘영성’은 생활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격조 높은 생활에서 자란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 증언하는 영성의 대가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최근 몇몇 신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영성이란 “영으로부터 나온 삶”, 요컨대 “하나님 앞에서 영에 의하여 행동했다고 지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Karl Rahner)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영에 응답하는 삶의 형성”(John Cobb)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인간의 생동적인 헌신의 태도로서 삶 자체의 다양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가능한 관계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형태가 있다”(G. Greshake)라고 정의한다. 인도 신학자 토마스(M. M. Thomas)는 “인간의 영성이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성스럽고 의미 가득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길이다”라고 말한다. 핀바르 코놀리(Finbarr B. Connolly)에 의하면 “‘영성’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닌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영성이란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후덕(厚德)하고 인자(仁慈)하며 의(義)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개신교 교회와 신학에서 영성에 해당하는 단어는 ‘경건’(敬虔)일 것이다. 경건은 원래 신앙에 근거하여 활동적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경건주의와 19세기의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에서는 점점 개인의 내면성에만 관련된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성’에 그 자리를 내주는 듯싶다. 영성은 전체적인 품성과 신앙의 공동체적 수행과 사회-역사적 실현을 강조한다. ‘경건한 자’가 끊임없이 새롭게 요구하고 새롭게 부여되는 용서에 의하여 산다면, ‘영성의 인간’은 새로운 인간, 영적 성장,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살며, 기계적이고 파편화된 삶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삶을 지향한다.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을 두루 지니고 있으며, 특수하고 구체적인 실현과 동시에 보편적인 전체성을 추구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시키고, 몸과 마음을, 자연과 인간을, 여자와 남자를,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 교류하는 영성이다. 새로운 영성은 만물의 창조자요 새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사귀를 통해 탄생한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기독교를 의문과 법의 종교, 교리나 행위의 종교로 보지 않고 마음의 종교로 이해했다. “기독교란 일군의 견해나 교리체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관한 것이다”(《성경적인 기독교》 05). “당신들의 종교를 마음의 종교가 되게 하십시오”(《산상설교 V》, 13). 마음의 종교란 명목상의 종교, 형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실제적인 종교, 마음과 생활에서의 기독교인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마음의 종교란 내면적인 심성의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웨슬리에게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이다. 기독교는 “본래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화 없이는 잘 유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산상설교 IV》, 01). 웨슬리의 위대한 구원에 기초한 영성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창조의 영성이다.

이 글은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를 영적 혁신을 통해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혁신의 성공 여부는 신앙의 근본적 핵심으로부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글은 오늘 한국 기독교, 특히 감리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새로운 영성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 판단하여 영성을 섬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칭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랑을 통한 성화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기독교자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서 ‘섬김/섬기다’(διακονεω)는 제자를 제자로, 사도를 사도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근본어(根本語)다. 섬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事天)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만드는 삶(事人)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의 근원적인 어의는 식탁을 준비하고 식구들 각자가 필요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 직접 고용인, 시중드는 자, 하인이다(행 6:2).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의 자세와 방식으로 자기 주를 섬겨야 한다. 부름받은 인간이 ‘디아코노스’ 혹은 ‘둘로스’(δούλος)로서 섬겨야 할 올바른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마 6:24; 살전 1:9)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섬기는 자의 자질은 공경스러운 자세다. 특히 윗사람은 예(禮)로써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영성은 성령에 잇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의 길에 근거하며 거기로부터 나온다.

신약성서에서 디아코니란 말은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도움과 돌봄을 의미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란 말이 밀받침되고 있다.

예수의 뒤를 따르고 대리하는 행위 속에서의 사랑의 활동(Diakonie)이란 굶주린 자와 함께 먹고 배고픈 자와 함께 마심으로써 그들의 생이 하나님의 영의 현존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섬김의 직분이란 몸과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어 위태롭게 된 삶의 세계 속에서 건강하고 복된 생을 가능케 하는 거룩한 사명이다. 예수님의 “섬김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이고 의롭고 형제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데 요청되는 솔선과 창조성, 지식 그리고 힘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구티에레즈). 섬김은 생명의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구원과 해방, 살림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과 정의의 선언이며 하나님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

섬김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왜 섬기셨나? 예수는 섬김으로써 은혜와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나라를 이루려 하셨다. 예수는 섬김의 도를 들고 실천하는 제자들, 곧 교회를 통하여 작은 자들을 하나님나라에 초대하신다.

2. 섬김의 영성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감과 섬김에서 비롯된다. 삼위일체 신관은 기독교의 고유하고 독특한 신관이다. 삼위일체 신관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이다. 희랍철학에서의 신은 존재자의 근거이며 원천이다. 이 신은 무한하고(infinite) 불변하며(immutable), 분할 불가능하고(indivisible) 불멸하며(immortal), 독립적이고(independent) 자족하며(self-sufficient) 무감동한(impassible) 신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의된 신은 자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존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신은 아무런 욕구를 갖지 않는 자족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 신은 자기 자신만을 요구하고 사랑한다. 이 신은 변하거나 고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랑받기만을 원한다. 이 신은 마음을 고치거나 후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모른다. 이 신은 죽음에 대한 고통을 알지 못한다. 이 신은 철저한 개체적 존재, 즉 단자(monas)이다. 희랍철학은 철학적 일신론(monotheism)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초기 기독교 신학은 희랍철학과 만나 교리가 형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삼위일체론을 발전시켜 고찰하면서도 동시에 철학적 신의 원리와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기독교 신론에는 우주의 창조자이며 세계의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플라톤적 신관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신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일신론적 전통과 하나님의 경륜(economy)을 결합하여 터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론을 “una substantia - tres personae”로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일군주 체제는 삼위일체론적 세분화를 통하여 지양되지 않았는데, 단일군주 체제에서는 아들과 성령은 전체의 신적 실체인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근대신학은 실체를 주체(subject)로 바꿔 신학적 유일신론을 강화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근거를 신적 실체의 동질성이나 절대 주체의 동일성으로 보지 않고 세 인격의 공동체성, 곧 공동체적 사감과 섬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삼위-일체(三位一體)는 삼위-일공동체(三位 - 一共同體)이다. 일체의 근거는 형이상학적 본질의 동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근원적이며 동등하고 순환적이고 회호적 관계(perichoresis)에 근거한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체론자나 주관주의적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한 고립적 개별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에서 통일성을 발견하는 상이한 인격들의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의 원형이다.

기독교 예술에 삼위일체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다. 삼위일체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 대부분 두 인격과 한 동물, 곧 비둘기를 통하여 기술된다. 그런데 15세기 초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료프(Andrei Rublyov)가 그린 이콘(聖像)은 세 인격으로 삼위일체를 묘사했다. 이 이콘은 삼위일체 이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다. 삼위일체 이미지의 모델이 된 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이콘의 중요한 특징은 원형 구도이다. 삼위일체를 세 천사가 성찬의 잔이 놓인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원형 구도 속에서 삼각형의 정점에 중앙의 천사가 위치하게 되어 있다. 중앙에 있는 천사는 성자인 그리스도로서 신성과 인성을 매개하는 존재로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형상화했다. 중앙의 천사는 그리스도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주색 치통과 푸른색 망토가 그것이다. 이 색상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해 주며, 전체적인 색상 조화를 통해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다.

전체 주제는 부드러운 초대와 사귄다. 이 이콘은 그 안에 들어가 머물기 위한 거룩한 장소로 그려졌음을 점점 깨닫게 되어, 세 거룩한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분위기에 젖어든다. 이 이콘에서 삼위의 세 인격은 몸과 머리를 서로에게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내적인 지향을 통해 깊은 사귄과 일치를 보여주며, 이 일치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결합시키며 이 일치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다. 그들은 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그 원은 닫혀 있지 않다. 성자에게 몸을 기울이신 성부의 움직임과 성부한테로 몸을 기울이신 성자와 성령, 두 분의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이 드높여지고 든든해지며 열려진 사이로 하나님의 교통과 사귄에 초대됨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은 가공할 세상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아름다움을 보는 것임을 암시한다.

뒤 배경에는 집과 나무가 있다. 이 이콘의 배경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서 낯선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섬김의 예를 갖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이들의 발을 친히 씻기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게 하고, 아내 사라와 종에게 일러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게 한다. 그들 집안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방문자들의 신원이 야훼와 두 천사로 드러난다. 그리고 야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내린다.

식탁 위의 잔은 골고다 산 위에서 일어난 아들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다. 마르레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가 되고, 아브라함의 집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산은 기도와 묵상의 영적 고지가 된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드렸던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희생양은 이콘의 핵심을 이룬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은 그 희생양의 의미를 드러낸다. 성자는 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성육신을 통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희생양이 되시는 당신의 사명을 암시한다. 왼쪽의 성부는 축복하시는 손짓으로 성자를 격려하신다. 그리고 지팡이를 드신 성령은 제대 앞쪽에 있는 열린 사각형을 가리키면서 이 거룩한 희생은 구원하기 위한 희생임을 말씀하신다. 이 삼위일체 이콘을 보는 자는 섬기기 위한 아들의 희생에서 솟아나는 상호 일치를 보게 되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섬김의 영성이 흘러나와 인간의 삶을 채우고 넘쳐 온 사회와 우주

에까지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영성의 원천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귄과 친교, 특히 섬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다.

3. 예수 디아코논

신약성서와 교회는 예수에 대한 수많은 호칭과 이미지가 담겨 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호칭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등 매우 많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를 랍비, 이방인의 빛, 왕 중 왕, 우주적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영혼의 신랑, 영혼의 시인 그리고 해방자 등으로 이해해 왔다. 여기서 우리에게 다음의 질문이 생긴다. 시대마다 장소에 따라 다양한 예수 이해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이해 속에서도 공통적인 예수의 근본 행위는 무엇인가? 신약성서가 말하는 예수는 유대적 표상이나 희랍적 개념이나 어느 시대의 최고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것이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빌 2:5 이하) ‘세상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섬김의 종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긴 주님’ 이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요 6:15)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요 13:5) ‘섬김의 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신 분이다. 예수는 자신의 직분을 ‘디아코니아’, 곧 ‘섬김’으로 명시한다.

신약성서에서 ‘봉사자’ 혹은 구약의 ‘야훼의 종’ (사 52:13-14)을 연상하게 하는 ‘종’은 제자나 사도나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비천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런 자로서 다른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빌 2:6-7). 그는 ‘거룩한 종’(행 4:27, 30; 3:13, 26)이요 할례 백성의 일꾼이다(롬 15:8). 예수 자신이 섬기는 자이다. 그러므로 위대하고자 하는 자, 동료 가운데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 모두의 일꾼과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지배자나 권력자나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곧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 25-27).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생이라는 칭호도 지도자라는 칭호도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8-12).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으로 섬김을 강조한 데 반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ἐγὼ δὲ ἐν μέσῳ ὑμῶν εἰμι ὡς ὁ διακονῶν)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섬기는 자임을 선언하신다. 예수께서 ‘나는 ……이다’(ἐγὼ εἰμι)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은유요 상징적 언어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διακονῶν)로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가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면 섬김은 지배욕을 은닉한 강자의 위선이 되거나 살아남기 위한 약자의 비굴한 처세술이 되기 십상인 것이 또한 현실이다. 위의 본문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론은 섬김론이다. 그리스도론은 섬김론으로써만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는 섬김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교회의 흥망과 존폐는 세상의 지배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진실인 섬김의 신비(神秘), 섬김의 은비(隱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3장 2-3절의 세족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성만찬 대신 들어와 있는 본문이다.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메시아적 비유행위는 예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요구를 담고 있다. 그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다(요 13:14). 요한공동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형 사랑을 재확인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사랑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1) 하나님나라와 섬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가?’ 하며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는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신앙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만을 내세우면서 예수께서 이룩하신 일은 없어지고, 예수라는 인물이 관념화되고, 더 나아가 마술화, 우상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생긴 질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으셨다. 예수에게 자신은 항상 뒷전이다. 예수는 ‘일’을 내세웠는데 그 일은 자신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나라의 일이다. 예수의 생애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생애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예수가 가족이 원하는 대로 나사렛에 정착하여,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라고 했다면, 예수에게도 문제가 생겼을지 모를 일이다. 예수의 무정주(無定住)에는 인간의 계급과 신분을 상징화하고 은폐시킬 틈이 없다.

나사렛 예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선포와 파송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중심에 있다. 예수의 공개적 선포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나라이다. 하나님나라는 예수가 본 궁극적 실재이다. 그가 거기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을 정의하고 살고 일한 그것, 그의 인격이 그것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예수의 궁극적 실재는 자기 자신도 아니며, 비역사적 초월자(하늘나라)도 아니며 그렇다고 교회도 아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거나, 단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나라”에 관하여 말했다. 예수에게 ‘하나님’은 추상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라는 역사적·포괄적 지평 속에서 만나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역사적 차원은 초월적 차원에 의존되어 있다. 이것은 ‘나라’의 내용이 ‘하나님’의 내용에 의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기독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알리셨느냐(계시)에 달려 있다. 가령, 세례 요한과 예수는 하나님나라를 선포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체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진짜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 사시고, 그의 피조성 속에서 사신 분으로서, 예수의 삶은 탈 중심적인 삶, 탈 이기적인 생명, 그의 중심에는 그 자신이 아닌 것, 곧 하나님나라와 abba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삶이다.

‘하나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진정한 말씀(ipsissima verba)이며, 이 둘은 포괄적 현실을 지칭한다. 하나님나라는 전체 현실을 지칭(종교적 실재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실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 실재, 곧 예수가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가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그의 영혼이 동요하기도 한 인격적 실재를 의미한다. 이 둘은 예수의 삶(가르침과 행위)과 운명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실재이지만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의 기초이다. 예수는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일하셨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인격화된 하나님나라이다(오리게네스). 예수의 공적 선포의 중심적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권에 관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나라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현에 옮겼다. J. 예레미아스에 따르면, 성서에서 영이 계시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방법으로, 즉 행위와 말씀(ἐν ἔργῳ καὶ λόγῳ)으로 일어난다(눅

24:19; 막 1:27; 살전 1:5). 말씀은 필연코 행위를 수반하며, 행위는 선포하는 말씀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계시는 이중으로 가시화된다(마 11:5-6). 즉 능력 있는 행위와 전권을 지닌 말씀으로 가시화된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의 방법을 따라, 말과 행위로 사명을 수행한다. 말만으로는 빈 소리요, 행위만으로는 마귀의 일일 수 있다. 말과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된다.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말의 맨 먼저 뜻은 아니다. 말은 어떤 메시지 이전에 말하는 사람 자신을 전달한다. 말은 인간을 결정한다. 말이 인간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달이다. 그런데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어떤 전달 내용의 교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조차 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가 이렇게 예수 선포의 핵심 개념/언어/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분은 이 말을 정의한 적이 없다. 그날을 아는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막 13:32).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하나님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1) 개념적 이해의 길

하나님나라에 대한 다른 이해, 곧 구약이나 예수와 동시대와 비교하는 길이다. 예수는 ‘하나님나라’란 말을 새롭게 발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유대적 전통에서 흔히 지칭된 속죄의 의미가 예수의 선포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조금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2) 청자, 곧 하나님나라를 듣는 자들로부터 이해하는 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나님나라 소식을 먼저 듣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 곧 작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선 가난한 자, 약자, 작은 자들을 향한다. 예수의 첫 설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눅 4:18)라고 선포하신 예수는 갈릴리의 ‘땅의 백성’(암하아레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작은 자들의 메시아이다.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복을 선포하신 예수는(눅 6:20-22) 아들을 잃고 탄식하는 과부의 눈물을 보셨고(눅 7:13), 창가와 병자들의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며(눅 7:36-50), 18년 동안 병들어 꼬부라진 여인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눅 13:11-17). ‘하나님나라와 하나님나라를 듣는 자’ 사이에 어떤 상응이 있다면, 후자 쪽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성격

을 규정할 수 있다.

(3) 예수의 실천의 방법을 통해 이해하는 길

프락시스는 예수의 말씀의 행위와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가 말씀하고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의 전적인 등장, 그의 비유와 그의 삶의 실천으로부터 온다.

예수는 하나님나라의 도래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나라는 섬김과 사랑으로써 정의와 평화가 만들어지고 창조가 보존되는 나라이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고취시키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치유하며 화해시키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오만과 지배가 사라지고 사검과 배려와 돌봄이 이끌어가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하나님나라'의 소식은 영적·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곳에,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관용이 넘쳐나는 곳에, 차이에 대한 개방성과 대화의 능력이 수행되는 곳에 일어나며, 분열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여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행복이 달성되는 참된 평화의 사건이다.

하나님나라는 지배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이다. 섬김은 사랑의 자발적 표현이요 구체적 표현이다. 행동이 없는 말뿐인 사랑이 공허한 것처럼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섬김은 율법이 되기 십상이다. 사랑과 겸손에서 우러나온 섬김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에 감화된다. 예수의 섬김은 예수의 사랑과 겸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리므로 섬김의 영성은 사려 깊고 바르며 공경스럽고 겸약하며 겸양의 덕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섬김은 비움이며 낮아짐이며 겸손이다. 비움과 낮아짐, 곧 겸손 없이 진정으로 섬길 수 없다. 섬김은 높은 자와 강한 자들이 낮은 자와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선 자신을 향한 말이어야 한다. 비움과 낮아짐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섬김은 높은 자들의 위선적 놀이일 뿐이다. 겉핥하면 고개를 드는 우리의 사심(私心)과 사욕(邪慾)을 자꾸자꾸 비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빈 마음을 바치면, 주님은 그때그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말없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섬김의 종' 이시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힌 예수님은(막 10:45) 손수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삶을 보이신다(요 13:4-5). 예수의 삶은 낮고 낮은 데로 흘러 메마른 땅을 축축이 적셔 생명이 움트고 싹틀 수 있도록 스며드는 물과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구유와 고난당하신 채찍과 죽으신 십자가는 낮아짐과 비움을 사랑의 삶으로써 나타내신 구체적 표징이다.

2) 수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섬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게 되는 것이네. 나는 그것이 신앙이고 회개라고 생각하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네.”(본회퍼, <옥중서간>)

그리스도의 역사는 위대한 수난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기를 바친 열정적 헌신의 역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삶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는 동일한 하나의 역사이다. 과거에 사람들은 고난만을 강조했지, 고난으로 인도한 예수의 삶에 나타난 사랑의 열정을 자주 간과했다. 왜 그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열정에 속한 고난을 기꺼이 간과한다. 고통 없는 행복이 현대사회가 꾸는 꿈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마취시키며, 고난을 추방하고 삶에 대한 열정 자체를 자신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그러나 열정 없는 삶은 가난해진다. 기꺼이 고난 받을 수 있는 태도 없는 삶은 피상적으로 된다. 열정에 대한 불안,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일제와 한국전쟁의 폐허와 상실을 겪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 고통을 본능적으로 외면한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고난의 사귄”(빌 3:10, *κοινοία τῶν παθημάτων*)을 더욱 요구해야 한다.

마르틴 켈러가 마가는 “긴 서론을 가진 수난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서에서 예수의 수난 이야기가 긴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는 수난사에서 것처럼 대범하고 대답하고 자유롭게 도전하던 행위자가 말없는 인내자요 수동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수난자로서 가장 강렬한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사를 통해 능동(자)의 편에서 현실을 읽을 것이 아니라, 수동(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령 ① 자본주의는 제3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장려하고 양산하는 희생자들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의 눈을 감아버리도록 만든다. ② 사람들이 자명하게 여기는 지배의 구조는 지배의 향유자들을 산업과, 교통, 쓰레기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의 파괴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든다. ③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해야 한다. 비로소 희생자들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 세계를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의 눈을 통해서; -지구 북반구의 산업사회를 제3세계의 굶주리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자동차와 자기의 쓰레기에 신음하는 땅과 죽어가는 자연의 눈을 통해서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환상세계(fantasy)에서 깨어나 현실(reality)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제 21에서 영광의 신학자를 허위를 말하는 자로 규정하는 반면 십자가의 신학자를 진실을 말하는 자로 판단한다: “영광의 신학자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한다. 십자가의 신학자는 현실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부른다.” 진리는 희생자들의 손에 있으며, 망상세계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희망은 당하는 자들, 희생자들에게 있다. 역설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요 19:5) 하지 않는가?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만 현실의 진면목이 밝히 드러난다.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섬김의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관점이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른바 추방당한 자, 피의자, 혹사당하는 자, 힘없는 자, 억눌린 자, 조롱당하는 자, 요컨대 고난당하는 자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큼직한 사건들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다. 세계를 고찰하고 해명하는 데에 보다 유용한 열쇠이자 풍성한 원리가 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개인의 고난이다. 우리 사회를 점차로 장악해 가는 것은 고통을 자각하는 의식의 무감각 상태, 즉 의식의 사물화라 아니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다시 자기 고통을 휘발시키는 판단의 회피를 동반하고, 이를 통해 다만 ‘오늘도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일상적 삶의 모습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이 걸어가는 수난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특별히 찾아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왕좌 원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 20:22; 막 10:38)라는 말씀으로 하나님나라에서 누리는 권세는 남을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봉사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때까지(마 27:56)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이 온전한 내어줌이었듯이, 참으로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자기부정, 자기 비움, 곧 겸손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헤롯, 산헤드린, 로마의 권력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요한의 죽음, 예루살렘에서의 예언자들의 죽음에 비추어볼 때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음은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우연히 겪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갔다.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눅 14:33).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철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휼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역사적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종교적 의미인 속죄의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결론이다. 그러나 만찬과 세족식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막 10:45) 등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는 자신의 삶을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이해했다. 예수는 지상에서의 삶의 끝(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信實)하고 세상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다.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는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것이 신약의 증언이다. 이 증언은 논리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진술이다. 물론

신약의 저자들은 나름대로의 논리, 즉 죽음을 해명하고 해석하는 모델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도 궁극적으로 믿음에 근거한 설명방식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속적인데,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더 이상 능가할 수 없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있다. 그러나 본회퍼의 말대로 오직 고난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모든 삶이 우리에게 희망의 발판이 되고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십자가와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예수의 삶은 분명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며 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3) 예수의 부활과 희망의 교회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이라면 교회는 낮아지고 비움으로써 예수를 이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교회는 예수 부활 이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섬김을 통해 역사의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섬김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죽음이 부활의 연속에서 만물을 생동하게 만드는 첫 열매가 된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연합하고 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의 낙관적인 시간이해와 역사관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이 인간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유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부활사건의 역사적 특이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할 만한 사건(Parallele)은 없다. 바로 그래서 그것은 ‘역사를 만드는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조명되고 질문되며 갱신된다.”

‘부활과 장차 올 세계의 삶’을 기다리는 이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지평과 실천을 열어주는가?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다(벧전 1:3). 부활의 영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자는 이 ‘악한 세계’로부터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창조의 해방을 위하여 소명 받으며 이 창조를 생동적으로 섬기게 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절과 고립이었다. 이에 반해 부활로 인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에게는 생명의 속성인 순환과 관계와 나눔을 통해 사귀고 통일이 일어난다. 그 통일은 전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신체와 영혼의 인격적 통일, 인간 세대들, 곧 어린이, 어른, 노인들 간의 통일, 땅과 자연과 인간 문화의 통일이 일어난다.

부활의 산 희망 속에서 섬김을 거부하는 교회는 스스로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부정하여 추하게 만드는 교회요 예수의 정신에서 떠난 반(反)교회이다. 부활의 영에서 이탈한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이다. 세속화된 교회란 교회가 자기중심적이 됨으로써 세상적으로 부요해지고 화려해지며 거대해지는 것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교회가 자신을 위한 탑을 쌓는 데 열중하지 않고 항상 인격화된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교회의 하나님나라 운동은 섬김(디아코니아)의 운동, 비움과 겸손(케노시스)의 운동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새생명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웨슬리는 새창조의 비전을 제시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일깨움으로써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드높인 인물이다.

“새 땅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다른 것을 죽이고 해치며 고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그때가 되면 아담이 낙원에서 향유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순수하고 지고한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보다 훨씬 위대한 해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고 방해받지 않는 일치,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친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끊임없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웨슬리, “새로운 창조”, 17~18쪽)

4. 바울의 예수 섬김

1) 화해를 위한 섬김의 종 바울

바울신학의 핵심적 주제는 ‘화해’이다. 바울은 ‘화해를 위한 섬김’(διακονία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을 강조한다(고후 5:17-21). 바울은 본문(5장 18절)에서 두 가지를 역설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케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화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김’(Diakonia)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섬김은 화해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한평생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칭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종은 첫째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사도의 영원한 존재방식이고 항상적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봉사하는 자로서 주이며 봉사하는 자로서 행동하며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며 그를 따르도록 부른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복종의 능력에서 제자들에 앞서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뒤에, 아래에 위치한다. 최대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종의 종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배적인 과제로, 형식적으로 명예로운 칭호로 삼은 것이다(롬 1:1). 바울은 자신이 부름 받은 것은 섬김 받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화해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고후 11:23)였다.

2) 그리스도의 봉사자인 바울

바울은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그는 자신의 서신들에서 사도행전에서 증언되는 회심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함이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하신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의 삶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봉사자’의 삶은 가난하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봉사자’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자기부정과 자기 비움, 곧 겸손의 길을 좇아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기 비움의 길에 간곡히 초대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새로운 계약과 영(고후 3:6), 의(고후 3:9), 화해(고후 5:18)를 섬기며, 그런 자로서 그는 자유인이면서 모든 자의 종이 되었다(고전 9:19).

3) 섬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소박하고 순박하다. 한국 교회 초기 부흥운동(1903-07년)의 물결을 보고 세계교회협의회는 한국을 “오늘의 성지”라 불렀으며, 그 선교의 성공은 “근대사의 불가사의요”, 그 신앙은 초대 교회를 방불하게 하는 소박함이 특색이요, 성서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인

라고 찬양해마지 않았다.¹⁾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기독교의 진리인 고난의 메시아사상을 한국사에 적용한 시도이다.²⁾ 한국사에 대한 함 선생의 통찰의 핵심은 역사적 고난이 양심을 깨운다는 것이다. 고난은 양심을 의미한다. 한국의 백성들은 고난을 인생의 아버지로 인내를 인간살이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온 백성들이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어머니의 성품 같은 “하나님의 약함”(τὸ ἀσθενὲς τοῦ θεοῦ)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5-29).

바울은 하나님의 ‘힘없음의 힘’(the power of God’s powerlessness)을 세상의 힘과 지혜로부터 분리했다. 하나님의 힘없음의 힘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약(柔弱)한 힘의 부름(call)에 응답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름은 지배하지 않는, 그러나 무제약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연약함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하나님나라가 우리를 부른다. 그 부름은 새순처럼 연약하며, 공기처럼 부드러워서 온 우주에 스며들어 약자의 세미한 탄식과 한숨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고 섬세한 귀기울임이다.

반면 세상은 높은 산처럼 우뚝하여 그 위용과 거만함을 자랑한다. 하나님나라는 인내와 용서와 같은 약한 힘이 다스린다. 인내와 용서는 지배와 억압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패인 상처와 한을 정확하게 보복하거나 되갚지 않고, 그 왜곡된 질서를 감싸 풀어주고 해방한다. 바울의 십자가의 지혜는 타자와 적까지도 포용하는 행위이다. 십자가는 타자를 적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며 공격자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신 안에 공간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자의 두 팔은 좌우로 활짝 힘차게 열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열려진 공간에 대한 신호(sign)이며 적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초청이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들의 백합화는 약한 힘의 상징이며 하나님나라에 대한 은유이다. 하나님나

1) World Missionary Conference, *Report of Commission I*, 1910, pp.71-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292쪽에서 거듭 인용.

2) 함석헌, 《함석헌 전집 1. 뜻으로 본 한국역사》(서울: 한길사 1993), 383쪽, 388쪽.

라의 힘없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마음에서 드러나고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곳에서 발휘된다. 그러나 힘을 믿는 세상은 우리의 적을 몰아내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 여러 가지 인맥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구를 지키고 요새화하며 강고하게 이끌어내라고 조언한다.

하나님의 연약함의 사상은 “십자가의 말씀”(Ὁ λόγος τοῦ σταυροῦ; 고전 1:18)에 기초하고 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연약함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경제학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 치유될 것을 세 번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힘없음의 힘, 이것은 바울이 로마제국의 거대한 폭력에 대항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힘이다.

십자가 형틀은 로마제국의 막강한 권력, 억압과 교만과 폭력의 상징이다. 제국이 다스리는 권력은 십자가의 형틀로부터 나왔다. 로마제국에 저항하는 노예나 반란자들은 여지없이 십자가에 처형된다. 로마제국의 질서는 십자가를 통해 유지된다.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로마의 공포스러운 권력을 조롱하고 전복하는 신학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제 십자가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powerful power)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공포스러운 힘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힘없는 힘(powerless power), 곧 화해의 힘이 되었다. 로마의 정치신학이 강한 신학이라면 바울의 십자가의 정치신학은 약한 신학이다. 약한 신학의 강점은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데 있다.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이 이 시대 지배자의 지혜(고전 2:6)이고 그것이 제국의 계획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이다. 바울은 로마 권력의 상징인 십자가를 전복시키고 있다. 바울이 쟁론과 파벌로 분열 위기에 처한 고린도교회에 십자가의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치유와 화해를 제시했다면, 나라 안의 부패와 무능과 학정으로 생의 의지처를 찾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나라 밖의 제국의 침략으로 사지로 내몰릴 위기에서 처음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화해의 공동체, 곧 메시아적 공동체를 찾은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힘없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술적 효과의 근원이며 세상의 힘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예수의 신성은 기적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적에 의해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신성은 폭풍과 지진 혹은 불과 같은, 현대의 제국이 대량 살상과 파괴의 무기로 압도하는 ‘충격과 놀람’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제국의 군사 무기[앗시리아와 바벨론의 병거, 로마의 군단

(legion), 제국의 각종 미사일과 핵에서 나오는 살상의 가공할 힘일 뿐이다. 예수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겹쳐가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부활했다는 데 있으며, 그래서 로마제국의 지배와 오만의 힘이 거짓임이 폭로되고 섬김과 겸손의 진실이 승리했다는 데서 입증된다. 기독교의 유별난 능력은 약한 힘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한 힘은 십자가에서 부서진 몸과 채찍으로 맞은 상처 속에 체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힘은 이방의 폭력이거나 야만적 힘이거나 세속적인 마술이 아니라 힘없음의 힘(the power of powerlessness)이며 소명의 힘이며 무고한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환희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끈질긴 생명의 힘이며, 그 무고한 고난에 대항하라고 불러내는 힘이며, 불의한 고난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악착같은 힘이며, 무고한 고난에 함께 참여할(sym-pathos) 수 있는 질기디 질긴 힘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힘은 새순처럼 순한 생명의 힘이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순수한 힘이다. 작가 박완서는 “당신의 상흔을 알아보게 하소서”에서 ‘힘없음의 신비’를 노래하는데 구구절절 내 마음을 울려왔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폭력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운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 나에겐 그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헛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순함이 물구나무서서 힘이 되고 부드러움이 강건함이 되는 그 역전 드라마의 원형이며 약함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상징이다. <도덕경> 36장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라 했고(柔弱勝剛強), 43장에도 “세상에서 그지없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단단한 것을 이겨 뱉니다”(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했으며, 76장에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고 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내며,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바탕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경험으로부터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된다. 물론 십자가는 상징으로 도처에 세워져 있고, 솟아 있고, 걸려 있고, 매달려 있지만 그러나 좀처럼 경험되지 않는다. 모든 교회들이 매우 발 빠르게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의 에토스 위에 기초된 사회 질서를 단지 반영하고 그것을 위해 축복하는 협력자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너무 자주 권력과 특권을 위한 경쟁의 사회 질서를 지키고 증진시키는 영적 시녀가 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그들의 내적 삶으로부터 반영되기도 한다. 교회가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원

했던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성역화(聖域化)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신앙은 오늘의 제국인 교회의 권위주의, 사회의 물신숭배, 자본화된 학문에 맞설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마음의 평정은 또 하나의 물신(物神)에 불과하다. 물신이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짓말의 체현이다. 그것은 광기의 속도로 자본주의 게임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언제라도 불의한 현실로부터 철수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 자아의 평화야’ 하며 속삭인다. 한국 감리교회가 내걸고 있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는 이런 영혼의 자족을 넘어 삶의 세계의 혼돈과 불안을 치유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 ‘말씀의 섬김’(경건주의)과 ‘세상의 섬김’(복음주의)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5.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섬김의 교회

성령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예루살렘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의 전형이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거듭난 최초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증거되고 있다.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되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죄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행 2:38). 성령은 섬김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원천이다. 섬김이 일회성 사건이나 보여주기 위한 운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3,000명이 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의 증언 속에 나타난 처음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① 가르침을 받는 디다케 공동체, ② 사귄과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③ 떡을 떼는 성례전 공동체, ④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카리스마 공동체, ⑥ 소유를 서로 통용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⑦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 ⑧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 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 ⑩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⑪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하여 날로 부흥하는 공동체(행 2:42-47).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감사와 찬양의 공동체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이다(행 4:32-35). 최초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의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이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행 4:34) 홀로 분에 넘치게 소유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화해와 통일을 이룬다(행 4:32).

교회는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의 삶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공동체이다.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벧전 4:10). 두아디라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섬김)를 알기 때문이다(계 2:19).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엡 4:11-12).

본회퍼는 “설교자의 목적은 세상을 개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배를 통해 성취되어온 화해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말을 남겼다(윤리학). 한국 교회에서 섬김의 영성의 회복은 우선 목회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라는 왕국에서 지배하는 왕이 아니다. 목회자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 곧 섬기는 자이다. 공동체의 섬김의 임무 중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활동은 심령이 상하고 병든 개인과 사회를 치유한다는 것이다. 치유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질도 변화시킬 수 있다. 치유는 포괄적인 구원의 역사이다. 온통 상처받고 갈라진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치유행동은 교회의 교회됨을 알리고 증언하는 첩경이며 사명이다. 교회는 십자가의 상처로 상처 입은 회중과 사회를 치유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이다(헨리 나웬, 《상처 입은 치유자》).

6. 섬김의 영성윤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섬김에 상응하는 신앙인의 영성적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요약한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점화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통치의 희망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것이다. 섬김은 믿음에서 자라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영성으로 요약된다.

1) 섬김과 믿음

루터(M. Luther)는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역설적으로 설파한다. “①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主)이며 아무에게도 예속하지 않는다. ②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從)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 기독교인은 주인과 같이 자유로운 자이나 그 자유의 본질은 종처럼 만물을 섬기는 데 있다. 기독교인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 것은 믿음 때문이며 충의로운 만물의 종인 것은 사랑 때문이다. 웨슬리 또한 종교적 행동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경건의 행위’(works of piety)이며, 둘째는 ‘자비의 행위’(works of charity of mercy)이

다(“산상설교” VI, 02). 웨슬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경건의 행위는 믿음이며, 자비의 행위는 사랑인 것이다. 따라서 섬김을 믿음과 사랑과 관련시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섬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바울이 역설하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갈 5:6).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며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은 사랑으로 산 믿음이 된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나온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섬김의 대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다. 예언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소명이며, 여기에 따르는 특정한 사명이다. 예언자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언자가 혼신의 정력으로 가진 모든 정열과 의지와 힘과 행동으로써 추구한 과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며 때로는 예견하는 것이었다.

‘세상의 섬김’은 ‘하나님 섬김’과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세상 섬김은 하나님 섬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섬김 없는 세상 섬김은 맹목(盲目)이며 세상 섬김 없는 하나님 섬김은 공허(空虛)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해야 할 유일한 목표요 의미라고 힘주어 말한다. 바르트(K. Barth)는 신학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ministerium Verbi divini)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바르멘 선언 제1항)

타성화된 믿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고 하찮은 은혜로 만든다는 것이다. 본회퍼는 당시 값싼 은혜에 취한 서양 교회에 대하여 예언적 예봉을 날렸다.³⁾ “값싼 은혜는 우리의 교회를 죽이는 원수이다. 우리는 오늘날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운다.”(24)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수도원이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속 생활 한 가운데서 좇아야 한다. “그(루터)의 싸움은 백병전이었다. 예수를 쫓는 일을 세속 생활 중심에 놓은 것이다.”(30) 본회퍼는 칭의의 교리만 신봉하는 루터교회를 예리한 침으로 일깨운다.

3) D.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혁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4); *The Cost of Discipleship* (SCM, 1978)을 보고 문맥에 따라 번역을 새롭게 하였음.

“칭의의 교리만 있으면 그 교회는 의로운 교회였다. 은혜가 최대한 싸게만 설명되면 루터의 옳은 유산이라 하였다.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를 순종하는 것을 율법 숭배자나 개혁교도나 광신자들의 일로 보아두면 그것을 루터적이라 칭찬하였다. 세상을 정당화하며 예수를 따르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라 이단시하고 정죄하였다. 한 민족이 기독교화되고 루터화되었으나 그것은 참된 제자직을 희생시킨 결과였다. 그것을 위하여 치른 대가는 너무 값싼 것이었다. 값싼 은혜가 결국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값싼 은혜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조직화된 교회의 붕괴에서 당하는 희생이 싸게 얻은 은혜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말씀과 성례전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싸게 처분하였다. 묻지도 않고 조건도 없이 세례를 베풀었고 견신례를 행하였고 전 국민의 죄를 용서하였던 것이다. …… 지금보다 더 공포스럽고 파괴적인 세상의 기독교화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36)

본회퍼의 진단과 고민과 예언자적 설교는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족하다는 생각은 믿음을 좀먹게 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교회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언어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믿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사랑의 실천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마 7:21).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포함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다(마 25:42-43).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달변이 아니라 신의가 중요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존경받기 마련이다.

2) 섬김과 사랑

섬김의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사람을 깊게 한다면 사랑은 사람을 넓게 한다. 섬김의 사람은 믿을 만하고 후덕(厚德)한 사람이다. 바울은 존재의 긍정과(인디카티브, 직설법) 뒤따르는 행위의 긍정(임페라티브, 명령법)을 동시에 말한다. 먼저 복음이요, 곧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구원이요, 다음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인 하나님의 요구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갈 5:25).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서로 종노릇 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갈 5:13).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서 인자(仁慈)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은 유명한 정

치거나 경제인 혹은 학자가 아니라 은은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의롭고 인자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남에 대한 사랑으로써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 사랑은 ‘의무를 넘어 그 위까지’ (탈무드), 율법의 명령을 넘어 사는 것이다(헤셀).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떠나면서 행한 설교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요일 4:2). 그것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요일 3:18)[I, 05].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교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슴이 있는지 질문한다: “당신들 존경할 만한 이들이여, 당신들은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땅 위에 하나님나라를 확립하려는 사랑과 열정이 충만해 있습니까? 당신은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연구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 17:3)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 사랑이 없으면 모든 학식은 단순히 빛나는 무지, 거만한 바보, 정신의 번뇌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IV, 06). 경건한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학식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증진시키며 그 사랑이 촉발한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웨슬리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널리 확산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사람”을 감리교인이라 칭하고 있다 (“감리교인의 성격”, 5). 웨슬리에게 구원은 화해만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도 포함하며, 하나님의 실재와 임재를 체험적으로 지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재를 살아가는 삶과 신적 변화의 능력을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분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⁴⁾

예수의 생의 의미에서 ‘섬김’의 의미는 가부장적이거나 봉건적인 의미에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섬기는 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의미를 찾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법칙이 교회라는 새로운 차원과 세계라는 옛 차원과의 참된 차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 ‘섬기는 자’라는 말은 몇 가지 애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일, 일하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한 일, 또 천하고 굴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눌린 자, 가난한 자, 약자 특히 여성에게 섬김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자유와 평등과 우정을 맺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도록 섬김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은 경고한다. 섬김이 타자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군(事君以忠)과

4) 테오도르 러넌, 《새로운 창조. 오늘의 웨슬리 신학》, 김고광 옮김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2001), 312쪽.

사친(事親以孝) 등, 우리말에서 섬김의 쓰임도 연속적이고 일방적인 봉사의 뜻을 벗어나기 어렵다. 섬김은 연속적인 봉사도, 지배를 은닉한 예비적 행동도 아니다. 섬김은 복종이나 종속을 유도하거나 호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한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섬김은 타인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궁핍한 생의 현실, 질병, 고난, 가난, 무방비 상태 등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역설적이지만 신약성서는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곧 자녀됨의 자유를 가져다주며, 이에 반해 하나님 섬김을 거절할 때 죄의 노예가 된다.

이 세계의 법칙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의 법칙이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은 섬김에 대한 희망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재력과 권력과 명성이다. 이것들은 섬김과 반대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가짐으로 남을 보려면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기도를 통한 안목의 정화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섬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의 사랑의 삶이 성취한 세상의 질서에 대한 ‘메시아적 전복’이다. 이 전복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을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셨던 주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신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 섬김은 사랑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사랑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능한 능력과 은사에 사랑을 관련시킨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성장이 개체 교회의 팽창으로만 이해되면서 교회가 제공해 왔던 영적 힘이 퇴색하거나 변질되어 교회상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 영적 능력인 말씀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말씀의 봉사가 내적 겸손과 외적 사랑의 봉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봉사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회는 결코 사회봉사단체일 수 없다. 웨슬리는 세상 종교에 세 양태가 있다고 했다: 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② 자선사업, 빈민구제, 불행한 사람을 돕는 일, ③ 은총의 수단을 준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가 참으로 회구하는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웨슬리는 더 고상하고 심오한 종교를 원한다. 그에게 참된 종교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이며,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귀를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이다(“산상설교 II”, I, 04).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함으로써 하나님 섬김의 도를 깨우친 연후에 세상을 섬김으로써 덕을 세운다. 세상의 섬김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동기 부여되고 결속된 교회가 영적 힘을 표출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잇는 교량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다.

3) 섬김의 영성 - 빛과 소금의 영성

존 웨슬리는 “빛과 소금”을 설교하는 산상설교 IV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종교(social religion)임을 역설한다. 웨슬리는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을 ‘구조적’인 의미에서보다는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어쨌든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웨슬리는 ‘너희’란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제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심지어 박해를 받으며, 공허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다. 그들은 본성상 그 주위에 있는 무엇이든지 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상산수훈에서 종교의 참 모습과 기독교의 본질을 본다. 상산수훈은 종교의 정신(spirit)이며 요체(quintessence)이며 근본(fundamentals)이다. 웨슬리의 기독교는 상산수훈의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섞여 있는 그 사회에 발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산상설교 IV”, 07).

(1) 빛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 5:14)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가? 교회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만을 인식하고 심판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에 깊이 드리운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장 중요한 공헌인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은 교회가 세계를 목회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 현장은 현대의 세속적 삶이 이루어낸 최상의 업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하여 교회의 교리와 제도적인 구조들을 포함하여 교회 자체의 갱신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Gaudium et Spes, Art.44). 또한 현장은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이 이루어낸 업적들을 존중하고 또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rt.62).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신을 인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전 인류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 섬김의 미덕은 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타자를 타자

로서 승인하고 타자의 의견이 최후까지 다를 때에도 존중하며, 뿐만 아니라 ‘반대자’도 보호하며, 반드시 고수해야 할 자기의 입장을 수정하려고 하는 내적인 준비도 전제한다. 웨슬리는 설교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에서, “내가 만약 가톨릭교도(Papist)나 아리우스파의 사람(Arian)이나 소시누스파의 사람(Socinian)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다면, 내가 편협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유대인이나 이신론자나 (난폭한) 터키 사람이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래도 내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라도 그를 말린다면 나도 역시 편협한 믿음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조금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IV, 04). 섬김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질은 너그러운 것이다. 관대하게 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을 감싸줄 수 있는 아량,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어떤 비판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되기보다 그 비판을 자성의 기회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빛은 자신의 실체를 고집하지 않아도 만물 안에 가득하여 만물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다.

(2) 소금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 5:13)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일컬어 소금이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 5:13).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맛을 잃은 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 않는 소금에 있다. 녹지 않는 소금이 문제다. 녹아서 다른 음식물에 간이 배게 하는 것이 소금의 존재 이유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기독교가 문화의 소금이라면, 교회는 짠맛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회는 동시에 소금처럼 세상과 사회에 그리고 인류의 문화에 녹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껏 “소금은 짜다”는 소금의 속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소금은 녹는다”는 소금의 진실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교회는 소금산으로 남아 덩어리가 되어 결코 녹지 않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하다. 그것은 교회를 절대불변의 진리로만 못 박고 세상과 인간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주인이고 주체이며 세상은 주인의 말을 복종해야 하는 종이고 주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영원한 주체이며 세상은 일방적으로 교회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인간들에게 녹아 들어가기보다는 그들이 교회의 품안에 녹아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교회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싱겁다’ 하면서 소금을 뿌리려고만 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이지 않은가?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다시 생길 수 있다면 예수영성의 맛을 느끼고 향기를 흠향할 때일 것이다. 섬기는 영성은 물에 소금이 녹듯이 세상에

녹는 소금의 자연스러움이다.

섬김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멋과 그리스도 신앙의 참되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영성이다. 마음이 소박할 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족한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 겸허한 영성은 우리 삶을 고요한 기쁨으로 채워 준다. 섬김의 영성을 말하는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온 피조물(동식물과 자연)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것이 웨슬리가 자주 언급하는 “거룩함과 행복”, 곧 거룩한 행복이다. 거룩한 행복은 근대사회가 추구한 개인의 사적 행복 추구를 극복하고 넘어선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이다. 남이 잘됨으로써 나도 행복해지는 행복이다. 《논어》에서도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것을 남도 달성하게 한다”(《옹야편》, 30장). 섬김의 사람은 남의 아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예민함,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인내,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정이 있어야 한다.

현대 기독교는 육체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영적 감각을 망각해 왔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가?”이다. 영적 감각의 회복이 문제다. 웨슬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만물을 섬김으로써 온 생명을 섬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소유자, “피조된 영에 찍힌 하나님의 형상”(웨슬리)이다. 웨슬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거룩한 이상의 실현, 곧 기독교의 완전이다. 웨슬리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정진하고 성찰하는(Let us not rest……, let us watch……) 종교이다. 기독교의 완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디아코논 예수, 섬기는 자 예수를 믿고 본받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믿는다.

제2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역사적 반성

1. 들어가는 말 :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 ‘섬김의 영성’¹⁾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으로서 ‘섬김의 영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섬김은 예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써졌던 마가복음은 ‘섬김’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예수의 말”로 전하여 그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²⁾ 안타깝게도 성서 주석의 전통이 거의 예외 없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예수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후반절(자기 목숨을…… 대속물로……)의 신학적 논쟁에 치우쳤고, 그 결과 이 구절에서의 ‘섬김’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간과한 채, 십자가를 지는 행위의 겸손이라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부수적인 해석으로밖에 제시를 못하고 있다. 즉 예수의 ‘섬김’이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실제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 사역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중요한 언급을 전해 주고 있다. 예수는 섬기기 위하여 왔다!

두 번째, 섬김의 삶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누가복음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강조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는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포

1) 영성(靈性)은 ‘divine nature; divinity; spirituality’이라는 영어 표현처럼 신령스러운 품성, 신의 본질 또는 몸에 반하는 영적인 성격 등을 나타내는데, 요사이는 영성을 개신교의 종교적 훈련과는 비교되는 가톨릭의 수도원 영성 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즉 영성이라는 말의 중요성보다는 기독교의 특징을 ‘섬김’으로 보고, 이러한 기독교의 종교적 특징으로서의 ‘섬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섬김의 영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섬김의 영성’이란, 기독교의 ‘섬김의 전통’ 또는 ‘섬김의 정신’ 등으로 ‘섬김’을 통하여 기독교의 특징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관하다.

2) 만일 여기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뒷부분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다툼이나,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한 비평(35-44절)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섬김은 분명한 예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는 구별되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비교: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8:27-16:20),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II/2, (Germany: Benziger/Neukirchener Verlag), pp.98-107.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의 말”이 정말 예수가 한 말이나? 복음서 저자의 편집인가? 하는 것은 이 논문의 의도가 아니며, 다만 여기서는 성서에 쓰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듯이 예수의 말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섬김’이 구원을 받는 조건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즉 지금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기름과 포도주, 나귀와 돈 그리고 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지식(상처를 싸매고……)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임하는 행위,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탱시켜 주는 데까지 관심과 책임을 지려는 행위가 ‘섬김’이다. 그래서 누가의 본문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는 요구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섬기는 행위가 곧 구원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작은 자들’(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을 ‘섬김’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열쇠가 된다고 강조한다(마 25:31-40; 비교 눅 4:18-19³⁾).

위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섬김의 영성’은 예수에게로부터 근거를 갖고, 믿는 자들의 ‘섬김’의 행위는 영혼 구원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섬김’의 대상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러므로 ‘섬김’은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도움의 행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섬김의 영성’은 영혼 구원까지를 지향하는 행위로,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이다.

세 번째, 기독교의 ‘섬김’은 믿는 자들의 평생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결국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서는 기독교의 ‘섬김’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잠시 잠깐 섬기는 체, 낮아지는 체하는 눈속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섬기기만 하고, 마지막 때(개인과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 우리의 ‘섬김’의 행위도 마지막으로는 ‘섬김’을 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한 잠시 동안의 ‘눈속임’이 되고, 결국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것을 추구하지만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42-43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예

3)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수의 목적이요, 삶의 실천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된 ‘섬김’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빌 2:5 이하)에서 더 확연해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예수는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높이셨다는 것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 높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또 마태복음 23장 7-10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선생, 아비라 불리는 것,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을 금하고 이것을 다음의 구절에 연결시킨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1-12). 예수는 선생이었지만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통하여 제자들을 종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여(요 14:3), ‘섬김’이란 선생이 제자에게, 제자가 선생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라는 기독교 ‘섬김’(디아코니아)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내었다.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섬김의 영성’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가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네 번째, 예수에게 유래되는 ‘섬김’은 ‘말씀 선포’와 구별되는 ‘사회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사역하던 초대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섬기는 사역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를 사도들의 기본적인 사역으로 규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섬기다’는 말을 나타내는 말의 어원으로서 ‘디아코니아’가 단순히 말씀 선포에 대치되는 사회봉사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서 사도행전 6장의 집사 선출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서 본문이 “말씀의 디아코니아(τῇ διακονίᾳ τοῦ λόγου)”로 표현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디아코니아와 로고스(말씀)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케리그마), 섬기는 일(디아코니아)만을 위하여 집사를 선출하였다”는 주장은 성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선출된 스테반과 빌립 집사 역시 사

4) ‘섬김’의 기독교적 특징의 근거가 되는 신약성서의 디아코니아(섬김)에 관한 이해는 참고: 박창현, “신약성서의 사회봉사”, 《선교와 디아코니아》, 선교신학 5집, 한국선교신학회 편집 (서울: 한울출판사, 2002), 83-104쪽.

도행전 7장과 8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소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섬김’은 예수 사역의 전반적인 이해이며, 초대 기독교 사역의 전체를 포함한다.⁵⁾

이러한 ‘섬김의 영성’이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삶과 초대 교회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영성’은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빨리 지중해 연안의 로마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철저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라 불리는 안디옥 공동체를 통하여 전해 주고 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행 11:26). 그런데 이 이름이 설명해 주는 의미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에 대한 안디옥 사람들의 평가하는 말에서 분명해진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ὅτι ἦν ἄνθρωπος ἀγαθὸς καὶ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πίστεως, 행 11:24).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안디옥에 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대 교회의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는가를 성서는 이렇게 소개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중요한 요소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핍박을 당하여 피해온 사람들이 서로 모여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빈궁한 중에 물질을 모아 흉년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와 같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이방인에게 ‘섬김의 영성’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섬김의 영성’이란 바로 이처럼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섬겨서 전하는 창구였음을 초대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에게 근거하고 초대 교회가 몸으로 실천한 ‘섬김’의 전통은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자기 이익집단으로 세상에 비취져서, 이 사회에서 종교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공신력을 잃고 방황하며, 전 국민의 18%밖에 선교를 못한 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영성이다. 사람들,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

5) 좀 더 자세한 것은 참고: 박창현, 위의 책, 95-98쪽.

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섬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계시는가?”를 드러내는 ‘섬김의 영성’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귀해야 하는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영성’이야말로 2000년의 전체 기독교 역사와 120년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행한 잘못을 인하여 세상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말로서가 아닌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새로운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데 가장 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의 신뢰 상실과 공신력 추락은 이제 무엇보다도 본질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과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기에 이제 기독교는 오늘날의 위기를 다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구충족이 중심이 되어, 몇몇 개 교회의 숫자적 성장만을 정당화하고 역사의 심판을 초래하는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 중심의 선교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여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가 예수 되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가 절망에 빠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손을 펼치는 이 세상에 손을 잡아줄 자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섬김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보고,⁶⁾ 한국 교회의 선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 교회의 ‘섬김의 영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섬김의 영성’으로 돌아보는 ‘한국 교회’⁷⁾의 역사⁸⁾

선교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의 개신교회는 선교 초기의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때 세계

6)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섬김의 영성’을 조명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섬김의 영성’을 교회가 사회에 갖는 관심과 봉사라는 측면에서 우선 교회의 사회봉사적인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게 됨을 밝히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말씀의 선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배제하지는 않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7) 한국 교회는 1885년 4월 5일을 개신교회의 출발로 시작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선교를 오늘날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박창현, “한국 교회 한 풀이 목회에 대한 마가 신학적 고찰”, in: 한국 선교 신학회 편, 《치유와 선교》(다산글방, 2000), 257-287쪽, 여기 264-274쪽; 259쪽.

8) 아래는 본인의 참고: 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복지 신학을 위한 예수의 전거들”, 〈신학과 세계〉 50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4), 194-213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개신교회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숫자적 성장을 이룬 것과 수많은 카리스마적 목회자들의 등장과 그들에 의한 초대형 교회의 설립, 또 한국 사람들의 열광적인 영성과 빈번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⁹⁾ 하지만 화려한 외면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그 지역이 가진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얼마나 능동적이며 적절하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이며 사회로부터 오히려 맹렬한 비난¹⁰⁾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섬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심각성은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교회와 특히 감리교회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온 이원규 교수의 99년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감리교 목사들의 75.7%가 교회 일년 예산의 약 10% 정도를 사회를 섬기는 봉사(사회복지)¹¹⁾를 위하여 쓰기를 원한다고 한다.¹²⁾ 그러나 그것도 전도나 개척 교회를 설립하는 데 대부분 사용되어 실제로는 약 3-5% 정도만이 순수하게 사회를 위하여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의 91.1% 정도가, 그리고 성도들도 76.6%는 사회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하는데,¹⁴⁾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오늘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에 실천하는 일로서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왜 교회는 아직도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교회의 여건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 2007년 현재 감

9) 박창현, “한국 교회 한풀이 목회에 대한 마가 신학적 고찰”, 259-264쪽.

10) 이삼열 엮음,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서울: 한울, 1992), 9-11쪽.

11) 본인은 이 논문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봉사라는 단어를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둘의 개념은 엄연히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내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의미의 전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봉사라고 사용하던 것을 오늘날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라는 말로 사용하는 추세 때문이다. 사회복지지는 사회사업 등과 같은 말로 통용되는 사회 과학적 분석적 의미를 가지나 사회봉사는 교회의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 하겠다.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을 참고하라: 남세진, 조홍식 공저, 《한국 사회복지론》(나남출판사, 1995), 19-32쪽. 그리고 이를 교회의 사회봉사와 비교하는 이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삼열 엮음, 같은 책, 11-26쪽; 다이애너 S. 리치먼드 갈랜드 편, 이준우 역, 《교회사회사업》(인간과 복지, 2001), 24-37쪽.

12) 이원규, “감리교 사회봉사의식과 사업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서울: 큰사람기획, 1999), 173-217쪽, 195쪽.

13) 위의 책, 같은 곳, 참고: 노치준,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의 흐름과 방향”, in: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 사회복지> 제8호 (1999), 63-100쪽, 여기 76쪽.

14) 위의 책, 199쪽.

리교회에 교인 수 50명 미만인 교회가 46%에 해당하는 미자립교회인 상황¹⁵⁾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감리교회가 여유가 생겨서 사회를 섬기는 봉사에 모범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변호하거나 반 기독교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여 부정적이고 잘못 곡해된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변호하기보다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자세로 한국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영성'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를 아래와 같은 사회 역사적 시대 구분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 시작까지(1885-1910년), 2) 일제 식민 시절(1910-1945년), 3) 식민 해방부터 한국 전쟁과 그 이후 60년대 초기 혼란의 시대(1945-1960년), 4) 도시화와 산업화, 올림픽 개최를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발전의 시기(1960-1988년), 5) 세계화 시대(1988년-현재 그리고 이후)

1)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 시작까지(1885-1910년)

먼저 1885년 개신교 선교의 초기 시기부터 살펴보자. 1880년대 조선 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조소심스럽게 근대화의 문을 열려고 애쓰던 당시의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의 확장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기나긴 식민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은 당시 주변 강대국들의 잦은 침략으로 불안의 연속이었다. 1894년 농촌의 처참한 상황에 반기를 든 농민들에 의한 동학혁명은 정부의 요청으로 외국(중국, 당시 청나라)의 군대가 자국의 농민들을 처절하게 살해하고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며 끝이 났다. 결국 이것은 청의 조선 진출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일본을 자극하게 되어 청일전쟁(1894-1895년)으로 번져, 일본에 반대한 국모 명성 황후가 처참하게 살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⁶⁾ 이를 계기로 다시 이 땅에는 러일전쟁(1904-1905년)이 발발했고, 마침내 일본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땅에 일본의 강제 점령이 시작되었다. 외국인들이 벌인 두 번의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민중의 삶은 깨어지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은 땅에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을 맺

15)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단기발전위원회,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2007년 자료집 (이원규 조사 연구), 100쪽; 참고: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와 교회 성장> (한들, 2003), 272쪽.

16) Official Report on Matters Connected with the Events of October 8th, 1895 and the Death of Queen, *The Korean Repository*, 1896, März Ausg., 125f; <승정원 일기 32>, 8월 20일; H.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pp.138-140; <동경일일신문>, 1895년 10월 12일.

어 일본 속국의 길에 접어들어 마침내 1910년 일제 강점으로 35년간의 긴 식민지 국가의 운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제 찬탈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인 1885년 한국에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개신교의 선교는 실제로 병원과 학교 설립을 통한 서양 문화와 기술 전수에 주력하며 섬기는 자세의 선교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100년 전에 먼저 들어온 천주교와 정부의 갈등과 박해 그로 인한 선교 금지령¹⁷⁾ 등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나가기 위한 대처 방안이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특별히 식민 착취 경제체제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통한 선교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¹⁸⁾ 1885년 고종의 윤허로 알렌(H. N. Allen)에 의해 처음 세워진 광혜원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30여 개의 병원이 세워졌고,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최초의 사립학당인 배재(1885년 8월 3일)를, 이어 1886년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고아원 형식의 학교인 경신학당을 또 연세대학교의 모체가 된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으며, 1886년 스크랜턴(M. F. Scranton) 대부인은 최초의 여학당을 정동에 세워 고아, 과부, 첩 등의 소외계층을 교육하고 소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교는 1910년까지 720개의 기독교 학교가 문을 열어 17,656명의 학생이 공부하게 하였다. 감리교의 로제타 셔우드 홀(R. S. Hall) 부인은 1897년 뉴욕식 점자 방식을 이용해 한글 점자를 창안하고 1903년 평양에 최초의 맹인여학교¹⁹⁾를, 그리고 1907년에는 최초의 농아교육²⁰⁾을 시작하였고, 성공회의 랜디스(E. B. Randies)가 1892년에 인천에 최초의 고아원을 세웠다. 1893년 장로교회가 1890년 중국에서 제안되었던 네비우스(J. Nevius)의 선교정책을 한국 교회의 선교정책으로 삼기로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의 대상을 하층민(가난한 자, 여자, 상놈, 농민)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시절의 교회가 처음부터 약자들 편에서 선교를 하였다는 사실은 한국 개신교회 초기의 중요한 선교적 특징이 ‘섬김의 영성’이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²¹⁾ 이러한 일이 전체 국가적으로

17) 고종은 금교령을 내려(1888년 4월) 그리스도의 신앙에 고백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게 하였다. 선교의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참조하라: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Seoul: Yonsei Uni. Press, 1969), p.205;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개정판, 1995), 175쪽.

18) 최무열, “한국 초기 선교에 있어서의 사회사업적 접근”, in: 한국 선교신학회 편, 《선교와 디아코니아》(한울출판사, 2002), 244-266쪽, 265쪽.

19) 최무열, 《한국 교회와 사회복지》(나눔의 집, 1999), 66쪽.

20) R. 셔우드 홀 부인은 의료선교사였던 남편이 죽고 난 뒤 남편을 기리는 기흥병원(후에 평양 기독교병원)을 평양에 세웠다가 이를 다시 수육리로 옮겨서 농아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농아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서울: 기독교문사, 1980), 672쪽, 재인용: 최무열, 《한국 교회와 사회복지》, 66쪽.

21) 박창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건 속에서 본 개신교회의 성장과 그 원인”, in: 〈신학과 세계〉(2002 가을호), 통권 45호, 348-384쪽, 여기 364-365쪽; 참조하라: 유의웅 편저, 《현대 사회와 사회봉사》(예영 커뮤니케이션), 60쪽.

큰 영향을 발휘할 만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한말의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의료나 교육의 혜택에서 제외된 하층민에게 눈을 돌린 특이한 기독교적인 ‘섬김’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²²⁾ 이 시기에 ‘섬김’은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병원 사역과 한국 교인들에 의한 빈민을 돕는 형태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럼 여기서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섬김의 영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위에서 언급한 스크랜턴(M. F. Scranton) 대부인의 아들인 스크랜턴(W. B. Scranton)은 처음에는 한성(당시의 수도, 지금의 서울)의 귀족들의 병원(제중원)에서만 의료봉사를 하면서, 양반들이 다니는 병원에 드나들 수 없었던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는 상민들을 보자, 마음이 동하여 자기가 살던 집을 개조하여 민간 병원(1885년 9월, 정동병원으로 시작하여 1894년 상동으로 옮겨감)을 세워 소외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의 가난까지도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당시 스크랜턴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은, 그가 1886년 7월에서 1887년 7월까지 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그의 ‘섬김’의 삶이 고종 황제를 감동시켜 그의 한국식 이름 ‘시란돈’ (施蘭敦)에 맞추어 그의 병원 이름을 ‘시(施)병원’이라고, 즉 시씨의 병원이 라고 지어주게 하였다는 것에서 드러난다.²³⁾ 그러나 스크랜턴은 이렇게 시작한 성 안의 병원이 성 밖의 상민들을 섬기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성 밖, 서대문 밖에 병원과 교회를 세워 전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곧 실천에 옮겼다. 그는 병원은 아니지만 간단한 진료와 약을 나눠 주는 시약소를 차리는 “선한사마리아인병원 설립 계획”(Good Samaritan's Hospital Project)을 실천에 옮겼는데, 이는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처럼 선교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선교 비전을 실천한 것이다. 결국 1888년부터 시약소 터를 물색하여, 서대문 밖의 어린이들이 죽으면 묻던 장소요 전염병자를 수용하던 장소인 애오개 언덕에, 갓바치와 백정, 무당들이 몰려 살던 동대문의 낙산 언덕에 그리고 시장사람들과 걸인과 품팔이꾼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 남대문의 상동 언덕에(이들은 후에 아현, 동대문 그리고 상동교회의 모처가 되었다) 시약소를 세워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²⁴⁾ 스크랜턴의 가난한 자들과 민중을 위한 섬기는 삶을 통하여 드러난 영성(섬김의 영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앙으로 받아들

22) 당시 빈약한 의료 수준과 열악한 위생 시설이 원인이 되어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률이 45.5%였고 그중 18%가 한 살도 못되어 죽었다는 것은 이러한 선교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M. Huntley, *To Start a Work: The Foundation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Sydney: Presbyterian Press, 1975), p.4, 여기서는 재인용 최무열 (2002) 250쪽. 참고: 신광섭, “한국 기독교의 복지사적 고찰”, 《교회 사회봉사 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1990), 190쪽.

23)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이야기》(서울: 홍성사, 2006), 58쪽; 한국감리교회사학회 편, 《한국감리교회를 만든 사람들》, 탁사신서1 (장안문화사, 1987), 18쪽.

24)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이야기》, 58f쪽.

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²⁵⁾ 그중에는 상동교회처럼 일제 시절 민족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감리교회의 가장 존경스러운 민족 민중 목회자인 전덕기와 같은 사람을 배출하게 하였다.

초창기 외국 선교사의 ‘섬김의 영성’으로 인한 선교적 열매에 대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1909년 4월 광주의 첫 선교사 오웬(C. C. Owen)이 시골에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 다 죽게 되자, 당시 목포에 있던 의료선교사 포사이드(W. H. Forsythe)를 청하여 오도록 했다. 그때 오웬 선교사의 일을 돕던 최홍종이란 사람이 나주 영산포로 배 타고 온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갔다. 최씨는 포사이드를 말에 태우고 오던 중에 구걸하던 한센병 여인을 만나자 무의식적으로 피하였다. 그런데 포사이드는 말에서 내려 그 여인을 안아 자기가 타는 말 위에 올리고 고삐를 잡고 선교병원까지 데려와 입원을 시켰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의 항의에 못 이겨, 그녀를 벽돌 가마솥으로 옮기려 할 때, 최씨에게 떨어진 그녀의 지팡이를 집어 달라 했지만 그는 끝내 못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의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최씨는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 안을 수 있었나?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의 질문을 던지며, 마침내 ‘그렇다. 믿음의 차이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며 깨달음을 받아 무등산에서 한센병환자들을 돌보는 거처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결국 광주의 한센병자를 돌보는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지금의 ‘예향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씨는 선교사의 섬기는 삶에 감격하고 변화 받아, 광주에서 최초의 세례 받은 사람, 광주 최초의 장로, 광주 출신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결국 최씨의 섬기는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그가 별세하였을 때, 전국에서 걸인, 한센병자, 결핵환자 수백 명이 몰려와 울면서 그의 상여를 끌게 만들었다.²⁶⁾

개신교 선교 초기 신앙인들의 이와 비슷한 섬김의 삶은 자주 볼 수 있는 예들이다. 한국 교인들의 자발적 사회 ‘섬김’의 예는, 교인들이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성탄절과 절기 때마다 빈민 구제를 위해 교인들이 정성스레 특별헌금을 하여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한 이야기나, 1900년 11월 정동제일교회 여성교인들이 ‘보호여회’를 창설하여 가난한 교인을 돕는 것만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한 여인이 방물장사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어 도운 이야기 등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1902년 감리교 서울지방 사경회 때 교인들이 상동교회의 배동현이라는 사람

25) 참고: 스크랜틴의 1898년 상동교회 보고서: “우리 교회엔 과거 정부 관리로 있던 자들도 있지만 교인 대부분은 중 인입니다. 부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가난하고 나이트 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겨울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Minutes of Korea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8, 45, 재인용,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의 사회복지, 봉사 사업의 역사”,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서울: 큰사람기획, 1999), 132-172쪽, 134쪽.

26)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60-64쪽.

이 자기의 집문서를 내놓고 구호단체를 세우기로 하여 이를 근거로 ‘애환회’를 조직하여 순수 빈민 구제에서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효시가 된 것을 기억할 때 한국 교회 초기의 신앙적 삶이 곧 사회의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²⁷⁾

초창기 한국 개신교회의 특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섬김’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두각이 되는 것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희망을 제공해 주는 종교적인 영적 체험의 장소로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1903-1907)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섬김’을 성공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장²⁸⁾에서 교회의 독립운동이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의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데에 대한 다른 관심이 필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평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03년 감리교 하디 목사의 원주 사경회에서 시작되어 ‘성령운동’, ‘복음운동’, ‘각성운동’ 또는 ‘오순절운동’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1907년 초 ‘한국의 오순절 날’이라 불리는 한 날로 우리를 인도한다.²⁹⁾ 약 1,500명의 신도들이 한 주간의 사경회/성경공부모임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마친 마지막 날, 주일 저녁예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소리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되었다³⁰⁾는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영혼 깊숙이 상처를 받은 국민들과 선교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선교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과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백만인구령운동’, ‘20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와 같은 거대한 성장 목표를 세우고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³¹⁾ 이 사건을 한국 교회는 신앙을 위한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날까지 기억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초창기 성령운동을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정치적인 책임을 제

27) 좀 더 자세한 참고는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의 사회복지》, 137-138쪽.

28) 특별히 교회의 영적 각성을 반 정치적이며 반 독립운동적으로 악용한 예가 있었는데 감리교의 해리스(M. C. Harries)와 장로교의 게일(J. S. Gale) 선교사다. 이들은 스스로 일본 식민 통치자들에게 자신들이 신실한 친일파라는 것을 고백하고 교회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폄박하였는데, 예를 들면 1906년 6월에 독립운동의 주요한 단체인 상동교회의 전덕기에 의하여 세워진 엠뷸청년회를 교회에서 추방하였다. 이들의 논리는 비정치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독립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The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6, p.322; A. J. Brown, “Politics and Missio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März 1902, pp.187-188. 이에 대한 비평은 참조하라: 민경배 (1995), 276쪽.

29) World Mission Conference, *Report of Commission I* (Edinburgh, 1910), p.77. p.80.

30) 이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 S. C. Han, *Beziehungen zwischen dem Schamanismus und dem Verständnis des Heiligen Geistes in der protestantischen Kirche in Korea* (Hamburg, 1991), p.99.

31) 이명현,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컨콜디아사, 1978), 120쪽.

하려는 의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더우드(L. H. Underwood)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성서적 기반을 가진 기독교의 본질적인 ‘섬김’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³²⁾ 더욱이 한국 교회의 각성운동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사회가 죄로 여기지 못하던 음주, 축첩, 노름 등을 죄로 받아들여 이를 회개하게 하고 이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윤리적인 삶의 척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섬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일제 식민 시절(1910-1945년)

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1910-1945년)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강요된 ‘한일합방’ (1910년)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일제의 찬탈과 강점은 철저한 식민지적인 수탈에 의하여 이 땅 대부분의 주민들을 절대적인 빈곤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한국에 벌어진 일본 사람을 위한 최초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당시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구제 대상자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국민의 80%가 농민인 당시의 상황에서 농촌의 궁핍화가 절정에 달하여 전 국민이 반영구적 기아선상에서 생활한 것은 당시 국가적 돌봄(사회의 복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³³⁾ 이에 당시의 식민통치자인 일본은 내무부에 사회복지 전담을 위하여 ‘사회과’ (1921년)를 신설하였고, 1929년 구호법 제정 그리고 학교와 병원 등을 세워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의도를 보이는 듯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민통치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진행되는 산업화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한국 주민의 반발과 세계의 비판적인 여론을 최소화시켜 식민지 지배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편으로 병원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편을 허용한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³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일제의 통제에 의하여 수적인 면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일본의 사회 통제적인 성격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였다.³⁵⁾ 그러므로 자연히 일제의 수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의 일을 교회가 하게 되었다. 1904년 부산에서 시작된 문둥병자를 위한 수용소가 1909년에 시설을 갖추어 개설되고, 이어 1914년 인도의 문둥병 선교사 Baily의 거역

32) L. H. Underwood, H. G.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American Tract Society, 1904), p.164ff.

33) 유익웅 편저, 위의 책, 54쪽 이하: 여기서 민경배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제임스 데니스의 보수적인 복음 전도 위주의 선교 신학에 영향을 받았으나, 데니스가 실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봉사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펴다.

34) 노치준, 같은 책, 67쪽.

35) 유익웅 편저, 위의 책, 60쪽.

의 회사로 확장 운영되어 일본 식민지 압제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소록도의 수용소와 경쟁을 하였고,³⁶⁾ 1928년 해주의 폐결핵환자를 위한 구세요양원, 1921년 서울에 아동을 위한 태화 여자회관이 운영되었다. 1926년 아현동에 여자육아원이 개설되고, 같은 해 천연동에는 직업 여성훈련원으로 여자부양소가 생겼다. 특별히 1928년 예루살렘 국제 선교대회의 감동과 그 열풍으로 YWCA(김활란)와 YMCA(신흥우) 중심으로 20년대와 30년대에 교회의 농촌 계몽운동과 또 거국적인 절제운동(국채보상 운동, 탈환회, 감선회운동, 금주·금연·금아편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³⁷⁾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시기 일제의 식민지 정책하에서 외국 선교사들 중심으로 빈민들을 돕고 나라의 독립 운동을 회복하는 일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였다.³⁸⁾

그러므로 선교신학자 라투렛(K. S. Latourette)이 이 시기 한국 교회의 성장이 비극적인 국가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바른 것이고,³⁹⁾ 교회사학자 문상희의 다음과 같은 관찰은 당시의 국가적 운명과 교회 성장의 관계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국가 패망의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은 점점 더 많이 개신교회로 모여들었고, 전국에 수많은 교회당이 세워졌다. …… 예배에는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의 이야기가 즐겨 전해졌고, 찬송은 ‘너 십자가의 군병’ 또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같은 노래가 불려졌고, 개신교인들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 개신교인이 되면 해방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⁴⁰⁾ 당시의 교회는 민족 독립을 위한 모체로서 국가적 위기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회의 독립을 위한 ‘섬김’은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비폭력적 저항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 교회의 공신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처음 한국에 부임한 일본 제국주의 총독 데라우찌(Derauzi Masadaky)는 임명되어 오자마자 개신교인들이 통치자의 방해 요소라고 보고 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였다.⁴¹⁾ 그는 일본 천황의 사진 앞에 절하기, 105인 사건의 조작 그리고 그들의 전쟁신인 신토에 대한 경배 강요를 통해

36) 차옥연,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사회봉사에 관한 연구”, in: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기독교 사회 복지> 제8호 (1999), 199-217쪽, 여기 210쪽.

37) 유의웅 편저, 위의 책, 62-64쪽.

38)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기독교문사, 1971), 160쪽, 참고: 1993년 종교연감 144쪽에 의하면 일본 식민정부가 1888년부터 1936년까지 세워져서 운영되던 기독교 사회봉사 기관이 38개(육아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로사업 등) 있었는데, 그중 27개가 개신교, 6개 천주교, 2개 안식교 그리고 구세군, 성공회, 일본기독교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39) K. S. Latourette, *Christianity in an Revolutionary Age*, Vol. III (London: Eyre & Spottiswoode, 1961), p.448.

40) “한국 교회의 수난사”, <사상계> (1965년 9월호), 204쪽.

41) “Annexation and Mission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910. 12), p.951; 김종명, 《일·한외교자료집성》, 제6권 (도쿄: 1963), 336쪽 이하.

한국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을 도말하고 개신교회가 주는 종교적 위로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개신교 핍박은 특별히 1930-45년에 절정을 이루어 40-42년에 한국 내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43년에 모든 교단의 총회를 폐지시키고, 일본 개신교회의 한 교단의 자격으로 “조선 혁신 교단”에 귀속시켜서, 일본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를 비정치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의도는 45년 7월 19일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를 일본의 교회에 종속시킴으로써 완성되는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심한 폭력과 협박 그리고 비인간적인 고문과 살해⁴²⁾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약 한달 후의 기적과 같은 해방이 한국 교회의 일본 흡수를 막아 주어 다시 한번 한국 개신교회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이 일제 강압의 기간 중에 일본의 강력한 개신교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이는데,⁴³⁾ 이는 일본의 개신교 탄압이 외면적이고 단기적인 교회 성장의 위협을 가져왔다면 이에 맞서는 개신교의 비폭력적 저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섬기는 삶의 자세가 결국은 긴 세월을 걸쳐 개신교를 신뢰하는 선교적인 열매를 얻게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때 보여준 개신교의 단합된 모습, 정의의 편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비폭력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었으리라. 교회는 당시에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했기에 비밀리에 거국적인 운동의 주역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었다.⁴⁴⁾ 33명의 민족 대표로 서명한 사람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또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대모가 전국적으로 107회⁴⁵⁾나 된다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해낸 일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3·1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혐의를 받고⁴⁶⁾ 가장 심한 핍박을 받은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⁴⁷⁾ 이런 상황에서 1919년의 마이너스 성장(-53,236 신도; -16.9%)⁴⁸⁾은 옥에 갇히고, 살해당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간 사

42) 70명의 목회자가 신도신앙 거부로 수감되었고 그중 50명은 옥사하였고 20명은 해방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었다. 민경배 (1995), 513쪽.

43) 한국 교회의 통계에 관한 것은 본인의 참고: 박창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건 속에서 본 개신교회의 성장과 그 원인”, 〈신학과 세계〉 (2002년 가을), 통권 제45호, 348-384쪽.

44) 당시에 개신교인들은 다만 인구의 2%에 해당되었지만 “백성들 속에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또 목표를 위하여는 활동적이고 잘 조직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E. A. McCully & J. O. Fraser, *Our Share in Korea*, Board of Foreign Missions, United Church of Canada (1931), p.54.

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권 (1967), 257-286쪽.

46) 위의 책, 349쪽: 여기에 일본의 비밀경찰이 독립운동을 기독교의 순교운동으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Peng Yang Station, *N.P. Report* (1920), p.193, p.197; 비교. H. D. Appenzeller,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Christian Movement* (1920), p.220.

47) 당시 개신교인들의 3·1운동 핍박에 관하여는: Anonymous by Request, General Survey, *The Christian Movement*, 1920, p.201; 비교. N. Martin, To any Americans, who are prejudiced against the Use of tortures as a means of Religious Persuasion.

48) 이 시기의 구체적인 성장은 참고: 박창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건 속에서 본 개신교회의 성장과 그 원인”, 350쪽.

람을 염두에 두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위험한 처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진다.⁴⁹⁾ 그러므로 그 이듬해의 21.8% 성장은 교회의 분명하고 의로운 처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⁵⁰⁾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중의 한 가지가 개신교회의 지속적인 성령운동을 통한 ‘섬김’이었다. 개신교회 초기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실제적인 신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내면적인 면을 강조하여 개인 경건이나 교회 생활 위주로 발전을 하기에, 그들이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에, 분명한 정치적인 결단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독립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정치적인 현실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령운동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맥으로 흐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성령운동은 계속적으로 길선주(1903-), 김익두(1920년대) 그리고 이용도(1930년대)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들의 영적 ‘섬김’은 정치적인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갖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인들에게 경건한 삶을 강조하며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금요철야기도 등을 강조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적 국가적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신교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고자 했고, 여기에 일본이 비정치적인 경건한 형태의 신앙을 모범적인 종교라 권장을 하였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무자비한 핍박이 개인적이며 내세 지향적인 신앙의 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목사들 가운데 두 명이 결국은 이단으로 교회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⁵¹⁾ 그러나 이들이 한국 교회에 남긴 영적인 ‘섬김’은 종교가 가져야 할 영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또 일제 식민통치 시절 내내 이어온 위의 두 가지 전통(사회

49) 당시에 3·1운동의 통계: 1,000,368명 참가, 3,336명 사망, 9,227명 부상, 35,712명 수감,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1920, 수정본 《서울아세아문화사》 I 권 (1977), 75쪽.

50) “Politics and Religion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World* (Oct. 1920), p.862; 비교. W. N. Blair, “The Forward Movement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921년 7월), p.528. 참조: 박창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건 속에서 본 개신교회의 성장과 그 원인”, 366쪽.

51) 김익두는 1923년 장로교에서(《대한예수교장로회 사기》, 2권, 예장출판국, 1972, 39쪽), 이용도는 1933년 7월에 감리교에서(《감리회보》, 1권 7호, 1933. 7. 10) 이단으로 판결을 받았다. 이중 이용도는 1999년 다시 감리교회로부터 복권을 받았다.

정치적 섬김과 종교적 영적 섬김)을 서로 간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화롭게 전통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매도하며, 왜곡하며 한국 교회 내의 갈등을 만드는 요소로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교회의 ‘섬김’을 종합해 보면: 1)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섬기는 자로, 2) 민족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식민 통치자에게 반기를 들되 평화적 투쟁의 선봉자로, 3) 또 특별히 당시의 불행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로 고통당하는 민족에게 종교적 위로와 희망으로 나타났다.

3) 식민 해방부터 한국전쟁과 그 이후 60년대 초기 혼란의 시대(1945-1960년)

세 번째는 1945년 일제 식민 착취에서 해방된 해로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민족 분열의 시기를 거쳐 이 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기 이전의 60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사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하여 마련한 해방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변화에 따라 얻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땅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민족 최악의 상황인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외국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 시기 교회의 ‘섬김’은 해방과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의 상황에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신생 정부가 이 영역의 대부분을 외국의 원조⁵²⁾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외국 원조의 창구로 구제의 ‘섬김’과, 서양 문화의 전달자 역할로 드러났다.⁵³⁾ 이것은 이 일에 참여한 외국 기관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이기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감리교회는 1930년 10년을 간격으로 들어온 남북감리교회가 통합되어 사회신경을 천명하고 ‘사회국’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해방 후에는 감리교구제위원회(MCOR)와 기독교세계봉사회(CWS)가 미국으로부터 매달 1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아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원조기관 147개 중 개신교가 73개, 가톨릭이 40개, 무종교나 미상이 33개, 불교가 1개로서 개신교가 49.7%로 가장 열심히 한 것을 볼 수 있고,⁵⁴⁾ 당연히 이 일에 한국 개신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봉사를

52) 1952년 5월 부산에서 7개의 외원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결성한 “외국 민간 원조기관 한국 연합회(KAVA)”는 당시 “한국 제2의 보사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1953-1968년 외원기관에서 도입된 물자들을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 2억 3,364만 달러였다고 한다. 노치준, 같은 책, 68쪽.

53) 이 논문의 성격상 남북전쟁 이후의 시기부터는 남한 교회의 섬김에 관하여만 다루기로 한다.

54) 이삼열 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한울, 2000), 166쪽.

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쟁 후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위해 1950년 보브 피얼스(Bob Pierce) 박사는 세계기독교선명회를 조직하여 전적으로 미국 교회의 원조를 받아내었고, 1957년 당시에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만도 이미 560개였고, 기독교는 전쟁 미망인들을 위한 70개의 모자원과 70여 개의 양로원을 운영하였으며, 15,000명에 해당되는 수족 절단자들을 위하여 토리(Reuden A. Torry)는 의수족을 만들어주고 직업알선까지 도와주었다.⁵⁵⁾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를 섬기던 활동은 1957년 《기독교연감》에 의하면 543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기독교기관에 의하여 운영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958년 886개 남한의 중학교 중에 99개교 34,000명의 학생이 기독교계통으로 전체의 8.4%를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최초로 세워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역시 개신교 교단의 이화여대(1947년)와, 중앙신학교(1953년)가 있었고, 서울대학에는 1958년에서야 세워졌다는 것 역시 교회가 우선적으로 사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의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은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한국 교회의 준비된 신앙적 '섬김'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교회는 비록 서양 기독교의 후원으로 가능한 것이기는 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즉 폭력과 불의에 대한 무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적인 상실 등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무엇보다도 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아 남은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간증을 통해)를 보여주었고, 또 전쟁의 무자비함과 상실된 인간성 앞에서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허함에 개신교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신앙적인 삶으로 보여주었다.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국의 자원으로 가장 먼저 복구되는 교회를 동경하게 되었다. 전쟁 후에 계속적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의 도움이 절박하기만 했는데, 이때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구제품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도움을 주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은 개신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은 개신교회를 자연스럽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동일시하였고 이러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나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해방시켜 준 나라를 기독교와 동일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불러온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개신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개신교는 제1세계의 부와 문화를 전하여 주는 창구로서 이해가 되고, 전후에 많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개신교인 것에 사람들은 자극을 받았다: 초기의 이승만 대통령은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장로였고, 부통령과 교육부장관도 감리교인이

55) 차옥연, 같은 책, 213쪽.

었다.⁵⁶⁾ 개신교와 선교사들의 나라는 선진국이며,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준 나라와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준 나라가 개신교의 나라라는 무한한 동경에서 온 결과임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의 개신교는 부의 상징이요, 힘 있는 제1세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개신교인은 서양 교육을 받은 자, 개화된 사람, 부자, 강자 등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들의 물질만능주의는 개신교 선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을 도우려던 선교사들의 물질을 앞세운 선교정책이 계속되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부작용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중요한 성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그 다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이전의 일제 식민시대와는 달리, 교회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만 정부의 일에 참여하여 동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정부의 국가 재건에 앞장서서 돕고 국가가 교회를 이 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는 데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적 입지가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요인이 되기는 했으나, 교회가 너무 정부와 밀착하여 예언자의 소리를 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또 교단들이 여럿으로 나뉘는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 주었다.

4) 도시화와 산업화, 올림픽 개최를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발전의 시기(1960-1988년)

네 번째는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산업화를 시작하던 60년대부터 8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88년 국제 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던 88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우선 60년대 4·16 학생의거와 민주화의 열기를 총칼로 제압한 독재 정권의 창출과, 무리한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내몰아 썩 노동력을 제공케 하며 생겨난 도시 빈민가 형성과 산업화의 수혜자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대규모 이주 집단이 생겨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기독교의 사회에 대한 ‘섬김’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급속도로 줄어들며, 개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몰두하는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⁵⁷⁾ 이때가 일제 식민지부터 그리고

56) 1946년 35/50명의 정부 고위 관리가, 그리고 21/90명의 헌법위원(그중에 7명이 목사)이 개신교인이었다: K. S. Kim,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1946, Vol. XXXVI, p.133; 전쟁 중인 1952년의 임시정부 대부분의 장관들이 그리고 국회의원의 1/4이 기독교인이었다: H. A. Rhodes & A.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Vol. II, 1935-1959, New York,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4, p.381: <한국기독신문> (1952. 4. 12).

57) 노치준, 같은 책, 69쪽.

해방과 전후 집중적으로 투자된 외국의 원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기여서 이론적으로는 교회가 더 많은 봉사를 하였어야 할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때까지 주로 감당하던 구제와 봉사를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기관에게 맡기고 교회 성장에만 열을 올려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⁵⁸⁾ 그러므로 이 70년대에 들어서서는 노동자와 빈민들은 의식화와 조직활동 등을 통해 그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스스로 변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조직적이며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를 외면하였다. 교회는 1960년 인천에서 도시산업전도회(후에 도시산업선교회)가 생겨 노동문제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해결책을 시도하는 일을 하였고, 1970년대 인권운동, 사회정의실천 등의 일에 주체적으로 가담을 하였지만, 기독교 내부의 일부분에 그치고 말았고,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라는 이원론적인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급기야 70년대 전태일의 분신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민중신학과 같은 기독교 사상들이 그들을 옹호하자, 교회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 등의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옹공주의자로 내모는 정책을 폈다. 이 시기에는 조하순, 조승혁 목사와 같은 소수의 산업선교나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이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으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자기 생존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울타리가 되어야 할 국가와 정치 세력들은 아직까지 이들을 돌보는, 섬기는 일에는 의지가 없어 보였고 체계적으로 도울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였다. 처음 1960년 5월 26일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창출했던 박정희 독재정권은 다만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자기들을 후원하는 집단에게는 공무원 연금법(1959년), 군사원호보상법(1961년),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년), 군인연금법(1963년) 제정과 같은 사회복지적인 혜택으로 설득하려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1980년 광주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며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년)을 만들어,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하고, 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을 만든 것처럼 보이고, 그 이후의 노태우 군사정권과 함께 5·6공화국 시절의 80년대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복지법들이 통과되어 마치 한국 사회가 급진적으로 복지적 제도의 국가로 변하여 가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아동복지법(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노인복지법(1981년), 국민연금법(1986년), 최저임금법(1986년), 보호관찰법(1986년), 모자복지법(1989년),

58) 1979년 보사부 자료에 의하면 부녀복지의 87%, 아동복지의 91%, 양로원 시설의 67%가 기독교 계통으로 나타나고 1987년 166개 사회복지 시설 1,393명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신도가 이중 63%의 종사자로 나타나나 이것은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거의가 개인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삼열 외, 같은 곳; 이 시기 개신교회 성장에 관한 통계에 대한 참조: 박창현 (2002), 372-377쪽.

(개정)사회복지사업법(1983년), (개정)생활보호법(1983년). 80년대 한국은 이전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며 수많은 도시 빈민을 양산하고,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절인 등의 소외계층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문제는 60년대 들어선 군사정권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렇게 하였듯이 또다시 5·6공 역시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를 무마하는 용으로 복지정책을 남발하였다⁵⁹⁾는 사실이다. 이에 국고의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 정책은 60년대와 70년대 기적과 같은 급성장을 이룩한 교회의 시설과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국가가 운영비 일체를 보조해주는 “이상한 형태의 복지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여준 기독교의 ‘섬김’은 그러나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의 봉사, 개 교회에 대한 ‘섬김’으로, 사회와 기독교 전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개 교회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의심을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유에서 앞서 언급 하였듯이 그 동안 개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던 교회가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회 섬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다. 즉 그간 교회 성장에만 주력 하던 교회가 교회 성장의 정체와 감소에 대한 이유를 바로 교회의 대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봉사 부족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교회 성장의 위기를 사회에 대한 봉사로 극복하려는 의도가 아니가 하는 것이다.⁶⁰⁾ 결국 국가의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일부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와 교회 자체의 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1979년 부녀복지시설의 87%, 아동복지의 91%, 양로원 시설의 67%가 기독교 계통의 시설이었고, 1987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개신교인이 63%, 천주교인 14%, 불교인 5%, 기타 18%로 나타나 70년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는 자세히 관찰해볼 이유가 있다. 어쩌면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 대부분의 신학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생겨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척과 교회 운영이 어려워진 많은 교역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목회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60년대 이후 정치적인 암흑기와 경제적 빈부 격차로 사회가 혼돈스러울 때, 고통의 한가운데 뛰어들어 섬겨온 아름다운 흔적들이 적지 않게 있다: 70년대 이후 불의에 항거하며 이 땅의 민중의 인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섬기기를 원하며, 혹독한 감옥살이를 당하면서도 꽃을 피워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이루고 세계적인 신학 ‘민중신학’에까지 승화시켰던 안병무, 서남동과 같은 기독 지식인들이 있었다. 또 이들과 함께 도시 빈민가에서 민초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겨온 ‘민중 교회’의 목회자들, 전태일과 같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섬기던 조화순 목

59) 노치준의 이러한 비판은 그러므로 타당한 것이다. 참고 노치준, 같은 책, 69-70쪽.

60) 교회 성장을 위한 이미지 개선의 사회복지에 대하여는 참조, 홍성욱, “한국 교회에서의 실천 현황과 과제”, in :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와 디아코니아》(한들출판사, 2002), 267-302쪽.

사와 같은 산업선교의 섬김이들⁶¹⁾이 있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방, 유치원, 노인대학 등을 열어 형편대로 사회를 섬겨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섬김이 60년대 이전처럼 개신교의 전체적인 섬김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의식 있는 몇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교회의 입장에서 심지어는 손쉽게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유치원과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에서 대부분의 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하여 활발했다는 것이다.

5) 세계화 시대(1988년-현재)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난 88년부터 오늘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국제 대회를 거의 유치하고 OECD에 가입하며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빈부의 격차는 있어도 최소한의 국가적인 복지 체계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 한국은 이 시기에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세계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스포츠에까지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1997년 11월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사회 전체가 대량빈곤현상에 처하지만 이에 대처할 만한 사회 안정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일단은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 안정망 제도로 대처했던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 9월 7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탄생시키며 국민의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국가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외 9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영유아보육법(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고용보험(1993년),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정신보건법(19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국민의료보험법(19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2000년대는 국내적으로는 IMF의 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되는 시기이고, 고령화가 급속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000년), 정신보건법(2000년), 사내근로

61) 1985년 한 해 가난의 문제로 사망한 사람이 1,03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리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 1986년 부스러기선교회를 만들었고, 1988년에는 소위 “588”이라는 청량리 빈민지역에 다일공동체가 생겨나 걸인과 행려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또 이들과 의지할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일천사병원을 건립하였다: 서선희, “한국 교회 사회복지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43쪽 이하.

복지기금법(2001년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년 개정), 청소년보호법(2001년 개정), 의료급여법(2001년 개정),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제정).

이 시기 한국 교회의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⁶²⁾ 이 시기에 교회는 IMF 외환위기와 극복,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통한 세계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자였다. 이 사회의 어려운 여건조차도 교회에게는 성장에 커다란 유익으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IMF의 위기에 마음의 위로를 위해 교회를 찾아갔으며,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재기의 힘을 신앙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 대규모 도시가 계속 생겨나면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교인들을 짧은 기간 안에 교회에 모아 들여, 교회는 자본주의 시대의 성공적 경영원리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신화를 교회 성장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었고, 교인들 역시 불안정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신앙의 이름으로 꾸게 되었다. 이 시대 대형 교회 교인들의 간증문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 때문에 큰돈을 벌어서 교회의 건축이 가능한 현금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식이었음을 흔하게 만나보게 된다.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가능한 ‘세계 최고’로 지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는 가장 화려하고 성대히 행해졌다. 큰 교회의 행사 때마다 정치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졌고, 목사들은 앞을 다투어 정치인의 조찬 기도회에 참여하길 원하고, 사회면의 강도, 사기, 강간, 현금 유용, 배임, 폭력 등에 목회자와 교인들의 이름이 연일 보도되고, 대형 교회의 치부가 특집 등으로 다루어져 교회의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염려와 근심의 대상으로 변하여 가도, 문제의 인물들이 성도들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목회를 하며 오늘날 교회의 선교를 막는 주범이 곧 교회 자신이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지도자(목사)라는 말이 화두가 되게 하고 있다.⁶³⁾ 이러한 자세로 인하여 초래된 교회의 위기는 2006년 발표한 2005년 11월을 기준한 종교인 통계에서 120년 개신교의 결과 표로 분명하게 전해졌다고 본다. 1980년대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선교의 기적”이라는 말로 전체 국민들 3명 가운데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1,300만 명까지 개신교인이라 숫자를 부풀려 왔던 개신교가 선교 120년 동안 국민의 20% 정도의 마음도 얻어보지 못하고 급격한 교인 감소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총인구 중 종교인구는 불교인이 2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개신교인 18.3%, 그리고 천주교인 10.9% 순이다. 이는 1995년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불교와 개신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둘 다 소폭 감소(불교 23.2%에서 22.8%로, 개신교는 19.7%에서 18.3%로)했지만, 실제로 불교는 숫자적으로 지난 10년간 자기 대비 40만 5천여 명, 3.9%가 증가하였고, 개신교는 실

62) 최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최근의 교회의 섬김은 대강의 양상을 소개하는 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63) 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적 제언”, 〈신학과 세계〉(2006년 여름), 통권 제56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23-249쪽, 237쪽 이하.

제로 -144천 명의 숫자적인 감소가 일어났다. 오직 천주교만이 전체 인구 대비 6.6%에서 10.5%로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증가하였음을 드러낸다. 천주교는 지난 10년간 74.4%, 무려 219만 5,000여 명이 증가하여 전체 514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일단의 종교 유형별 분석과 비교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3개의 가장 큰 종교집단 유형, 즉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에서 교인 숫자 면에서나 전체 종교인들의 성장 비율 면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많은 수의 교인을 잃었다. 지난 10년간 많은 국민들이 종교에 귀의를 하였는데,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천주교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다.⁶⁴⁾

안타깝게도 80년대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타난 기독교의 ‘섬김’의 특징은, 그 동안 개신교회가 보여준 이 사회의 작은 자에 대한 봉사로서의 ‘섬김’은 사라지고, 가진 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의 모델로, 소비 중심 문화의 모범적 신봉자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즐기는 장소가 되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훌륭한 모델로 사회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3.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본 ‘섬김의 영성’의 문제점

그러므로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섬김의 영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교회가 즐겨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거의 한 번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 국가의 사회복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 적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초기의 좋은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달리 한국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와 그들의 자본이 주체가 되어서 주력한 사역이었다.⁶⁵⁾ 그나마 감리교처럼 이미 1930년 일제시대에 교단 안에 사회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외국 원조를 분배하고, 사회현장까지 만들어 교인들에게 ‘섬김의 영성’을 강조하였던 교단도 교단의 정치적 싸움에 사회국을 폐지하고 말았고, 특별히 정동제일교회나 상동교회처럼 사회에 대한 ‘섬김’에 처음부터 모범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교회는 아직까지도 개 교회 수준의 다른 교회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가난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감자탕교회로 알려진 광암교회, 소외된 사

64) 박창현,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에 대한 징후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적 제언”, 232쪽 이하.

65) 이만열은 이러한 사역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잘 분석한 결과로 극찬을 한다.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성경읽기사, 1987), 93쪽, 재인용, 최무열 (2002), 265쪽; 박창현, “신약 성서의 사회봉사”, in: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와 디아코니아》(한들출판사, 2002), 83-04쪽, 여기 84쪽.

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병을 치료해 주는 밥퍼와 천사병원 등을 이룬 다일공동체, 감리교회의 김 종복 목사가 이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으로 이룬 건강한 장애인 공동체 연수제일교회, 공단지 역민을 위하여 작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웃사랑교회의 송규의 목사,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선양원을 만들어 섬기는 이효주 목사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별적 차원으로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교인들의 개인적인 구제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과, 교회로부터 용공주의자로 정죄 받은 도시 산업선교회와 같은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교회의 ‘섬김의 영성’은 잘못된 신학 위에 놓여 있다. 교회는 ‘섬김’을 교회의 성장에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 왔다.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한국 전쟁 후까지 한국 사회의 그 늘진 곳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교회가 외국 원조기관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공식적인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이익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기에 60년대 이후 외국의 사회 복지 지원단체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진정 한국 교회가 그 공백을 매워야 할 때는 모두들 손을 떼고 개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는 사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 때, 또 성장에 필요 없을 때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이제 다시 교회 성장에 유익이 된다는 시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인상을 갖게 한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의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를 ‘섬김’이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추측들에 힘입어 성장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통한 성장을 꿈꾸며 이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⁶⁶⁾ 이로써 한국 교회의 ‘섬김의 영성’은 심각한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⁶⁷⁾ 교회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섬김만을 하는 ‘교회를 위한 섬김’ (Diakonia für Gemeinde)은 해왔지만, 교회 자체가 섬김으로 이해하는 ‘섬김의 교회’ (Diakonia der Gemeinde)가 되지 못하였다. 즉 교인들에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봉사하는 ‘섬김’을 통하여 세상 전체를 ‘섬김’의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보다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차원에서 머물게 하는 ‘섬김’에 주력해 온 것이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섬김의 영성’은 ‘섬김’의 대상에 대한 이해나 사명감, 그리고 ‘섬김’에 대한 성서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세상의 일반적인 ‘섬김’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섬김’이 아닌, 섬기는 인간의 만족에 근거한 ‘섬김’을 실행

66) 홍성욱, 같은 책, 268쪽.

67) 유익웅 편저, 위의 책, 63쪽: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초기 사회봉사에 대한 외국 선교사들의 입장마저도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민경배의 주장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해석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섬김’은 왜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걸까?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거든 종이 되거나 섬기라’는 말을 오해하여, 잠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섬김의 행위를 통한 군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는 그간 ‘섬김’을 받기 위한 고난의 시절을 보내며, 조건적 ‘섬김’만을 해온 것은 아닐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가 100년의 ‘섬김’의 역사를 통해 얻고자 한 것과 얻은 것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과, 고급화, 세속화, 명품화가 되어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 중심 사회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기꺼이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라고 부르길 원하고, 교회 성장학은 대기업의 경영학이나 세상의 성공 철학을 그대로 답습한다. 교회는 1997년 한국 사회가 IMF를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조차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IMF 특수’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현실의 아픔까지 끌어안는 ‘섬김’보다는,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영적인 ‘섬김’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을 지지만, 교인이 어려우면 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 이 논문의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예수의 ‘섬김의 영성’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의 높임을 받기 위한 죽기까지 낮아지는 ‘섬김’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섬김’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눈가림식의 ‘섬김’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 교회의 일부분은 그 동안 구원과 무관한 사회에 대한 봉사로서의 ‘섬김’만을 실천해 왔다는 것이다. 즉 사회봉사로써의 ‘섬김’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봉사로써의 ‘섬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가지는 ‘섬김’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즉 인간 삶의 구체적인 환경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문제에 대한 치유(Heilung)와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영적 구원(Heil)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독일어의 치유를 나타내는 “Heilung”(하일룽)과 구원을 나타내는 “Heil”(하일)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믿는 자들의 섬김은 선교의 행위이고 선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사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서 배우는 섬김의 영성인 것이다.

4. 나가는 말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회의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봉사의 대상으로 국가와 이웃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회의 악한 구조와 싸워 개혁을 일으켜야 할 교회는 오히려 사회가 불안해

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회의 영적인 ‘섬김’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사회봉사로서의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회는 12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섬김’에 대한 올바른 적절한 신학을 가지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신학을 가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 한국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올바른 예측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미래의 기점에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때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18%의 교인들이 힘을 모아, 나머지 82%의 교회 밖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행한 행위로서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의 존폐 여부는 교인 성장의 쇠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이 가능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자세는 복음의 본질에 근거하여 세상을 진정으로 섬김으로 세상이 감격하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 선교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밖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섬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하나님을 또다시 소외시키고, 인간의 뜻을 우선하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며 얻어지는 몇몇 개 교회의 숫자적 성장을 통하여 극복해 보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돌이켜야 한다. 교회는 성장하되 사회와 역사의 심판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교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섬김의 영성을 향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

본인은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회에 잃어버린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올바른 신앙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본질에 충실한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제3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1. 섬김과 목회자의 리더십

한국 교회는 12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최선으로 헌신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헌신과 리더십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특별히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한 존 맥스웰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들의 성장에는 카리스마적인 권위적 리더십을 발휘한 강력한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반응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교회의 권위적 리더십은 오히려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미준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를 보면 종교 지도자 자질의 우수성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12.0%로, 31.8%를 차지한 천주교나 21.2%를 차지한 불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통계는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즉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1)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섬김의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에게서 시작된 개념²⁾이지만 그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1)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두란노, 2005), 223쪽.

2)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그의 저서 *Servant Leadership*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6년 4월 미국의 경영 관련 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배하고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었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⁵⁾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예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를 닮아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성서적인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⁶⁾

제임스 헌터는 그의 책 《서번트 리더십》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우리나라 봉사와 희생에 따른 영향력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에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봉사와 희생에 대한 내적인 기쁨이 있으며 이 리더십이 지속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통한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십이다.

전문출판사인 Jossey-Bass사가 *On Becoming a Servant-Leader*를 출간한 것을 계기로 많은 경영학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리더십 모델 중의 하나다.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 아이디어를 헤르만 헤세(Herman Hesse)의 소설인 《동방으로 가는 여행》(*Journey to the East*)에서 얻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여행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인 레오가 없어지자 여행을 계속 할 수 없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몇 년 만에 레오를 만났는데 레오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여행을 후원한 교단의 책임자인 동시에 정신적 리더였음을 알게 된다. 그린리프는 이 레오가 바로 전형적인 서번트 리더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저서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이 예수에게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개념은 예수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인간에 대한 자세에 주목하고 있다. 즉 리더 자신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두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부하들을 주인의 자리에 두고 이 주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리프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는 리더십으로,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요체다. (《서번트 리더십 실천편》, 158-160쪽)

3) 정충영,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로고스경영연구 제4권 (2006), 2-6쪽.

4)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35).

6) 유성준, 《세이버교회 실천편》(평단, 2006), 161-162쪽.

2) 리더십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섬김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리더의 성품과 리더가 품고 제시하여 추진하는 비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이다.

(1) 성품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이러한 열매들이 리더의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다.

리더십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은 성품이다. 지도자의 성품은 그의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은 존경하고 신뢰하는 자의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리더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으며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

성품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때 순간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⁷⁾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새로운 방법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을 자주 드러내어 그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성품의 결함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거나 숨기려 하면 언젠가 우리의 리더십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⁸⁾ 성품을 개발하는 일에 매우 유용하다.

(2) 비전

리더십은 비전에 관한 것이다. 리더십은 항상 변화를 향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리더십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 목적의 성취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비전은 사역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비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비전 없이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비전이 즉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리더들은 눈에 보이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 원하신다. 따라서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전이라면 야망에 가득한 리더의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⁹⁾

비전은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관리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7)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청우, 2000), 23쪽.

8) 유성준, 《세이버교회》(평단, 2005), 72쪽.

9) 헨리 블랙커비, 《영적 리더십》(두란노, 2002), 93쪽.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원하시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3) 관계

리더십이란 리더와 따르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며 리더십을 공유하는 관계를 일컫는다.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비전을 완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만드셨다(엡 4:11-16). 리더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십은 그 과정 안에서 리더와 따르는 자 모두가 성장한다.

리더는 일반적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사역한다. 교회 리더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도구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과 세운 관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비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¹⁰⁾

섬김의 리더십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협력하여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직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에 근거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행위를 평가한다. 구성원 각자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으며,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¹¹⁾

(4) 기술

비전의 성취를 위해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많은 기술이 있다.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다룰 계획을 세우는 일, 건설적 방법으로 갈등을 다루는 기술 등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 위임하는 기술을 포함한 시간 관리의 기술, 그리고 교회의 리더라면 교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근본을 형성한다.¹²⁾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린리프 센터의 스피어즈 소장은 서번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열 가지 요소를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비전, 예지력, 청지기 의식, 성장 지원, 공동체 구축으로 규정하

10) 앤드류 사이텔, 《전방향 리더십》(국제제자훈련원, 2005), 17쪽.

11) 유성준, 《세이버교회》, 167-168쪽.

12) 앤드류 사이텔, 《전방향 리더십》, 17쪽.

고 있는데 이 열 가지 요소는 위에서 이야기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적절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청, 공감, 설득이라는 요소를 보면 이것이 의사소통기술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우선 ‘경청’은 상대방의 말의 내용은 물론 말하는 사람의 의도, 욕구, 내면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경청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과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공감’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에서 그 기분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설득’은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구성원들 스스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³⁾

이와 같이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인 의사소통기술은 이런 경청, 설득, 공감과 같은 서번트 리더십의 요소가 없이는 바르게 행해질 수 없는 기술이다.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다. 서번트 리더십의 ‘성장 지원’이라는 요소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을 돕고 그들이 전문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 중심적인 사고가 리더를 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¹⁴⁾ 이 ‘성장 지원’은 위임하는 기술, 시간 관리의 기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십의 기술을 바르고 효과적인 길로 인도해 준다. 리더십의 기술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섬김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더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3)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얻는 이익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아들을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삶의 일치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의 섬김의 삶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의 삶의 모습은 모범으로서 영원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높이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될 때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교회와 지역사회에까지 자연스럽게 미치게 된다.

13) 유성준, 《세이버교회》, 163-167쪽.

14) 유성준, 《세이버교회》, 167쪽.

(1) 존경받는 목회자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한다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다고 한다. 《감자탕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가난하고 고난 받는 가정에 대한 따뜻한 섬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⁵⁾

조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종으로서의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성령에 이끌리어 감동이 전해지면 즉시 행동에 옮긴다. 훌륭한 종은 기동력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조 목사는 성도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우대한다. 사람들 위에서 보스처럼 호령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버렸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전부 알려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종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주인의 세미한 목소리도 간과하지 않고 경청함으로써 섬기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했다.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제시했다. 조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이것을 근간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종의 역할이 오늘 광염교회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창출해내고 있다.

(2)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감자탕교회 이야기》에서는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의 리더십이 영향력 있는 이유는 전도활동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것, 남을 섬기는 데 모범을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겸소함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고, 특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쉬운 설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 행복의 모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동시에 실천하는 열 가지¹⁶⁾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중 네 가지(타인을 섬김, 교회의 일에 솔선수범, 특별대우 거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가 직접적으로 섬김에 관한 것이다. 조현삼 목사는 타인을 섬기는 데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 굵은일을 자처하고, 수련회나 특별행사 시 목사로서의 특별대우를 거절하고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서 생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 등이 그에게 나타나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15) 양병무, 《감자탕교회 이야기》(김영사, 2003), 57쪽.

16) 양병무, 《감자탕교회 이야기》, 66-70쪽.

2. 신앙 성숙

1) 섬김과 신앙 성숙의 관계

신앙의 성숙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거룩해지거나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뜻한다.¹⁷⁾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예수상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다. 예수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신 분이다. 예수 자신도 인자의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즉 성화는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섬김이 요구된다는 사실에서 더 분명해진다(마가복음 10:42-44; 요한복음 13:1-20).

2) 섬김을 통한 신앙 성숙의 예 : 세이비어교회

세이비어교회의 교인들이 행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철학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이비어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이다.¹⁸⁾

이처럼 세이비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다. 이런 섬김에 대한 강조가 아래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

(1)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의 통합

세이비어교회는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둘을 연결해 주

17)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57쪽.

18)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22쪽.

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는 1989년에 설립된 세이비어교회의 훈련기관이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삼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섬기는 리더’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세이비어교회의 섬김의 리더십 학교가 추구하는 섬기는 리더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헌신하며 더 나아가서 용기 있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여섯 분야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기도, 성서, 공동체, 소명, 빈부로부터의 자유, 신령한 능력 등이다. 이 과정들은 세이비어교회가 강조하는 사역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적인 성령의 역사(Inward Journey)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Outward Journey)의 균형을 가르친다.¹⁹⁾

(2) 견고한 공동체 형성

세이비어교회의 소그룹은 사역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세이비어교회의 신자가 되면 내면을 향한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자신에게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 소그룹에 가입하게 된다. 이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삶과 공동 사역을 위한 헌신에 있다. 세이비어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안의 사랑을 키워나감으로 주님 안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²⁰⁾

(3)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75개가 넘는 사역들이 세이비어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역들을 위해 세이비어교회는 연간 총 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사역의 종류로는 주택 사역, 어린이 사역, 취업 사역, 노숙자 병원 사역, 노인복지 사역, 가정 사역 등이 있다.²¹⁾

이처럼 세이비어교회는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²²⁾

19)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72-73쪽.

20)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64쪽.

21)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83쪽.

22)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실천편》, 102쪽.

3. 교회 성장

1) 섬김의 리더십과 교회 성장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6대주 32개국 1,000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성장의 원리를 조사한 결과 성장하는 교회의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특성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²³⁾

지도력 분야에 관한 기존의 교회 성장 관련 문헌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 목사들의 지도력 스타일은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과업 중심, 관계 지향적이기보다는 목표 지향적, 팀사역 위주보다는 권위주의적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NCD 조사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교회 성장 이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지향적’이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나 이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²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란 지도자가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지도자는 평신도들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나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라미드형의 권위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서 리더가 교인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²⁵⁾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섬김의 리더십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그린리프 센터의 스피어즈 소장은 서번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열 가지 요소를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비전, 예지력, 청지기 의식, 성장 지원, 공동체 구축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⁶⁾

이 열 가지 목록 중 ‘성장 지원’이라는 요소가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 지원이란 리더가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을 돕고 그들이 전문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장 지원의 내용이 NCD 질적 특성 1번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 성장의 큰 변수가 된

23)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NCD, 1999), 22쪽.

24)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22쪽.

25)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22쪽.

26)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실천편》, 162-167쪽.

다는 것을 NCD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2) 섬김의 실천과 교회 성장

평균적으로 전도 집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3-16퍼센트 정도라고 한다.²⁷⁾ 더욱이 전도 사역에 열정적이며 그리고 실제로 팔복할 만큼의 결신자를 얻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뒷문이 넓게 열려 있다.

슈바르츠는 전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성패의 차이는 전도활동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관찰 결과로부터 도출한 질적 특성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불렀다.²⁸⁾

그럼 필요 중심적 전도란 어떤 것인가? 슈바르츠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확실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이 가까운 교회와 연결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회가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²⁹⁾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필요 중심적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50,000개의 셀을 가지고 있으며, 각 그룹은 다음해 안에 두 명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들은 불신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과 봉사를 베푼다.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상점 앞을 청소해 주기도 하며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한다.³⁰⁾

신시내티 포도원 공동체 교회는 4-6주마다 각 그룹별로 불신자 전도활동인 ‘섬김의 전도’를 실시한다. 이 전도를 통해 3년간 교인이 4,000명으로 급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섬김에 주민들이 당황하여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27) 조엘 코미스키, 《셀 그룹 폭발》(NCD, 2000), 10쪽.

28)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34쪽.

29)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34-35쪽.

30) 조엘 코미스키, 《셀 그룹 폭발》, 138쪽.

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를 묻고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자기 교회가 아닌 인근의 작은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³¹⁾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 중심적 전도는 섬김의 실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섬김의 실천이 교회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NCD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4. 교회 호감도

명성훈은 2005 한미준 한국갤럽 리서치를 분석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 종교인을 통해 평가된 종교별 이미지 평가에서 개신교의 경우 교세 확장, 헌금 강요, 종교 지도자의 자질, 영적 문제 해답 제공 등에서 모두 불교와 천주교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³²⁾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 개신교인의 경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를 지적했다.

따라서 비 그리스도인을 향해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비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월간 교회 성장>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불신자가 보는 바람직한 교회는 지역사회 구제에 힘쓰고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답변했다.³³⁾

1) 섬김을 통해 호감도를 얻은 교회

(1) 서울 광엽교회

서울 광엽교회는 이웃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교회 내 식구들 간의 돈독한 우애와 사랑은 물론이고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지원이 교회의 비전이 될 만큼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을 잃은 목회자 가정에 대한 지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 운영, 노인들을 위한 출장 예배와 식사와 용돈 지원, 매주 병원을 찾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 예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영어 예배와 미션 하우스 운영, 사회 곳곳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짐없이 찾아 가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활동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교회의 활동 때문에 교회 주차장이 없어 교회 건물 주변의 교통이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동

31)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기독신문사, 2001), 24쪽.

32)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 43-44쪽.

33) “불신자 전도 전략 연구보고서”, <월간 교회 성장> (2004년 8월호), 37쪽.

네사람들이 불편함을 잘 참아준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을 세 얻을 때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세를 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통해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봉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과 그 지역의 공무원들에게까지도 감사와 칭찬을 받는다.

서울 광염교회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주민, 멀리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기본에 충실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본은 다름 아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2) 세이비어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에 의해 워싱턴DC 북쪽 슬럼가에서 문을 연 세이비어교회는 1947년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150명의 교인을 넘어본 적이 없는 교회다. 그러나 지난 57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빈민지역의 저소득층과 노숙자, 마약중독자 등을 섬기며 70가지 이상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세이비어교회는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교회 모델이자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평가 받으며 사람들의 존경과 호감을 사고 있다.

이처럼 광염교회나 세이비어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교인들과 교회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타국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섬김을 경험하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우호적으로 그들의 섬김을 돕고 인정하며 나아가 기독교의 이미지까지 호감을 얻게 한다.

참고문헌

앤드류 사이텔, 전방향 리더십, 국제제자훈련원, 2005.

양병무, 감자탕교회 이야기, 김영사, 2003.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실천편, 평단, 2006.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평단, 2005.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기독교신문사, 2001.

정충영,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로고스경영연구 제 4권, 2006.

조엘 코미스키, 셀그룹 폭발, NCD, 2000.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두란노, 1997.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 청우, 2000.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NCD, 1999.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교회 미래리포트, 두란노, 2005.

헨리 블랙커비, 영적리더십, 두란노, 2002.

홍영기, 불신자 전도 전략 연구보고서, 교회 성장 8월호, 2004.

Daniel L. migliori,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www.newsmission.com/news/2007/07/04/1848.18524.html

제4부 미래 교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

이 글은 “10년 후에도 감리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MC)이 가능할까?”를 모색하는 글이다. ‘감리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사회 속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감리교회로, 역사와 민족 앞에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들어가는 이야기

“2019년 3월 1일 오전 11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동제일교회에 모인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집회를 갖고 있다.¹⁾ 2016년 제32회 총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성된 개혁운동에 힘입어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한 교단개혁”을 천명하는 시간이 오늘이다.

2018년 제33회 총회를 통하여 교단개혁운동에 동참하는 연회감독들이 선출되고,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 ‘개혁’ 헌법안이 2019년 10월 총회에 역사적으로 통과된다. 드디어 2020년, 온 나라를 뒤덮었던 ‘부산 하계올림픽’의 열기가 다 가시기 전, 10월에 개최되는 제34회 총회에서, 드디어 ‘개혁헌법안’에 의하여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된다. 그러므로 5그룹 “감리교 미래상 연구” 명칭을 “2020 새 감리교회 프로젝트”로 명하기로 한다.

2. 먼저 해 두는 말

10년 후의 미래는 2020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10년 후 미래의 감리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를 논하려면 10년 후에서 또 다른 1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기에, 이 글은 2030년의 미래에 닥칠 변화에 관심하고 있음을 먼저 말해 둔다.

감리교회의 변화는 입법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입법총회는 2년 주기로 돌아오지만 중요한 변화는 감독회장 임기 3년 차에 만들어진다. 2007년도에도 복수감독제와 제비뽑기 같은 굵직한 주제가 있는 안을 일찌감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감독임기 3년 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를 통하여 기독교와 불교가 최초로 만나는 행사가 모색될 것이다. 기념집회는 정동제일교회에서 하고(오전 11시), 종교간 기념행사는 파고다공원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오후 2시). 이와 함께 또 다른 기념행사는 천안시 병천의 아우내장터 행사를 통하여 마무리하게 된다(2019년 4월 1일 오후 1시).

현 감독회장 체제에서는 3년 차인 2007년 입법회의가 중요했다면, 2011년, 2015년에 이어 2019년 역시 중요한 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해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 동안 경험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자정운동의 결과로 본래의 감리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견한다.

3. 문제제기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나 이창동 감독의 “밀양” 등은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 영화들이다. 기독교인을 시대와 전혀 동떨어진 채 살아가며,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을 해대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인을 사회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1) 한국 교회의 영향력 감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 교회의 집단적 이기주의 운영행태, 물량주의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대물림, 교회 매매, 제왕적 목회 등 교회의 사유화적 행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나아가 반기독교적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주고 있다. 여기에 분열된 교회의 모습, 교회 성장의 지속적인 정체감으로 기인한 목회자들의 식어진 열정, 신앙연륜을 따라 파생되는 교회 조직체의 경직성(직분의 관료화), 아울러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비호감도 등은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될 것이다.

2) 한국 역사에서 종교적 변화의 특이성

한국의 종교역사는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샤머니즘이 기본 토양인 한국인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며 불교 중심 국가에서 유교 중심 국가로 급격하게 변하는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근대 역시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종교로 급격하게 전환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천주교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기독교인은 감소한 결과가 발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2015년에는 천주교인이 기독교인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 올 것이고, 다시 10년 후 2025년에는 오히려 천주교와 기독교의 교인 수가 역전되어 기독교는 소수인의 종교가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

한목협(대표회장 옥한흠, 2007. 6. 24)의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57.5%)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물의’ (41%)를 들고 있다. 반면에 한국 교회가 미래에 풀어가야 할 첫 번째 미래 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행(신앙과 삶) 일치’로 꼽고 있다. 2007년 초 실행된 ‘감리교 조사연구’ (이원규)에 의하면 기독교가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도덕성 상실’ 때문으로 지적하면서(40%)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봉사(45%)를 들고 있는 것은 미래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4. 미래의 사회구조적 변화

1) 도시화와 거점 중심 사회가 된다

현대인을 유목민으로 비유한 자크 아탈리(《미래의 물결》)는 앞으로 세계는 국경은 사라지지만 도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미래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지금은 뉴욕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지만 문화의 시대에는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의 거점인 로스앤젤레스가 더 중요시 될 것이고, 미래에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뭍바이 등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국 내에서도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수도권 지역은 2030년까지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방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선교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²⁾

2) 노인 중심 시대가 된다

저출산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고령화 사회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재(2005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 사회가 시작되며(716만 명), 2026년에는 20.8%(1,035만 명)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인구의 정점은 종전 추계보다 당겨지고 있다. 인구정점은 2018년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이중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25-49세층은 2007년(2,066만 명)으로 이미 정점에 와 있다고 분석한다.³⁾ 노인세대를

2) 거점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다.

3) 《2005 고령자통계》 (통계청, 2005).

배려한 목회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3) 가정 파괴와 여성 중심의 시대가 된다

최근에 개정된 호주제도 폐지는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미래에는 결혼 기피 현상뿐 아니라 이혼율의 상승으로 인한 가정파괴현상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뚜렷해질 것이다.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정보사회가 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기 때문이다. 브리젠딘은 여자의 뇌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분과 정서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21세기를 더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⁴⁾ 실제로 남자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성은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미래의 교회는 양성평등의 사조를 넘어 오히려 남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요청 받게 된다.

4) 환경문제가 가장 주요한 과제로 대두한다

2007년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 변화 완화’라는 제목의 3차 보고서를 채택하며 “앞으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25-9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20-30%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환경과 생명의 심각성은 이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요청하고 있고 환경선교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은 없다

박영선이 쓴 《UN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미래에 사라지는 나라이거나 흡어지는 나라로 분류한다.⁶⁾ 현재 출산증가율 1.16%로 세계 192개국 중 최저출산율(홍콩을 제외하고)을 보이고 있는 한

4) 루안 브리젠딘,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서울: 리더스북, 2007).

5)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3차 보고서”, 〈조선일보〉(2007. 5. 5).

6) 박영선, 《UN미래 보고서》(서울: 교보문고, 2006), 28쪽. 한국 인구는 200년 후에는 500만, 그리고 2800년에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둔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보건복지연구원에서 전국 남녀와 기혼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23.5%에 불과한데 그럴 경우 출산율은 0.5%로 떨어진다.

국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3,0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즈음 중국은 세계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이미 느슨하게 시작된 한국과의 FTA 경제 통합을 더 공고히 하여 한국을 흡수하려고 한다. 인구 14억의 중국에 흡수되는 데는 1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예상한다.⁷⁾ 인구적 변화로 인하여 성장 지향형의 교회는 새로운 목회를 요청받게 된다.

6) 통일의 가능성

점진적인 평화통일이론과 급진적 통일이론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평화통일이론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이념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루마니아와 같은 급진적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이원설). 그런 경우 이미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남한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운 북한의 지도층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박영선은 이미 북한은 중국에 예속된 나라로 단정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예상한 준비작업으로 이해한다.⁸⁾ 탁석산도 이미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다른 이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간접선교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5. 미래의 사회문화적인 변화

1) 양극화 사회가 두드러진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을 낳는다. 2007년 1분기 가계 수지 동향을 보아도 소득 5분위 배율로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보다 8.40배가 되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⁹⁾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심리적인 차이는 실질적 소득격차에 10배에 이른다(이원설). 양극화 현상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요청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되었는가에 따라 교회가 사도적이 되었는가의 시금석이라고 하였다(《교회DNA》, 31쪽).

7) 최근 인구통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2025년에 인구가 정점에 이르게 되고, 2050년 인구를 4,234만 명으로 보았다.

8) 박영선, 《UN 미래보고서》, 28쪽.

9) 2004년 7.75배, 2005년 8.22배, 2006년 8.36배, 2007년 8.40배이다(5분위 상위 20%, 〈한겨레신문〉, 2007. 5. 10).

2) 다문화사회가 된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985년 40,920명, 1990년 49,507명,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10년 증가율 177%)로 국내 총인구의 1.55%(747,467인/총인구48,294천 명)가 되었다.¹⁰⁾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 수는 12만 8,762명인데 2006년 한 해 동안만도 30,208커플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결혼한 33만 2,752커플의 10%에 해당한다.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7만 5,988명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3) 문화와 관계의 시대가 된다

정보의 시대 후에 올 문화의 시대는 소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제레미 리프킨도 《노동의 종말》에서 산업사회의 근간을 이룬 노동은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소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것이다. “내 교회”라는 소유적 개념보다는 ‘우리 교회’라는 편의적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아울러 이미 도래한 네트워크의 사회는 미래 교회의 과제가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4) 새로운 윤리의 시대가 된다

최근 환경운동가 엘 고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도 평화의 개념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첨단 과학문명 사회 속에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영토요 새로운 세상인바, 첨단기술이 세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래 사회는 새로운 윤리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2030년 즈음에는 생각하는 로봇이 등장하게 되는데 교회는 로봇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 피터 싱어(《동물해방》)의 이론은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다. 즉 다른 종이라도 기쁨과 고통에 반응하게 되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기초로 윤리를 제시한다.¹¹⁾

10) <백주년기념사업준비위보고서> (코리아나, 2007. 7. 6).

11) 이 이론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에서 얻은 논리이다. 그는 종차별을 반대하는 프린스톤의 교수이다. 그러나 고통과 기쁨에 반응할 수 없다면 사람과 동물 역시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에 안락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6. 교회가 받는 외적인 도전

1) 힘 받고 있는 반 기독교 운동

21세기 초부터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비호감도 정서는 점점 더 심각하여 이제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반 기독교적 정서가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 상에 등장한 O독교 운동, 안티 그리스도 운동은 표면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추련을 통하여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악서 바이블 어린이 금서 제정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이 공공연하게 대두되는 등 반 기독교적 행동이 힘을 받고 있다.¹²⁾

2) 종교법인법의 가능성

2002년 대선을 통하여 등장한 386세대 정치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당분간은 주춤하겠지만, 10년여를 지나는 동안 다시 세력을 구축하여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한국 2030》, 전상인). 2007-2012년에 선출되는 보수지향의 대통령은 극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불만하게 된 서민들은 다시 개혁정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신사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개혁정권은 사회개혁에 종교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됨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교회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종교 특히 교회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¹³⁾

3) 종교적 경외심의 감소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터넷 잡지 <디 엣지>(The Edge)가 과학자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앞으로 25년 안에 “종교에 대한 경외심 증발”을

12) 2007년 행정부는 이미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 7. 9). 추진되는 종교법인법에는 여성 성차별 금지, 세금 부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반기련’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교회를 개집으로, 기독교인을 개독으로 기독교를 심하게 폄하하고 있다.

13) 이미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1/4 혹은 1/3 이상 공익이사를 두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교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방염처리도 사찰은 제외하였다.

미래 세대의 특징으로 예언하였다. 즉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종교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과 편견을 낳는 사고방식들을 서서히,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허물어버릴 것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¹⁴⁾

7.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1) 로빈 길(Robin Gill) 교수의 빈교회이론

“영국 교회가 언제 쇠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20세기 초 영국 교회의 급격한 쇠퇴는 세속화가 원인이 아니라 “교회들 간의 경쟁과 과도한 교회 건축이 교회 출석 감소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¹⁵⁾ 그러면서 “교회 수 증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교인 수 증가를 이끌 수 있지만 일정기간을 지나서는 교회 수 증가가 더 이상 교인 수 증가를 이끌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⁶⁾ 즉 교회가 성장하였을 때, 잘못된 투자를 하였을 때 교회는 급격히 쇠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영국 도시에서는 교회의 좌석 수가 평균 성도 수의 3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2) 영국 교회의 빈교회이론은 한국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교회 건축은 곧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신화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은행금리로 은행 부채로 교회 확장이나 교회 건축에 열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모여드는 교인들을 위하여 좌석을 만들어주려고 건축을 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회환경을 조정하고 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좌석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교회 내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탁월한 목회지도력으로 교회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교회는 그 지도력을 바탕으로 일방적 목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대물림을 통하여 목회하는 이들에게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14) edge.org 2007. 1. 1 다니엘 데니트. 반면에 《메가트렌드2010》은 미래 사회는 영성의 시대로 더 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33쪽.

15) 김승호, 《10년 후 한국 교회》(서울: 예큐메니칼연구소, 2005), 147쪽.

16) 상동, 148쪽.

다수 목회자의 불만은 심각해진다. 반면에 점점 미자립교회 통계(40%)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됨으로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팽배해질 것이다. 교회의 지속적인 정체성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4)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 직분을 하나의 계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교회의 봉사자는 적어지고, 교회를 마치 주주들의 회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무리주의의 경향이 많은 한국 사회는 믿음으로 부름 받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의 위치로 자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다분하다.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진다.

8. 미래 교회의 가능성

1) 개신교는 변화하는 교회다

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웨슬리의 신앙운동 등 개혁을 주제로 시작하고 발전되었다. 2007년을 맞이하며 영적 각성이라는 화두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개혁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의 의지가 결국 미래에도 교회를 개혁시키고 말 것이다. 다행한 것은 <감리교 목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이원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현재 교회의 정체 이유를 “사회변화가 아닌 교회 내부에 있다”고 본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¹⁷⁾

2)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로 산다

사회가 아무리 정보사회가 되고 발달된 과학문명으로 디지털사회로 진보한다 할지라도 아날로그를 벗어날 수는 없다. 사람의 몸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터넷채팅을 한다고 해도, 실제 만나 손을 잡고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은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TV 화면에 맛있는 음식이 보여도 입으로 먹어서 느끼는 미각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17) <국민일보>, 2007. 5. 10.

몸으로 느낄 때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아날로그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 미래 목회의 가능성이¹⁸⁾

3) 느낌의 영성 시대가 도래한다

많은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지친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를 절제하는 문화를 요청하게 된다. 현대의 느낌의 문화가 이것을 반증한다. 스스로 문화를 절제하는 시대, 느낌의 문화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나이스비트와 메가트렌드를 공저한 애버딘(《메가트렌드2010》)도 영성의 미래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친다.¹⁹⁾

4) 투명한 사회가 된다

첨단문명의 발전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 투명한 사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가장 큰 담보이다. 교회가 지탄받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재정적인 투명성이다. 미래의 교회는 재정뿐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야 한다. 정직할 수밖에 없는 투명한 사회가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5) 디지털 사회는 건강한 선거를 만든다

감리교회의 문제는 지도력의 문제이고, 지도력의 문제는 선거방법의 문제다. 건강한 선거가 이루어질 때 감독의 청렴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터넷 투표 혹은 전자투표가 보편화되거나 이동전화 등을 통한 투표를 가능한 시대가 되면 선거에 선거인단의 참여 폭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선거문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천주교의 “콘클라베”처럼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는 선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디지털 사회는 감독선거제도에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감리교회는 긍정적 요소가 많다

감리교회의 최대 장점은 연관적인 교회 시스템(connectional system)이다.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

18) 이를 이어령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사고로 취해야 한다며 미래를 디지로그 시대라 표현한다.

19) 패트리셔 애버딘, 《메가트렌드 2010》, 윤여중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37-38쪽.

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음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을 포괄하는 웨슬리 성화 신학과, 훌륭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음도 중요한 강점이다. 나아가 지방자치 행정시대에 감리교회는 구조적으로 지방자치 행정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더욱이 153만 성도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최근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으로 바뀌면서 기독교연합운동에 감리교회의 지도력이 향상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9. 미래 교회의 과제

1) 갱신운동을 지속한다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하듯이 교회갱신운동도 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스스로 갱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NGO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개혁의 공신력을 얻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²⁰⁾ 마침 기윤실이 교회갱신운동을 적극 이끌고 있는 바 그들과 협력하여 교회갱신의 기준을 만들고 함께 연대하여 교회갱신운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2)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을 강조한다

미래 사회는 관계의 사회라 하였다.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예수님 가르침의 실천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하워드 슈나이더는 교회가 사회적 매력을 상실한 이유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빈자, 노인, 이주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영성의 변화를 통해 접근해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섬김의 영성’의 실천이 그 가능성이다.

3)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인구는 줄어들이지만 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의 인구는 2029년까지 계속 늘어난 뒤에 줄어든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비중은 2011년 50.2%이지만 2029년에는 53.8%가 된다. 사회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함으로 교회도 도시의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

20) 최근 건강한 미래 교회의 기준을 발표하였다; 비전과 리더십(목회자), 교회조직(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재산의 투명한 관리), 사회적 책임(지역봉사와 교회시설 개방), 성도의 삶(예배와 전도에 충실한 성도의 생활)

치 행정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단위별로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제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단순히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자,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보사회를 지나 문화사회가 될 때 여성들의 역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 이전에 비해서는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성평등은 요원하다.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섰던 것이 감리교회의 전통인 바 양성평등을 능동적으로 교회의 문화로 받아 그들을 통해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여성들의 지도력 훈련에 힘쓰며,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지도력을 시민 사회지도력이 되도록 사람을 훈련하고 기구를 구성하고 활동을 배려해야 한다.

5) 공교회 연합운동을 준비한다

교회의 사유화 극복하려는 갱신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정체현상은 연합과 일치에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개체 교회 교인들의 고양된 시민의식은 UMC의 PPR위원회(Pastor & Parish Relations on Committee)와 같은 교회목회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시스템을 불가피하게 한다. 교회 갱신운동은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료화되어 가는 교회 평신도 지도력도 함께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조정하는 방법이 빈곤한데, 감리교 본래의 전통인 감독제도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 목회자 청렴성 유지를 돕는다

건강한 교회의 이미지는 목회자들의 청렴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목회자의 청렴성은 바른 신학을 학습하게 하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지켜낼 수 있다. 목회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자녀교육,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청렴성을 지킬 수 있을 때 교회의 사유화도 극복할 수 있다.

7) 목회자의 영성을 다양화시킨다

2007년에 조사에 의하면 감리교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 정체성의 이유 첫 번째로 교회의 도덕성 상실을 꼽은 반면(40%) 한국 교회의 극복과제를 물을 때는 목회자의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30.1%).

목회자의 자질향상이라 함은 신학교육의 향상 혹은 M.Div. 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훈련하는 다양한 영성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영성은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천주교의 수도회가 그 모델이다.

8) 제사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신앙의 본질과 문화를 구별해야 한다. 즉 본질은 바꿀 수 없어도 문화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제사문제로 순교자 1만 명을 배출한 한국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상제례의 토착화에 성공한 후 선교현장에 상당한 전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음식 차리거나 향 피우기를 다시 복원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추모의 예로서 절하는 예식을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율법적 금계단계에서 한국 기독교인을 해방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KNCC, 문화영성위원회 주최 “기독교문화와 에큐메니칼 영성” 토론회에서, 2007. 5. 31).

9) 타 종교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타 종교와의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타 종교와의 대화가 종교의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는 3대 종교세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은바 사회의 구성원으로 종교 안에서의 연대는 불가피하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이미 교리는 다르더라도 삶을 통한 일치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복음적 삶을 도구로 하는 연대이다.

10) 중국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²¹⁾

선교의 방향은 네 가지다. 공산권 선교, 이슬람권 선교, 미개발국 선교, 북한 선교이다. 그 가운데 중국 선교를 위한 협력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율(10%)을 지속하면 2030년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지구촌 시대의

21)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 《21세기 교회의 전망》(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그는 《21세기 교회의 전망》에서 나이스빗의 메가트렌드를 인정하면서 미래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지역 교회에서 세계 교회로 2) 부분적인 성장에서 전반적인 부흥으로 3)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4) 제도적 전통으로부터 하나님나라 신학으로 5)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사역자의 공동체로 6) 남성지도자 제도에서 남녀 동반자 제도로 7) 세속화로부터 종교적 상대주의로 8) 핵가족에서 가족의 다양화로 9) 국교 분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행동주의로 10) 위태로운 국가들에서 위태로운 지구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중국과는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008 하계 올림픽으로 중국은 더욱 개방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후진타오 보고서를 통해 공산당원에게도 종교를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²²⁾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통일의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간접선교를 위한 컨소시움을 통해 교류적 연대가 되도록 교회가 협력해야 한다.

10. 나가는 말

교회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최근 천주교 통계에 의하면 미사 참석률이 1995년에는 35%였으나 2005년에는 26.9%라고 보고하고, 2020년에는 21.2%가 될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2007년 11월 27일). 개신교회도 예배 출석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상을 이룩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열정의 쇠퇴를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과제이다.

‘섬김의 영성’은 미래의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핵심가치이다.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삶에는 섬김과 나눔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의 과제는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 교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섬김의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 패러다임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울러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목회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훈련하는 체계를 만들어 섬김의 영성 목회를 확산하는 일은 감리교회가 새로운 이미지로 사회 속에 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이다.

22) “종교가 후진타오 총서기가 구현하려는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2007. 7. 6).

제5분과

위원장 : 황대성 서기 : 조경열

위 원 : 유영완 강천희 김광덕 박영천 안현아 임영택 천무엽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자: 이 원 규 교수 (감신대)

장단기발전위원회

차 례

1. 서론	218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18
2) 연구절차와 방법	219
2. 조사연구 결과	221
1) 목회자의 인적사항	221
(1) 목회자의 성	221
(2) 목회자의 나이	222
(3) 목회자의 연급	222
(4) 목회자의 학력	223
(5) 목회자의 출신 학교	224
(6) 목회자의 출신 (신학)대학원	224
(7) 목회자의 소속 연회	225
(8) 목회자의 목회 경력	227
(9) 목회자의 사역교회 수	228
(10) 현 목회지에서의 시무 연한	229
(11) 목회자의 사례비	230
(12) 요약	232
2) 감리교의 교회 현실	233
(1) 교회와 지역	233
(2) 교회의 설립 연한	236
(3) 교회의 규모	237
(4) 유초등부 학생 규모	241
(5) 중고등부 학생 규모	242
(6) 청년부(대학부) 학생 규모	244
(7) 새 등록교인 규모	245
(8) 교회의 성쇠	247
(9) 교인 증가 요인	249
(10) 교인 감소 요인	250
(11) 교회 예산	252

(12) 재정적인 지원 여부	255
(13) 재정적 지원 형식	256
(14) 재정적 지원 수준	256
(15) 타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257
(16) 외부 지원 교회 수	258
(17) 국외 교회(선교사) 지원	259
(18) 사회복지기관 지원	259
(19) 요약	260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	262
(1) 목회자의 목회 패러다임	262
(2) 목회의 역점사항	263
(3) 교회의 당면문제	264
(4) 교인에 대한 평가 척도	265
(5) 교인에 대한 신앙훈련	266
(6) 일주일의 시간 활용	267
(7) 설교의 주제	267
(8)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	268
(9)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가	273
(10) 연장교육 프로그램 불참 이유	274
(11) 참가 희망 세미나	275
(12) 정기간행물 독서	276
(13) 신앙(신학)서적 독서	278
(14) 목회의 만족도	281
(15) 목회 불만 이유	283
(16) 목회지에 대한 생각	284
(17) 목회자로서의 삶의 만족도	287
(18) 요약	288
4) 목회자의 교회의식	290
(1) 개신교 정체 이유	290
(2) 한국 교회 문제의 극복 과제	292
(3) 개신교에 대한 낮은 호감도 이유	292
(4) 공신력 회복을 위한 과제	293
(5) 한국 교회의 취약한 역할	294
(6) 주5일 근무제와 교회의 과제	295

(7) 한국 교회 변화 요구사항	296
(8) 중요한 사회문제	296
(9)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297
(10) 타 종교에 대한 태도	298
(11) 초파일 축하 방송에 대한 태도	300
(12) 교회연합사업(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태도	300
(13)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대한 태도	301
(14) 요약	302
5) 감리교 정체성	303
(1) 감리교 목회자 자부심	303
(2) 감리교의 장점	305
(3) 감리교 영성의 특징	306
(4) 감리교 목회자의 요구사항	307
(5) 한국 감리교단의 문제	308
(6)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	309
(7) 영성 개발(훈련) 프로그램	311
(8) 요약	311
6) 감리교 구조와 제도	312
(1) 감리교단의 당면과제	312
(2) 감리교의 분업구조 문제	313
(3) 전현직 감독에 대한 호칭	313
(4)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	314
(5) 감독제도의 개선 방안	315
(6) 현행 감독선거제도 만족도	316
(7)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불만 이유	316
(8)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	317
(9) 지방의 통폐합 문제	318
(10) 대 사회 업무 부서에 대한 의견	319
(11)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 방안	319
(12)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	320
(13)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	321
(14) 신학대학원 통폐합 방식	321
(15) 미자립교회 문제	322
(16)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 과제	324

(17) 은급제도에 대한 대안	325
(18) 요약	325
3. 결론: 요약과 평가 및 제언	327
1) 조사연구 결과의 요약	327
(1) 감리교 목회자의 인적사항	327
(2) 감리교의 교회 현실	328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	330
(4) 목회자의 교회의식	331
(5) 감리교 정체성	332
(6) 감리교 구조와 제도	333
2) 평가와 제언	334
(1) 목회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334
(2) 감리교회 현실에 관한 사항	335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에 관한 사항	336
(4) 목회자의 교회의식에 관한 사항	337
(5) 감리교 정체성에 관한 사항	337
(6) 감리교 구조와 제도에 관한 사항	339
부록: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 조사 설문지	341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신교인 수는 14만 명 이상 감소하여 그 감소 비율이 1.6%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눈부시게 성장해 왔던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이제는 멈추어 버렸고, 오히려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 교인 수의 양적인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도 요즈음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교회 활동에의 참여도 예전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회학교는 침체되고 속회나 선교회 같은 조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목회자가 염려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역풍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외적인 문제는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 오는 동안 반대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상은 점점 나빠져 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왔음이 여러 통계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궤협의 조사 결과, 개신교는 종교 선호도 혹은 호감도에서 지난 20년간 항상 최하위였고, 비 종교인이 보는 개신교의 인상은 가장 부정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여러 반 사회적 태도를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으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교회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만연, 세속주의의 확산, 여가산업의 발달이 모두 종교 성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앞서간 선진국들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와는 달리 한국 천주교는 지난 10년간 신도 수가 220만 명이나 늘어 무려 74%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결국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는 낙오되는 반면에 갱신되는 종교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성장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양적 쇠퇴가 질적인 저하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의 변동 상황, 새 시대 사람들의 새롭게 변화된 의식구조와 가치관 및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대안 없이는 지금까지의 교회 모델, 목회 방식이 더 이상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나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변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하려면 먼저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사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 교단으로 감리교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교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교회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목회자들의 실상과 문제의식은 어떤지 알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연구는 감리교에서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의 교단적 분석이다. 여기서 감리교 교회들의 규모, 예산, 지역, 활동 등의 실태를 밝혀내고,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에 대한, 그리고 교단 및 그 정책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감리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조사결과가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탐구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감리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2) 연구절차와 방법

이 조사연구는 감리교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장단기발전 계획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감리교는 장단기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감리교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업의 하나로 감리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 과제를 본 연구자에게 위촉하였다.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연구(survey study)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지 문항의 작성과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본 연구자가 했으며, 설문지 발송과 회수의 업무는 교단 본부에서 담당했다. 2006년 10월에 최종 작성된 설문지는 2006년 11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발송과 회수가 이뤄졌다. 2006년 현재 감리교 교역자 수는 모두 8,036명(미주선교연회 제외)이었지만, 본 조사는 은퇴 교역자, 기관 파송 교역자, 부담임 교역자, 서리 담임자, 미주선교연회 교역자를 제외한 교회 담임자 5,378명을 대상으로 하되 표본 조사를 했다. 표집방법은 다단계화 체계적 표집

방법(Multi 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Method)을 사용했다.

교회 담임자 가운데 약 1/5에 해당되는 1,049명을 실제 담임자의 연회별 숫자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성별, 연급, 지방 등을 고려하여 표본 숫자를 산출한 후 연회주소록을 이용하여 체계적 표집을 했다.

연회별 설문지 회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회별 설문지 회송 현황

연회	발송 수(%)	회송 수(%)	회수율(%)
서 울	96 (9.2)	56 (10.2)	58.3
서울남	92 (8.8)	52 (9.5)	56.5
중 부	156 (14.9)	74 (13.5)	47.4
경 기	120 (11.4)	62 (11.3)	51.7
중 앙	94 (9.0)	48 (8.8)	51.1
동 부	112 (10.7)	62 (11.3)	55.4
충 북	66 (6.3)	41 (7.5)	62.1
남 부	92 (8.8)	24 (4.4)	26.1
충 청	110 (10.5)	60 (11.0)	54.5
삼 남*	105 (10.0)	62 (11.3)	59.0
미확인	6 (0.6)	6 (1.1)	—
	1,049	547	52.1

* 이하 호남선교연회 포함

연회별 설문지 발송 비율은 연회별 교회 수 및 목회자 수(정회원, 준회원 담임 및 부담임 포함)를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비율과 설문지 회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부연회의 경우(발송 비율 8.8%, 회송 비율 4.4%)를 제외하면 편차는 별로 크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남부연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표집 의도대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49명에게 설문지가 보내지고 54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52.1%를 보였다. 연회별로는 대체로 50~60% 사이에서 비슷한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지의 문항은 모두 9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목회자의 인적사항과 관계된 문항은 11개, 조사대상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관계된 문항이 18개, 그들 교회의 목회 현실과

관계된 문항이 28개, 목회자의 교회의회식에 관한 문항이 13개, 감리교 정체성에 관한 문항이 7개, 감리교 구조와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 18개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coding)과 편집(edit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문항별 속성들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교차분석(cross analysis)을 했다. 교차분석은 몇 가지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생태학적 변수들을 독립 혹은 종속 변수로 하여 이루어졌다. 무응답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속성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mean)과 중간값(median)을 산출했다. 평균이나 중간값과 같은 것을 중심집중치(central tendency)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변수의 ‘전형적인’ 값을 표현하는 통계 방법이다. 평균이란 값의 총합을 전체 사례수로 나눈 것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중심집중치 측정 방법이다. 그러나 평균값이 현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레드먼드 시 주민의 평균 재산은 2백만 달러가 넘는다. 주민 모두가 백만장자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하나인 빌 게이츠의 재산이 6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그렇게 재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값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현상을 잘 설명하게 된다. 중간값이란 관찰된 속성들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 위치에 있는 속성값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혹은 ‘보통의’ 값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보다는 주로 중간값을 근거로 관찰된 속성의 전형적 특성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는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뉘어 분석될 것이며, 매 주제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이 요약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조사결과 전체를 요약하고 평가한 후 여러 가지 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

2. 조사연구 결과

1) 목회자의 인적사항

먼저 감리교 목회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목회자의 성

〈표 1-1-1〉은 감리교 목회자(정확하게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준회원 이상의 감리교 목회자”이지만 이제부터는 ‘목회자’로 칭하기로 한다)의 성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1-1〉 목회자의 성

(단위: %)

남	여	계
97.8	2.2	100.0(N=544)

〈표 1-1-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남성이 97.8%이며, 여성이 2.2%이다. 여성의 비율이 실제 감리교의 전체 여교역자 비율 3.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교역자가 교회를 담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여성 목회자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성은 교차분석의 변수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2) 목회자의 나이

〈표 1-2-1〉은 목회자의 나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1〉 목회자의 나이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0.7	20.4	35.4	25.6	17.9	100.0(N=543)

〈표 1-2-1〉에서 알 수 있듯이 감리교 목회자를 나이별로 보면 40대가 35.4%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25.6%), 30대(20.4%), 60대(17.9%), 20대(0.7%) 순이다. 담임목회자의 평균 나이는 48.4세이다. 평균 나이가 이렇게 높은 것은 목회자의 정년은 70세인데다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 까지 졸업한 후 교회 담임을 맡게 되는 것은 대체로 30세가 넘어서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대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교차분석에서 나이의 변수를 적용할 때는 20대를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3) 목회자의 연급

〈표 1-3-1〉은 목회자의 연급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1〉 목회자의 연급

(단위: %)

정회원 21년급 이상	정회원 11-20년급	정회원 1-10년급	준회원	계
19.1	37.5	35.3	8.1	100.0(N=544)

〈표 1-3-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의 연급은 ‘정회원 11-20년급’과 ‘정회원 1-10년급’이 각각 37.5%와 35.3%로 높고, ‘정회원 21년급 이상’이 19.1%, ‘준회원’이 8.1%이다. 이렇게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는 연급이 11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56.6%). 목회자 연급의 중간값은 정회원 12년급이다.

(4) 목회자의 학력

〈표 1-4-1〉에는 목회자의 학력이 제시되고 있다.

〈표 1-4-1〉 목회자의 학력

(단위: %)

신학대학 졸업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일반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일반대학, 신학대학 졸업	정규 신대졸업 못함	기 타	계
8.9	77.2	11.1	1.5	0.9	0.4	100.0(N=543)

〈표 1-4-1〉에서 알 수 있듯이 감리교 목회자는 학력에서 절대 다수(77.2%)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Th. M.)했다. 다음은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경우(M. Div.)로 11.1%이다. M. Div. 과정이 주로 1980년대 이후에 생겨났고, 이 과정의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목회자가 되려면 무조건 M. Div.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타 교단 신학대학들의 경우 M. Div. 과정의 비율이 Th. M. 과정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리교 계통 신학대학들에서도 M. Div. 과정의 비율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학력이 신학대학인 경우(8.9%)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60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과 신학대학을 졸업한 경우(1.5%)는 신학대학

으로 학사 편입하여 졸업한 것을 의미하지만, 학사 편입했던 이들 가운데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0.9%였다.

(5) 목회자의 출신 학교

〈표 1-5-1〉은 감리교 목회자의 출신 학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1〉 목회자의 출신 학교

(단위: %)

감신대 신학과	목원대 신학과*	협성대 신학과	타 교단 신학대학**	일반대 신학과	신학대 일반학과	일반대학	기 타	계
31.5	22.5	26.9	8.3	0.7	1.8	7.7	0.6	100.0(N=543)

* 대전감리교신학대학 포함 ** 초교과 신학대학 포함

〈표 1-5-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는 감신대 신학과 출신이 3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협성대 신학과(26.9%), 목원대 신학과(대전 감신 포함, 22.5%) 순이다. 타 교단 혹은 초교과 신학대학 출신은 8.3%이며 신학대 일반학과(주로 감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혹은 종교철학과) 출신이 1.8%, 일반대 신학과(주로 연세대 신학과) 출신이 0.7%이다. 학부에서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7.7%다.

(6) 목회자의 출신 (신학)대학원

〈표 1-6-1〉에는 목회자의 출신 (신학)대학원에 대하여 나와 있다.

〈표 1-6-1〉 목회자의 출신 (신학)대학원

(단위: %)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연세대*	타 신학대	기 타	계
48.4	14.8	21.9	4.5	6.3	4.3	100.2(N=494)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표 1-6-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의 거의 절반(48.4%)이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목원대 신학과, 협성대 신학과, 타 교단 신학대학 출신 가운데 일부

가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협성대 (신학)대학원 출신이 21.9%, 목원대 (신학)대학원 출신이 14.8%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타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출신이 6.3%,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출신이 4.5%이다.

(7) 목회자의 소속 연회

① 목회자 소속 연회의 분포

〈표 1-7-1〉은 조사대상 감리교 목회자의 소속 연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1〉 목회자의 소속 연회*

(단위: %)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계
10.4	9.6	13.7	11.5	8.9	11.5	7.6	4.4	11.0	11.5	100.1(N=541)

* 여기서의 각 연회별 비율은 미확인 응답 6건을 제외한 541명의 응답자에 대한 비율이다.

〈표 1-7-1〉 나타난 대로 조사대상 목회자의 소속 연회를 보면 중부연회가 13.7%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기연회, 동부연회, 삼남연회가 각각 11.5%이며, 그 다음은 충청연회(11.0%), 서울연회(10.4%), 서울남연회(9.6%), 중앙연회(8.9%), 충북연회(7.6%), 남부연회(4.4%)순이다. 이 비율들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남부연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제적인 연회별 교회 수와 목회자 수(정회원, 준회원 담임 및 부담임)를 감안한 표집 비율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연회는 주요 변수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② 목회자의 소속 연회와 나이, 연금의 관계

〈표 1-7-2〉는 감리교 목회자의 소속 연회와 나이, 연금의 관계를 평균 및 중간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7-2〉 목회자의 소속 연회별 나이와 연금

(단위: 세, 정회원)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나이(평균)	52.2	51.0	49.2	49.3	48.5	45.7	45.5	47.7	48.2	45.6	48.4
연금(중간값)	17	14	14	13	11	9	10	9	12	9	12

〈표 1-7-2〉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의 평균 나이는 연회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의 경우 목회자의 평균 나이가 각각 52.2세, 51.0세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기연회(49.3세), 중부연회(49.2세), 중앙연회(48.5세), 충청연회(48.2세), 남부연회(47.7세) 순이다. 그리고 동부연회(45.7세), 삼남연회(45.6세), 충북연회(45.5세) 소속 목회자들의 평균 나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나이 차이는 연회별 중간값 연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감리교 목회자의 연회별 연급을 보면 그 중간값이 서울연회가 정회원 17년급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남연회와 중부연회가 각각 정회원 14년급, 경기연회가 정회원 13년급이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연회(정 12년급), 중앙연회(정 11년급), 충북연회(정 10년급), 동부연회, 남부연회, 그리고 삼남연회(각 정9년급) 순이다. 이 결과는 목회자 연급 중간값이 높은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는 대형 교회가 많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급이 높은 목회자가 많은 반면에, 동부연회, 남부연회, 삼남연회의 경우는 대형 교회가 적고 수도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급이 낮은 목회자가 많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연급이 높아질수록 수도권으로 목회지를 옮기든지 혹은 수도권 교회일수록 연급이 높은 목회자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목회자의 소속 연회와 출신 학교

〈표 1-7-3〉은 감리교 목회자의 소속 연회와 출신 신학대학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3〉 목회자의 소속 연회와 출신 신학대학

(단위: %)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계
감신대	56.1	45.6	40.3	20.6	30.0	36.7	20.0	8.7	14.8	24.1	31.7
목원대	17.5	19.3	18.2	12.7	12.0	25.0	28.9	47.8	31.5	27.8	22.2
협성대	12.3	12.3	20.8	42.9	38.0	26.7	42.2	8.7	33.3	25.9	26.9

〈표 1-7-3〉에 따르면 서울연회의 경우 목회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감신대 출신이며(56.1%), 다음은 목원대(17.5%), 협성대(12.3%) 순이다. 서울남연회의 경우도 감신대 출신 목회자가 가장 많고(45.6%), 다음은 목원대(19.3%), 협성대(12.3%) 순이다. 중부연회 역시 목회자 가운데 감신대 출신이 가장 많고(40.3%), 다음으로는 협성대(20.8%)와 목원대(18.2%)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연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협성대 출신이 월등히 많고(42.9%), 다음은 감신대

(20.6%), 목원대(12.7%) 순이다. 중앙연회 역시 협성대 출신 목회자 비율이 가장 높고(38.0%), 다음은 감신대(30.0%), 목원대(12.0%) 순이다.

동부연회의 경우는 감신대 출신 목회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36.7%), 다음은 협성대(26.7%)와 목원대(25.0%)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연회의 경우에는 협성대 출신 목회자가 가장 많고(42.2%), 다음은 목원대(28.9%), 감신대(20.0%) 순이다. 남부연회의 경우에는 목원대 출신 목회자가 압도적으로 많고(47.8%), 감신대와 협성대는 똑같이 8.7%로 그 비율이 낮다. 충청연회 목회자 가운데는 협성대(33.5%)와 목원대(31.5%) 출신 비슷하게 높고 감신대 출신은 그 비율이 낮다(14.8%). 삼남연회에는 세 신학대학 출신 비율이 별 차이는 없으나 순위는 목원대(27.8%), 협성대(25.9%), 감신대(24.1%) 순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감신대 출신 목회자는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 등 4개 연회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목원대 출신 목회자는 남부연회와 삼남연회 등 2개 연회에서, 협성대 출신 목회자는 경기연회, 중앙연회, 충북연회, 충청연회 등 4개 연회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연회별 출신 신학대학 분포의 불균형은 실제로 연회 감독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학연으로 인한 파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밝혀질 것이다.

(8) 목회자의 목회 경력

① 목회자의 목회 경력 분포

〈표 1-8-1〉은 감리교 목회자의 목회 경력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8-1〉 목회자의 목회 경력

(단위: %)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계
9.2	16.8	29.8	28.3	15.9	100.0(N=541)

〈표 1-8-1〉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회자의 목회 경력을 보면 ‘10-19년’ (29.8%)과 ‘20-29년’ (28.3%)이 특별히 많았고, 다음은 ‘5-9년’ (16.8%)과 ‘30년 이상’ (15.9%)이었다. ‘4년 이하’는 9.2%로 그 비율이 낮다. 이와 같이 목회 경력이 20년이 넘는 목회자는 모두 44.1%이며, ‘10년 미만’의 경우는 26.0%이다. 감리교 목회자들의 목회 경력 중간값은 17년이다. 즉 전형적인 감리교 목회자는 약 17년간 목회를 한 것이다.

② 목회자의 목회 경력과 연회

〈표 1-8-2〉에는 연회별 목회자의 목회 경력이 비교되고 있다.

〈표 1-8-2〉 연회별 목회자의 목회 경력

(단위: 년)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목회 경력(중간값)	23	23	18	18	15	14	15	13	17	14	17

〈표 1-8-2〉에 나타난 대로 연회별 목회자의 목회 연한을 중간값으로 산출해보면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23년)의 경우 가장 길고, 다음은 경기연회와 중부연회(18년), 충청연회(17년)로 중간 수준이며, 중앙연회와 충북연회(각 15년), 동부연회와 삼남연회(14년), 남부연회(13년)의 경우 그 연한이 짧다. 이와 같이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의 목회자는 높은 연급의 담임자가, 삼남연회와 남부연회의 목회자는 낮은 연급의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앞에서 보았던 〈표 1-7-2〉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경력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수도권에서, 그것이 적은 목회자일수록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9) 목회자의 사역교회 수

〈표 1-9-1〉은 “지금까지 담임 혹은 부담임으로 몇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라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9-1〉 목회자의 사역교회 수

(단위: %)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 이상	계
27.4	17.2	20.4	18.0	17.0	100.0(N=540)

〈표 1-9-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수는 ‘한 교회’라는 경우가 27.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세 교회’ (20.4%), ‘네 교회’ (18.0%), ‘두 교회’ (17.2%) 순이다. ‘다섯 교회 이상’에서 사역을 했다는 응답도 17.0%에 이르고 있다. ‘한 교회’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대체로 목회 경력이 짧거나 혹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

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목회자 사역교회 수에서의 중간값은 2.7교회이다. 즉 전형적인 감리교 목회자는 두 번 이상 교회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현 목회지에서의 시무 연한

① 현재 교회 시무 연한

〈표 1-10-1〉에는 감리교 목회자가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몇 년째 시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표 1-9-1〉 현재 교회 시무 연한

(단위: %)

2년 이하	3-5년	6-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계
15.8	26.5	22.3	13.8	10.7	10.9	100.0(N=543)

〈표 1-10-1〉에 있는 것처럼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는 현재 교회에서 ‘3-5년’ 동안 시무하고 있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고, 다음은 ‘6-9년’ (22.3%), ‘2년 이하’ (15.8%), ‘10-14년’ (13.8%), ‘20년 이상’ (10.9%), ‘15-19년’ (10.7%)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현재 교회 시무 연한 중간값은 7년이다. 현재 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는 모두 35.4%이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현재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는 모두 42.3%나 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가 개척을 했든 아니든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경우라 할 수 있다.

② 현재 교회 시무 연한과 연회

〈표 1-10-2〉에는 연회별로 목회자의 현재 교회 시무 연한이 제시되고 있다.

〈표 1-10-2〉 현재 교회 시무 연한과 연회

(단위: 년)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시무연한(중간값)	8	9	7	8	5	5	6	5	7	7	7

〈표 1-10-2〉에서 보이듯이 연회별로 목회자의 현재 교회 시무 연한은 차이가 있다. 즉 그 연회가 중간값에서 서울남연회(9년), 서울연회와 경기연회(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고, 충청연회,

중부연회, 삼남연회(각 7년), 충북연회(6년)의 경우는 중간 수준이며, 남부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각 5년)의 경우 그 기간이 약간 짧다. 이 결과는 남부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에서는 그만큼 담임 목회자의 이동이 잦다는 것을, 반대로 서울남연회와 서울연회는 담임자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11) 목회자의 사례비

①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

〈표 1-11-1〉은 감리교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본봉, 목회비, 자녀교육비, 도서비 등 모두 포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1-1〉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

(단위: 만원, %)

50미만	50-99	100-149	150-199	200-299	300-399	400-499	500이상	계
19.5	12.3	12.1	9.6	19.7	11.9	8.5	6.4	100.0(N=544)

〈표 1-11-1〉의 결과는 매우 심각한 감리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월평균 사례비가 ‘50만 원 미만’인 목회자가 19.5%나 되고 있으며, 그것이 ‘50-99만 원’인 경우도 12.3%로서 무려 31.8%의 감리교 목회자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월 사례비가 ‘100-149만 원’인 목회자는 12.1%이다. 따라서 감리교 목회자의 43.9%가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비율은 감리교 미자립교회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열악한 목회자 경제 상황은 아마도 다른 개신교 교단들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단들에 있어 미자립교회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목회자 월 사례비가 ‘150-199만 원’인 경우는 9.6%, ‘200-299만 원’이 19.7%, ‘300-399만 원’이 11.9%이며, 그것이 ‘400-499만 원’인 경우도 8.5%,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4%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을 중산층으로 본다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중산층 이상은 26.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성직이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생계를 염려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교 목회자 월 사례비의 중간값은 181만 원이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력 중간값인 17년을 목회한 목회자의 사례비 수준이 대졸자 초임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 처우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개선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② 목회자 사례비와 연회

〈표 1-11-2〉에는 연회별 목회자의 사례비 중간값이 나와 있다.

〈표 1-11-2〉 목회자 사례비와 연회

(단위: 만원)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사례비(중간값)	250	255	253	175	160	135	135	138	175	118	181

〈표 1-11-2〉에 나타난 대로 중간값에 있어 목회자 사례비가 서울연회(250만 원), 서울남연회(255만 원), 중부연회(253만 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그것이 삼남연회의 경우 118만 원에 불과하다. 목회자 사례비(중간값)는 동부연회와 충북연회(각 135만 원), 그리고 남부연회(138만 원)도 매우 적다. 경기연회와 충청연회(각 175만 원), 그리고 중앙연회(160만 원)는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목회자 사례비는 연회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그러나 목회자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의 경우에도 교회들 간에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면 목회자 월 사례비가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서울연회가 26.3%, 서울남연회가 22.8%, 중부연회가 26.0%나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월 사례비가 ‘100만 원 미만’인 목회자 비율이 삼남연회(43.6%), 남부연회(43.4%), 충북연회(42.2%)의 경우 매우 높다.

③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경력

목회자 사례비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목회 경력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목회 경력이 많을수록 사례비 수준이 높아진다. 〈표 1-11-3〉이 이것을 보여준다.

〈표 1-11-3〉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경력

(단위: 만원)

목회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전체
사례비(중간값)	40	60	164	287	324	181

〈표 1-11-3〉에 따르면 목회 경력이 '4년 이하'인 목회자 사례비의 중간값은 4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척교회 목회자이겠지만, 어쨌든 이 수준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닐까 한다. '5-9년' 목회 경력 목회자의 사례비 역시 60만 원으로 매우 낮다. '10-19년'의 목회 경력자 사례비는 164만 원으로 늘어나고, '20-29년'의 목회 경험을 가진 목회자 사례비는 다시 287만 원으로 많아진다. '30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목회자 사례비의 중간값은 324만 원이다.

(12) 요약

감리교 목회자의 인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준회원 이상 담임자로서의 목회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2.2%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97.8%)이 남성이다. 목회자의 나이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나이는 48.4세이다. 목회자의 연급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 정회원 11년급 이상이며, 전체 목회자의 중간값 연급은 정회원 12년이다. 목회자의 학력은 다수가 신학대학과(신학)대학원 졸업(77.2%)이며, 다음은 M. Div. 과정(일반대학, 신학대학원)을 거친 경우(11.1%)이다. 앞으로는 M. Div. 출신 목회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의 출신 학교를 보면 감신대 신학과(31.5%), 협성대 신학과(26.9%), 목원대 신학과(22.5%) 순이다. 목회자의 출신(신학)대학원은 감신대로 편중되고 있고(48.4%), 다음은 협성대(21.9%), 목원대(14.8%) 순이다. 연회별로 출신 학교(학부)를 비교해 보면 감신대 출신이 가장 많은 연회는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 등 4개 연회이고, 협성대 출신이 가장 많은 연회도 경기연회, 중앙연회, 충북연회, 충청연회 등 4개 연회이며, 목원대 출신이 가장 많은 연회는 남부연회와 삼남연회 등 2개 연회이다. 이와 같이 감신대 출신 목회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협성대 출신 목회자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목원대 출신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학연에 따른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연회별로 목회자의 평균 나이를 비교해 보면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의 경우 50대 초반,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의 경우 40대 후반, 그리고 동부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의 경우 40대 중반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연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목회자의 연급 중간값은 정회원 12년급이지만, 연회별로 차이가 있다. 연급 중간값이 서울연회는 높고 서울남연회와 중부연회도 약간 높은 편이다. 경기연회, 충청연회, 중앙연회는 중간 수준이며, 그 연급이 충북연회, 동부연회, 남부연회, 삼남연회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결과는 수도권 목회자일수록 연급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수도권일수록 연급이 높은 목회자를 요구하는 큰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감리교 목회자의 목회 경력의 중간값은 17년이다. 목회 경력은 연회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중간값으로 보면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의 경우 그 경력 기간이 길고,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의 경우는 중간 수준이며, 나머지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삼남연회의 경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목회자의 사역교회 수의 중간값은 2.7교회이다. 감리교 목회자는 지금까지 보통 세 교회 정도에서 사역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목회지에서의 시무 연한은 그 중간값이 7년이다. 감리교 목회자는 보통 7년째 현재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는 말이다. 목회자의 시무 연한은 연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의 경우는 목회자의 시무 연한이 상대적으로 길고,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삼남연회는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감리교 목회자의 사례비는 매우 적어 그 중간값은 181만 원에 불과하고, ‘100만 원 미만’이 31.8%나 되고 있다. 반면에 목회자 사례비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6.8%에 머물고 있다. 목회자 사례비는 연회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는 목회자 사례비 중간값이 250만 원이 넘고 있으나 삼남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의 경우는 그것이 140만 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 경력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목회 경력이 ‘4년 이하’인 경우는 사례비 중간값이 겨우 40만 원이지만, 경력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간값이 324만 원이나 된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의 하나가 목회자 영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력에 따른 사례비 차이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감리교의 교회 현실

이번에는 감리교 교회들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와 지역

① 교회의 지역별 위치

〈표 2-1-1〉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1-1〉 교회의 지역별 위치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32.1	34.9	33.0	100.0(N=536)

〈표 2-1-1〉에서 알 수 있듯이 감리교 교회들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32.1%), 중소도시(광역시 이외의 시)(34.9%), 농어촌(군, 면)(33.0%) 등에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여러 변수들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알아본다.

② 지역과 인적사항

〈표 2-1-2〉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목회자의 나이, 연급, 목회 경력, 시무 연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2〉 지역과 인적사항

(단위: 세, 연급, 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나이(평균)	51.2	48.9	46.1	48.4
연급(중간값)	15	12	8	12
목회 경력(중간값)	22	17	14	17
시무연한(중간값)	8	7	6	7

〈표 2-1-2〉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의 나이가 지역에 따라 달라서 그 평균 나이가 대도시 목회자는 51.2세, 중소도시 목회자가 48.9세,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의 경우는 46.1세로 줄어 들고 있다. 목회자 연급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목회자의 중간값 연급이 대도시 목회자의 경우 정회원 15년급이고, 중소도시 목회자는 정회원 12년급이지만, 농어촌 목회자의 연급은 다시 정회원 8년급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간값으로 본 목회 경력은 대도시 목회자의 경우 22년, 중소도시 목회자가 17년,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는 14년으로 역시 차이가 크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시무 연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중간값을 보면 대도시가 8년, 중소도시는 7년, 농어촌 교회가 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대도시일수록 목회자의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도 많고 시무 연한도 오래된 반면에, 농어촌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과 시무 연한도 짧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③ 지역과 출신학교

〈표 2-1-3〉은 지역과 목회자의 출신 학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지역과 출신 학교

(단위: %)

지역 \ 학교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대도시	45.6	31.1	14.1
중소도시	28.7	35.3	42.3
농어촌	25.7	33.6	43.7
계	100.0	100.0	100.1

〈표 2-1-3〉에 나타난 대로 감신대 출신 목회자 가운데는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경우가 매우 높고(45.6%), 중소도시(28.7%)와 농어촌(25.7%)에서 목회하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목원대 출신 목회자는 대도시(31.1%), 중소도시(35.3%), 농어촌(33.6%)에서 목회하는 비율이 모두 비슷하다. 한편 협성대의 경우 중소도시(42.3%)와 농어촌(43.7%)에서 목회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높고 대도시 목회자(14.1%) 비율은 크게 낮다.

④ 지역과 목회자 사례비

〈표 2-1-4〉는 지역에 따른 목회자 사례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4〉 지역과 목회자 사례비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사례비(중간값)	257	203	124	181

〈표 2-1-4〉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중간값으로 산출하면 대도시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는 257만 원이고, 중소도시 목회자의 사례비는 203만

원인 데 비하여 농어촌 목회자의 사례비는 124만 원에 불과하다. 월 사례비가 '100만 원 미만' 인 목회자 비율도 대도시 지역은 26.2%, 중소도시 지역이 26.8%인 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41.8%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월 사례비가 '300만 원 이상' 인 목회자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40.7% 인 데 비하여 중소도시 지역은 27.8%로 낮아지고, 농어촌 지역은 다시 11.9%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각 지역의 교회 예산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교회의 설립 연한

① 교회의 설립 연한

〈표 2-2-1〉은 감리교 교회의 설립 연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2-1〉 교회의 설립 연한

(단위: %)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49년	50년 이상	계
9.2	11.1	19.8	20.3	15.9	23.7	100.0(N=541)

〈표 2-2-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 교회의 설립 연한을 보면 '50년 이상' 인 경우가 23.7%로 가장 많다. 설립 연한이 '30-49년' 인 교회는 15.9%, '20-29년' 인 교회가 20.3%이다. 교회 설립 연한이 '10-19년' 인 교회는 19.8%, '5-9년' 이 11.1%, '5년 미만' 이 9.2%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교회가 모두 20.3%나 된다는 것은 최근에 개척된 교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립된 지 30년 미만의 교회가 60.4%나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특히 1970, 80년대 이후에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설립 연한의 중간값은 24년이다. 즉 전형적인 감리교회의 역사는 24년이라는 말이다.

② 교회 설립 연한과 지역

〈표 2-2-2〉에 따르면 감리교 교회의 설립 연한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표 2-2-2〉 교회 설립 연한과 지역

(단위: 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설립 연한(중간값)	23	21	27	24

중간값으로 산출해 보면 교회 설립 연한은 농어촌 지역 교회가 27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다음은 대도시(23년), 중소도시(21년) 순이다. 비록 농어촌 지역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지만 도시지역 교회들보다 설립 연한은 더 오래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교회 설립 연한과 목회자 사례비

〈표 2-2-3〉은 교회 설립 연한에 따라 목회자의 사례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3〉 교회 설립 연한과 목회자 사례비

(단위: 만원)

설립 연한	5년 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49년	50년 이상	전체
사례비(중간값)	49	68	110	234	241	341	181

〈표 2-2-3〉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 사례비는 교회 설립 연한이 긴 교회일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간값에서 '5년 미만' 된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는 49만 원에 불과하고, '5-9년'의 경우도 68만 원밖에 안 된다. 설립 연한이 '10-19년' 된 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는 110만 원, '20-29년'은 234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30-49년'인 경우는 241만 원, 그리고 '50년 이상'인 경우는 34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 대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도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규모

① 규모에 따른 교회 비율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교회를 분류했다.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의 평균 인원을 근거로 그것이 '20명 미만'인 교회는 '초소형 교회', '20-49명'인 교회는 '소형 교회', '50-99명'인 교회는 '중소형 교회', '100-199명'인 교회는 '중형 교회', '200-499명'인 교회는 '중대형 교회', '500-999명'인 교회는 '대형 교회', 그리고 '1000명 이상'인 교회는 '초대형 교회'라고 부르기로 한다.

〈표 2-3-1〉은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의 평균 인원을 근거로 한 교회 규모에 따라 감리교 교회들을 분류한 것이다.

〈표 2-3-1〉 규모에 따른 교회 비율

(단위: %)

초소형 (20명 미만)	소형 (20-49명)	중소형 (50-99명)	중형 (100-199명)	중대형 (200-499명)	대형 (500-999명)	초대형 (1000명 이상)	계
25.8	19.9	14.2	11.6	17.3	7.4	3.9	100.1(N=543)

〈표 2-3-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리교 교회들을 규모에 따라 분류해 보면 ‘초소형 교회’가 2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소형 교회’가 19.9%이다. 이렇게 작은 교회(주일 낮예배 출석 성인 교인 50명 미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비율은 모두 45.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 교회’는 14.2%, ‘중형 교회’가 11.6%, ‘중대형 교회’는 17.3%이다. 보통 혹은 중간 크기의 교회(50-499명)는 모두 43.1%이다. 한편 ‘대형 교회’는 7.4%, ‘초대형 교회’는 3.9%로서, 소위 크다는 교회(500명 이상)는 모두 8.3%이다. 다른 교단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다수가 소형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인 수의 중간값은 65명이다. 즉 전형적으로 감리교 교회의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수는 이 정도인 것이다. 물론 출석이 아니라 등록 교인 수를 본다면, 그리고 성인이 아닌 숫자를 모두 더한다면 교회의 교인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교인 수를 측정하는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바람직한 근거는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 교인 수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② 교회 규모와 연회

교회 규모는 연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가 〈표 2-3-2〉에 나와 있다.

〈표 2-3-2〉 교회 규모와 연회

(단위: %, 명)

규모 \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초소형	21.1	21.4	16.9	22.2	30.0	28.3	44.4	34.8	13.0	40.0
소형	8.8	12.5	15.6	22.2	18.0	26.7	17.8	30.4	37.0	16.4
중소형	15.8	5.4	16.9	15.9	8.0	15.0	15.6	13.0	20.4	12.7
중형	12.3	14.3	7.8	9.5	14.0	8.3	11.1	0.0	14.8	20.0
중대형	29.8	26.8	22.1	15.9	18.0	18.3	6.7	13.0	9.3	7.3
대형	8.8	16.1	11.7	11.1	8.0	1.7	0.0	4.3	3.7	1.8

초대형	3.5	3.6	9.1	3.2	4.0	1.7	4.4	4.3	1.9	1.8
계	100.1	100.1	100.1	100.0	100.0	100.0	100.0	99.8	100.1	100.0
인원(중간값)	134	173	107	66	62	44	29	35	50	38

〈표 2-3-2〉에 나타난 대로 교회의 규모는 연회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소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합친(성인 50명 미만) 비율이 서울연회는 29.9%, 중부연회는 32.5%, 서울남연회는 33.9%인 데 비하여, 그 비율이 남부연회(65.2%), 충북연회(62.2%), 삼남연회(56.4%), 동부연회(55.0%)는 매우 높다. 경기연회(44.4%), 중앙연회(48.0%), 충청연회(50.0%)는 중간 수준이다. 한편 교인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의 비율은 중부연회(20.8%)와 서울남연회(19.7%)가 높고, 다음은 경기연회(14.3%), 서울연회(12.3%), 중앙연회(12.0%), 남부연회(8.6%) 순이며, 그 비율이 동부연회(3.4%), 충북연회(4.4%), 충청연회(5.6%), 삼남연회(3.6%)의 경우 매우 낮다. 줄여 말하면 큰 교회들은 수도권에 있는 연회들에 많고 작은 교회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회들에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인 수를 중간값으로 산출해 보면 서울남연회 교회의 경우 17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연회(134명), 중부연회(107명) 순이다. 다음으로는 경기연회(66명), 중앙연회(62명), 충청연회(50명)로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그 숫자는 동부연회(44명), 삼남연회(38명), 남부연회(35명), 충북연회(29명)의 경우 훨씬 더 줄어든다. 이와 같이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 교인 수를 근거로 하는 교회 규모와 교인 수는 연회에 따라 매우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③ 교회 규모와 지역

교회 규모는 지역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표 2-3-3〉에 나와 있다.

〈표 2-3-3〉 교회 규모와 지역

(단위: %, 명)

지역 \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초소형	21.1	21.9	35.0
소형	11.1	17.6	31.1
중소형	11.1	15.0	15.3
중형	11.7	12.3	11.3

중대형	24.0	21.4	6.2
대 형	14.6	6.4	1.1
초대형	6.4	5.3	0.0
계	100.0	99.9	100.0
인원(중간값)	157	85	35

〈표 2-3-3〉에서 보이듯이 주일 낮예배 출석 성인 교인 수가 '20명 미만' 인 '초소형 교회'의 비율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35.0%나 되고 있으며, 대도시(21.1%)와 중소도시(21.9%) 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인 교인 수가 '50명 미만' 인 교회(초소형+소형)의 비율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려 66.1%나 되고 있고, 중소도시(39.5%)와 대도시(32.2%) 지역에서도 그 비율은 높다, 반면에 성인 교인 수가 '500명 이상' 이 되는 교회(대형+초대형)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 21.0%이지만, 중소도시 지역은 11.7%로 낮아지고 농어촌 지역은 1.1%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성인 교인 수의 중간값을 산출해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그것이 대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 157명인 데 비해 중소도시는 85명으로 줄어 들고, 나아가서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에는 35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렇게 특히 농어촌 교회는 교인 수에 있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교회 규모와 목회자 사례비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표 2-3-4〉가 그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4〉 교회 규모와 목회자 사례비

(단위: 만원)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전체
사례비(중간값)	43	122	209	272	346	454	458	181

〈표 2-3-4〉에 나타난 것처럼 '초소형 교회' 목회자 월 사례비의 중간값은 43만 원에 불과하다. 사례비 중간값이 '소형 교회'의 경우는 122만 원, '중소형 교회'는 209만 원, '중형 교회'는 272만 원, 그리고 '중대형 교회'는 346만 원으로 계속 커진다. 그것은 '대형 교회'의 경우 454만 원, '초대형 교회'의 경우 458만 원이다.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의 차이가 있는 것

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회자 사례비의 현저한 차이는 목회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유초등부 학생 규모

① 유초등부 학생 수

〈표 2-4-1〉은 감리교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 수와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1〉 유초등부 학생 수 비율

(단위: %)

10명 미만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명 이상	계
30.6	19.5	20.4	14.1	10.9	4.5	100.0(N=539)

〈표 2-4-1〉에 나타난 대로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이 ‘10명 미만’인 교회가 30.6%나 되고 있으며 ‘10-19명’인 경우도 19.5%이다. 따라서 감리교 교회 가운데 절반(50.1%)이 ‘20명 미만’의 유초등부 학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초등부 학생이 ‘20-49명’인 교회는 20.4%, ‘50-99명’인 교회가 14.1%이다. 한편 유초등부 학생 수가 ‘100-199명’인 교회는 10.9%, ‘200명 이상’인 교회는 4.5%로서 100명 이상의 유초등부 학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모두 15.4%이다. 유초등부 학생 수의 중간값은 20명에 불과하다.

② 유초등부 학생 수와 지역

유초등부 학생 수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 2-4-2〉 유초등부 학생 수와 지역

(단위: 명)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학생 수(중간값)	40	29	10	20

〈표 2-4-2〉에 나타난 대로 중간값을 근거로 해 볼 때 대도시 지역 교회의 유초등부 학생 수는 40명이지만,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그 숫자가 29명으로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

우에는 10명으로 다시 크게 감소한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③ 유초등부 학생 수와 연회

〈표 2-4-3〉은 유초등부 학생 수와 연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4-3〉 유초등부 학생 수와 연회

(단위: 명)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학생 수(중간값)	41	33	28	30	24	16	14	15	19	16	20

〈표 2-4-3〉에 따르면 유초등부 학생 수 중간값이 서울연회의 경우 가장 많고(41명), 다음은 서울남연회(33명), 경기연회(30명), 중부연회(28명), 중앙연회(24명)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연회(19명)이며, 동부연회와 삼남연회(각 16명), 남부연회(15명), 충북연회(14명)의 경우 그 숫자가 훨씬 적어지고 있다. 역시 수도권 연회들의 경우 유초등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수도권에서 먼 연회들의 경우 유초등부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중고등부 학생 규모

① 중고등부 학생 수

〈표 2-5-1〉은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1〉 중고등부 학생 수 비율

(단위: %)

10명 미만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계
48.0	15.5	11.8	10.3	9.7	4.7	100.0(N=535)

〈표 2-5-1〉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무려 48.0%나 되고 있어 교회학교 위기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그 숫자가 ‘10-19명’인 경우는 15.5%이다. 결국 중고등부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교회는 모두 63.5%에 이르고 있다. 그 숫자가 ‘20-29명’인 교회는 11.8%, ‘30-49명’인 교회가 10.3%, ‘50-99명’인 교회는

9.7%, 그리고 ‘100명 이상’인 교회가 4.7%이다. 중고등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교회는 모두 14.4%에 머물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의 중간값은 12명에 불과하다.

② 중고등부 학생 수와 지역

지역별 중고등부 학생 수를 보여주는 <표 2-5-2>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중고등부 학생 수가 크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2> 중고등부 학생 수와 지역

(단위: 명)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학생 수(중간값)	23	15	7	12

대도시 지역 교회의 중간값 중고등부 학생 수는 23명이지만, 중소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는 15명으로 그것이 감소하고,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는 그 숫자가 7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유초등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역시 농어촌 지역 교회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③ 중고등부 학생 수와 연회

<표 2-5-3>은 연회별 중고등부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5-3> 중고등부 학생 수와 연회

(단위: 명)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학생 수(중간값)	22	24	16	11	13	8	8	7	7	10	12

<표 2-5-3>에 나타난 대로 중고등부 학생 수의 중간값이 서울남연회(24명)와 서울연회(22명)의 경우는 높고, 다음으로는 중부연회(16명), 중앙연회(13명), 경기연회(11명), 삼남연회(10명) 순이다. 그리고 동부연회와 충북연회(각 8명), 남부연회와 충청연회(각 7명)의 경우 그 숫자가 매우 적다.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의 숫자 역시 연회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청년부(대학부) 학생 규모

①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

〈표 2-6-1〉에는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부(대학부) 학생의 수 비율이 나와 있다.

〈표 2-6-1〉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 비율

(단위: %)

10명 미만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계
57.6	15.6	10.8	6.0	6.6	3.5	100.1(N=8)

〈표 2-6-1〉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가 ‘10명 미만’ 인 교회는 무려 57.6%나 되고 있다. 그 숫자가 ‘10-19명’ 인 교회는 15.6%이다. 따라서 청년부(대학부) 학생이 20명 미만 인 교회는 모두 73.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청년부(대학부) 학생의 수가 ‘20-29명’ 인 교회 비율은 10.8%, ‘30-49명’ 인 경우가 6.0%, ‘50-99명’ 인 경우가 6.6%, ‘100명 이상’ 인 교회는 3.5%에 불과하다. 청년부(대학부) 학생 숫자가 ‘50명 이상’ 인 교회는 모두 10.1%에 머물고 있다.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의 중간값은 8명이다. 교회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부서는 청년부(대학부)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②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와 지역

〈표 2-6-2〉는 지역별 청년부(대학부) 학생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6-2〉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와 지역

(단위: 명)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학생 수(중간값)	21	9	5	8

〈표 2-6-2〉에 따르면 감리교 교회의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는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그 중간값이 대도시 지역 21명, 중소도시 지역 9명, 농어촌 지역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교회에서는 청년부(대학부)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와 연회

연회별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가 <표 2-6-3>에 나와 있다.

<표 2-6-3>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와 연회

(단위: 명)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학생 수(중간값)	22	23	9	8	8	7	7	6	7	7	8

<표 2-6-3>에 의하면 중간값으로 본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가 서울연회(22명)와 서울남연회(23명)만 비슷하게 높을 뿐 다른 연회들의 경우는 비슷하게 낮다. 그 숫자는 중부연회 9명, 경기연회와 중앙연회 8명, 동부연회, 충북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각각 7명, 그리고 남부연회가 6명이다.

(7) 새 등록교인 규모

① 새 등록교인 수

<표 2-7-1>에는 “지난해(2006년) 1년간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와 있다. 새로 등록한 교인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적해 온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통계가 순수한 새 신자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성장의 한 척도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2-7-1> 새 등록교인 수

(단위: %)

없음	5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계
8.9	31.8	16.6	10.8	6.5	7.3	6.9	11.2	100.0(N=537)

<표 2-7-1>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교인이 “없다”는 응답이 8.9%, ‘5명 미만’ 이 31.8%, ‘5-9명’ 이 16.6%이다. 따라서 이적해 온 교인을 포함하여 새로 등록한 교인이 모두 ‘10명 미만’ 인 교회가 57.3%에 이르고 있다. 새로 등록한 교인이 ‘10-19명’ 인 교회는 10.8%, ‘20-29명’ 인 경우가 6.5%, ‘30-49명’ 인 경우가 7.3%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50-99명’ 인 교회는 6.9%, ‘100명 이상’ 인 교회가 11.2%로 나타나고 있다. ‘50명 이상’ 이 새로 교인으

로 등록한 교회는 모두 18.1%인 셈이다. 지난 1년간 새로 등록한 교인 수의 중간값은 7명이다. 다른 교회에서 이적한 교인 수도 감안한다면 새 신자는 별로 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② 새 등록교인과 지역

새로 등록한 교인 수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표 2-7-2>에서 드러나고 있다.

<표 2-7-2> 새 등록교인 수와 지역

(단위: 명)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등록교인(중간값)	18	9	3	7

<표 2-7-2>에서 보여지듯이 중간값에 있어 지난 한 해 새로 등록한 교인 수가 대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 18명이지만, 중소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는 9명으로 낮아지고,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에는 3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교회에서는 새 신자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③ 새 등록교인과 연회

새 등록교인 수는 연회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다. 이 결과가 <표 2-7-3>에 나와 있다.

<표 2-7-3> 새 등록교인 수와 연회

(단위: 명)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등록교인(중간값)	15	17	13	7	7	5	5	5	5	6	7

<표 2-7-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값에 있어 지난 한 해 새로 등록한 교인 수가 10명이 넘는 연회는 서울남연회(17명), 서울연회(15명), 중부연회(13명)뿐이다. 나머지 연회들의 경우는 새 등록교인 수가 5-7명에 머물고 있다.

④ 새 등록교인과 교회 규모

〈표 2-7-4〉는 교회 규모에 따른 새 등록교인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4〉 새 등록교인과 교회 규모

(단위: 명)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전체
등록교인(중간값)	2	3	6	16	40	128	155	7

〈표 2-7-4〉에 따르면 중간값을 근거로 할 때 지난 1년간 새로 등록한 교인 수가 ‘초소형 교회’는 2명, ‘소형 교회’는 3명에 불과하다. 그 숫자는 ‘중소형 교회’ 6명, ‘중형 교회’ 16명, ‘중대형 교회’ 40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경우 그 숫자는 128명, ‘초대형 교회’의 경우는 155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인 수에 있어서도 교회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큰 교회일수록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이 풍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새 신자 확보에 유리하고 또한 수평이동을 통한 쏠림 현상의 덕을 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교회 규모에 따른 새 등록교인 수의 극심한 편차는 작은 교회들의 경우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8) 교회의 성쇠

① 교인 수의 증감

〈표 2-8-1〉은 “최근 몇 년간을 돌이켜 볼 때 예배에 출석하는 전체적인 교인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의 성장 혹은 쇠퇴를 나타내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표 2-8-1〉 교인 수의 증감

(단위: %)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비슷함	약간 증가	많이 증가	계
5.2	12.9	30.7	43.6	7.5	99.9(N=534)

〈표 2-8-1〉에 따르면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8.1%(“많이” 5.2%, “약간” 12.9%)이며, “비슷하다”는 비율이 30.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약 절반(48.8%)의 감리교 교회

들이 정체 혹은 쇠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1%이다(“약간” 43.6%, “많이” 7.5%). 절반 정도의 교회만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우는 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 감리교회의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한다. 교인 수의 증가(혹은 교회의 성쇠)는 몇 가지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② 교인 수의 증감과 지역

〈표 2-8-2〉는 교인 수의 증감과 지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8-2〉 교인 수의 증감과 지역

(단위: %)

증감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증가	59.2	58.9	36.7	51.1
감소	11.3	19.5	22.8	18.1

〈표 2-8-2〉에 나타난 대로 대도시(59.2%)와 중소도시(58.9%) 지역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 비율이 농어촌(35.7%) 지역의 교회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감소하는 비율은 대도시(11.3%)와 중소도시(19.5%) 지역의 교회가 농촌(22.8%) 지역의 교회보다 낮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교회의 약 ⅔(64.3%)가 정체 혹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지역 교회가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교인 수의 증감과 연회

연회별로 교인 수의 증감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표 2-8-3〉에 나와 있다.

〈표 2-8-3〉 교인 수의 증감과 연회

(단위: %)

증감 \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증가	60.0	56.2	46.1	55.8	56.3	50.0	45.5	52.1	44.4	46.3	51.1
감소	9.1	15.8	15.7	18.1	20.8	17.2	20.5	17.4	33.3	16.7	18.1

〈표 2-8-3〉에 따르면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 비율이 전체 평균치(51.1%)를 상회하고 있는 연회는 서울연회(60.0%), 중앙연회(56.3%), 서울남연회(56.2%), 경기연회(55.8%) 등이다. 그 비율이 평균치와 비슷한 연회는 남부연회(52.1%)와 동부연회(50.0%)이며, 평균치보다 낮은 연회는 삼남연회(46.3%), 중부연회(46.1%), 충북연회(45.5%), 충청연회(44.4%) 등이다. 반대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 비율이 가장 낮은 연회는 서울연회(9.1%)이며, 다음은 중부연회(15.7%), 서울남연회(15.8%), 삼남연회(16.7%)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동부연회(17.2%), 남부연회(17.4%), 경기연회(18.1%), 충북연회(20.5%), 중앙연회(20.8%), 충청연회(33.3%) 순이다.

④ 교인 수의 증감과 교회 규모

교회 규모에 따라 교인 수의 증감 실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표 2-8-4〉가 보여주고 있다.

〈표 2-8-4〉 교인 수의 증감과 교회 규모

(단위: %)

증감 \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전체
증가	35.1	40.2	48.7	54.0	65.6	82.5	90.5	51.1
감소	25.4	28.9	14.5	14.2	8.9	10.0	0.0	18.1

〈표 2-8-4〉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비율이 ‘초소형 교회’의 경우가 35.1%, ‘소형 교회’의 경우는 40.2%로 낮지만, ‘중소형 교회’ (48.7%), ‘중형 교회’ (54.0%), ‘중대형 교회’ (65.6%)로 가면서 점점 높아진다.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비율은 ‘대형 교회’의 경우 82.5%로 크게 늘어나며, ‘초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90.5%에 이르게 된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 비율은 작은 교회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결과는 앞 〈표 2-7-4〉에서도 보았듯이 큰 교회일수록 더 커지고 작은 교회일수록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준다.

(9) 교인 증가 요인

〈표 2-9-1〉에는 교인 수가 증가된 교회의 경우 그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세 가지 복수 응답) 결과가 나와 있다.

〈표 2-9-1〉 교인 수 증가 요인(복수응답)

(단위: %)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성령 부흥 운동	활발한 전도 활동	다양한 교회행사와 프로그램	타교회로 부터의 교인 이적	화기에 애한 교회 분위기	지역 사회사업 으로 인한 주민 의식 변화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기타	계
41.3	21.5	42.7	17.0	24.0	42.2	15.9	9.2	9.2	223.0 (N=358)

〈표 2-9-1〉에 따르면 교인 수가 증가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활발한 전도활동’(42.7%), ‘화기에애한 교회 분위기’(42.2%),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41.3%)가 지적되고 있다. 즉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 전도, 친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타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24.0%), ‘성령부흥운동’(21.5%), ‘다양한 교회행사와 프로그램’(17.0%), ‘지역사회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식 변화’(15.9%),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9.2%) 순이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시 지역(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 교회의 경우 교인 수 증가 요인 가운데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와 ‘다양한 교회행사와 프로그램’이,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 ‘화기에애한 교회 분위기’와 ‘지역사회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식 변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인 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에서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와 ‘활발한 전도활동’, ‘다양한 교회행사와 프로그램’을, 작은 교회일수록 ‘화기에애한 분위기’와 ‘타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교인 감소 요인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세 가지(복수응답) 결과가 〈표 2-10-1〉에 나와 있다.

〈표 2-10-1〉 교인 수 감소 요인(복수응답)

(단위: %)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무관심	41.4
사람들이 세상일을 더 즐김	31.4
이농현상과 같은 교인들의 거주지 이동	42.1

교회 선교 프로그램의 취약성	9.3
교인들의 신앙심 약화	22.1
목회자의 노력과 열성이 약화됨	20.7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림	10.7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란 있음	23.6
주변에 교회가 많이 생겨남	10.0
제사나 주초 문제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태도	2.9
기타	12.1
계	226.4(N=140)

〈표 2-10-1〉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의 경우 그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 ‘이농현상과 같은 교인들의 거주지 이동’(42.1%)과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무관심’(41.4%)이라고 했는데, 거주지 이동 문제는 특히 농어촌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은 ‘사람들이 세상일을 더 즐김’(31.4%),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란이 있음’(23.6%), ‘교인들의 신앙심 약화’(22.1%), ‘목회자의 노력과 열성이 약화됨’(20.7%),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림’(10.7%), ‘주변에 교회가 많이 생겨남’(10.0%), ‘교회 선교 프로그램의 취약성’(9.3%)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인 수가 감소하는 요인은 세속주의나 이농현상과 같은 교회 외적 요인과 전도 무관심, 신앙심 약화, 갈등과 같은 교회 내적 요인(주로 교인들 문제)이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목회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요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표 2-10-2〉가 이것을 보여 준다.

〈표 2-10-2〉 교인 수 감소 요인의 순위와 지역

지역 \ 순위	1	2	3	4
대도시	세속주의	신앙심 약화	전도 무관심	거주지 이동
중소도시	전도 무관심	교인 갈등	목회자 문제	신앙심 약화
농어촌	거주지 이동	전도 무관심	세속주의	교인 갈등

〈표 2-10-2〉에 나타난 대로 교인 수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비율의 순위가 대도시 지역 목회자의 경우 ‘세속주의’, ‘교인의 신앙심 약화’, ‘교인의 전도 무관심’, ‘이농과 같은 거주지 이동’ 순으로 되어 있지만, 중소도시 지역 목회자의 경우는 그것이 ‘전도 무관심’, ‘교인 사이의 갈등’, ‘목회자의 노력 부족’, ‘신앙심 약화’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농어촌 지역 목회자의 경우는 ‘이농과 같은 거주지 이동’을 교인 수 감소의 요인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은 ‘전도 무관심’, ‘세속주의’, ‘교인 갈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규모별로는 교인 감소 요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견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1) 교회 예산

① 2006년 예산과 교회

〈표 2-11-1〉은 감리교 교회들의 2006년 예산 실태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11-1〉 교회 예산(2006년)

(단위: 원, %)

500만 미만	500- 999만	1,000- 2,999만	3,000- 4,999만	5,000- 9,999만	1억-2억 9,999만	3억-4억 9,999만	5억-9억 9,999만	10억 이상	계
4.8	8.9	18.1	8.3	15.0	18.3	8.3	10.7	7.4	99.8(N=540)

〈표 2-11-1〉에 따르면 교회의 2006년도 1년 예산이 ‘500만 원 미만’인 교회가 4.8%, ‘500-999만 원’인 교회가 8.9%로 교회 전체의 13.7%가 1년 예산 ‘1,000만 원 미만’의 영세 교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년 예산이 ‘1,000-2,999만 원’인 교회는 18.1%, ‘3,000-4,999만 원’인 교회가 8.3%이다. 1년 예산이 ‘5,000만 원 미만’인 교회는 모두 40.1%가 되는 셈이다. 교회 예산이 ‘5,000-9,999만 원’인 교회는 15.0%, ‘1억-2억 9,999만 원’인 교회가 18.3%, ‘3억-4억 9,999만 원’인 교회는 10.7%, 그리고 ‘10억 이상’인 교회가 7.4%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1년 예산의 중간값은 8,36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교 교회들의 재정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이것은 앞 〈표 1-11-1〉에서 보았던 것처럼 낮은 목회자 사례비의 결정적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표 2-3-1〉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교회의 1년 예산은 다른 여러 변수들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이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② 교회 예산과 지역

〈표 2-11-2〉는 지역에 따라 교회의 예산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1-2〉 교회 예산과 지역

(단위: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교회 예산(중간값)	2억4,760만	9,880만	3,920만	8,360만

중간값을 근거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 교회의 1년 예산은 2억 4,760만 원이며, 중소도시 지역 교회의 1년 예산은 9,88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교회의 예산은 3,920만 원으로 더욱 더 낮다.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 보면 도농 간에, 그리고 도시 가운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재정적 열악성이 드러나고 있다.

③ 교회 예산과 연회

교회의 1년 예산은 연회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표 2-11-3〉에서 제시되고 있다.

〈표 2-11-3〉 교회 예산과 연회

(단위: 원)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교회 예산 (중간값)	2억 2,240만	3억 1,140만	1억 6,860만	8,830만	5,670만	6,130만	3,740만	4,520만	6,910만	2,930만	8,360만

〈표 2-11-3〉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1년 예산이 그 중간값에서 서울남연회의 경우 3억 1,140만 원, 서울연회가 2억 2,240만 원, 중부연회가 1억 6,860만 원으로 높다. 다음으로는 경기연회(8,830만 원), 충청연회(6,910만 원), 동부연회(6,130만 원), 중앙연회(5,670만 원) 순이다. 한편 남부연회(4,520만 원), 충북연회(3,740만 원), 삼남연회(2,930만 원)는 1년 예산의 수준이 매우 낮다. 수도권에 있는 연회 소속 교회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회 소속 교회들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교회 예산과 목회자 사례비

당연한 결과겠지만, 교회 예산의 수준은 목회자 사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2-11-4>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1-4〉 교회 예산과 목회자 사례비

(단위: 만원)

교회 예산	500 미만	500-999	1,000-9,999	3,000-4,999	5,000-9,999	1억-2억9,999	3억-4억9,999	5억-9억9,999	10억 이상	전체
사례비(중간값)	35	33	62	118	171	255	320	430	464	181

<표 2-11-4>에 나타난 대로 중간값으로 산출하면 교회 예산이 '500만 원 미만'과 '500-999만 원'인 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는 각각 35만 원, 33만 원에 불과하다. 예산이 '1,000-9,999만 원'인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가 62만 원, '3,000-4,999만 원'인 교회가 118만 원, '5,000-9,999만 원'인 교회는 171만 원이다. 교회 예산이 '1억-2억 9,999만 원'인 경우는 목회자 사례비가 255만 원, '3억-4억 9,999만 원'인 경우는 320만 원으로 많아진다. 그리고 예산이 '5억-9억 9,999만 원'인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는 중간값이 430만 원, '10억 이상'인 교회의 경우는 464만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⑤ 교회 예산과 교회 규모 및 교회 설립 연한

역시 당연한 것이겠지만 교인 수를 근거로 한 교회 규모가 클수록 1년 예산은 많아진다. 그리하여 중간값에 있어 교회 예산이 '초소형 교회'는 1,180만 원, '소형 교회'는 4,070만 원, '중소형 교회'는 8,330만 원, '중형 교회'가 1억 853만 원, '중대형 교회'가 4억 5,250만 원, '대형 교회'는 9억 5,240만 원으로 많아지고 있다.

교회의 예산은 교회의 설립 연한과 비례한다. 즉 1년 예산의 중간값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교회의 경우 1,860만 원, '5-9년'의 교회가 2,050만 원, '10-19년'의 교회가 4,010만 원으로 많아진다. '20-29년'된 교회의 예산 중간값은 1억 4,050만 원, '30-49년'된 교회는 1억 7,750만 원, 그리고 '50년 이상'된 교회는 그것이 3억 6,41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 재정적인 지원 여부

① 재정적 지원 여부

〈표 2-12-1〉은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2-1〉 재정적 지원 여부

(단위: %)

받음	받지 않음	계
29.0	71.0	100.0(N=528)

〈표 2-12-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교회 가운데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29.0%에 달하고 있다.

② 재정적 지원 여부와 지역 및 연회

〈표 2-12-2〉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연회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표 2-12-2〉 재정적 지원 여부와 지역, 연회

(단위: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비율	22.0			23.0			43.0			29.0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전체
비율	19.6	21.4	19.7	20.3	43.5	33.9	40.9	31.8	28.3	44.2	29.0

*백분율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 비율임.

〈표 2-12-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지역 교회 가운데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43.0%). 그 비율은 도시 교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대도시 22.0%, 중소도시 23.0%). 이것은 농어촌 교회들의 재정적 열악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연회별로 보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회가 가장 많은 것은 삼남연회(44.2%)와 중앙연회(43.5%), 충북연회(40.9%)이며, 다음으로는 동부연회(33.9%), 남부연회(31.8%), 충청연회(28.3%) 순이다. 외부 지원을 받는 교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회는 서울연회(19.6%), 중부연

회(19.7%), 경기연회(20.3%), 서울남연회(21.4%) 등이다.

③ 재정적 지원 여부와 교회 규모 및 연급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그리하여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초소형 교회’의 경우 82.0%에 이르고 있다. 그 비율은 ‘소형 교회’의 경우 29.2%, ‘중소형 교회’가 6.7%, ‘중형 교회’ 1.7%, ‘중대형 교회’ 2.2%로 낮아진다.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연급이 ‘준회원’인 경우 그 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75.0%에 이르며 ‘정회원 1-10년급’인 경우도 51.9%나 되고 있다. ‘정회원 11-20년급’ 목회자 가운데는 9.8%가, 그리고 ‘정회원 21년급 이상’ 목회자 가운데는 3.0%가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3) 재정적 지원 형식

〈표 2-13-1〉은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3-1〉 재정적 지원 방식

(단위: %)

매월 한두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세 교회 이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개인 후원자로부터	매월 개인후원자와 몇 교회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기타	계
39.6	33.3	2.5	18.2	4.4	1.9	99.9(N=159)

〈표 2-13-1〉에 나타난 대로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의 대다수(93.6%)가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여러 가지다. “매월 한두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3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매월 세 교회 이상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로 33.3%이다. “매월 몇몇 후원자와 몇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18.2%이며, “매월 몇몇 개인 후원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

(14) 재정적 지원 수준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2-14-1)에 나와 있다.

〈표 2-14-1〉 재정적 지원 수준

(단위: %)

20만원 미만	20-39만원	40-59만원	60-79만원	80-99만원	100만원 이상	계
32.7	25.8	22.0	12.6	2.5	4.4	100.0(N=159)

〈표 2-14-1〉에 따르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액수가 ‘20만 원 미만’ 인 경우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39만 원’ 의 25.8%이다. 이와 같이 전체의 58.5%가 ‘40만 원 미만’ 의 초라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빈궁한 목회자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예를 들면 앞에서 보았듯이 ‘초소형 교회’ 목회자의 월 사례비 중간값은 43만 원에 불과하다) 빈약한 것이다. 월 ‘40-59만 원’ 을 지원받는 목회자는 22.0%, ‘60-79만 원’ 을 지원받는 경우는 2.5%, 그리고 그것이 ‘100만 원 이상’ 인 경우는 4.4%이다. 아주 작은 규모에 매우 적은 예산, 그리고 턱없이 낮은 사례비를 받으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교단적, 개 교회적 지원의 방법과 수준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15) 타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표 2-15-1〉은 “국내외의 다른 교회(들)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5-1〉 타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단위: %)

하고 있음	하지 못함	계
67.8	32.2	100.0(N=513)

〈표 2-15-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 교회의 67.8%가 다른 교회(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그 비율이 대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는 74.3%, 중소도시 지역 교회의 경우도 74.7%로 비슷하게 높지만, 농어촌 교회의 경우는 54.0%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교회(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회 비율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있다. 즉 그 비율이 ‘대형 교

회'와 '초대형 교회'는 100.0%, '중대형 교회'가 98.9%, '중형 교회'가 90.3%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중소형 교회'의 경우 75.3%, '소형 교회'가 50.5%, '초소형 교회'가 28.8%이다. 이렇게 '초소형 교회'나 '소형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도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소형 교회'의 24.7%, 그리고 '중형 교회'의 9.7%가 다른 교회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외부 지원은 교회의 성쇠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즉 “교인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교회의 84.6%, “교인 수가 약간 늘고 있는” 교회의 79.6%가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교인 수가 약간 줄고 있는” 교회는 54.5%, 그리고 “교인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교회는 24.0%만이 다른 교회를 돕고 있다. “교인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교회의 경우는 59.5%가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16) 외부 지원 교회 수

〈표 2-16-1〉에는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제시되고 있다.

〈표 2-16-1〉 외부 지원 교회 수

(단위: %)

1교회	2-3교회	4-5교회	6-9교회	10교회 이상	계
14.4	25.2	13.5	19.6	27.3	100.0(N=341)

〈표 2-16-1〉에 따르면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수가 ‘하나’인 경우는 14.4%, ‘2-3교회’인 경우가 25.2%, ‘4-5교회’인 경우는 13.5%이다. ‘6-9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비율은 19.6%이며, ‘10교회 이상’ 돕는 경우는 27.3%나 된다. 돕는 교회 수의 중간값은 4.5 교회이다.

지역별로 보면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그 중간값이 도시 교회는 7개 교회, 중소도시 교회는 6개 교회, 그리고 농어촌 교회는 3개 교회이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경우 그 중간값에 있어 ‘초소형 교회’는 1개(0.7), ‘소형 교회’는 2개, ‘중소형 교회’는 3개, ‘중형 교회’는 5개 교회를 돕고 있다. 그 숫자는 ‘중대형 교회’의 경우 8개, ‘대형 교회’의 경우 13개, ‘초대형 교회’의 경우 16개 교회로 늘어난다.

(17) 국외 교회(선교사) 지원

〈표 2-17-1〉은 “국외의 교회나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7-1〉 국외 교회(선교사) 지원 수

(단위: %)

1교회(선교사)	2-3교회(선교사)	4-5교회(선교사)	6-9교회(선교사)	10교회(선교사) 이상	계
31.1	31.1	15.4	10.3	12.2	100.1(N=312)

〈표 2-17-1〉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국외의 교회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그 숫자가 ‘하나’ 인 비율은 31.1%, 그것이 ‘두 교회(선교사)’ 인 비율 역시 31.1%이다. 지원하고 있는 교회(선교사)가 ‘4-5 교회(명)’ 인 경우는 15.4%, ‘6-9 교회(명)’ 인 경우가 10.3%, 그리고 그것이 ‘10 교회(명)’ 인 경우는 12.2%이다. 지원하고 있는 국외 교회(선교사) 수의 중간값은 2.6이다.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국외 교회(선교사) 지원 숫자는 당연히 늘어난다. 그리하여 그 중간값이 ‘초소형 교회’ 는 0.6, ‘소형 교회’ 는 0.7, ‘중소형 교회’ 는 2교회(선교사)이다. 그것은 ‘중형 교회’ 와 ‘중대형 교회’ 의 경우 3, ‘대형 교회’ 의 경우 5, ‘초대형 교회’ 의 경우 12교회(선교사)로 나타나고 있다.

(18) 사회복지기관 지원

감리교 교회들이 사회복지기관을 물질적으로 얼마나 돕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2-18-1〉에 나와 있다.

〈표 2-18-1〉 사회복지기관 지원

(단위: %)

돕지 못함	1곳	2-3곳	4-5곳	6-9곳	10곳 이상	계
41.7	24.8	18.3	7.1	3.6	4.4	99.9(N=496)

〈표 2-18-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리교 교회 가운데 사회복지기관을 물질적으로 전혀 돕지 못하는 비율이 41.7%나 되고 있다. 인류애적인 사회적 구제와 봉사에 앞장섰던 감리교 전통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사회복지기관 1곳을 돕는 교회 비율은

24.8%, '2-3곳'을 돕는 비율은 18.3%, 그리고 '4-5곳'을 돕는 비율이 7.1%이다. 사회복지기관 '6-9곳'을 돕는 교회 비율은 3.6%이며 '10곳 이상'을 돕는 교회는 4.4%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기관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농어촌 교회(54.4%)와 중소도시 교회(44.6%)의 경우 높고, 도시 교회(25.5%)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 돕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수를 중간값으로 산출하면 '초소형 교회' 0.2, '소형 교회' 0.9, '중소형 교회' 1.2, '중형 교회' 1.9, '중대형 교회' 2.4, '대형 교회' 4.7, 그리고 '초대형 교회' 4.6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을 돕는 여부는 교회 성쇠와도 관계가 있다. 즉 사회복지기관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교인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62.5%, "교인 수가 약간 줄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58.3%로 높다. 그 비율은 "교인 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교회 가운데는 45.8%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교인 수가 약간 늘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35.6%이며, "교인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18.9%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을 돕는 자세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인지는 연구해 볼 주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쇠와 사회봉사의 실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19) 요약

감리교 교회들은 지역에 있어 대도시(32.1%), 중소도시(34.9%), 그리고 농어촌(33.0%)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목회자의 나이는 그 중간값에서 대도시 목회자가 가장 많고(51세), 다음은 중소도시(49세), 농어촌(46세) 지역 목회자 순이다. 연급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정15), 중소도시(정12), 농어촌(정8) 지역 목회자 순이다. 목회 경력도 중간값에서 대도시(22년), 중소도시(17년), 농어촌(14년) 지역 목회자 순이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에는 감신 출신 목회자가 가장 많고, 다음은 목원대, 협성대 출신 목회자 순이다. 목원대 출신 목회자는 세 지역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목회자 사례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다. 그 중간값이 대도시 257만 원, 중소도시 203만 원, 농어촌 124만 원이다.

교회의 설립 연한은 '10년 미만'이 20.3%이며, '30년 이상'은 39.6%이다. 60%의 교회가 1970년대 이후에 세워졌다. 교회 설립 연한은 농어촌 교회가 더 오래되었다(대도시 23년, 중소도시 21년, 농어촌 27년). 설립된 지 오래된 교회일수록 목회자 사례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규모를 보면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 교인 수가 '20명 미만'인 '초소형 교회'가 25.8%이며 그 수가 '50명 미만'인 교회는 모두 45.7%이다. 감리교회의 거의 절반이 작은 교회인

것이다. 교인 수가 '200여 명 이상'인 교회는 모두 28.6%에 불과하다. 전체 교인 수의 중간값은 65명이다. 교인 수는 서울남연회와 서울연회 교회들의 경우 가장 많고, 다음은 수도권에 있는 연회 소속 교회들이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회 소속 교회의 경우 교인 수가 가장 적다.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초소형 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중간값이 43만 원에 불과하지만 '초대형 교회'의 경우 그것은 458만 원이나 된다.

교회의 유초등부 학생 수의 중간값은 20명이다. 유초등부 학생이 '2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대도시 40명, 중소도시 29명, 농어촌 10명).

중고등부 학생 수의 중간값은 12명이다. 그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48.0%나 된다. 역시 지역에 따라 중고등부 학생 수는 차이가 있다(대도시 23명, 중소도시 12명, 농어촌 7명).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는 더 적어 중간값은 8명이다. 그 숫자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57.6%나 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다(대도시 21명, 중소도시 9명, 농어촌 5명). 이 결과는 교회학교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라 하겠다.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지난 해(2006년) 새로 등록한 교인(새 신자+이적 교인) 수는 중간값이 7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40.7%의 교회가 새 등록교인이 없거나 '5명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등록교인 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대도시 18명, 중소도시 9명, 농어촌 3명). 새 등록교인이 교회 규모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초소형 교회' 2명, '초대형 교회' 155명), 교인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교인 증감 상태를 보면 약 절반(51.1%)의 교회에서만 교인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정체(비슷, 30.7%) 혹은 감소(18.1%)되고 있다. 한국 교회 성장 둔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인이 증가하는 교회가, 농어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인이 감소하는 교회가 많다. 교회가 클수록 성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교회 규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그 주요 요인으로는 '활발한 전도활동',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화기애애한 교회 분위기'가 꼽히고 있다. 반대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의 경우는 주요 쇠퇴 요인으로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무관심' (특히 도시교회), '이농현상과 같은 교인들이 거주지 이동' (특히 농어촌 교회), '사람들이 세상일을 더 즐겁'이 지적되고 있다.

교회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 1년 예산(2006년)의 중간값은 8,360만 원이다. 1년 예산 '5,000만 원 미만'의 교회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 교회 예산은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중간값에서 대도시 약 2억 5천만 원, 중소도시 약 1억 원, 농어촌 약 4천만 원). 이런 차이는 연회에 따라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감리교 교회의 29%가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대도시 22.0%, 중소도시 23.0%, 농어촌 43.0%). 지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로 몇 교회로부터 받고 있으나 그 액수는 중간 값에서 모두 43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67.8%이며, 지원하는 교회 수는 중간값이 4.5개 교회이다. 국외 교회나 선교사 지원 숫자는 중간값이 2.6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41.7%의 교회가 돕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기관을 돕는 것은 대도시 지역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

이제부터는 목회와 관계된 감리교 목회자들의 실태와 의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려고 한다.

(1) 목회자의 목회 패러다임

〈표 3-1-1〉은 목회학에서 분류하는 목회 패러다임의 여러 형태 가운데 감리교 목회자들은 어떤 것에 가깝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1〉 목회자의 목회 패러다임

(단위: %)

목상의 전통(기도로 충만한 생활)	7.7
성결의 전통(마음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는 덕이 있는 생활)	16.9
카리스마의 전통(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은 생활)	14.8
사회정의의 전통(정의와 평화에 초점을 두는 생활)	3.2
복음전도의 전통(복음의 전통을 선포하는 생활)	28.4
성육신의 전통(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	28.9
계	99.9(N=532)

〈표 3-1-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 패러다임은 ‘성육신의 전통’(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28.9%)과 ‘복음전도의 전통’(복음의 전통을 선포하는 생활)(28.4%)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성결의 전통’(마음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는 덕이 있는 생활)(16.9%), ‘카리스마의 전통’(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은 생활)(14.8%), ‘목상의 전통’(기

도로 충만한 생활(7.7%) 순이다. ‘사회정의의 전통’ (정의와 평화에 초점을 두는 생활)에 대하여는 3.2%만이 선호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서는 목회 패러다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30대는 ‘성육신의 전통’ 을, 40대와 50대는 ‘복음전도의 전통’ 을, 그리고 60대는 ‘카리스마의 전통’ 을 본인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지정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목회 경력에 있어서는 그것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성육신의 전통’ 을, 그리고 그것이 긴 목회자일수록 ‘복음전도의 전통’ 을 자신의 목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비율이 높다.

(2) 목회의 역점사항

〈표 3-2-1〉은 목회자가 목회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복수 응답(세 가지)을 하거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1〉 목회의 역점사항

(단위: %)

교인 수의 증가	교인의 신앙성숙	교회재정의 충분한 확보	말씀의 선포	속회 등 소그룹 활성화	예배 프로그램 활성화	새 신자 관리	교회 건물 신축, 증축	교회교육 활성화
23.4	71.7	6.4	66.3	16.5	10.5	8.4	5.2	10.1
기도회 활성화	수양관, 기도원 건립	교인 상호간 친교	심방과 상담	성경공부 프로그램 활성화	구제, 봉사 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성화	기타	계
16.1	0.2	12.9	7.7	12.4	12.2	11.2	1.1	292.3(N=534)

〈표 3-2-1〉에서 알 수 있듯이 감리교 목회자가 목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주로 ‘교인의 신앙성숙’ (71.7%)과 ‘말씀의 선포’ (66.3%)이다. 다음으로는 그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교인 수의 증가’ (23.4%), ‘속회 등 소그룹 활성화’ (16.5%), ‘기도회의 활성화’ (16.1%), ‘교인들 상호간의 친교’ (12.9%),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활성화’ (12.4%), ‘교회의 구제 및 봉사사업 활성화’ (12.2%) 순이다. 그 다음은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성화’ (11.2%), ‘예배 프로그램의 활성화’ (10.5%), ‘교회교육의 활성화’ (10.1%), ‘새 신자 관리’ (8.4%), ‘심방과 상담’ (7.7%) 순이다. ‘교회 재정 확보’ (6.4%)나 ‘교회 건물의 신축 및 증축’ (5.2%), ‘수양관이나 기도원 건립’ (0.2%)을 지정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목회자는 ‘말씀의 선포’ 를, 농촌 지역 목회자는 ‘교인의 신앙성숙’ 을 목회의 역점사항으로 지정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목회자의 경력에 따라서는 그것이 짧은

은 목회자일수록 ‘교인의 신앙성숙’을, 그것이 긴 목회자일수록 ‘교인 수의 증가’를 목회 역점사항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는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말씀의 선포’를,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교인의 신앙성숙’을 중요하게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교회의 당면문제

〈표 3-3-1〉에는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가 나와 있다.

〈표 3-3-1〉 교회의 당면문제

(단위: %)

교회가 성장하지 않음	25.0
교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	8.9
교인의 영적 신앙이 향상되지 않음	24.7
교인들의 교회활동 참여가 소극적	11.7
교인들이 목회자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음	3.7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음	4.1
교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5.2
기타	6.2
고민 없음	10.5
계	100.0(N=515)

〈표 3-3-1〉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무엇보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25.0%)는 것과 “교인의 영적 신앙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24.7%)는 것이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교인이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회자들은 가장 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교인들의 교회활동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것(11.7%), “교회 예산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는 것”(8.9%)도 고민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교회 분위기의 침체’(5.2%), ‘교회 안의 갈등이나 분쟁’(4.1%) 등이 문제라는 비율은 낮다. 한편 ‘기타’(6.2%)라고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이동(주로 이농현상)으로 인해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예를 들면 일꾼 부족이나 고령

화), 이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거나 비전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고민이 없다”는 응답도 1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나이가 많은 목회자일수록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교회 목회자는 ‘교회 성장’ 문제를,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교인의 영적 신앙’ 문제를 염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 규모에 있어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는 ‘교회 성장’ 문제를, 큰 교회 목회자는 ‘교인의 영적 신앙’ 문제를 고민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교회 성장’ 문제를 염려하는 응답 비율은 교인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우 각각 59.3%와 40.9%이지만, 그 비율이 교인이 ‘약간 증가하는’ 경우와 ‘많이 증가하는’ 경우는 각각 14.9%와 0.0%이다. “고민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일수록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교회 성장 여부가 목회자의 고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교인에 대한 평가 척도

〈표 3-4-1〉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1〉 교인 평가 척도

(단위: %)

예배 출석률	교회모임 참여도	전도 열정	집회 참석도	교회 봉사	개인적 경건생활	사회생활 성실성	헌금	사회적 지위	도덕적 생활	기타	계
86.7	24.1	38.9	8.3	30.6	36.8	32.9	16.7	0.6	11.5	3.2	290.3(N=532)

〈표 3-4-1〉에 따르면 목회자가 교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배 참석률’ (86.7%) 이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도에 대한 열정’ (38.9%), ‘기도나 성경통독 같은 개인적인 경건생활’ (36.8%)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목회자는 교인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성실성’ (32.9%),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30.6%), ‘헌금의 액수 혹은 헌금을 내는 태도’ (16.7%), ‘도덕적으로 절제된 생활’ (11.5%)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집회 참석도’ (8.3%)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0.6%)은 덜 중요한 평가 척도로 생각되고 있다. 역시 목회자의 교인에 대한 기대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인의 신앙적 성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목회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긴 목회자는 교인 평가 척도에서 ‘교회 모임 참여도’,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개인적인 경건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성실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 교회 목회자는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실성’을 교인에 대한 평가 척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는 큰 교회 목회자는 ‘교회모임 참여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작은 교회 목회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개인적인 경건성’을 교인에 대한 중요한 평가 척도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교인에 대한 신앙훈련

〈표 3-5-1〉에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가 나와 있다.

〈표 3-5-1〉 교인 신앙훈련 강조점

(단위: %)

영적능력 향상	예배 등 적극적 참여	적극적 전도활동	교회 일에 적극 봉사	도덕적 인격 형성	사회적 모범	기타	계
36.8	38.9	3.8	1.9	8.8	7.0	2.9	100.1(N=525)

〈표 3-5-1〉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가 교인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 등에서의 적극적 참여’(38.9%)와 ‘영적 능력 향상’(36.8%)이다. 이것은 〈표 3-4-1〉의 결과에 상응하는 것으로 목회자는 교인이 무엇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개인적 신앙성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는 지적된 비율이 훨씬 낮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8.8%),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7.0%)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목회자의 일차적 관심은 교인이 훌륭한 사회인이기에 앞서 훌륭한 신앙인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인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 ‘영적 능력 향상’을 가장 강조하는 비율은 연급이 높은, 목회 경력이 많은, 그리고 도시 교회 목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대로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그리고 농촌 교회 목회자에게서는 ‘예배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 일주일의 시간 활용

〈표 3-6-1〉은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묻는 물음(세 가지 복수응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6-1〉 일주일의 시간 활용

(단위: %)

설교 준비	성경 연구	기도와 명상	행정과 사무	심방	애경사 참여, 의례집례	교단, 연회, 지방회 일	상담	목회자 만남, 비공식 회의	기타	계
81.5	47.7	52.9	25.6	33.6	8.2	6.9	6.5	9.7	10.3	282.9(N=535)

〈표 3-6-1〉에 따르면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81.5%), 다음은 ‘기도와 명상’ (52.9%), ‘성경 연구’ (47.7%) 순이다. 목회자들은 역시 가장 중요하고 본래적인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심방’ (33.6%)과 ‘행정과 사무’ (25.6%)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밖의 일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경력이 긴 목회자는 ‘설교 준비’와 ‘심방’에,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기도와 명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력이 길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교인 수가 많아 설교 준비나 심방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대신 그만큼 ‘기도와 명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7) 설교의 주제

〈표 3-7-1〉은 감리교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7-1〉 목회자의 설교 주제

(단위: %)

죄의 용서	치유와 축복	성령 체험	내세의 소망	구원의 확증	하나님 믿음	신앙 생활	교회 봉사	가정의 평화	이웃 사랑	사회적 책임	민족, 인류문제	기타	계
8.1	13.5	7.3	2.6	18.4	15.2	25.5	0.4	1.3	3.4	1.5	0.0	2.8	100.0(N=533)

〈표 3-7-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주제는 ‘신앙생활’ (25.5%)이며, 다음은 ‘구원의 확증’ (18.4%), ‘하나님 믿음’ (15.2%), ‘치유와 축복’ (13.5%), ‘죄의 용서’ (8.1%), ‘성령체험’ (7.3%) 등 대부분 개인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이웃 사랑’ (3.4%), ‘사회적 책임’ (1.5%), ‘가정의 평화’ (1.3%), ‘민족문제와 인류문제’ (0.0%)와 같은 사회구원적 주제의 설교를 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타’에는 ‘하나님 나라’나 ‘복음 전도’라는 응답이 여럿 있었다.

(8)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

① 교회 사업의 활성화

〈표 3-8-1〉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

(단위: %)

사 업	매우 잘 이루어짐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짐	그저 그렇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계
예배 순서 및 진행	27.0	62.7	7.9	1.5	0.9	100.0(N=533)
성경공부	8.6	41.9	29.3	15.8	4.3	99.9(N=532)
교회학교 교육	8.0	39.3	32.9	15.0	4.9	100.1(N=535)
기도회	10.9	43.4	29.5	12.8	3.4	100.0(N=532)
속회조직과 활동	8.4	39.5	31.1	13.9	7.1	100.0(N=534)
남녀선교회 활동	5.1	30.6	33.8	16.3	14.2	100.0(N=527)
각부 조직과 활동	4.2	26.3	32.5	22.9	14.2	100.1(N=529)
국내외 선교	8.7	29.3	25.3	16.0	20.7	100.0(N=526)
전도	7.6	29.9	34.7	20.5	7.3	100.1(N=536)
사회봉사 활동	5.3	32.7	29.7	22.6	9.8	100.0(N=532)
신앙 및 생활상담	5.5	42.0	37.8	11.3	3.4	100.0(N=529)
성도 간 사귄	11.4	52.8	28.7	5.8	1.3	100.0(N=534)

〈표 3-8-1〉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여러 사업이나 일들은 전반적으로 썩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예배 순서 및 진행’ 만 27.0%이고, ‘성도 간 사귄’ (11.4%)과 ‘기도회’ (10.9%)만이 10%를 넘고 있을 뿐이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을 합쳐도 50%가 넘는 것은 ‘예배 순서 및 진행’ (89.7%), ‘성도 간의 사귄’ (64.2%), ‘기도회’ (54.3%), ‘성경공부’ (50.5%)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예배 순서 및 진행’이며, 다음은 ‘성도 간 사귄’, ‘기도회’, ‘성경공부’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속회 조직과 활동’ (‘매우’ +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짐, 47.9%), ‘신앙 및 생활상담’ (47.5%), ‘교회학교의 교육’ (47.3%) 순이다. 그 밖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매우+어느 정도)는 응답 비율은 “국내외 선교”와 ‘사회봉사활동’ (각 38.0%), ‘전도’ (37.5%), ‘남녀선교회 활동’ (35.7%), 그리고 ‘각부 조직과 활동’ (30.5%)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교회 규모와 교회 사업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이나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인지, 그리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는 그것이 얼마나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 3-8-2〉 교회 규모와 교회 사업의 활성화

(단위: %)

교회 사업 \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예배 순서 및 진행	82.5	89.6	87.9	91.9	96.8	94.8	95.3
성경공부	41.1	37.1	57.3	42.0	57.6	89.8	80.0
교회학교 교육	31.6	37.1	42.1	48.4	60.2	82.0	90.5
기도회	43.7	46.7	50.7	52.4	62.6	87.2	76.2
속회 조직과 활동	21.6	53.3	48.0	53.3	55.9	74.3	81.0
남녀선교회 활동	10.6	25.8	36.0	46.7	58.1	66.6	52.4
각부 조직과 활동	8.8	20.6	28.0	36.0	46.3	69.2	61.9
국내외 선교	13.4	28.0	38.7	42.6	54.8	82.0	61.9
전도	28.0	28.1	26.7	33.8	52.7	66.7	80.9
사회봉사활동	27.2	26.9	34.7	32.8	48.4	76.9	76.1
신앙 및 생활상담	48.1	45.2	42.6	40.9	49.5	62.2	52.4
성도 간 사귄	65.7	63.5	66.3	56.4	64.1	68.4	61.9

* 백분율은 “매우 잘 +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

〈표 3-8-2〉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 사업이나 일이 큰 교회일수록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에 있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분명하고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영역은 ‘교회학교 교육’, ‘속회 조직과 활동’, ‘남녀선교회 활동’, ‘각부 조직과 활동’, ‘국내외 선교’, ‘전도’, ‘사회봉사활동’ 등이다. 그 밖에 ‘성경공부’, ‘기도회’도 교회 규모에 따라 활성화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교회학교 교육이나 조직 및 선교회 활동 등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규모에 따라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성경공부, 기도회, 전도, 사회봉사활동과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활발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역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활성화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작은 교회일수록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교회 규모에 따라 활성화 정도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영역은 ‘예배 순서 및 진행’이다. 한편 ‘신앙 및 생활상담’과 ‘성도 간 사귄’의 영역에서는 교회 규모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이 ‘초대형 교회’ 보다는 오히려 ‘대형 교회’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경공부’, ‘기도회’, ‘남녀선교회 활동’, ‘각부 조직과 활동’, ‘국내외 선교’, ‘신앙 및 생활상담’, 그리고 ‘성도 간 사귄’ 등 7개 영역에서 ‘초대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교회학교 교육’, ‘속회 조직과 활동’, ‘전도’ 등 3개 영역에서만 ‘대형 교회’보다 ‘초대형 교회’에서 그 일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 사업이나 일은 큰 교회일수록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교회 규모는 ‘초대형 교회’(주일 낮예배 출석 성인 1,000명 이상)보다 오히려 ‘대형 교회’(500~999명)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지역과 교회 사업의 활성화

〈표 3-8-3〉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교회 사업 활성화 정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8-3〉 지역과 교회 사업의 활성화

(단위: %)

교회 사업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예배 순서 및 진행	90.3	91.3	87.3
성경공부	62.3	54.9	34.9
교회학교 교육	55.3	48.4	37.0

기도회	61.9	58.0	41.9
속회 조직과 활동	42.7	48.4	51.1
남녀선교회 활동	40.0	39.0	28.8
각부 조직과 활동	39.5	28.4	22.4
국내외 선교	47.3	38.2	26.8
전도	46.4	40.2	24.7
사회봉사활동	40.9	39.2	33.7
신앙 및 생활상담	49.6	49.5	41.9
성도 간 사귄	68.4	62.0	61.5

* 백분율은 “매우” +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

〈표 3-8-3〉에 나타난 대로 12가지 교회의 사업이나 일 가운데서 농어촌 교회가 도시 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은 ‘속회 조직과 활동’ 뿐이다. 그리고 ‘예배 순서 및 진행’ 영역은 별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10개 영역에서는 농어촌 교회보다 도시 교회에서 그 사업이나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사이에 그 활성화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사업이나 일은 ‘성경공부’, ‘교회학교 교육’, ‘기도회’, ‘각부 조직과 활동’, ‘국내외 선교’, ‘전도’ 등이다.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크지 않은 것은 ‘남녀선교회 활동’, ‘사회봉사활동’, ‘신앙 및 생활상담’, ‘성도 간 사귄’ 등이다. 교회의 사업이나 일의 활성화 정도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대도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은 ‘성경공부’, ‘교회학교 교육’, ‘각부 조직과 활동’, ‘국내외 선교’ 등이다.

④ 교회 성쇠와 교회 사업의 활성화

〈표 3-8-4〉에는 교회의 성쇠와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8-4〉 교회 성쇠와 교회 사업의 활성화

(단위: %)

교회 사업 \ 성쇠	쇠퇴	정체	성장*
예배 순서 및 진행	81.9	90.1	92.5
성경공부	39.8	41.0	59.6
교회학교 교육	30.4	37.4	59.3

기도회	38.5	42.0	66.8
속회 조직과 활동	31.9	42.0	57.3
남녀선교회 활동	23.3	26.5	45.5
각부 조직과 활동	14.1	25.9	38.6
국내외 선교	24.4	28.6	48.1
전도	17.0	23.2	52.4
사회봉사활동	19.4	32.1	47.9
신앙 및 생활상담	31.5	38.1	58.5
성도 간 사귄	53.8	60.4	69.8

* 여기서 성장이라 함은 교인 수가 '많이' 혹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경우를, 그리고 정체는 '비슷함'의 경우를, 그리고 쇠퇴는 교인 수가 '많이' 혹은 '어느 정도' 감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백분율은 “매우 +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비율

〈표 3-8-4〉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모든 사업이나 일은 교인 수가 증가하는, 즉 성장하는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되는, 즉 쇠퇴하는 교회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에서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전도’ 영역이다. 즉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이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52.4%인데 비하여 쇠퇴하는 교회의 경우 17.0%에 불과해 그 차이는 35.4% 포인트(point)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즉 사업이나 일에 있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가 큰 다른 영역은 ‘교회학교의 교육’ (차이 28.9%p), ‘사회봉사활동’ (28.5%p), ‘기도회’ (28.3%p), ‘신앙 및 생활상담’ (27.0%p), ‘속회 조직과 활동’ (25.4%p), ‘각부 조직과 활동’ (24.5%p), ‘국내외 선교’ (23.7%p), ‘남녀선교회 활동’ (22.2%p) 등이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사이에 사업의 활성화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은 영역은 ‘예배 순서 및 진행’ (차이 10.6%p), ‘성도 간의 사귄’ (16.0%p), ‘성경공부’ (19.8%p)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교회의 사업이나 일에 있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교회가 ‘정체’ 되고 있는 경우는 ‘성장’ 하는 교회보다 ‘쇠퇴’ 하는 교회의 경우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즉 정체된 교회의 사업은 쇠퇴하는 교회와 비슷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성쇠와 교회 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전도가 잘 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인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니까 사회봉사도 잘 되는 것인가? 양자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도를 잘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은 다시 전도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사회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일종의 선순환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뿐 아니라 사회봉사, 기도회, 교회교육, 조직 활동, 선교 등을 모두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전도뿐 아니라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9)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가

①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감리교 목회자는 교단, 연회, 지방회 혹은 신학대학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 등에 얼마나 자주 참가하고 있을까? 그 결과가 <표 3-8-1>에 나와 있다.

<표 3-9-1>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단위: %)

자주 참여	가끔 참여	별로 참여 못함	전혀 참여 못함	계
12.2	42.1	33.3	12.4	100.0(N=523)

<표 3-9-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들은 연장교육 프로그램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 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다. ‘가끔 참여’는 42.1%, ‘별로 참여 못함’이 33.3%이며, ‘전혀 참여 못함’도 12.4%나 되고 있다. 연장교육 프로그램이 목회자의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②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인적사항

<표 3-9-2>에는 인적사항에 따라 연장교육 참여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시되고 있다.

〈표 3-9-2〉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43.4		51.6		55.3		71.0			
연급	정 21년급 이상		정 11-20년급		정 1-10년급		준회원			
	63.6		58.5		45.1		53.7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54.2		44.8		45.2		60.7		68.7	

* 백분율은 ‘자주 참여’와 ‘가끔 참여’ 응답 비율을 합친 것임.

〈표 3-9-2〉에 따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나이에 따라서는 그것이 많아질수록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와 ‘가끔 참여’하는 경우를 합친 응답 비율이 30대는 43.4%로 낮지만, 40대는 51.6%, 50대가 55.3%로 높아지고, 60대는 71.0%로 크게 증가한다. 이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받은 지가 오래되어 다시 그 기회를 갖기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한편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일수록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급에 따라서는 그것이 긴 목회자가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있지만(‘정 21년급 이상’ 63.6%, ‘정 11-20년급’ 58.5%), ‘정 1-10년급 목회자’(45.1%)는 오히려 ‘준회원’(53.7%)보다도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다. 목회 경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연장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지만, ‘5-19년’ 경력의 목회자는 그 참여도가 가장 낮다. ‘4년 이하’의 목회 경력자가 오히려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 밖에 농촌 지역 목회자보다는 도시 지역 목회자가,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는 중형 이상 교회의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10) 연장교육 프로그램 불참 이유

감리교 목회자가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3-10-1〉은 목회자가 만일 연장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에 별로 혹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0-1〉 연장교육 불참 이유

(단위: %)

시간이 없음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음	경제적 여유가 없음	목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관심이 없음	기타	계
14.0	24.6	22.7	25.5	10.9	2.2	100.0(N=357)

〈표 3-10-1〉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가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목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5.5%)와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4.6%)이다. 절반(50.1%)의 응답자가 연장교육 불참의 이유를 프로그램 자체로 돌리고 있다. 과연 목회에 도움이 되거나 괜찮은 연장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있지만 불참의 핑계를 프로그램 탓으로 돌리는 것일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22.7%).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한편 “시간이 없어서”(14.0%), “관심이 없어서”(10.9%)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도 있다.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 큰 교회 목회자는 주로 “시간이 없어서” 혹은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에 비해, 작은 교회 목회자 가운데는 그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하는 비율이 높다.

(11) 참가 희망 세미나

〈표 3-11-1〉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면 어떤 주제의 세미나에 가장 참가하고 싶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가 나와 있다.

〈표 3-11-1〉 참가희망 세미나 주제

(단위: %)

교회 성장	목회 개발	성서연구	목회상담	교회갱신	리더십	가정생활	신학	기타	계
14.7	27.7	28.3	5.3	7.7	9.6	3.0	1.3	2.3	99.9(N=530)

〈표 3-11-1〉에 따르면 목회자가 참가를 가장 희망하는 세미나 주제는 성서연구(28.3%)와 목회 개발(27.7%)이다. 다음은 교회 성장(14.7%), 리더십(9.6%), 교회 갱신(7.7%), 목회상담(5.3%), 가정생활(3.0%), 신학(1.3%) 세미나 순이다. ‘기타’(2.3%)에는 ‘영성 세미나’라고 기록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목회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이에 따라서는 30, 40대는 ‘성서연구’ 세미나를, 50, 60대는 ‘목회 개발’ 세미나를 더 선호하고 있다. 연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목회자는 ‘목회 개발’ 세미나를, 연급이 낮고 경력이 적은 목회자는 ‘성서연구’ 세미나를 더 원하고 있다. 대도시 목회자는 ‘목회 개발’, 중소도시와 농어촌 목회자는 ‘성서연구’ 주제의 세미나를 더 희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교인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교회 목회자, ‘초대형 교회’ 목회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사실이다.

(12) 정기간행물 독서

① 목회자의 정기간행물 독서

〈표 3-12-1〉은 목회자가 교회 혹은 기독교와 관계된 정기간행물(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2-1〉 목회자의 정기간행물 독서

(단위: %)

많이 읽음	많이 읽는 편	보통	별로 읽지 못함	거의 읽지 못함	계
5.2	22.6	48.6	17.2	6.4	100.0(N=535)

〈표 3-12-1〉에서 알 수 있듯이 감리교 목회자는 교회 혹은 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을 별로 읽지 않고 있다. 그것을 ‘많이 읽는’ 목회자는 5.2%에 불과하고, ‘많이 읽는 편’이 22.6%이다. ‘보통’은 48.6%이고, ‘별로 읽지 못함’과 ‘거의 읽지 못함’이 각각 17.2%와 6.4%나 되고 있다.

② 정기간행물 독서와 인적사항

〈표 3-12-2〉에는 목회자 가운데 누가 정기간행물을 더 많이 읽는지 나와 있다.

〈표 3-12-2〉 정기간행물 독서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15.3	31.4	30.6	32.3

연급	정 21년 이상	정 11~20년		정 1~10년	준회원
	37.3	32.5		21.0	13.6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16.0	21.1	25.5	33.5	35.7

* 백분율은 “많이 읽음”과 “많이 읽는 편”을 합친 비율임

〈표 3-12-2〉는 목회자 가운데 누가 교회(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거나 적게 읽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나이에 따라서는 30대 목회자가 다른 연령층보다 정기간행물을 훨씬 적게 읽고 있다. 그것을 “많이 읽는”(‘많이 읽는 편’ 포함) 비율이 40대, 50대, 60대는 비슷하게 각각 31.4%, 30.6%, 32.3%인 데 비하여 30대는 15.3%에 불과하다.

연급과 경력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연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교회(기독교)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연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그것을 “많이 읽는” 비율이 낮다.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는” 비율이 ‘정회원 21년급 이상’ 목회자의 경우 37.3%이지만, ‘준회원’의 경우는 13.6%에 불과하다. 그 비율은 ‘정회원 11-20년급’이 32.5%, ‘정회원 1-10년급’은 21.0%이다. 목회 경력에서도 ‘30년 이상’인 목회자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는” 비율이 35.7%로 가장 높은 반면에, ‘4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목회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16.0%에 머물고 있다. 그 비율은 목회 경력이 ‘5-9년’인 경우 21.1%, ‘10-19년’의 경우가 25.5%, ‘20-29년’의 경우는 33.5%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경력이 긴 목회자들이 오히려 교회(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상대적으로 젊고 연급이 낮으며 경력이 짧은 목회자들은 정기간행물을 안 읽는 것일까? 게을러서인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정기간행물이 없어서인가?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이유가 아닌가 한다.

③ 정기간행물 독서와 교회 현실

〈표 3-12-3〉은 정기간행물 독서와 교회 현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2-3〉 정기간행물 독서와 교회 현실

(단위: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2.6	31.0	19.2

교회 성쇠	쇠퇴		정체			성장	
	20.2		21.0			35.3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13.2	22.7	29.7	33.3	38.1	47.5	40.0

* 백분율은 “많이 읽음”과 “많이 읽는 편”을 합친 비율임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 목회자가 농어촌 지역 목회자보다 교회(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많이 읽는다”(‘많이 읽는 편’ 포함)는 비율이 대도시 목회자가 32.6%, 중소도시 목회자는 31.0%이지만, 농어촌 목회자는 19.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은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많이 읽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많이 읽는다”(‘많이 읽는 편’ 포함)는 응답 비율은 성장하는 교회(교인 수가 ‘많이’ 또는 ‘약간’ 증가하는 교회) 목회자의 경우 35.3%이지만, 그 비율은 정체된 교회의 목회자의 경우 21.0%,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교인 수가 ‘많이’ 또는 ‘약간’ 감소하는 교회) 목회자의 경우는 20.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기독교) 관련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는 것이 교회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회(기독교)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가 되는 정기간행물을 잘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큰 교회 목회자가 정기간행물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많이 읽는다”(‘많이 읽는 편’ 포함)는 응답 비율이 ‘초대형 교회’ 목회자는 40.0%, ‘대형 교회’ 목회자가 47.5%, 그리고 ‘중대형 교회’ 목회자는 38.1%로 높다. 그 비율은 ‘중형 교회’ 목회자가 33.3%, ‘중소형 교회’ 목회자는 29.7%, 그리고 ‘소형 교회’ 목회자는 22.7%로 계속 낮아지다가 ‘초소형 교회’ 목회자의 경우는 13.2%에 머물고 있다.

(13) 신앙(신학)서적 독서

감리교 목회자들은 신앙 혹은 신학서적들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알아본다.

① 목회자의 신앙(신학)서적 독서

〈표 3-13-1〉은 목회자가 성경주석 혹은 성경강해와 관련된 책 이외에 신앙 혹은 신학서적을 지난 한 해 동안 몇 권 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3-1〉 목회자의 신앙(신학)서적 독서

(단위: %)

한 권도 읽지 못함	1-2권	3-5권	6-9권	10-19권	20권 이상	계
2.8	11.6	21.9	23.9	20.9	18.9	100.0(N=535)

〈표 3-13-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신앙(신학)서적을 “한 권도 읽지 못했다”는 응답은 2.8%, “1-2권 읽었다”는 응답이 11.6%, ‘3-5권’ 읽은 비율은 21.9%로서 모두 36.9%의 목회자가 연 5권 이하의 신앙(신학)서적을 읽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년 동안 ‘6-9권’을 읽은 비율은 23.9%, ‘10-19권’을 읽은 비율이 20.9%이며, ‘20권 이상’ 읽은 경우는 18.9%이다. 결국 목회자의 60% 이상이 신앙(신학)서적을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기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노력의 하나가 독서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목회자들이 1년간 읽는 독서량의 중간값은 연 7.7권에 불과하다.

② 목회자의 독서와 인적사항

어떤 목회자들이 신앙(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있는가? 〈표 3-13-2〉가 이것을 보여준다. 신앙(신학)서적을 읽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3-2〉 목회자의 독서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40.9		42.4		50.8		18.8			
연급	정 21년급 이상		정 11-20년급		정 1-10년급		준회원			
	34.6		37.3		46.8		30.2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34.6		43.3		40.3		44.1		28.9	

* 백분율은 ‘연 10권 이상’ 책을 읽는 목회자 비율

〈표 3-13-2〉에 따르면 신앙(신학)서적을 가장 ‘많이’(연 10권 이상) 읽는 것은 50대 목회자(50.8%)이며, 다음은 40대(42.4%)와 30대(40.9%)가 비슷하다. 그러나 60대 목회자에게는 그 비

율이 18.8%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고령 목회자에게는 그만큼 책 읽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연 독서량의 중간값은 30대와 40대 목회자가 8.1권, 50대가 10.3권, 그리고 60대 목회자는 4.4권이다.

연급에 따라서는 ‘정 1-10년급’ 목회자가 신앙(신학)서적을 가장 많이 읽는 반면에 준회원 목회자가 가장 적게 읽는다. 그리하여 책을 ‘많이’ 읽는 비율이 ‘정 21년급 이상’ 목회자는 34.6%, ‘정 11-20년급’ 이 37.3%, ‘정 1-10년급’ 은 46.8%, 그리고 ‘준회원’ 이 30.2%로 나타나고 있다.

경력별로 보면 목회 경력 ‘5-29년’ 사이의 목회자가 독서를 ‘많이’ 하는 반면에, ‘4년 이하’와 ‘30년 이상’ 경력자는 상대적으로 독서를 적게 한다. 책을 “많이 읽는” 비율은 목회 경력 ‘4년 이하’ 34.6%, ‘5-9년’ 43.3%, ‘10-19년’ 40.3%, ‘20-29년’ 44.1%, 그리고 ‘30년 이상’의 목회자의 경우는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③ 목회자의 독서와 교회 현실

〈표 3-13-3〉은 목회자의 독서와 교인 현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3-3〉 목회자의 독서와 교인 현실

(단위: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42.9	43.5	32.2
교회 성쇠	쇠퇴	정체	성장
	34.0	32.9	46.3

* 백분율은 연 10권 이상 책을 읽는 목회자 비율

〈표 3-13-3〉에 나와 있듯이 목회자 가운데 신앙(신학)서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농어촌 목회자보다 도시 목회자이다. 그리하여 책을 ‘많이’ (연10권 이상) 읽는 비율이 대도시 목회자(42.9%)와 중소도시 목회자(43.5%)의 경우 농어촌 목회자(32.2%)보다 높다. 독서량의 중간값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목회자가 각각 8.2권인 데 비해, 농어촌 목회자는 4.9권이다. 농어촌 목회자는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목회자의 독서량은 교회 성쇠와도 약간 관계가 있다. 신앙(신학)서적을 ‘많이’ 읽는 목회자 비율은 ‘쇠퇴하는 교회’ (34.0%)와 ‘정체된 교회’ (32.9%)의 경우보다 ‘성장하는 교회’ (46.3%)의 경우 더 높다. 결국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독서를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없지만, 다만 ‘대형 교회’ 목회자의 독서량이 가장 많지만, ‘초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목회자의 독서량은 적다는 것이 특이한 결과다.

(14) 목회의 만족도

여기서는 감리교 목회자들은 현재의 목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① 목회자의 목회 불만 정도

〈표 3-14-1〉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4-1〉 목회자의 목회 불만 정도

(단위: %)

많음	약간 있음	그저 그렇다	별로 없음	전혀 없음	계
6.6	27.7	13.5	36.9	15.3	100.0(N=517)

〈표 3-14-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5.3%, “별로 없다”는 응답이 36.9%로 절반 이상(52.2%)이 현재의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없음’(전혀+별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13.5%이다. 그러나 한편 지금의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응답이 6.6%, “약간 있다”는 응답이 27.7%로서 전체 목회자의 1/3 이상(34.3%)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다시 알아보기로 한다.

② 목회 불만 정도와 인적사항

〈표 3-14-2〉는 목회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목회에 대한 불만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4-2〉 목회 불만 정도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37.3		38.5		33.4		22.9			
연급	정 21년급 이상			정 11-20년급		정 1-10년급		준회원		
	25.5			34.9		38.2		33.4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29.2		37.9		41.2		30.8		24.4	

* 백분율은 불만이 “많이 있다”는 응답과 “약간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합친 것이다.

〈표 3-14-2〉에 있는 것처럼 목회에 있어서의 불만 정도는 인적사항과 다소 관계가 있다. 우선 나이를 보면 목회에 대한 불만은 60대가 가장 적으며(22.9%), 30대(37.3%)와 40대(38.5%)에게서 높다. 50대도 높은 편(33.4%)이다.

연급에 따라서는 ‘정회원 21년급 이상’의 목회자 불만도가 가장 낮고(25.5%), ‘정 1-10년급’ 목회자의 불만도가 가장 높다(38.2%). ‘정 11-20년급’(34.9%)과 ‘준회원’(33.4%) 목회자의 불만도 역시 높은 편이다.

경력에 있어서는 ‘10-19년’ 경력의 목회자(41.2%)와 ‘5-9년’ 경력의 목회자(37.9%) 경우에 불만도가 높고, 그것이 ‘30년 이상’인 목회자에게 불만도는 가장 낮다(24.4%). 그리고 그 중간에 ‘20-29년’(30.8%)과 ‘4년 이하’(29.2%) 경력의 목회자가 있다.

③ 목회 불만 정도와 교회 현실

〈표 3-14-3〉에는 목회자의 목회 불만의 정도와 교인 현실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표 3-14-3〉 목회 불만 정도와 교인 현실

(단위: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7.8	27.8	36.3
교회 성쇠	쇠퇴	정체	성장
	49.5	35.3	26.6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36.6	41.0	38.9	25.4	30.7	27.8	20.0

* 백분율은 불만이 “많이 있다”는 응답과 “약간 있다”는 응답 비율을 합친 것이다.

〈표 3-14-3〉에 따르면 지역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목회자의 목회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27.8%), 대도시 목회자(37.8%)와 농어촌 목회자(36.3%)의 불만 비율은 비슷하게 높다.

교회 성쇠는 목회 불만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 목회자의 목회 불만 비율은 49.5%인 데 비하여,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 목회자의 불만 비율은 26.6%로 크게 차이가 있다. 교인 수에 있어 정제되고 있는 교회 목회자의 불만 비율은 중간 수준(35.3%)이다.

교회 규모 역시 목회 불만의 정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일반적 경향을 보면 큰 교회 목회자의 목회 불만도가 낮은 반면에(초대형 20.0%, 대형 27.8%, 중대형 30.7%), 작은 교회 목회자의 목회 불만도는 높다(초소형 36.6%, 소형 41.0%, 중소형 38.9%).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의 성쇠 여부가 목회에서의 만족 혹은 불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교회의 규모 역시 목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5) 목회 불만 이유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3-15-1〉에 나와 있다.

〈표 3-15-1〉 목회 불만 이유

(단위: %)

교회가 성장 안 됨	교인 신앙이 자라지 않음	경제적으로 어려움	희망이 없음	교인과 호흡이 안 맞음	자신의 발전 없음	기타	계
32.2	25.9	11.9	7.8	6.7	11.9	3.7	100.1(N=270)

〈표 3-15-1〉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목회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32.2%). 앞의 〈표 3-14-3〉에서도 보았듯이 목회자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교회의 성장 여부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목회 불만의 이유에서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25.9%)는 것이다. 결국 목회자의 불만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내적으로는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발전이 없음”을 불만의 이유로 지적한 비율은 각각 11.9%이며, 다음은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음”(7.8%), “교인들과 호흡이 맞지 않음”(6.7%)의 순이다.

목회에서 ‘불만’ 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들도 그 이유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목회 경력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목회 불만 이유로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특히 대도시) 목회자는 목회 불만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농어촌 목회자의 경우는 목회 불만의 이유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자신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교회가 쇠퇴하는 경우 그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목회 불만의 주요 이유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 그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불만 이유는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작은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목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불만 요인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큰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가장 중요한 목회 불만 요인은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목회지에 대한 생각

감리교 목회자들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회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목회지에 대한 생각

〈표 3-16-1〉은 목회자가 지금의 사역지에서 얼마나 있고 싶은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6-1〉 목회지에 대한 생각

(단위: %)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있고 싶다	어느 정도 오래 있고 싶다	가능하면 옮기고 싶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계
43.7	30.8	22.6	2.9	100.0(N=522)

〈표 3-16-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지금의 사역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 “어느 정도 오래 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로 약 ¾(74.5%)의 목회자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은 2.9%, “가능하면 옮기고 싶다”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다.

목회지에 대한 생각은 인적사항 및 교인 현실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② 목회지에 대한 생각과 인적사항

〈표 3-16-2〉는 목회자의 현재 목회지에 대한 생각이 인적사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6-2〉 목회지에 대한 생각과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66.0		69.0		79.7		89.1			
연급	정 21년 이상		정 11-20년		정 1-10년		준회원			
	85.7		78.1		66.1		69.0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66.0		65.1		72.1		78.6		88.8	

* 백분율은 “오래 있다 싶다”(‘할 수 있는 대로’ + ‘어느 정도’)로 응답한 비율이다.

〈표 3-16-2〉에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 가운데 현재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다”(‘할 수 있는 대로’ + ‘어느 정도’)는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30대 66.0%, 40대 69.0%, 50대 79.7%, 60대 89.1%). 이것은 나이가 많은 목회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목회에 대한 다른 욕심(예를 들면 “더 조건이 좋은 교회로의 이동” 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급이나 경력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연급이 높은 목회자의 경우 현재의 목회지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응답 비율이 높다(‘정 21년급 이상’ 85.7%, ‘정 11-20년급’ 78.1%, ‘정 1-10년급’ 66.1%, ‘준회원’ 69.0%). 다만 그 비율은 ‘정 1-10년급’ 목회자의 경우 가장 낮아, 이 연급의 목회자 가운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에서도 그것이 오래될수록 현재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비율은 목회 경력 ‘30년 이상’ 목회자의 경우 88.8%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29년’ (78.6%), ‘10-19년’ (72.1%) 순이다. 그러나 목회 경력이 짧은 ‘4년 이하’ (66.0%)와 ‘5-9년’ (65.1%)의 목회자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이와 같이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일수록 현재의 목회지에 머물고 싶어 하는 반면에,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목회지에 대한 생각과 교인 현실

〈표 3-16-3〉은 교회의 현실이 목회지에 대한 생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6-3〉 목회지에 대한 생각과 교인 현실

(단위: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80.4		77.9			64.2	
교회 성쇠	쇠퇴		정체			성장	
	55.4		69.8			85.2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63.4	68.0	72.0	86.5	84.5	86.5	90.5

* 백분율은 “오래 있고 싶다”(‘할 수 있는 대로’ + ‘어느 정도’)고 응답한 비율이다.

〈표 3-16-3〉에 나타난 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도시(대도시 80.4%, 중소도시 77.9%)보다는 농어촌(64.2%) 지역의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 아마도 농어촌 지역의 낙후 및 그 지역 교회의 침체가 농어촌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목회지에 대한 생각에는 교인 수의 증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현재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 가운데는 85.2%나 되지만, 그 비율이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가운데는 55.4%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정체되는 교회 목회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중간 수준인 69.8%이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보면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현재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반대로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초소형 교회’ 63.4%, ‘소형 교회’ 68.0%, ‘중소형 교회’ 72.0%, ‘중형 교회’ 86.5%, ‘중대형 교회’ 84.5%, ‘대형 교회’ 86.5%, ‘초대형 교회’ 90.5%).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게 만드는 요인으로 교회의 지역적 위치, 교회의 성장 정도, 교회의 규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목회자로서의 삶의 만족도

감리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목회자 삶의 만족도

〈표 3-17-1〉은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7-1〉 목회자 삶의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불만	매우 불만	계
41.6	45.7	8.9	3.2	0.6	100.0(N=529)

〈표 3-17-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즉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41.6%,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45.7%로서 87.3%가 목회자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8.9%이며, ‘불만’이라는 응답이 3.8%(‘어느 정도’ 3.2%, ‘매우’ 0.6%)이다. 목회자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변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② 목회자 삶의 만족도와 인적사항

〈표 3-17-2〉는 목회자 삶의 만족도와 인적사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7-2〉 목회자 삶의 만족도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84.4		87.1		88.0		91.5			
연급	정 21년 이상		정 11-20년		정 1-10년		준회원			
	89.1		91.8		83.0		81.0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79.2		86.5		84.0		90.6		92.7	

* 백분율은 “만족한다”(‘매우’ + ‘어느 정도’)는 응답 비율이다.

〈표 3-17-2〉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의 인적사항이 목회자의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나이에 따라서는 그것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목회자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진다. 그리하여 목회자 삶에 “만족한다”(‘매우’ + ‘어느 정도’)는 응답 비율이 30대는 84.4%, 40대가 87.1%, 50대는 88.0%, 그리고 60대가 91.5%로 나타나고 있다.

연급에 있어서도 그것이 높은 목회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다(‘정 21년급 이상’ 89.1%, ‘정 11-20년급’ 91.8%, ‘정 1-10년급’ 83.0%, ‘준회원’ 81.0%). 경력에 있어서도 그것이 긴 목회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다(‘4년 이하’ 79.2%, ‘5-9년’ 86.5%, ‘10-19년’ 84.0%, ‘20-29년’ 90.6%, ‘30년 이상’ 92.7%).

위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비록 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고, 경력이 긴 목회자일수록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목회자들(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도 목회를 더 오래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한편 목회자로서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대도시 88.1%, 중소도시 86.8%, 농어촌 87.0%). 교회 성쇠에 있어서는 그 만족도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의 경우에 약간 높다(쇠퇴 81.9%, 정체 86.2%, 성장 90.2%).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큰 교회 목회자가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 목회자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18) 요약

감리교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목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목회 패러다임은 주로 ‘성육신의 전통’(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을 맞추는 생활)과 ‘복음전도의 전통’(복음의 전통을 선포하는 생활)이다. 목회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주로 ‘교인의 신앙성숙’과 ‘말씀의 선포’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 특히 감리교 전통에 부합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교회의 당면문제로는 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과 “교인의 영적 신앙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외적인 교회 성장 문제와 내적인 교인 신앙성숙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배 출석률’이며 그 밖에 ‘전도 열정’, ‘개인적 경건생활’, ‘사회생활의 성실성’, ‘교회 봉사’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전도하고 경건생활 하는 것이 교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적 사항임이 드러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교인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가장 강조하는 것 역시 ‘예배 등예의 적극적 참여’와 ‘영적 능력 향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과 ‘성경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목회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여진다. 목회자의 설교 주제 가운데는 ‘신앙생활’, ‘구원의 확증’, ‘하나님 믿음’, ‘치유와 축복’이 가장 많이 하는 주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감리교 교회에서 예배 순서 및 진행, 성경공부, 교회학교 교육, 기도회, 속회 조직과 활동, 남녀선교회 활동, 각부 조직과 활동, 국내외 선교, 전도, 사회봉사활동, 신앙 및 생활상담, 성도 간 사귄 등 12가지 교회의 사업 혹은 일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배 순서 및 진행’ 뿐이다. 그 밖에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일은 ‘성도 간의 사귄’, ‘기도회’, ‘성경공부’ 정도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 혹은 일은 ‘국내외 선교’, ‘사회봉사활동’, ‘전도’, ‘남녀선교회 활동’, ‘각부 조직과 활동’ 등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업이나 일은 물론 큰 교회일수록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나 일이 농어촌 지역 교회보다는 도시 지역 교회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교회의 일들은 교회 성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업이나 일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교회의 사업이나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감리교 목회자는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에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거의 절반의 목회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감리교 목회자에게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적은 목회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프로그

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목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혹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에 참가한다면 가장 원하는 종류의 세미나는 ‘성서연구 세미나’, ‘목회 개발 세미나’, 그리고 ‘교회 성장 세미나’ 등이다.

감리교 목회자는 교회 혹은 기독교와 관계된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많이 읽음” 27.8%).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정기간행물을 읽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교계 정기간행물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목회자는 신앙(신학)서적의 독서에도 대체로 열심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의 1년 독서량은 중간값이 7.7권에 불과하다.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셈이다. 농어촌 목회자,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가 책을 덜 읽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리교 목회자의 약 3이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불만은 40대, ‘정회원 1-10년급’, 그리고 ‘5-19년 경력’의 목회자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고 경력이 긴 목회자의 불만도가 가장 낮다. 목회에 대한 불만은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목회에 대한 불만의 주요 이유는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것”과 “교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즉 교회의 양적 성장, 교인 신앙의 질적 성숙이 문제인 것이다.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에는 다수(74.5%)가 “오래 있고 싶다”고 했으나 목회자의 4은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한다.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어촌 목회자,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가 더 지금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87.3%)가 목회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 만족도는 목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급이 높을수록, 목회 경력이 길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목회자의 목회 만족도가 더 높다.

4) 목회자의 교회의식

이제부터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개신교 정체 이유

〈표 4-1-1〉은 최근 한국 개신교가 정체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목회자는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1〉 개신교 정체 이유

(단위: %)

1. 지적 수준,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늘어남	7.6
2. 여가 산업의 발달과 향락주의 가치관의 만연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림	8.6
3. 한국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함으로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함	40.0
4.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함	18.0
5. 한때 뜨거웠던 교회의 신앙적, 선교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	5.4
6. 교회가 사람들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갖추지 못함	7.8
7. 사회변화에 대처하거나 이를 선도할 역량을 교회가 갖추지 못함	6.3
8. 한국 교회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목회모형을 개발하지 못함	4.8
9. 기타	1.5
계	100.0(N=538)

〈표 4-1-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는 개신교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 (3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40.0%). 다음 이유는 ‘교회의 영성 상실’ (4번)로 나타나고 있다 (18.0%). 한국 개신교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감리교 목회자의 일관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회가 변하지 못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신교 정체 이유로 지적한(6번, 7번, 8번) 응답도 적지 않다(18.9%). 반면에 교회 외적 요인(합리주의, 세속주의 -1, 2번)을 개신교 정체 요인으로 지적한 비율은 16.2%에 머물고 있다. 결국 개신교 정체는 교회 자체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몇 가지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 (3번)을 개신교 정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응답 비율은 30, 40대 목회자에게서,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이나 교회 규모, 그리고 교회 성쇠에 따른 목회자 의식의 차이는 별로 없다.

(2) 한국 교회의 극복 과제

〈표 4-2-1〉에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목회자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표 4-2-1〉 한국 교회의 극복 과제

(단위: %)

교단분열	물량주의	기복신앙	교회정치	배타주의	반지성주의	목회자 자질	평신도 자질	기타	계
5.4	21.1	8.2	20.9	6.2	2.2	30.1	2.8	3.0	99.0(N=535)

〈표 4-2-1〉에 나타난 대로 한국 교회의 극복 과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된 것은 ‘목회자 자질’ (30.1%)이다. 목회자들 스스로 ‘목회자 자질’이 문제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 있는 목회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과 교회문제 해결의 우선적인 실마리는 목회자 자신이 쥐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국 교회의 극복 과제로 지적된 다른 주요사항은 ‘물량주의’ (21.1%)와 ‘교회정치’ (20.9%)이다. ‘교회정치’를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교단(교회)정치로 유명한(?) 감리교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밖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기복신앙 8.2%, 배타주의 6.2%, 교단분열 5.4%, 평신도 자질 2.8%, 반 지성주의 2.2%). ‘기타’ (3.0%)에는 교회의 ‘영성 상실’ 혹은 ‘세속화’ 그리고 ‘개 교회주의’ 라는 지적이 여럿 있었다.

‘목회자 자질’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규모가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50, 60대의 목회자, 그리고 높은 연급의 목회자 가운데는 ‘교회정치’를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 그리고 낮은 연급의 목회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개신교에 대한 낮은 호감도 이유

〈표 4-3-1〉에는 여러 사회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목회자의 생각이 나와 있다.

〈표 4-3-1〉 낮은 개신교 호감도 이유

(단위: %)

교리의 경직성	일부 개신교 인(성직자) 부도덕성	교회의 세속화	무분별한 팽창 주의	사회봉사 기능 못함	교회 분쟁과 분열	존경받는 지도자 부재	타 종교, 전통문화에 대한 배타성	지나친 전도 방식	기타	계
4.8	27.5	25.2	7.6	10.4	5.4	12.6	4.6	0.2	1.7	100.0(N=539)

〈표 4-3-1〉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기독교인의 부도덕성’ (27.5%)과 ‘교회의 세속화’ (25.2%)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교회의 세속화’는 달리 표현하면 ‘영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표 4-1-1〉) 조사되었던바 개신교의 정체 이유로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과 ‘영성 상실’을 꼽았던 것과 상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개신교는 정체되고 있다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교회를 분석한 모든 사회조사 결과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로 ‘존경받는 지도자 부재’ (12.6%)와 ‘사회봉사 기능을 못함’ (10.4%)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외의 이유를 꼽은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무분별한 팽창주의’ 7.6%, ‘교회 분쟁과 분열’ 5.4%, ‘교리의 경직성’ 4.8%, ‘배타성’ 4.6%).

결국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했으며, 지도력은 부족하고 사회봉사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30, 40대 연령층,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목회자일수록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로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 목회자는 ‘교인(성직자)의 부도덕성’을, 농어촌 지역 목회자는 ‘교회의 세속화’를 문제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공신력 회복을 위한 과제

〈표 4-4-1〉은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여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1〉 공신력 회복을 위한 과제

(단위: %)

성직자, 평신도의 도덕성 회복	45.4
배금주의 같은 세속적 가치 극복	8.3
교회의 참된 영성 회복	31.0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7.2
교회(교단) 일치와 화해	3.6
타 종교, 전통문화에 대한 열려진 자세	2.3
교회 지도력의 개발	1.7
기타	0.6
계	100.1(N=529)

〈표 4-4-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보다 ‘성직자, 평신도의 도덕성 회복’ (45.4%)과 ‘교회의 참된 영성 회복’ (31.0%)이라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 4-1-1〉과 〈표 4-3-1〉의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역시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의 과제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세속적 가치 극복’ 8.3%,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7.2%, ‘교회의 일치’ 3.6%, ‘배타주의 극복’ 2.3%, ‘교회 지도력 개발’ 1.7%).

‘도덕성 회복’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50, 60대 연령층, 연금이 높은,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경력,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목회자 사이에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5) 한국 교회의 취약한 역할

〈표 4-5-1〉은 한국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1〉 한국 교회의 취약한 역할

(단위: %)

전도	예배	교육	친교	봉사	계
15.6	11.4	22.3	5.7	45.0	100.0(N=522)

〈표 4-5-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45.0%)가 한국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봉사’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 봉사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 (22.3%), ‘전도’ (15.6%), ‘예배’ (11.4%), ‘친교’ (5.7%)의 순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봉사’와 ‘교육’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취약한 역할에 대한 생각은 나이, 연급, 경력, 지역에 관계 없이 목회자들 사이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봉사’의 역할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견해는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다.

(6) 주5일 근무제와 교회의 과제

〈표 4-6-1〉에는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교회가 강조하고 개발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응답결과가 나와 있다.

〈표 4-6-1〉 주5일 근무제와 교회의 과제

(단위: %)

주일성수를 더욱 강조	19.5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	31.4
주말예배의 신설 및 활성화	7.3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	20.7
농촌 교회와 연대한 주말 및 주일 프로그램 개발	13.0
특별히 바꿀 것은 없다	6.1
기타	1.9
계	99.9(N=522)

〈표 4-6-1〉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31.4%)이며, 다음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20.7%), “주일성수를 더욱 강조”(19.5%) 순이다. 그 외 “주말예배의 신설 및 활성화”(7.3%), “특별히 바꿀 것은 없다”(6.1%)는 응답 비율은 낮다.

나이가 많을수록, 목회 경력이 길수록 주일성수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 교회의 경우 “농촌 교회와 연대한 주말 및 주일 프로그램 개발”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7) 한국 교회 변화 요구사항

〈표 4-7-1〉은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1〉 한국 교회 변화 요구사항

(단위: %)

교회의 화해와 일치	외형에 너무 치우치는 것 지양	목회자의 자질 향상	평신도의 자질 향상	교회의 세속화 극복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	개 교회의 주의 탈피	교회의 영성 회복	올바른 선교사업 추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	기타	계
6.7	9.4	21.7	4.3	11.8	5.6	4.9	22.8	0.9	11.6	0.2	100.1 (N=534)

〈표 4-7-1〉에 따르면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교회의 영성 회복’ (22.8%)과 ‘목회자의 자질 향상’ (21.7%)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것들과 상응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교회의 세속화 극복’ (11.8%),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 (11.6%), ‘외형에 너무 치우치는 것 지양’ (9.4%), ‘교회의 화해와 일치’ (6.7%),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 (5.6%), ‘개 교회주의 탈피’ (4.9%), ‘평신도의 자질 향상’ (4.3%) 순이다.

목회자의 나이, 연급, 목회 경력이나 지역, 교회 규모에 따른 생각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 중요한 사회문제

〈표 4-8-1〉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1〉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사회문제

(단위: %)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문제	빈곤 문제	공동체성 문제	도덕성 붕괴문제	환경 문제	사회통합 문제	민족 문제	기타	계
25.0	8.1	15.4	6.8	6.0	27.8	0.9	6.8	1.5	1.7	100.0(N=532)

〈표 4-8-1〉에 나타난 대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로 감리교 목회자는 무엇보다 ‘가치관 혼란에 따른 도덕성 붕괴 문제’ (27.8%)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 (25.0%)를 꼽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혼 등 가족해체 문제’ (15.4%), ‘소년인구 감소에 따른 청소년문제’ (8.1%),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문제’와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문제’ (각각 6.8%), ‘생명경시 풍조 등 공동체성 문제’ (6.0%) 순이다.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1.5%), 그리고 ‘환경파괴와 공해문제’ (0.9%)를 지적한 비율은 매우 낮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는 사회문제 가운데 특히 가족과 관계된 문제(노인, 청소년, 가족해체 등, 48.5%)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는 가치관 문제(공동체성과 도덕성 문제, 33.8%)이다. 구조적 문제(빈곤과 사회통합 문제, 13.6%)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표 4-9-1〉은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9-1〉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단위: %)

1. 교인을 위한 구제사업까지 (1)	2.9
2. 불우이웃 돕기 자선, 긴급구조 등의 단순 구제사업까지 (1+2)	12.0
3.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탁아소, 노인학교 등)까지 (1+2+3)	25.5
4. 전문적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의 설립 및 운영까지 (1+2+3+4)	19.8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까지 (1+2+3+4+5)	8.9
6.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1+2+3+4+5+6)	31.0
계	100.1(N=526)

〈표 4-9-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그 범위를 대체로 넓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교회의 사회봉사 범위를 “교인을 위한 구제사업까지”로 매우 좁게 보는 비율은 2.9%에 불과하고, “불우이웃 돕기 자선, 긴급구조 등의 단순 구제사업까지”(1+2)로 보는 비율도 12.0%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탁아소, 노인학교 등)까지”(1+2+3)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5.5%, 그리고 나아가 “전문적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의 설립 및 운영까지”(1+2+3+4)라고 하는 비율도 19.8%나 된다. 한편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까지”(1+2+3+4+5)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9%이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1+2+3+4+5+6)라고 하는 응답 비율은 가장 높은 31.0%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리교 목회자는 교회의 사회봉사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물론 실제로 이렇게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타 종교에 대한 태도

〈표 4-10-1〉은 감리교 목회자의 타 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0-1〉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단위: %)

철저히 배척해야 할 대상	나의 종교와 경쟁관계	인류사회를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	별로 관심 없음	계
22.9	14.8	40.4	21.9	100.0(N=507)

〈표 4-10-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는 타 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타 종교를 “철저히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는 배타적인 응답 비율은 22.9%인 반면에, 타 종교를 “인류사회를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포용적인 응답 비율은 40.4%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타 종교가 “나의 종교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응답은 14.8%,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와 있다.

타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4-10-2〉가 이것을 보여준다.

〈표 4-10-2〉 타 종교에 대한 태도와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배타적	27.1	18.9	19.2	30.0	
	포용적	39.3	43.4	42.3	34.4	
연급		정 21년 이상	정 11-20년	정 1-10년	준회원	
	배타적	22.1	19.9	22.2	42.5	
	포용적	43.2	40.8	40.0	32.5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배타적	30.4	31.4	17.8	18.3	27.5
	포용적	43.5	41.9	39.5	38.7	41.3

〈표 4-10-2〉에 따르면 “타 종교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는 배타적 태도는 60대(30.0%)와 30대(27.1%)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40대(18.9%), 50대(19.2%)의 경우는 그것이 약하다. 반대로 타 종교를 “인류사회를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포용적 태도는 40대(43.4%)와 50대(42.3%)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30대 39.3%, 60대 34.4%).

연급에 있어서는 준회원의 경우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특별히 강하고(42.5%), 다른 연급 목회자는 비슷하게 그것이 약하다(‘정 21년급 이상’ 22.1%, ‘정 11-20년급’ 19.9%, ‘정 1-10년급’ 22.2%). 반대로 타 종교에 대한 포용성은 준회원에게서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정 21년급 이상’ 43.2%, ‘정 11-20년급’ 40.8%, ‘정 1-10년급’ 40.0%, ‘준회원’ 32.5%).

목회 경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긴 목회자에게서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경력이 가장 긴 목회자는 중간수준)(‘4년 이하’ 30.4%, ‘5-9년’ 31.4%, ‘10-19년’ 17.8%, ‘20-29년’ 18.3%, ‘30년 이상’ 27.5%).

이와 같이 젊은 목회자,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가 오히려 타 종교에 대하여 더욱 배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감리교회의 보수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한편 지역별로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농어촌 목회자에게서, 포용적인 태도는 중소도시 목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1) 초파일 축하 방송에 대한 태도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불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표 4-11-1>은 “몇 해 전부터 성탄절에 불교방송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초파일에 기독교방송에서 석가 탄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방송하려 한다면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1-1〉 석가 탄신 축하 방송에 대한 태도

(단위: %)

철저하게 반대	어느 정도 반대	반대도 찬성도 안함	어느 정도 찬성	매우 찬성	계
41.7	20.3	17.8	12.3	7.8	99.9(N=527)

<표 4-11-1>에 나타난 대로 석가 탄신 축하 메시지를 기독교방송에서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41.7%, “어느 정도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20.3%로, 모두 62.0%의 감리교 목회자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종교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총론(일반적 태도)에서는 포용적이지만, 각론(구체적 태도)에서는 배타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독교방송국에서 석가 탄신 축하 메시지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은 7.8%, ‘어느 정도 찬성’이라는 응답이 12.3%로 찬성하는 입장은 21.0%이다.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8%이다.

나이에 따라서는 기독교방송국의 석가 탄신 축하 메시지 방송에 가장 반대하는 것은 60대이고, 다른 연령층은 그 비율이 비슷하다. 연급이 가장 높은 목회자, 경력이 가장 많은 목회자가 그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나머지 목회자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별로 없다. 그러나 출신 학교별로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목원대와 협성대 출신은 높고, 감신대 출신은 상대적으로 낮다(감신대 51.2%, 목원대 70.0%, 협성대 68.6%).

(12) 교회연합사업(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태도

<표 4-12-1>에는 “귀 교회가 감리교가 개신교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교단과 함께 교회연합사업(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표 4-12-1〉 교회연합사업에 대한 태도

(단위: %)

적극적 찬성	어느 정도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안 함	어느 정도 반대	적극적 반대	계
52.2	36.5	7.1	2.2	1.9	99.9(N=534)

〈표 4-12-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 목회자는 교회연합사업(에큐메니컬 운동)에는 매우 찬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찬성하는 비율은 88.7%(‘적극적’ 52.2%, ‘어느 정도’ 36.5%)에 이르고 있다. 교회연합운동을 ‘반대’ 하는 비율은 4.1%(‘어느 정도’ 2.2%, ‘적극적’ 1.9%)에 머물고 있고, 그것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은 7.1%이다. 이것은 에큐메니컬 전통이 강한 감리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연합운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목회자의 나이, 연급, 목회 경력, 그리고 지역이나 출신 학교에 따라서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3)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대한 태도

감리교 목회자는 감리교가 가톨릭교회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표 4-13-1〉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3-1〉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대한 태도

(단위: %)

적극적 찬성	어느 정도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안 함	어느 정도 반대	적극적 반대	계
22.7	38.1	11.4	12.6	15.2	100.0(N=533)

〈표 4-13-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 감리교가 가톨릭교회와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하는 비율은 60.8%(‘적극적’ 22.7%, ‘어느 정도’ 38.1%)로 개신교 내의 ‘교회연합사업’에 대한 경우보다는 그 찬성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반대’ 하는 비율은 27.8%(‘어느 정도’ 12.6%, ‘적극적’ 15.2%)나 된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4%이다. 이와 같이 감리교 목회자 가운데는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 아닌 목회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는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찬성하는 비율이 60대의 경우 특별히 낮고(30대 61.9%, 40대 66.0%, 50대 61.8%, 60대 48.4%), 목회 경력이 많은 목회자에게서도 그것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4년 이하’ 64.0%, ‘5-9년’ 70.0%, ‘10-19년’ 62.4%, ‘20-29년’ 56.3%, ‘30년 이상’ 54.3%).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찬성하는 비율은 도시 지역 목회자의 경우(대도시 63.1%, 중소도시 65.2%, 농어촌 54.3%),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의 경우(‘쇠퇴’ 52.1%, ‘정체’ 59.4%, ‘성장’ 64.0%), 그리고 감신 출신 목회자의 경우(감신대 76.7%, 목원대 48.7%, 협성대 49.7%)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4) 요약

감리교 목회자들의 교회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개신교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 (40.0%)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교회가 영적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18.0%)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과 ‘영성 상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가 정체되고 있는 일차적 책임은 사회변화 상황이 아니라 문제점이 교회 자체에 있다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특히 ‘목회자 자질’ (30.1%), ‘물량주의’ (21.1%), ‘교회정치’ (20.9%)라고 지적되고 있다. 목회자 스스로 ‘목회자 자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 도덕성 상실의 책임이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뼈아픈 자기성찰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 ‘물량주의’를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영적 능력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 ‘교회정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의 치명적 약점의 하나를 들추어 낸 것이라고 하겠다.

일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도가 낮은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부 개신교인(성직자)의 부도덕성’ (27.5%)과 ‘교회의 세속화’ (25.2%)이다. 이 결과 역시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듭 지적되고 있는 ‘도덕성 상실’과 ‘영성 상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도력 부재와 사회봉사 기능 약화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개신교가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직자, 평신도의 도덕성 회복’ (45.4%)과 ‘교회의 참된 영성 회복’ (31.0%)이 필요하다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결과들은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봉사’이며 다음은 ‘교육’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 (31.4%)이 가장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

(20.7%)과 ‘주일 성수 강조’ (19.5%)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영성 회복’ (22.8%)과 ‘목회자의 자질 향상’ (21.7%)이라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여러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극복’ (11.8%)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 (11.6%)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는 크게 가족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노인문제와 도덕성 붕괴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인 편이어서 목회자의 다수가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까지 교회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포용적인 성향이 우세하지만(배타성 22.9%), 불교를 존중하는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타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것(배타성 62.0%)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 내에서 다른 교회나 교파와 함께 하는 교회연합사업(예큐메니컬 운동)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88.7%),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60.8%).

5) 감리교 정체성

이제부터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감리교 정체성과 관계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감리교 목회자 자부심

①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

〈표 5-1-1〉은 감리교 목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1〉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

(단위: %)

매우 강함	강한 편	보통	약한 편	매우 약함	계
32.7	43.6	18.7	3.0	2.0	100.0(N=541)

〈표 5-1-1〉에서 보듯이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감리고 목회자에게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감리고 목회자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는 응답 비율이 76.3%(‘매우 강함’ 32.7%, ‘강한 편’ 43.6%)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8.7%이며, 자부심이 “약하다”는 응답은 5.0%(‘약한 편’ 3.0%, ‘매우 약함’ 2.0%)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의 정도는 몇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② 감리고 목회자 자부심과 인적사항

〈표 5-1-2〉는 인적사항에 따라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2〉 감리고 목회자 자부심과 인적사항

(단위: %)

나이	30대		40대		50대		60대			
	66.6		73.6		84.1		83.3			
연급	정 21년급 이상			정 11-20년급		정 1-10년급		준회원		
	85.5			82.2		67.9		65.9		
경력	4년 이하		5-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62.0		67.1		75.9		81.5		85.9	

* 백분율은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와 “강한 편이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표 5-1-2〉에 따르면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은 50, 60대 목회자에게서 가장 강하고(각각 84.1%, 83.3%), 다음은 40대(73.6%)이며, 30대에게서 그것이 가장 약하다(66.6%). 연급에서도 그것이 높을수록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며, 반대로 그것이 낮을수록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정 21년급 이상’ 85.5%, ‘정 11-20년급’ 82.2%, ‘정 1-10년급’ 67.9%, ‘준회원’ 65.9%). 이러한 경향은 목회 경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일수록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반면에, 그것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자부심이 약하다(‘4년 이하’ 62.0%, ‘5-9년’ 67.1%, ‘10-19년’ 75.9%, ‘20-29년’ 81.5%, ‘30년 이상’ 85.9%). 이와 같이 나이, 연급, 목회 경력에 따라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왜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을수록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약하고, 반대로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길수록 그 자부심이 강한 것일까? 감리고 목회자로서의 자

부심은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이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③ 감리교 목회자 자부심과 교인 현실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은 출신 학교나 교회 성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규모와 지역은 감리교 목회자 자부심과 관계가 있다. <표 5-1-3>이 이것을 보여준다.

<표 5-1-3> 감리교 목회자 자부심과 교인 현실

(단위: %)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79.4		78.4			71.2	
교회 규모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초대형
	65.0	72.2	80.0	82.6	81.7	89.8	95.0

* 백분율은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와 “강한 편이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표 5-1-3>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 지역 목회자가 농어촌 지역 목회자보다 다소 강하다(대도시 79.4%, 중소도시 78.4%, 농어촌 71.2%). 그러나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목회자 사이에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에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부심은 크게 낮고(초소형 65.0%, 소형 72.2%), 큰 교회 목회자의 자부심은 매우 높다(초대형 95.0%, 대형 89.8%). 한편 중간 크기의 교회 목회자의 자부심은 중간 수준이다(중소형 80.0%, 중형 82.6%, 중대형 81.7%). 왜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반면에,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그 자부심이 약한 것일까? 큰 교회 목회자는 ‘감리교’라는 이름 아래서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작은 교회 목회자는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감리교 정체성’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라는 사실이다.

(2) 감리교의 장점

<표 5-2-1>에는 “감리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응답 결과가 나와 있다.

〈표 5-2-1〉 감리교의 장점

(단위: %)

뜨거운 신앙적 전통	적극적인 복음적 열정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	성결(성화) 운동에 대한 전통	화합과 일치의 정신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관계	기타	계
23.0	19.5	19.7	15.2	7.2	8.7	3.9	2.8	100.0(N=539)

〈표 5-2-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은 감리교의 장점으로 무엇보다 ‘뜨거운 신앙적 전통’ (23.0%),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 (19.7%), ‘적극적인 복음적 열정’ (19.5%)을 꼽고 있는데, 이것은 감리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결(성화) 운동에 대한 전통’ (15.2%),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8.7%), ‘화합과 일치의 정신’ (7.2%),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관계’ (3.9%) 순이다.

‘뜨거운 신앙적 전통’을 감리교의 장점으로 보는 비율은 나이가 많은, 연급이 높은, 경력이 긴 목회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출신 학교에 따라서 ‘감리교의 장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감리교의 장점’으로 지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감신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이고, ‘목원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적극적인 복음적 열정’이며, ‘협성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뜨거운 신앙적 전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 학교의 신학적 전통이나 학풍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3) 감리교 영성의 특징

〈표 5-3-1〉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리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표 5-3-1〉 감리교 영성의 특징

(단위: %)

죄책 고백과 회개	뜨거운 신앙체험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	적극적인 신앙생활	묵상과 기도생활	심신수련과 훈련	도덕적 완전 추구	기타	계
10.5	47.0	17.7	13.3	3.6	0.8	5.6	1.5	100.0(N=532)

〈표 5-3-1〉에서 보여지듯이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가 감리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뜨거운 신앙체험’ (47.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영성’의 의미를 ‘뜨거움’이나 ‘체험’과 동일시하는 한국 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 밖에 감리교 영성의 특징으로 지적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 (17.7%), ‘적극적인 신앙생활’ (13.3%), ‘죄책 고백과 회개’ (10.5%), ‘도덕적 완전 추구’ (5.6%)의 순이다. ‘묵상과 기도생활’ (3.6%)이나 ‘심신수련과 훈련’ (0.8%)을 감리교 영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인적사항이나 교인 현실과 같은 변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

(4) 감리교 목회자의 요구사항

〈표 5-4-1〉은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4-1〉 감리교 목회자에의 요구사항

(단위: %)

영적 권위	강한 리더십	목회적 전문성	확고한 소명감	신앙적 열정	말씀의 능력	높은 도덕성	미래적 비전	개방적 마인드	기타	계
24.0	7.3	13.6	16.4	8.2	9.7	14.3	3.0	2.4	1.1	100.0(N=537)

〈표 5-4-1〉에 따르면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 권위’ (24.0%)라고 했고, 다음으로는 ‘확고한 소명감’ (16.4%), ‘높은 도덕성’ (14.3%), ‘목회적 전문성’ (13.6%)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의 능력’ (9.7%), ‘신앙적 열정’ (8.2%), ‘강한 리더십’ (7.3%) 순이며, ‘미래적 비전’ (3.0%)과 ‘개방적 마인드’ (2.4%)를 중요하게 보는 비율은 매우 낮다. 즉 감리교 목회자들은 오늘날 특히 영적 권위와 함께 높은 도덕성을 보이며 확고한 소명감을 가지고 전문적 목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성품이자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적 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소명감과 전문성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평가라고 하겠다.

‘영적 권위’를 중요시하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그밖의 사항들 가운데서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높은 도덕성’을,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고 경력이 긴 목회자는 ‘확고한 소명감’을 감리교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

시 목회자의 경우 ‘영적 권위’를, 중소도시 목회자는 ‘목회적 전문성’을, 농어촌 목회자는 ‘높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는 ‘높은 도덕성’이, 큰 교회 목회자는 ‘목회적 전문성’이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된다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5) 한국 감리교단의 문제

〈표 5-5-1〉은 “오늘날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5-1〉 한국 감리교단의 문제

(단위: %)

서클 중심의 교단 정치	학연과 관계된 파벌	과열된 감독 선거 제도	교계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	교단 정책의 부재	교단과 교회의 괴리	신학자의 자유주의 신학	목회자의 신앙적 보수화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예큐메니컬 정신의 퇴조	기타	계
14.9	27.4	14.2	9.3	7.6	8.0	5.2	2.4	7.8	0.4	2.8	100.0(N=537)

〈표 5-5-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국 감리교단의 문제는 ‘학연과 관계된 파벌’ (27.4%)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클 중심의 교단정치’ (14.9%)와 ‘과열된 감독선거제도’ (14.2%)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즉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연문제, 교단정치문제, 감독선거제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감리교단의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는 ‘교계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 (9.3%), ‘교단과 교회의 괴리’ (8.0%),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7.8%), ‘교단 정책의 부재’ (7.6%), ‘신학자의 자유주의 신학’ (5.2%), ‘목회자의 신앙적 보수화’ (2.4%) 순이다. ‘기타’의 내용 가운데는 감리교단의 문제로 ‘교회 세습’을 꼽은 목회자가 많았다.

감리교 목회자들이 보는 한국 감리교단의 문제를 크게 몇 범주로 묶어보면 보다 분명하게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가장 큰 범주는 ‘학연과 관계된 파벌’과 ‘서클 중심의 교단정치’라는 것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파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42.3%가 이에 속한다. 다음은 교단 및 정책이 감리교단의 문제라고 경우인데 여기에는 ‘감독선거제도’, ‘교단 정책 부재’, ‘교단과 교회의 괴리 문제’ 등이 포함되며, 모두 29.2%이다. 지도자의 문제와 관계된 것은 ‘교계 지도자 지도력 부재’와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인데 합하면 17.1%이다. 한편 신학이나 신앙 성향과 관계된 문제 (자유주의 신학, 신앙적 보수화, 탈 예큐메니컬 정신)에 해당되는 응답 비율은 8.0%에 머물고 있다.

감리교단의 문제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의식이 감리교단의 문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리교에서 극복되어야 할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바로 파벌(특히 학연, 지연에 근거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감독선거제도를 포함한 교단적 정책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연과 관계된 파벌’이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은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높다. 따라서 이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연급이 높아지며 목회 경력이 길어지면 ‘학연과 관계된 파벌’은 지금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리교단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한편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일수록 감리교단의 문제로 ‘과열된 감독선거제도’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오랫동안 보아왔던 감독선거제도의 병폐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목회자 가운데 ‘학연과 관계된 파벌’을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그만큼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신 학교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6)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

이번에는 교단 차원이 아닌, 개 교회 차원에서 한국 감리교회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표 5-6-1〉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

(단위: %)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헌신 부족	12.8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약함	17.4
교인들의 선교적 열정이 약함	11.5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약함	20.3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함	18.8
교회의 프로그램이 빈약함	3.1
교회가 사회봉사 기능을 잘 못함	10.3
기타	5.7
계	99.9(N=522)

〈표 5-6-1〉에 따르면 한국 감리교회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목회자와 관계된 것이다. 즉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약함”(20.3%)과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함”(18.8%)을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다. 한편 ‘기타’(5.7%)에 포함된 응답의 대부분(4.0%)이 목회자의 ‘도덕성’ 혹은 ‘영성’이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문제’(모두 43.1%)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표 5-4-1〉에서도 보았듯이 감리교 목회자들은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자기 성찰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감리교회 문제의 소재를 자신에게 돌리는 목회자들의 의식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책임의식이야말로 교회 갱신과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감리교회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으로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순서로 지적된 것은 모두 교인들에 대한 것이다. 즉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약함”(17.4%),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헌신이 부족함”(12.8%), “교인들의 선교적 열정이 약함”(11.5%)이 그것들이다. 교인들의 신앙적, 선교적 열정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문제의 책임 소재를 교인들에게 돌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 비율을 모두 합치면 39.1%가 된다. 결국 감리교 목회자는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적인 부분을 ‘목회자 문제’로 보는 경우와 ‘교인 문제’로 보는 경우로 크게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기능이나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모두 13.4%(“교회가 사회봉사 기능을 잘 못함” 10.3%, “교회의 프로그램이 빈약함” 3.1%)이다. ‘기타’ 항목에는 목회자의 도덕성이나 영성 문제 이외에도 정치장로 문제, 교회세습 문제, 개 교회주의 문제를 제시한 목회자들이 얼마 있었다.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은 목회자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과 선교적 열정이 약하다”는 것을,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약하거나” “교회가 사회봉사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감리교회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도시 목회자는 ‘목회자 리더십 부족’, 중소도시 목회자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의 약화’, 농어촌 목회자는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 약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리더십 부족’을,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의 약화’를 감리교회의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감리교의 문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많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감신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목회자의 리더십 부족’, ‘목원대’ 출신 목회

자의 경우는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 약화’, 그리고 ‘협성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7) 영성 개발(훈련) 프로그램

문항 77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성 개발 및 훈련을 위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두 기술해 달라고 하는 주관적 문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응답한 목회자는 177명이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영성개발 혹은 훈련 프로그램은 새벽 기도회, 특별기도회, 철야기도회 등과 같은 기도회 프로그램, 영성 집회나 부흥회 등과 같은 신앙집회, 성경공부(연구)나 제자 훈련학교와 같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 신앙성장 세미나 혹은 임원 세미나와 같은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알파(Alpha) 코스,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바나바 사역, D-12 양육시스템,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현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성 훈련(개발)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Walk to Emmaus, Lectio Divina, Enconnter 등을 예시한 경우도 얼마 있다.

(8) 요약

감리교 정체성과 관계된 감리교 목회자의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가 감리교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강함’ 76.3%, ‘보통’ 18.7%, ‘약함’ 5.0%). 그러나 그 자부심은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일수록 강한 반면에,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일수록 그것이 약하다. 한편 농어촌 목회자, 그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리교의 장점에 대해서는 특히 ‘뜨거운 신앙적 전통’, ‘적극적인 복음적 열정’,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경력이 긴 목회자 가운데 ‘뜨거운 신앙적 전통’을 감리교의 장점이라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리교 영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수가 ‘뜨거운 신앙체험’이라고 응답했다.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는 특히 ‘영적 권위’, ‘확고한 소명감’, ‘높은 도덕성’, ‘목회적 전문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특히 ‘높은 도덕성’을,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고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는 ‘확고한 소명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높은 도덕성’이, 큰 교회 목회자는 ‘목회적 전문성’이 감리교 목회자에게 특별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리교 목회자들은 한국 감리교의 문제로 무엇보다 ‘학연과 관계된 파벌’, 그리고 다음으로 ‘서클 중심의 교단정치’와 ‘과열된 감독선거제도’를 꼽고 있다. 크게 보면 ‘파벌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며, 다음은 ‘교단 및 교단정책’의 문제라고 목회자들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학연과 관계된 파벌’을,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고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는 ‘과열된 감독선거제도’가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감리교회의 문제로 지적된 것을 크게 나누어보면 ‘목회자 문제’ (말씀 능력 약함, 리더십 부재), ‘교인문제’ (신앙적, 선교적 열정 약함, 헌신부족), ‘실천문제’ (사회봉사 못함, 프로그램 빈약)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 문제’ (43.1%)와 ‘교인 문제’ (39.1%)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감리교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 훈련 혹은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도회, 성경공부, 신앙집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교회가 요즈음 개발된 영성 프로그램(예를 들면 TD-Tres Dias)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리교 전통을 살린 독특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6) 감리교 구조와 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감리교 구조와 제도와 관계된 사항들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감리교단의 당면과제

〈표 6-1-1〉은 “감리교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1〉 감리교단의 당면과제

(단위: %)

미자립 교회 문제	목회자 수급 문제	감독선거 제도 보완문제	교단본부 구조조정 문제	목회자 윤리 문제	은급제도 보완 문제 마련문제	미래 지향적 정책대안	기타	계
25.6	23.6	14.0	12.1	6.9	2.6	12.1	3.0	99.9(N=535)

〈표 6-1-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는 감리교단의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무엇보다 ‘미자립교회 문제’ (25.6%)와 ‘목회자 수급문제’ (23.6%)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자립교회 문제는 목회자 수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수요(미자립교회)와 공급(목회자 수급)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감독선거제도 보완 문제’ (14.0%), ‘교단본부 구조조정 문제’와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마련문제’ (각각 12.1%), ‘목회자 윤리 문제’ (6.9%), ‘은급제도 보완 문제’ (2.6%) 순이다.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은, 그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미자립교회 문제’를, 반대로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그리고 큰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자 수급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감리교 당면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전자는 “미자립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후자는 “목회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즉 “신학대학 졸업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수급 문제’를, 쇠퇴하고 교회 목회자는 ‘미자립교회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다.

(2) 감리교의 분업구조 문제

본 조사에서는 감리교의 분업구조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감리교에서 본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는 사업을 하는 식으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2.8%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4.7%로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5%나 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감리교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본부는 정책, 연회는 행정과 인사관리, 지방은 사업이라는 구조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6%이다.

(3) 전 현직 감독에 대한 호칭

이번에는 전 현직 모든 감독에 대한 호칭 문제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표 6-2-1〉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2-1〉 전 현직 감독에 대한 호칭

(단위: %)

전 현직 모든 감독에 대하여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7.8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라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	84.1
아무래도 상관없다	7.0
잘 모르겠다	1.1
계	100.0(N=540)

〈표 6-2-1〉에 따르면 “전 현직 모든 감독에 대하여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하다. 반면에 감리교 목회자의 절대 다수(84.1%)가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라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7.0%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감리교 목회자는 전직 감독들에게도 감독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라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 비율은 목회자의 나이나 목회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높다. 그러나 그 비율은 연급이 낮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초대형 교회 목회자의 경우에만 그 비율이 약간 낮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비슷한 비율로 높다. 현직 감독만 감독으로 호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회원 1-10년급’ 목회자와 ‘10-19년’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서 가장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4)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

〈표 6-3-1〉은 현재의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들은 만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6-3-1〉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

(단위: %)

만족한다	불만이다	잘 모르겠다	계
16.8	63.2	20.0	100.0(N=524)

〈표 6-3-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63.2%)가 현재의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불만’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하며, “잘 모르겠다” 응답이 20.0%이다.

현재의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는 50대가 가장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30대 55.6%, 40대 65.8%, 50대 71.8%, 60대 55.4%). 연급에서는 그것이 높은 목회자가 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정 21년급 이상’ 66.3%, ‘정 11-20년급’ 69.1%, ‘정 1-10년급’ 61.0%, ‘준회원’ 41.9%). 목회 경력에서도 중진급 목회자가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더 ‘불만’이라고 했다(‘4년 이하’ 42.9%, ‘5-9년’ 55.6%, ‘10-19년’ 70.6%, ‘20-29년’ 69.9%, ‘30년 이상’ 60.5%).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 목회자의 경우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들이 감독을 직접 뽑는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반대로 연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목회자들은 감독제도에 직,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어 관심이 많고, 따라서 문제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그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 목회자가 현재의 감독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더 많다(대도시 69.8%, 중소도시 65.7%, 농어촌 55.8%). 교회 규모에 있어서는 큰 교회 목회자들의 불만이 더 많다. 또한 감독제도에 대한 불만을 감신대(68.1%)와 목원대(69.6%) 출신 목회자가 협성대(56.7%) 출신 목회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5) 감독제도의 개선 방안

현재의 감리교 감독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견해가 〈표 6-4-1〉에 나와 있다.

〈표 6-4-1〉 감독제도의 개선 방안

(단위: %)

연회의 숫자를 늘려 감독 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3.8
연회의 숫자를 늘리되 연회대표는 연회장으로 칭하고 교단대표만 감독이라 칭한다	52.5
연회를 통폐합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 그 연회대표는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	20.2
연회 수는 그대로 두고 감독 수를 줄이되 2-3개 연회를 관할하도록 하고 그 책임자는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	16.2
기타	7.3
계	100.0(N=425)

〈표 6-4-1〉에 따르면 현재의 감리교 감독제도의 개선 방안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식은 “연회의 숫자를 늘리되 연회대표는 연회장으로 칭하고 교단 대표만 감독이라 칭한다”(52.5%)는 것이다. 한편 ‘기타’(7.3%)의 대부분은 “연회 숫자를 그대로 두고 연회대표는 연회장으로, 교단 대표만 감독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는 연회장 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다른 의견 가운데 “연회를 통폐합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 그 대표는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20.2%), “연회 수는 그대로 두고 감독 수를 줄이되 2-3개 연회를 관할하도록 하고 그 책임자를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16.2%)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목회자가 동조하고 있다. 한편 “연회의 숫자를 늘려 감독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는 극소수(3.8%)의 목회자만이 찬성하고 있다.

연회장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많은 목회자일수록 찬성하고 있다. 지역이나 출신 학교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 교회 규모에 있어서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연회장 제도를 더 지지하고 있다.

(6) 현행 감독선거제도 만족도

〈표 6-5-1〉은 현행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6-5-1〉 현행 감독선거제도 만족도

(단위: %)

만족한다	불만이다	잘 모르겠다	계
13.8	73.3	12.9	100.0(N=520)

〈표 6-5-1〉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는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73.3%)가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행 감독선거제도 대하여는 특히 40, 50대, ‘정회원 1-10년 급’, ‘5-19년’ 경력의 목회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이나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

(7)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불만 이유

〈표 6-6-1〉에는 “현재의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불만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표 6-6-1〉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불만 이유

(단위: %)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53.9
학연, 지연에 근거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28.0
총대 숫자가 적어 모든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3.7
기타	4.4
계	100.0(N=432)

〈표 6-6-1〉에 나타난 대로 현재의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53.9%)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학연, 지연에 근거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28.0%)는 것과 “총대 숫자가 적어 모든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13.7%)는 것 순이다.

현재의 감독선거제도가 불만인 이유가 ‘과열 경쟁’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급이 높은 목회자, 감신 출신 목회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연, 지연으로 인한 갈등’을 감독선거제도의 불만 이유로 지적한 비율은 농어촌 목회자, 목원대와 협성대 출신 목회자의 경우 더 높다. ‘총대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나이가 적은 목회자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8)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

〈표 6-7-1〉에는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 가운데 목회자는 어떤 방안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표 6-7-1〉 감독선거제도 개선안

(단위: %)

현행 제도	제비뽑기로	현행 제도와 제비뽑기로	정회원 모두에게 투표권 부여	잘 모르겠음	기타	계
9.8	29.7	34.4	20.3	2.8	3.0	100.0(N=532)

〈표 6-7-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독선거제도 개선안은 ‘현행 제도와 제비뽑기의 절충’ (34.4%) 형태이며, ‘제비뽑기’도 비슷하게 높은 응답률(29.7%)을 보이고 있다. ‘정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에는 20.3%가 동조했으나, ‘현행대로’라는 응답은 9.8%에 머물고 있다. 이 결과는 목회자의 나이, 연급, 경력, 목회 지역에 따라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지방의 통폐합 문제

현재 국내 연회에 속해 있는 지방회는 모두 195개이지만 지방별로 교회 수는 10여 개에서 40여 개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효율성을 위해 지방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생각이 〈표 6-8-1〉에 나와 있다.

〈표 6-8-1〉 지방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의견

(단위: %)

교회 수가 많은 지방은 오히려 분할해서 지방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	19.3
현행의 지방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19.3
30-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45.0
50-7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6.7
70-10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1.5
잘 모르겠다	5.4
기타	2.8
계	100.0(N=535)

〈표 6-8-1〉에 따르면 “지방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목회자의 19.3%가 동조하고 있다. “교회 수가 많은 지방은 오히려 분할해서 지방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데도 19.3%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30-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45.0%가 찬성하고 있다. “50-7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자”는 데는 6.7%가, “70-10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자”는 데는 1.5%가 동조하고 있다. 결국 “지방의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지방을 통폐합하여 그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다수(53.2%)이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를 30-50개 지방으로 통폐합하

는 방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10) 대 사회 업무 부서에 대한 의견

〈표 6-9-1〉에는 대 사회 업무를 위한 부서와 관계된 문제에 대한 목회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표 6-9-1〉 대 사회 업무를 위한 부서에 대한 의견

(단위: %)

현행대로 교회의 대 사회 업무는 사회평신도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37.2
전에 했던 대로 선교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	17.8
사회국을 다시 본부에 만드는 것이 좋다	28.7
잘 모르겠다	16.3
계	100.0(N=527)

〈표 6-9-1〉에 따르면 감리교의 대 사회 업무는 “현행대로 사회평신도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37.2%가 동조하고 있고, 다음은 “사회국을 다시 본부에 만드는 것이 좋다”(28.7%), “선교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17.8%) 순이다. 한편 사회국 신설에 대한 기독교타임즈(2007년 3월 17일자) 조사에 따르면 그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사회국 신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본 조사와 기독교타임즈 조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설문 내용 자체의 차이(전자는 사회평신도국, 선교국, 사회국 가운데 선택하는 문항이라면, 후자는 사회국 하나에 대한 찬반 문항)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국 신설에 대하여는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은 목회자, 감신 출신 목회자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 방안

신학대학 졸업생 수에 비해 목회자가 부족하여 목회자 수급문제가 심각하다. 〈표 6-10-1〉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0-1〉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 방안

(단위: %)

신학대학 졸업생 수 축소	51.2
개척교회 설립 확대	9.8
수련목 제도 활성화	7.7
기관목회(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진급제도 확립	15.9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10.5
기타	4.9
계	100.0(N=533)

〈표 6-10-1〉에 나타난 대로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신학대학 졸업생 수 축소’ (51.2%)가 지적되고 있다. 목회자 수급문제는 수요(교회)보다 공급(신학대학 졸업생)이 많아서 생겨나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신학대학들이 교단이나 교회의 지원 없이 주로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학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결 방안으로 지적된 다른 견해는 ‘기관목회(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진급제도 확립’ (15.9%),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10.5%), ‘개척교회 설립 확대’ (9.8%), ‘수련목 제도 활성화’ (7.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4.9%) 항목 가운데는 신대원 통폐합, 해외 선교사 활성화, 팀(공동) 목회 개발 등의 의견을 제시한 목회자가 여럿 있었다. ‘신학대학 졸업생 수 축소’ 를 해결방안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연금이 높은 목회자,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 농어촌 지역 목회자의 경우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2)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

요즈음 교계에서는 신학생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표 6-11-1〉에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입장이 나와 있다.

〈표 6-11-1〉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

(단위: %)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69.4	22.3	8.3	100.0(N=520)

〈표 6-11-1〉에 나타난 대로 감리교 목회자의 대다수(69.4%)가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다. 이 견해는 〈표 6-10-1〉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수의 목회자가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신학대학 졸업생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상응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신학대학원 통폐합을 반대하는 목회자는 22.3%였다.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대하여는 대체로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경력이 많은 목회자들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큰 교회 목회자,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가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더욱 찬성하고 있다. 출신 학교로는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찬성하는 비율이 감신대와 목원대 출신 목회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감신대 74.5%, 목원대 73.7%, 협성대 60.1%).

(13)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

감리교 목회자가 만일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6-12-1〉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2-1〉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

(단위: %)

교역자 수급 조정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일관된 신학교육	교단 신학대학 위상 확립	용이한 재정 확충	기타	계
37.3	44.4	9.3	6.5	1.3	1.3	100.1(N=399)

〈표 6-12-1〉에 따르면 감리교 목회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는 주로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44.4%)와 ‘교역자 수급 조정’(37.3%)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를 ‘일관된 신학교육’(9.3%)이나 ‘교단 신학대학 위상 확립’(6.5%)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다.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통폐합은 학연 갈등과 교역자 수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대다수 감리교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나이, 연급, 목회 경력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감신대와 목원대 출신 목회자는 ‘교역자 수급조정’을, 협성대 출신 목회자는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신학대학원 통폐합 찬성 이유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 신학대학원 통폐합 방식

만일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찬성할 경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입장이 <표 6-13-1>에 나와 있다.

<표 6-13-1> 신학대학원 통폐합 방식

(단위: %)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신학대학원을 교단에 설립한다	15.2
3개 신학대학(혹은 신학과)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한다	51.2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앤다	28.4
기타	5.2
계	100.0(N=387)

<표 6-13-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면 감리교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3개 신학대학(혹은 신학과) 학부 과정을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한다”(51.2%)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앤다”(28.4%)는 것이다. ‘기타’(5.2%)의 의견은 대부분 학부와 신학대학원 모두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대다수 감리교 목회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한편 신학대학원 통폐합 방식에 있어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신학대학원을 교단에 설립한다”는 의견에는 15.2%만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에 대한 옥상옥의 모양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 수급문제나 학연으로 인한 갈등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책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많은 목회자에게서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있어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신대 출신 목회자는 두 번째 방식에, 목원대와 협성대 출신 목회자는 세 번째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5) 미자립교회 문제

<표 6-14-1>은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4-1〉 미자립교회 문제

(단위: %)

신자들이 대교회를 선호하는 경향 있음	17.4
개척교회가 과다하게 난립하고 있음	12.4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재	12.0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부재	25.7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	29.1
기타	3.3
계	99.9(N=540)

〈표 6-14-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는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 (29.1%), 그리고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부재’ (25.7%)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는 ‘신자들이 대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17.4%), ‘개척교회가 과다하게 난립하고 있음’ (12.4%),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재’ (12.0%) 등이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자립교회 문제의 근원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신보다는 교단 혹은 교회의 구조 및 환경에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고 있다. ‘기타’의 의견 가운데는 미자립교회의 문제가 농촌과 도시의 경우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여럿 있었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자립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도 도시교회(주로 개척교회)와 농촌교회(농촌 폐쇄화, 이농현상으로 인한 어려움 직면)의 경우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생각은 목회자의 나이, 연급, 목회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경력이 많은 목회자의 경우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개척교회의 난립’과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그 이유로 ‘교단의 관리와 지원 부재’와 ‘미자립교회 자원의 열악성’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전자는 문제의 근원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무분별한 교회 개척, 비전과 리더십 부족)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문제의 근원이 교단 정책이나 교회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자립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서 대도시 목회자

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족’을, 중소도시 목회자는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농어촌 목회자는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부재’를 꼽은 비율이 특별히 높았다. 교회 규모에 있어서도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큰 교회 목회자는 ‘개척교회의 난립’과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족’을, 작은 교회 목회자는 ‘교단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의 부재’와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자원’을 지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목회자의 인적사항 및 교회 현실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이 예상된다.

(16)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 과제

〈표 6-15-1〉에는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을 위해 연회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표 6-15-1〉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 과제

(단위: %)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17.5
인적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24.8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11.2
미자립교회 간 또는 인근 교회와의 통합 유도	9.9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	32.8
기타	3.9
계	100.1(N=537)

〈표 6-15-1〉에 따르면 미자립교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회의 과제로서는 무엇보다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32.8%)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적 또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24.8%)가 꼽히고 있다. 그 다음은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17.5%),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11.2%), ‘미자립교회 간 또는 인근 교회와의 통합 유도’(9.9%) 순이다. ‘기타’(3.9%) 가운데는 ‘최저생활비 보장’이라는 의견이 여러 목회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결국 미자립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교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자립교회 문제의 극복을 위한 과제로서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을, 나이가 적고 연급이 낮으며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 혹은 ‘인적 또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가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농어촌 목회자의 경우,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의 경우 특별히 많았다.

(17) 은급제도에 대한 대안

감리교의 은급제도는 그 기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회자가 많다. <표 6-16-1>은 목회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6-16-1> 은급제도에 대한 대안

(단위: %)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은급금 축소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	교회 부담금 확대	잘 모르겠다	기타	계
67.5	3.0	10.3	7.0	8.8	3.4	100.0(N=532)

<표 6-16-1>에 나타난 대로 은급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찬성하는 방안은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67.5%)는 것이었다. ‘은급금 축소’(3.0%),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10.3%), ‘교회 부담금 확대’(7.0%)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목회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항목에는 ‘대형 교회가 은급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하자는 의견에는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 요약

감리교 구조와 제도에 대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평가와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교 단의 당면과제로는 무엇보다 ‘미자립교회 문제’와 ‘목회자 수급문제’가 꼽히고 있다. 연급이 낮

고 목회 경력이 짧은 목회자는 ‘미자립교회 문제’를, 연급이 높고 경력이 긴 목회자는 ‘목회자 수급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감리교의 분업 구조는 ‘본부는 정책, 연회는 행정과 인사관리, 지방은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53.2%)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22.2%)보다 많았다. 전 현직 감독의 호칭에 있어서는 감리교 목회자의 절대 다수(84.1%)가 “현직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로 호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현직 감독을 모두 감독으로 호칭하자는 의견에는 7.8%만이 동의하고 있다.

현재 감리교의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는 다수(63.2%)가 ‘불만’이라고 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6.8%에 머물고 있다.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 도시 교회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가 현재의 감독(회장)제도에 대하여 더욱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독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수가 연회장 제도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즉 연회 숫자를 늘리든지 현재대로 하든지 “연회대표는 연회장으로 칭하고 교단대표만 감독으로 칭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이가 많고 연급이 높으며 목회 경력이 긴 목회자가 연회장제도에 더 찬성하고 있다.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는 현행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불만’이라고 했고(73.3%), 13.8%의 목회자만이 그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감독선거제도 개선안으로는 ‘현행 제도와 제비뽑기를 절충’하는 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4.4%), ‘제비뽑기’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29.8%). 따라서 다수의 감리교 목회자는 어떤 형태로든 감독선거에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할 것을 원하고 있다. ‘현행대로’ 감독선거를 하기 원하는 목회자는 소수(9.8%)에 불과하다.

지방의 통폐합 문제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비율(19.3%)과 “지방 숫자를 늘리자”는 비율(19.3%)이 같지만 지방을 “통폐합하여 그 숫자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53.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30-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자”는 것이었다. 교단의 대사회업무는 현재대로 사회평신도국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37.2%)이 사회국을 신설하자는 의견(28.7%)보다 많았다.

목회자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수의 목회자가 “신학대학 졸업생 수를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51.2%). 그 밖에 ‘기관목회 진급제도 확립’ (15.9%) 및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10.5%)에 동조하는 목회자들도 있었다. 목회자 수급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신학대학원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수(69.4%)의 목회자가 찬성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통폐합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44.4%)와 ‘교역자 수급 조정’ (37.3%)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신학대학원의 통폐합 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84.8%)가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신학대학(혹은 신학과)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하자”는 데 동의하는 목회자가 가장 많았다(51.2%).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 (29.1%)과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부재’ (25.7%)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개척교회의 난립’ (12.4%),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재’ (12.0%)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자립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히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 (32.8%), ‘인적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24.8%),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17.5%)에 찬성하는 목회자 비율이 높았다. 결국 대다수(75.1%)의 목회자는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이 문제 해결의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은급제도에 있어서는 다수(67.5%)의 목회자가 그 대안으로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것”에 동조하고 있다.

3. 결론 : 요약과 평가 및 제언

1) 조사연구 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감리교 준회원 이상의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회 실태와 목회자의식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그 조사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본다.

(1) 감리교 목회자의 인적사항

- ① 목회자의 성별을 보면 준회원 이상의 담임 목회자는 절대 다수(97.8%)가 남성이다.
- ② 목회자의 나이를 보면 감리교 목회자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평균 연령은 48.4세이다. 연회별로 목회자의 평균 나이를 보면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는 50대 초반, 중부·경기·중앙·남부·충청연회는 40대 후반, 동부, 충북, 삼남 연회는 40대 중반이다.
- ③ 목회자 연급은 그 중간값이 정회원 12년급이다.
목회자 연급은 서울연회가 가장 높고, 서울남·중부연회는 높은 편, 경기·충청·중앙연회는 중간 수준, 충북·동부·남부·삼남연회는 낮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일수록 연급이 높다.
- ④ 목회자의 학력은 대다수(77.2%)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다음은 M.Div(일

반대학, 신학대학원) 출신(11.1%)이다.

- ⑤ 목회자의 출신 학교(신학대학)는 감신대(31.5%), 협성대(26.9%), 목원대(22.5%) 순이다.

감신대 출신은 서울·서울남·중부·동부연회에, 협성대 출신은 경기·중앙·충북·충청연회에, 목원대 출신은 남부·삼남연회에 가장 많다.

- ⑥ (신학)대학원은 감신대 출신이 특히 많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48.4%). 다음은 협성대(21.9%), 목원대(14.8%) 순이다.

- ⑦ 목회자의 목회 경력의 중간값은 17.2년이다. 목회 경력은 서울·서울남연회 목회자가 가장 길고, 중부·경기·충청연회 목회자는 중간 수준이며, 중앙·동부·충북·남부·삼남연회 목회자가 가장 짧다.

- ⑧ 목회자의 사역교회 수는 중간값이 2.7교회이다.

대체로 감리교 목회자는 지금까지 세 교회 정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말이다.

- ⑨ 현 목회지에서 목회 기간은 중간값이 7년이다.

그 기간은 서울·서울남·중부·경기·충청연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고, 중앙·동부·충남·남부·삼남연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다.

- ⑩ 목회자 사례비는 매우 적어 전체 목회자 사례비의 중간값은 181만 원에 불과하다. 월 사례비가 '100만 원 미만' 인 목회자가 32%나 된다. 그것이 '300만 원 이상' 인 목회자는 27%이다.

서울·서울남·중부연회 목회자의 월 사례비 중간값은 250만 원 이상이지만, 삼남·동부·충북·남부연회 목회자의 월 사례비 중간값은 140만 원 이하이다.

(2) 감리교의 교회 현실

- ① 교회의 지역을 보면 감리교 교회는 대도시(32.1%), 중소도시(34.9%), 농어촌(33.0%)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나이의 중간값을 보면 대도시 목회자는 51세, 중소도시 목회자가 49세, 농어촌 목회자는 46세이다.

연급의 중간값을 보면 대도시 목회자는 정회원 15년급, 중소도시 목회자가 정회원 12년급, 농어촌 목회자는 정회원 8년급이다.

목회 경력의 중간값은 대도시 목회자가 22년, 중소도시 목회자는 17년,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14년이다.

목회자 사례비는 월 사례비의 중간값이 대도시 257만 원, 중소도시 203만 원, 농어촌 124

만 원이다.

- ② 교회의 설립 연한을 보면 ‘30년 이상’ 된 교회가 40% 정도이다. 감리교회 다섯 가운데 셋 이상이 1970년대 이후에 세워진 셈이다. ‘10년 미만’의 교회도 20%나 된다.

- ③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 교인 수는 그 중간값이 65명이다. 초소형 교회(20명 미만)가 25.8%, 소형 교회(20-49명)가 9.9%로 주일예배 출석 성인 교인 수가 ‘50명 미만’인 교회가 모두 46%에 이르고 있다.

중소형 교회(50-99명)는 14.2%, 중형 교회(100-199명)가 11.6%, 중대형 교회(200-499명)는 17.3%이다.

대형 교회(500-999명)는 7.4%, 초대형 교회(1,000명 이상)가 3.9%이다.

교인 수는 서울·서울남연회 소속 교회들의 경우 가장 많고, 다음은 수도권에 있는 연회 소속 교회들이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회 소속 교회들일수록 교인 수는 적다.

교인 규모에 따른 목회자 사례비의 차이가 현저하다. 예를 들어 월 사례비의 중간값이 초소형 교회는 43만 원이지만, 초대형 교회는 458만 원이다.

- ④ 유초등부 학생 수의 중간값은 20명이다. 유초등부 학생이 ‘2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의 절반이다. 그 숫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중간값이 대도시 교회는 40명, 중소도시 교회가 29명, 농어촌 교회는 10명이다.

- ⑤ 중고등부 학생 수는 더 적어서 그 중간값은 12명이다. 중고등부 학생이 ‘10명 미만’인 교회가 48%나 된다. 그 숫자는 중간값에서 대도시 교회가 23명, 중소도시 교회가 15명이나 농어촌 교회는 7명에 머물고 있다.

- ⑥ 청년부(대학부) 학생 수는 그 중간값이 불과 8명이다. 청년부(대학부) 학생이 ‘10명 미만’인 교회가 58%나 된다. 그 숫자는 중간값에서 대도시 교회는 21명, 중소도시 교회가 9명, 농어촌 교회가 5명이다.

- ⑦ 지난해(2006년) 새로 등록한 교인 수는 그 중간값이 7명이다. 이 수에는 새 신자와 이적 교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새 신자 숫자는 더 적을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신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교회가 41%나 되고 있다.

새로 등록한 교인 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숫자의 중간값이 대도시 교회는 18명, 중소도시 교회가 9명인 데 비해 농어촌 교회는 3명에 불과하다.

새로 등록한 교인 수는 교회 규모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숫자의 중간값이 초소형 교회는 2명인 데 비해, 초대형 교회는 155명에 이르고 있다. 소위 교인의 쏠림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⑧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인의 증감 상태를 보면 약 절반(51%)의 교회에서만 교인이 증가했다. 교인이 감소한 교회도 18%이며, 비슷한 교회는 31%이다.
- 도시교회, 큰 교회가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보다 성장하는 비율이 높다.
- ⑨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그 성장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활발한 전도활동’,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화기애애한 교회 분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 ⑩ 쇠퇴하는 교회의 경우 그 쇠퇴요인으로는 주로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무관심’(특히 도시 교회)과 ‘이농현상과 같은 교인들의 거주지 이동’(특히 농촌교회)이 꼽히고 있다.
- ⑪ 감리교 교회의 1년 예산(2006년)은 중간값이 8,360만 원으로 별로 많지 않다.
- 1년 예산이 ‘5,000만 원 미만’인 교회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
- 교회의 예산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 중간값이 대도시 교회는 2억 5천만 원, 중소 도시 교회가 1억 원, 농어촌 교회는 4천만 원 정도이다.
- ⑫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교회는 29%이다. 대도시 교회의 22%, 중소도시 교회의 23%, 농어촌 교회의 43%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는 주로 몇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지원받는 액수는 매우 적어 그 중간값은 43만 원에 불과하다.
- ⑬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는 교회 전체의 68%이다. 지원하고 있는 교회 숫자는 중간값이 4.5개 교회이다.
- 국외 교회나 선교사 지원 숫자는 중간값이 2.6%이다.
-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42%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

- ① 감리교 목회자가 선호하는 목회 패러다임은 주로 ‘성육신의 전통’(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과 ‘복음전도의 전통’(복음의 전통을 선포하는 생활)이다.
- ② 감리교 목회자가 목회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교인의 신앙 성숙’과 ‘말씀의 선포’이다.
- ③ 목회자가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과 ‘교인의 영적 신앙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 ④ 목회자가 교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배 출석률’이다. 다음은 ‘전도에 대한 열정’, ‘신앙적 경건생활’, ‘성실한 사회생활’, ‘교회 봉사활동’ 순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인의 신앙훈련에 있어 ‘예배 등예의 적극적 참여’와 ‘영적 능력 향상’을 가장 중요시하

고 있다.

- ⑤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다음은 ‘기도와 명상’, ‘성경연구’ 순이다. 목회에 가장 중요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가장 자주하는 설교의 주제는 ‘신앙생활’, ‘구원의 확증’, ‘하나님 믿음’, ‘치유와 축복’과 같은 것들이다.
- ⑥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혹은 일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배 순서 및 진행’ 뿐이다.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 간의 사귄’, ‘기도회’, ‘성경공부’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은 ‘국내외 선교’, ‘사회봉사활동’, ‘전도’, ‘남녀선교회 활동’, ‘각부 조직과 활동’ 등이다.
- ⑦ 감리교 목회자는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체로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미나 종류는 ‘성서연구 세미나’, ‘목회 개발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등이다.
- ⑧ 감리교 목회자는 독서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교회) 관련 정기간행물을 잘 읽지 않고 있으며(“많이 읽음” 28%), 신학(신앙)서적도 잘 읽지 않는다(‘연 10권 미만’이 60%).
- ⑨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라는 목회자가 34%나 되고 있으며, “불만이 없다”는 응답은 52%에 머물고 있다.
불만의 이유는 주로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과 ‘교인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이다.
- ⑩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75%)는 지금의 목회지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반면에, 25%는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다.
- ⑪ 감리교 목회자의 절대 다수(87%)가 목회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불만’이라는 목회자는 4%이다.

(4) 목회자의 교회인식

- ① 최근 개신교의 정세현상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는 그 원인이 무엇보다 ‘한국 교회 도덕성 상실’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교회의 영적 능력 상실’이다. 한국 교회의 ‘도덕성 상실’과 ‘영성 상실’이 개신교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 ②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목회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목회자

자질’, ‘물량주의’, ‘교회정치’이다.

- ③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의 호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는 ‘개신교인(성직자 포함)의 부도덕성’과 ‘교회의 세속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직자, 평신도의 도덕성 회복’과 ‘교회의 영성 회복’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 ④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는 한국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봉사’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이다.
- ⑤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목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 ⑥ 감리교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교회의 영성 회복’과 ‘목회자의 자질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⑦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보다 ‘가치관 혼란에 따른 도덕성 붕괴문제’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 ⑧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목회자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⑨ 감리교 목회자의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는 포용적인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 ⑩ 감리교 목회자는 개신교의 다른 교파들과의 교회연합운동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고 있지만(89%), 가톨릭교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덜 찬성하고 있다(61%).

(5) 감리교 정체성

- ① 감리교 목회자는 자신이 ‘감리교 목회자라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자부심이 강하다(강함 76%, 보통 19%, 약함 5%).
- ② 감리교 목회자가 생각하는 감리교의 장점은 무엇보다 ‘뜨거운 신앙전통’,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 ‘적극적 복음적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감리교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겠다. 감리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회자가 ‘뜨거운 신앙체험’이라고 했다.
- ③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는 ‘영적 권위’, ‘확

고한 소명감', '높은 도덕성', '목회적 전문성'을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④ 감리교 목회자들은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연과 관계된 파벌'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클 중심의 교단정치'와 '과열된 감독선거제도'를 꼽고 있다.
- 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약함', '목회자의 리더십 부족',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약함'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⑥ 개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성개발 혹은 훈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빈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에서는 주로 일상적인 새벽기도회, 특별기도회, 부흥집회, 세미나 등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교회에서만 TD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6) 감리교 구조와 제도

- ① 감리교 목회자들은 감리교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는 무엇보다 '미자립교회 문제'와 '목회자 수급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감리교 구조에 대하여는 '본부는 정책을, 연회는 행정과 인사관리, 지방은 사업'이라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③ 감독 호칭 문제에 있어서는 대다수(84%)의 감리교 목회자가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라 호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현직 모든 감독에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데는 8%만이 동조하고 있다.
- ④ 다수(63%)의 감리교 목회자가 현재의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불만'이라고 했다 ('만족' 17%).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60%)가 연회 감독을 연회장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이 경우 연회를 늘려도 좋다는 것이다. 감독제로 할 경우에는 연회 수를 줄여 전임감독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⑤ 감리교 목회자는 현행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만족' 14%, '불만' 73%).

현행 감독선거제도가 불만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다음 이유는 "학연, 지연에 근거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행 제도와 제비뽑기 절충'과 '제비뽑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64%이다. 현행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 ⑥ 지방에 대하여는 감리교 목회자의 다수(53%)가 교회들을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지방으로 가장 적절한 교회 숫자는 30-50개라고 응답하고 있다.

- ⑦ 교단의 대 사회업무는 “현행대로 사회평신도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데 찬성한 비율이 ‘사회국 신설’ 이라 ‘선교국 이양’ 에 찬성한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 ⑧ 목회자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신학대학 졸업생 수의 축소’ 를 지적한 비율이 특히 높다. 다음은 ‘기관목회 진급제도 확립’ 과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순이다.
- ⑨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신학대학원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하여 목회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찬성 69%, 반대 22%).

신학대학원 통폐합을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교역자 수급 조정’ 이었다.

신학대학원의 통폐합 방식에 있어서는 대다수(85%)의 목회자가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폐합할 경우 3개 신학대학(신학과)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신학대학원을 교단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15%만이 찬성하고 있다.

- ⑩ 감리교 목회자는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 과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을 위해 연회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로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와 ‘인적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라고 목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 ⑪ 감리교 목회자들은 다수가 은급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 (68%)할 것을 찬성하고 있다.

2) 평가와 제언

(1) 목회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 ① 감리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준회원 이상의 여목회자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여성 목회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20% 이상이 여성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감리교의 정서가 여성의 목사 안수 제도에는 찬성하면서도 여성 목회자가 교회 담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

성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목회자의 학력에서는 아직까지 '신학대+신학대학원' 졸업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경우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예를 들면 예장<통합>이나 예장<합동>)의 추세는 M. Div.(일반대+신학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감리교에서도 앞으로 신학 교육 과정은 M. Div.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③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출신의 목회자들이 각각 가장 많은 연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회별로 학연에 따른 파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신학대학원 통폐합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④ 감리교 목회자의 사례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그것은 미자립교회가 40%를 넘으며, 교인 수가 적은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규모나 목회 경력, 그리고 연회 등에 따라 목회자들 사이에 사례비의 편차가 너무 심해 좌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례비가 매우 적은 목회자들에 대한 교단적 혹은 교회적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해 보면 좋겠다.

(2) 감리교회 현실에 관한 사항

- ① 성인 교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교회' (예를 들면 교인 50명 미만의 교회)가 상당히 많다(46%). 그 원인이 교회 밀집 혹은 개척교회 난립 때문인가 아니면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 때문인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대학부) 등 교회학교 학생 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어 '교회학교의 위기'라는 사실이 현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미래 교회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적으로든 개 교회적으로든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리라고 본다.
- ③ 새로 등록하는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개신교 정체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는 절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들은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훌륭한 설교를 하며 교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성장이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고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가 판단하고 있는 교회 성장 요인에 대하여는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 ④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40만 원 정도)

실제 생활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교회 숫자도 1교회에서 5교회 이상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미자립교회를 돕는 데는 도움 받는 교회와 도움 주는 교회의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국내든 해외든)를 돕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혹은 사회봉사를 교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또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봉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사회봉사 실천 및 사회복지 지원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3) 목회현실과 목회의식에 관한 사항

- ①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 가운데 특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봉사활동’, ‘국내외 선교’, ‘전도’, ‘남녀선교회 활동’, 그리고 ‘각부 조직과 활동’이다. 반면에 ‘예배’, ‘친교’, ‘기도회’, ‘성경공부’ 등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특별히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전도와 봉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회 조직의 활성화 방안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 ② 감리교 목회자는 교단이나 연회, 지방회, 혹은 신학대학 등에서 마련하는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신앙 혹은 신학 관련 책이나 기타 간행물도 잘 읽지 않는 편이다. 한마디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요즘같이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도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연장교육이나 독서 등에 대한 목회자들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목회자의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를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주제(예를 들면 목회 개발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혹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예를 들면 미래 교회 세미나, 교회 갱신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목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나 연회, 혹은 지방 차원에서 독서하는 운동이 전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이 목회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

(4) 목회자의 교회 의식에 관한 사항

- ① 한국 개신교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도덕성과 영성의 상실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도덕성과 영성의 회복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회들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교단적으로, 그리고 개 교회적으로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회개운동, 각성운동, 대부흥운동도 결국은 도덕성, 영성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 ②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교회의 갱신이나 변화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고, 따라서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우선 교회 지도자들의 탓으로 보고 목회자들이 솔선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이 요구되고 있다.
- ③ 전반적으로 감리교 목회자들이 교회가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봉사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사회봉사는 물적, 시설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노력봉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보다 활발하게 사회봉사를 실천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④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변화될 환경에 대하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은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과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이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 ⑤ 감리교 목회자들은 개신교 다른 교파들과의 교회연합운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감리교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교회갱신이나 부흥운동, 사회봉사와 같은 일들에서는 다른 교단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타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며, 심지어는 가톨릭에 대해서도 감리교 목회자는 적지 않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화적으로 다원화와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좀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감리교 정체성에 관한 사항

- ① 감리교 목회자들은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감리교 목회자'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

지고 있으며, 감리교의 장점은 ‘뜨거운 신앙’ (경건주의), ‘복음적 열정’ (복음주의), ‘포용적 신학 전통’ (포용주의)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장로교와 구분될 수 있는 감리교 교리나 신학의 특징에 대하여 감리교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예를 들면 감리교 영성을 ‘뜨거운 신앙체험’으로만 이해하려는 분위기는 감리교에 대한 다소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② 목회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영적 권위, 확고한 소명감, 높은 도덕성, 목회적 전문성이라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만큼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감리교 목회자들은 이러한 네 가지 자질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목회자들이 갖출 수 있는 방안이 교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오늘날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연문제, 교단정치문제, 감독선거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들은 감리교단의 병폐로 오래 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다. 제도와 구조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④ 한국 감리교회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무엇보다 목회자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국 감리교회 문제의 우선적인 책임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책임적인 자세이다. 또 하나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역할 의식이다. 따라서 감리교 목회자는 말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의 다른 문제는 교인들의 신앙적, 선교적 열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⑤ 교회에서 교인들이 영성 개발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도회, 부흥회와 같은 흔하고 일상적인 것 외에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단적, 교리적 차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6) 감리교 구조와 제도에 관한 사항

- ① 감리교 구조에 대한 다수 목회자들의 생각은 ‘본부는 정책을, 연회는 행정과 인사관리, 지방은 사업’을 책임지는 분업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본부, 연회, 지방의 효율적이고 책임적인 업무 분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감독 호칭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전직 감독은 목사라고 호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 ③ 다수의 목회자들이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연회장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즉 교단을 대표하는 전임제 감독 이외의 연회 감독들은 연회장으로 호칭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회 수를 더 늘려도 좋다고 한다. 연회장 제도에 대해서도 교단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④ 현재의 감독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현행 제도에 제비뽑기 방식을 절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역시 감독선거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 ⑤ 지방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목회자가 지방을 통폐합하여 지방의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방식은 ‘30-50개 교회를 하나의 지방으로 재조정하는’ 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⑥ 감리교 목회자들은 감리교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자립교회 문제’와 ‘목회자 수급문제’를 꼽고 있는데, 이 둘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목회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학대학원이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통폐합은 학연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이외에 따로 통합 신학대학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반대한다. 통합 신학대학원을 교단에 따로 만드는 것은 학연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옥상옥이 되어 기존 신학대학원의 교육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교육은 신학교육 전문가와 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신학대학원 통폐합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기존 3개의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 이 문제는 3개 신학대학과 교단이 함께 진지하게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⑦ 미자립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목회자 다수의 생각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내용의 지원이 미자립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 감리교 교회의 실태와 목회자 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 조사는 준회원 이상의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감리교 목회자 전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실태,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의 일반적 의식 성향을 알아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도 했고, 희망적인 감리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제언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부터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중요한 것은 본 조사를 통하여 감리교 교회와 목회자의 실상과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들을 어떻게 교단 발전과 교회 발전 및 목회자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교단 문제, 개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이 공론의 장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Tel.02/399-4300 Fax.02/399-4307

감독회장 신 경 하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ethodist Building 16F, 64-8, Taepyungro 1-ga,
Jung-Gu, Seoul, Korea, 100-101
Tel.82-2-399-4300 Fax.82-2-399-4307
Bishop Shin, Kyoung Ha President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감비제2006-246호

2006. 11. 20

수 신 : 담임목회자

제 목 :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협조 의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감리교회의 구조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과정의 하나로 먼저 교회실태 및 목회자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신대 이원규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총회와 연회, 지방회, 개체 교회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반송해 주신다면 감리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이 조사에는 교회와 목회자 성함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조사결과는 비밀을 지키며, 단순히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제시된 물음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평소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 후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바로 본부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참고로 이 설문조사는 국내 감리교회 중 20%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담임 목회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5. 귀하의 응답은 대단히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신속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설문지 2) 반송용 봉투

감독회장 신 경 하
장 단 기 발 전 위 원 회
위 원 장 권 오 서

I. 인적사항 (해당되는 곳에 O표 혹은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

2.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

3.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정회원 21년급 이상 () ② 정회원 11-20년급 ()
③ 정회원 1-10년급 () ④ 준회원 ()

4. 귀하의 학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신학대학 졸업 () ②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
③ 일반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 ④ 일반대학, 신학대학 졸업 ()
⑤ 정규 신학대학 졸업 못함 () ⑥ 기타 ()

5. 귀하는 학부에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① 감신대 신학과 () ② 목원대 신학과(혹은 대전감리교신학대학) ()
③ 협성대 신학과 () ④ 타교단 혹은 초교파 신학대학 ()
⑤ 일반대 신학과 () ⑥ 신학대 일반학과 ()
⑦ 일반대학 () ⑧ 기타 ()

6. 귀하는 어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만 대답하세요)

- ① 감신대 () ② 목원대 ()
③ 협성대 () ④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
⑤ 타 신학대학 () ⑥ 기타 ()

7. 귀하는 어느 연회 소속입니까?

- ① 서울연회 () ② 서울남연회 () ③ 중부연회 () ④ 경기연회 ()
⑤ 중앙연회 () ⑥ 동부연회 () ⑦ 충북연회 () ⑧ 남부연회 ()
⑨ 충청연회 () ⑩ 삼남(호남선교)연회 ()

8. 귀하의 목회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4년 이하 () ② 5-9년 () ③ 10-19년 ()
④ 20-29년 () ⑤ 30년 이상 ()

9. 귀하는 지금까지 담임 혹은 부담임으로서 몇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 ① 한 교회 () ② 두 교회 () ③ 세 교회 () ④ 네 교회 ()
⑤ 다섯 교회 이상 ()

10. 귀하는 현재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몇 년째 섬기고 계십니까?

- ① 2년 이하 () ② 3-5년 () ③ 6-9년 () ④ 10-14년 ()
⑤ 15-19년 () ⑥ 20년 이상 ()

11. 귀하의 월 사례비는 모두(본봉, 목회비, 자녀교육비, 도서비 등 모두 포함) 매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 ② 50-99만원 () ③ 100-149만원 ()
④ 150-199만원 () ⑤ 200-299만원 () ⑥ 300-399만원 ()
⑦ 400-499만원 () ⑧ 500만원 이상 ()

II. 교인 현실

12. 귀 교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
② 중소도시 (광역시 이외의 시) () ③ 농어촌 (군, 면) ()

13. 귀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9년 () ③ 10-19년 () ④ 20-29년 ()
⑤ 30-49년 () ⑥ 50년 이상 ()

14. 귀 교회의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성인의 평균 인원은 대체로 몇 명 정도입니까?

- ① 20명 미만 () ② 20-49명 () ③ 50-99명 () ④ 100-199명 ()
⑤ 200-499명 () ⑥ 500-999명 () ⑦ 1,000명 이상 ()

15. 귀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0명 미만 () ② 10-19명 () ③ 20-49명 ()
④ 50-99명 () ⑤ 100-199명 () ⑥ 200명 이상 ()

16. 귀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0명 미만 () ② 10-19명 () ③ 20-29명 ()
④ 30-49명 () ⑤ 50-99명 () ⑥ 100명 이상 ()

17. 귀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 청년부(대학부) 학생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0명 미만 () ② 10-19명 () ③ 20-29명 ()
④ 30-49명 () ⑤ 50-99명 () ⑥ 100명 이상 ()

18. 금년(2006년)에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① 없다 () ② 5명 미만 () ③ 5-9명 ()
④ 10-19명 () ⑤ 20-29명 () ⑥ 30-49명 ()
⑦ 50-99명 () ⑧ 100명 이상 ()

19. 최근 몇 년간을 돌이켜 볼 때 예배에 출석하는 전체적인 교인 수는 줄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① 많이 줄고 있다 () ② 약간 줄고 있다 () ③ 비슷하다 ()
④ 약간 늘고 있다 () ⑤ 많이 늘고 있다 ()

20. 만일 지난 몇 년간 귀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되어 왔다면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교인 수가 증가된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 ② 성령부흥운동 ()
- ③ 활발한 전도활동 () ④ 다양한 교회행사와 프로그램 ()
- ⑤ 타 교회로부터의 교인 이적 () ⑥ 화기애애한 교회 분위기 ()
- ⑦ 지역사회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식 변화 () ⑧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
- ⑨ 기타 () (설명하십시오:)

21. 만일 지난 몇 년간 귀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되어 왔다면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교인 수가 감소된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무관심 () ② 사람들이 세상일을 더 즐기게 됨 ()
- ③ 이농현상과 같은 교인들의 거주지 이동 () ④ 교회 선교 프로그램의 취약성 ()
- ⑤ 교인들의 신앙심 약화 ()
- ⑥ 목회자의 노력과 열성이 약화됨 ()
- ⑦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림 ()
- ⑧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란이 있었음 ()
- ⑨ 주변에 교회가 많이 생겨남 ()
- ⑩ 제사나 주초문제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태도 ()
- ⑪ 기타 () (설명하십시오:)

22. 귀 교회의 2006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① 500만 원 미만 () ② 500-999만 원 ()
- ③ 1,000-2,999만 원 () ④ 3,000-4,999만 원 ()
- ⑤ 5,000-9,999만 원 () ⑥ 1억-2억 9,999만 원 ()
- ⑦ 3억-4억 9,999만 원 () ⑧ 5억-9억 9,999만 원 ()
- ⑨ 10억 원 이상 ()

23. 귀 교회는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받고 있다 () ② 받지 않고 있다 ()

24. 만일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입니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매월 한두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 ② 매월 세 교회 이상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 ③ 매월 몇몇 개인 후원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
- ④ 매월 몇몇 후원자와 몇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
- ⑤ 비정기적으로 몇 교회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
- ⑥ 기타 () (설명하십시오:)

25. 귀 교회가 만일 다른 교회(들) 혹은 개인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지원 액수는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20만 원 미만 () ② 20-39만 원 () ③ 40-59만 원 ()
- ④ 60-79만 원 () ⑤ 80-99만 원 () ⑥ 100만원 이상 ()

26. 귀 교회는 국내외의 다른 교회(들)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 ② 하지 못하고 있다 ()

27. 만일 귀 교회가 국내의 다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하는 교회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1교회 () ② 2-3교회 () ③ 4-5교회 () ④ 6-9교회 () ⑤ 10교회 이상 ()

28. 만일 귀 교회가 국외의 교회나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1교회(혹은 선교사) () ② 2-3교회(선교사) () ③ 4-5교회(선교사) ()
- ④ 6-9교회(선교사) () ⑤ 10교회(선교사) 이상 ()

29. 귀 교회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물질적으로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 ① 돕지 못하고 있다 () ② 1곳을 돕고 있다 () ③ 2-3곳을 돕고 있다 ()
- ④ 4-5곳을 돕고 있다 () ⑤ 6-9곳을 돕고 있다 () ⑥ 10곳 이상을 돕고 있다 ()

III. 목회현실

30. 귀하의 목회 패러다임은 다음의 어느 것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묵상의 전통 (기도로 충만한 생활) ()
- ② 성결의 전통 (마음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는 덕이 있는 생활) ()
- ③ 카리스마의 전통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은 생활) ()
- ④ 사회정의의 전통 (정의와 평화에 초점을 두는 생활) ()
- ⑤ 복음전도의 전통 (복음의 전통을 선포하는 생활) ()
- ⑥ 성육신의 전통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 ()

31. 귀하가 목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세 가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교인 수의 증가 () ② 교인의 신앙성숙 ()
- ③ 교회 재정의 충분한 확보 () ④ 말씀의 선포 () ⑤ 속회 등 소그룹활성화
- ⑥ 예배 프로그램의 활성화 () ⑦ 새 신자의 관리 ()
- ⑧ 교회 건물의 신축 혹은 증축 () ⑨ 교회교육의 활성화 () ⑩ 기도회의 활성화 ()
- ⑪ 수양관이나 기도원의 건립 () ⑫ 교인들 상호간의 친교 () ⑬ 심방과 상담 ()
- ⑭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활성화 () ⑮ 교회의 구제 및 봉사사업 활성화 ()
- ⑯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
- ⑰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32. 귀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 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 ② 교회 예산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는다 ()
- ③ 교인들의 영적 신앙이 향상되지 않는다 ()
- ④ 교인들이 교회활동과 참여에 소극적이다 ()
- ⑤ 교인들이 목회자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
- ⑥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다 () ⑦ 교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 ⑨ 고민이 없다 ()

33. 귀하가 교인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① 예배에의 출석률 () | ② 선교회나 속회와 같은 교회 모임에의 참여도 () |
| ③ 전도에 대한 열정 () | ④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집회 참석도 () |
| ⑤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 | ⑥ 기도나 성경통독과 같은 개인적인 경건생활 () |
| ⑦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성실성 () | ⑧ 헌금의 액수 혹은 헌금을 내는 태도 () |
| ⑨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 | ⑩ 도덕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함 () |
| ⑪ 기타 () (설명하십시오:) | |

34. 귀하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영적 능력 향상 () | ② 예배 등에서의 적극적 참여 () |
| ③ 적극적인 전도활동 () | ④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함 () |
| ⑤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 () | |
| ⑥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 () | |
| ⑦ 기타 () (설명하십시오:) | |

35. 귀하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를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 | | | | |
|-----------------------------------|-------------------------|--------------|--------------|
| ① 설교 준비 () | ② 성경연구 () | ③ 기도와 명상 () | ④ 행정과 사무 () |
| ⑤ 심방 () | ⑥ 애경사 참여 및 각종 의례 집례 () | | |
| ⑦ 교단, 연회, 지방회의 일 () | ⑧ 상담 () | | |
| ⑨ 목회자들과의 만남 및 비공식 회의 () ⑩ 기타 () | | | |

36. 귀하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죄의 용서 () | ② 치유와 축복 () | ③ 성령 체험 () |
| ④ 내세의 소망 () | ⑤ 구원의 확증 () | ⑥ 하나님 믿음 () |
| ⑦ 신앙생활 () | ⑧ 교회봉사 () | ⑨ 가정의 평화 () |
| ⑩ 이웃에 대한 사랑 () | ⑪ 사회적 책임과 참여 () | ⑫ 민족문제와 인류문제 () |
| ⑬ 기타 () (설명하십시오:) | | |

37-48. 귀하의 교회에서는 다음의 사업이나 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이루어 지고 있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7. 예배 순서 및 진행	()	()	()	()	()
38. 성경공부	()	()	()	()	()
39. 교회학교의 교육	()	()	()	()	()
40. 기도회	()	()	()	()	()
41. 속회 조직과 활동	()	()	()	()	()
42. 남녀선교회 활동	()	()	()	()	()
43. 각부 조직과 활동	()	()	()	()	()
44. 국내외 선교	()	()	()	()	()
45. 전도	()	()	()	()	()
46. 사회봉사활동	()	()	()	()	()
47. 신앙 및 생활상담	()	()	()	()	()
48. 성도 간의 사귄	()	()	()	()	()

49. 귀하는 교단, 연회, 지방회 혹은 신학대학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장교육 혹은 세미나 프로그램 등에 얼마나 자주 참가해 오셨습니까?

- ① 자주 참여해 왔다 () ② 가끔 참여해 왔다 () ③ 별로 참여하지 못했다 ()
④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

50. 귀하가 만일 연장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에 별로 혹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로 혹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신 경우에만 대답하십시오)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④ 목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관심이 없어서 ()
⑥ 기타 () (설명하십시오:)

51.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면 어떤 주제의 세미나에 가장 참가하고 싶으십니까?

- ① 교회 성장 세미나 () ② 목회 개발 세미나 () ③ 성서연구 세미나 ()
④ 목회상담 세미나 () ⑤ 교회갱신 세미나 () ⑥ 리더십 세미나 ()
⑦ 가정생활 세미나 () ⑧ 신학 세미나 ()
⑨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52. 귀하는 교회 혹은 기독교와 관계된 정기간행물(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 ① 많이 읽고 있다 () ② 많이 읽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읽지 못하고 있다 () ⑤ 거의 읽지 못하고 있다 ()

53. 귀하는 성경주석 혹은 성경강해와 관련된 책 이외에 신앙 혹은 신학서적을 금년 한 해 동안 몇 권 정도 읽으셨습니까?

- ① 한 권도 읽지 못함 () ② 1-2권 () ③ 3-5권 () ④ 6-9권 ()
⑤ 10~19권 () ⑥ 20권 이상 ()

54. 귀하는 지금 하시는 목회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 ① 불만이 많이 있다 () ② 불만이 약간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이 별로 없다 () ⑤ 불만이 전혀 없다 ()

55. 만일 지금의 목회에 불만이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이 있다는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 ① 교회가 성장이 안 됨 () ②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음 ()
③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움 () ④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음 ()
⑤ 교인들과 호흡이 맞지 않음 () ⑥ 나 자신의 발전이 없음 ()
⑦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56. 귀하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의 목회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있고 싶다 () ② 어느 정도 오래 있고 싶다 ()

- ③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 ④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

57. 귀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어느 정도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스럽다 ()

IV. 교회의식

58.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개신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 개신교 정체현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적수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늘어남 ()
② 여가산업의 발달과 향락주의 가치관의 만연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림 ()
③ 한국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함으로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함 ()
④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함 ()
⑤ 한때 뜨거웠던 교회의 신앙적, 선교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 ()
⑥ 교회가 사람들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갖추지 못함 ()
⑦ 사회변화에 대처하거나 이를 선도할 역량을 교회가 갖추지 못함 ()
⑧ 한국 교회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목회모델을 개발하지 못함 ()
⑨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59. 귀하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단분열 () ② 물량주의 () ③ 기복신앙 () ④ 교회정치 ()
⑤ 배타주의 () ⑥ 반 지성주의 () ⑦ 목회자 자질 () ⑧ 평신도 자질 ()
⑨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60. 일반 시민들 대상의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는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교리의 경직성 () ② 일부 개신교인(성직자 포함)의 부도덕성 ()
③ 교회의 세속화 () ④ 무분별한 팽창주의 ()

- ⑤ 사회봉사 기능 못함 () ⑥ 교회 분쟁과 분열 ()
 ⑦ 존경받는 지도자 부재 () ⑧ 타 종교 및 전통문화에 대한 배타성 ()
 ⑨ 지나친 전도 방식 ()
 ⑪ 기타 () (설명하시오:)

61. 귀하는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여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직자, 평신도의 도덕성 회복 () ② 배금주의와 같은 세속적 가치 극복 ()
 ③ 교회의 참된 영성 회복 () ④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
 ⑤ 교회(교단) 일치와 화해 () ⑥ 타 종교 및 전통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 ()
 ⑦ 교회 지도력의 개발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62. 귀하는 한국 교회가 다음의 교회 역할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도 () ② 예배 () ③ 교육 () ④ 친교 () ⑤ 봉사 ()

63. 귀하는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교회가 강조하고 개발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일성수를 더욱 강조 ()
 ② 교회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 및 사회 중심의 목회 개발 ()
 ③ 주말예배의 신설 및 활성화 () ④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 ()
 ⑤ 농촌 교회와 연대한 주말 및 주일 프로그램 개발 ()
 ⑥ 특별히 바꿀 것은 없다 ()
 ⑦ 기타 () (설명하시오:)

64. 귀하는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회(교단)의 화해와 일치 () ② 외형에 너무 치우치는 것 지양 ()
 ③ 목회자의 자질 향상 () ④ 평신도의 자질 향상 ()
 ⑤ 교회의 세속화 극복 () ⑥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 ()
 ⑦ 개 교회주의 탈피 () ⑧ 교회의 영성 회복 ()

⑨ 올바른 선교사업 추진 ()

⑩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 ()

⑪ 기타 () (설명하시오:

)

65. 귀하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 ()

② 소년인구 감소에 따른 청소년문제 ()

③ 이혼 등 가족해체 문제 ()

④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문제 ()

⑤ 생명경시 풍조 등 공동체성 문제 ()

⑥ 가치관 혼란에 따른 도덕성 붕괴 문제 ()

⑦ 환경파괴와 공해문제 ()

⑧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문제 ()

⑨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

⑩ 기타 () (설명하시오:)

66. 귀하는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교인을 위한 구제사업까지 ()

② 불우이웃 돕기 자선, 긴급구조 등의 단순 구제사업까지 (1+2) ()

③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탁아소, 노인학교 등)까지 (1+2+3) ()

④ 전문적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의 설립 및 운영까지 (1+2+3+4) ()

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까지 (1+2+3+4+5) ()

⑥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 (1+2+3+4+5+6) ()

67. 귀하는 타 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철저하게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

② 나의 종교와 경쟁관계에 있다 ()

③ 인류 사회를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

④ 별로 관심이 없다 ()

68. 몇 해 전부터 성탄절에 불교방송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초파일에 기독교방송에서 석가 탄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방송하려고 한다면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① 철저하게 반대할 것이다 ()

② 어느 정도 반대할 것이다 ()

③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어느 정도 찬성할 것이다 ()

⑤ 매우 찬성할 것이다 ()

69. 귀 교회나 감리교가 개신교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교단과 함께 교회연합사업(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② 어느 정도 찬성한다 ()
- ③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 ④ 어느 정도 반대한다 ()
- 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70. 귀하는 감리교가 가톨릭교회와 함께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② 어느 정도 찬성한다 ()
- ③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 ④ 어느 정도 반대한다 ()
- 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V. 감리교 정체성

71. 귀하는 감리교 목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 ② 자부심이 강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자부심이 약한 편이다 () ⑤ 자부심이 매우 약하다 ()

72. 귀하는 감리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뜨거운 신앙적 전통 () ② 적극적인 복음적 열정 ()
- ③ 포용적인 신학적 전통 () ④ 성결(성화)운동에 대한 전통 ()
- ⑤ 화합과 일치의 정신 () ⑥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
- ⑦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관계 ()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73. 귀하는 감리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죄책고백과 회개 () ② 뜨거운 신앙체험 ()
- ③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 () ④ 적극적인 신앙생활 ()
- ⑤ 묵상과 기도생활 () ⑥ 심신수련과 훈련 ()
- ⑦ 도덕적 완전 추구 ()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74. 귀하는 오늘날 감리교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적 권위 () ② 강한 리더십 () ③ 목회적 전문성 ()
- ④ 확고한 소명감 () ⑤ 신앙적 열정 () ⑥ 말씀의 능력 ()
- ⑦ 높은 도덕성 () ⑧ 미래적 비전 () ⑨ 개방적 마인드 ()
- ⑩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75. 귀하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서클 중심의 교단 정치 () ② 학연과 관계된 파벌 ()
- ③ 과열된 감독선거제도 () ④ 교계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 ()
- ⑤ 교단정책의 부재 () ⑥ 교단과 교회의 괴리 ()
- ⑦ 신학자의 자유주의 신학 () ⑧ 목회자의 신앙적 보수화 ()
- ⑨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 ⑩ 에큐메니컬 정신의 퇴조 ()
- ⑪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76. 귀하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헌신이 부족하다 () ②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약하다 ()
- ③ 교인들의 선교적 열정이 약하다 () ④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이 약하다 ()
- ⑤ 목회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 ⑥ 교회의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
- ⑦ 교회가 사회봉사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77. 귀하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성 개발 및 훈련을 위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두 기술해 주십시오.

VI. 감리교 구조와 제도

78. 귀하는 감리교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자립교회 문제 () ② 목회자 수급 문제 ()

- ③ 감독선거제도 보완 문제 () ④ 교단본부 구조조정 문제 ()
 ⑤ 목회자윤리 문제 () ⑥ 은급제도 보완 문제 ()
 ⑦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마련 문제 ()
 ⑧ 기타 () (설명하시오:)

79. 현재 감리교에서 본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는 사업을 하는 식으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

80. 현재 감리교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본부는 정책을, 연회는 행정과 인사관리, 지방은 사업이라는 구조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

81. 귀하는 전현직 모든 감독에 대한 호칭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현직 모든 감독에 대하여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② 현직 감독만 감독이라 호칭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목사라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 ()
 ③ 아무래도 상관없다 () ④ 잘 모르겠다 ()

82. 귀하는 현재의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83. 귀하가 만일 현행 감독제도에 불만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대답하십시오)

- ① 연회의 숫자를 늘려 감독 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
 ② 연회의 숫자를 늘리되 연회대표는 연회장으로 칭하고 교단대표만 감독이라 칭한다 ()
 ③ 연회를 통폐합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 그 연회대표는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 ()
 ④ 연회 수는 그대로 두고 감독 수를 줄이되 2-3개 연회를 관할하도록 하고 그 책임자는 모두 전임제 감독으로 한다 ()
 ⑤ 기타 () (설명하시오:)

84. 귀하는 현행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85. 현재의 감독선거제도에 대하여 불만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이라고 하신 분만 대답하십시오)

- ①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
② 학연, 지연에 근거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
③ 총대 숫자가 적어 모든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④ 기타 () (설명하십시오:)

86. 감독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 ②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 좋다 ()
③ 현행 제도와 제비뽑기 제도를 절충한다 () ④ 정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 (설명하십시오:)

87. 현재 국내 연회에 속해 있는 지방회는 모두 195개이지만 지방별로 교회 수는 10여 개에서 40여 개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위해 지방을 통폐합하여 지방회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교회 수가 많은 지방은 오히려 분할해서 지방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 ()
② 현행의 지방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③ 30-5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
④ 50-7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
⑤ 70-100개 교회를 한 지방으로 통폐합하여 전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
⑥ 잘 모르겠다 ()
⑦ 기타 () (설명하십시오:)

88. 감리교단에는 원래 사회국이 있었으나 이 부서가 없어지면서 전에는 선교국 안에, 지금은 사회평신도국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 주요 교단들에서는 본부에

사회부 혹은 사회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교단에도 사회국을 다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현행대로 교회의 대 사회 업무는 사회평신도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
- ② 전에 했던 대로 선교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 ()
- ③ 사회국을 다시 본부에 만드는 것이 좋다 () ④ 잘 모르겠다 ()

89. 신학대학 졸업생 수에 비해 목회지가 부족하여 목회자 수급문제가 심각합니다. 귀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학대학 졸업생 수 축소 () ② 개척교회 설립 확대 ()
- ③ 수련목 제도 활성화 () ④ 기관목회(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진급제도 확립 ()
- ⑤ 부담임자 진급제도 신설 ()
- ⑥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90. 신학생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신학대학원 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원의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91. 귀하가 만일 신학대학원의 통폐합에 찬성하신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하시는 분만 대답하십시오)

- ① 교역자 수급 조정 () ②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
- ③ 일관된 신학교육 () ④ 교단 신학대학 위상 확립 ()
- ⑤ 용이한 재정확충 ()
- ⑥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92. 만일 신학대학원의 통폐합에 찬성하신다면 귀하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만 대답하십시오)

- ①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신학대학원을 교단에 설립한다 ()
- ② 3개 신학대학(혹은 신학과)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한다 ()
- ③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앤다 ()
- ④ 기타 () (설명하시오: _____)

93. 귀하는 감리교에서 미자립교회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자들이 대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 ② 개척교회가 과다하게 난립하고 있음 ()
- ③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리더십 부족 ()
- ④ 교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부재 ()
- ⑤ 미자립교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 ()
- ⑥ 기타 () (설명하시오:)

94. 귀하는 미자립교회 문제 극복을 위해 연회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
- ② 인적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자립 유도 ()
- ③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
- ④ 미자립교회 간 또는 인근 교회와의 통합 유도
- ⑤ 대형 혹은 중형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유도 ()
- ⑥ 기타 () (설명하시오:)

95. 감리교의 은급제도가 그 기금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은급제도 운영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 ()
- ② 은급금을 축소한다 ()
- ③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한다 ()
- ④ 교회 부담금을 확대한다 ()
- ⑤ 잘 모르겠다 ()
- ⑥ 기타 () (설명하시오:)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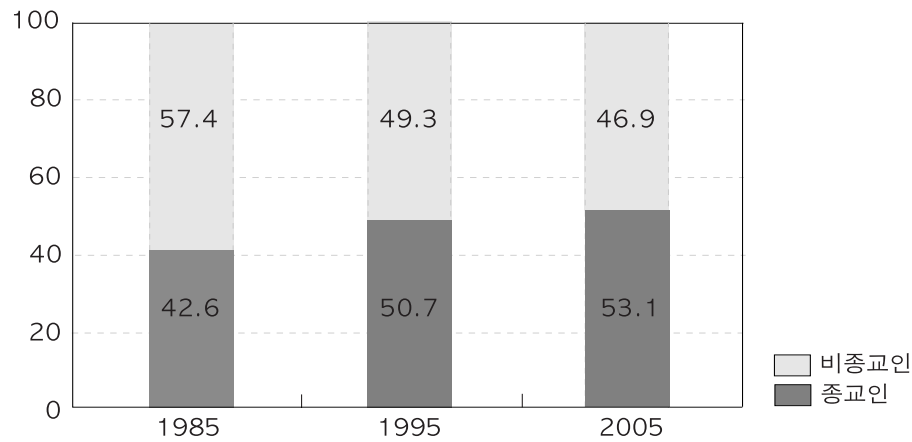
감리교회 기초 통계 자료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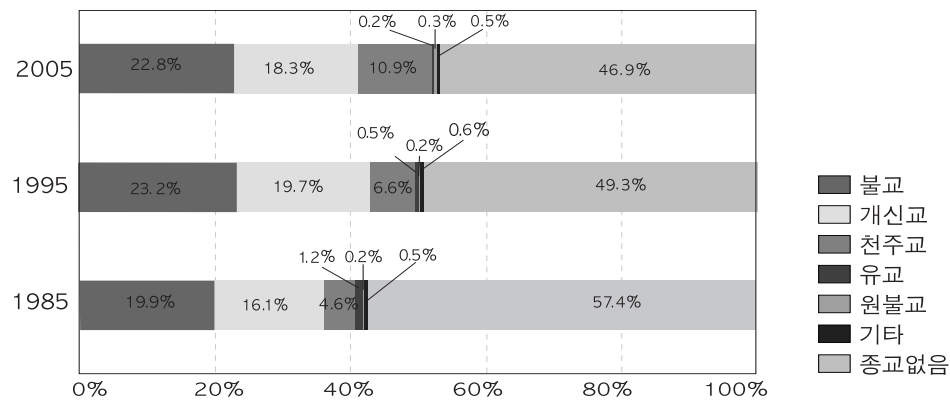
1. 기초 통계 자료는 대한민국 종교 현황과 남북한 장래 인구 추정 및 감리교회의 교세를 통계 자료화 한 것입니다.
2. 감리교회 통계의 밑자료는 2006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5,825교회의 통계표입니다. 이 외에도 연회보고서와 은금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3. 2007년도 통계는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00년도는 직전 해 12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한 것입니다.
4. 《백서》 발간을 위해 작성된 기초 통계 자료는 이전의 통계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검토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다만 밑자료의 미흡성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 한국의 종교 현황

1) 종교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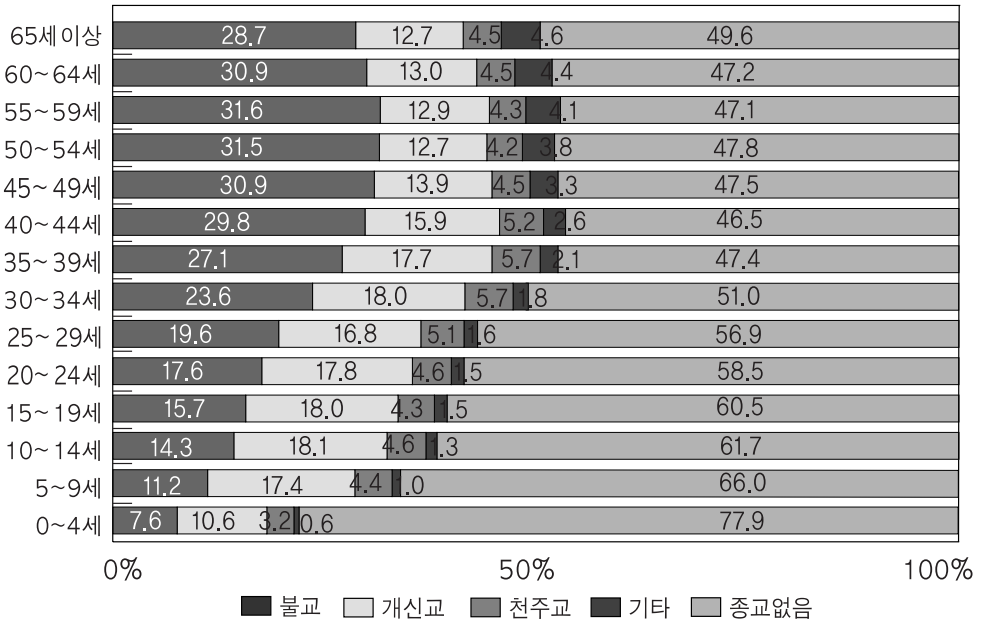
2) 종교별 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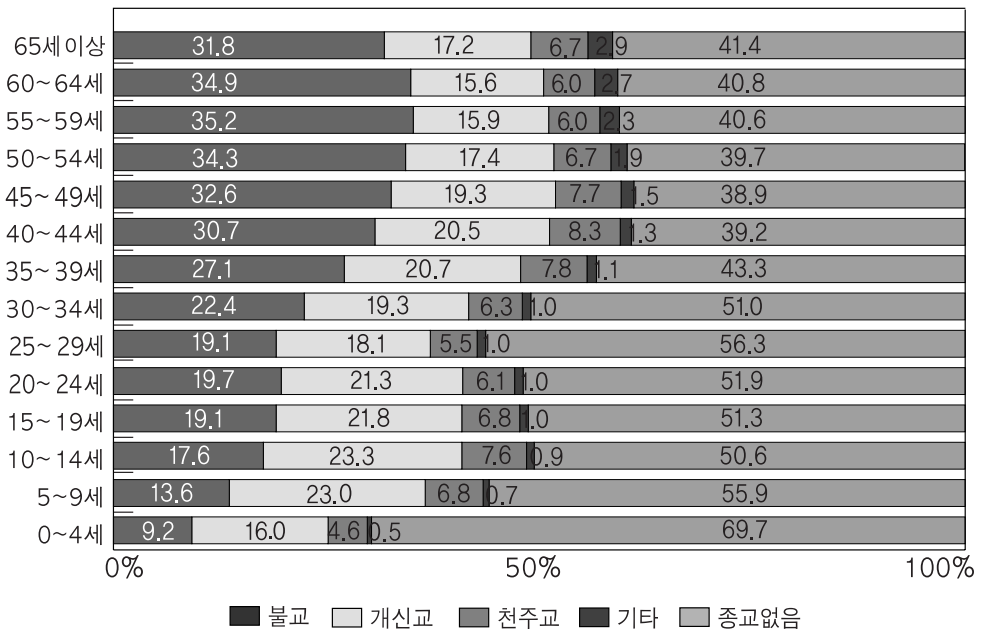
	1985		1995		2005	
	인구(천)	구성비(%)	인구(천)	구성비(%)	인구(천)	구성비(%)
총 인 구	40,420	100.0	44,554	100.0	47,041	100.0
종교있음	17,203	42.6	22,598	50.7	24,971	53.1
불 교	8,060	19.9	10,321	23.2	10,726	22.8
개 신 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천 주 교	1,865	4.6	2,951	6.6	5,146	10.9
유 교	483	1.2	211	0.5	105	0.2
원 불 교	92	0.2	87	0.2	130	0.3
기 타	213	0.5	268	0.6	247	0.5
종교없음	28,216	57.4	21,953	49.3	22,070	46.9

3) 연령별 종교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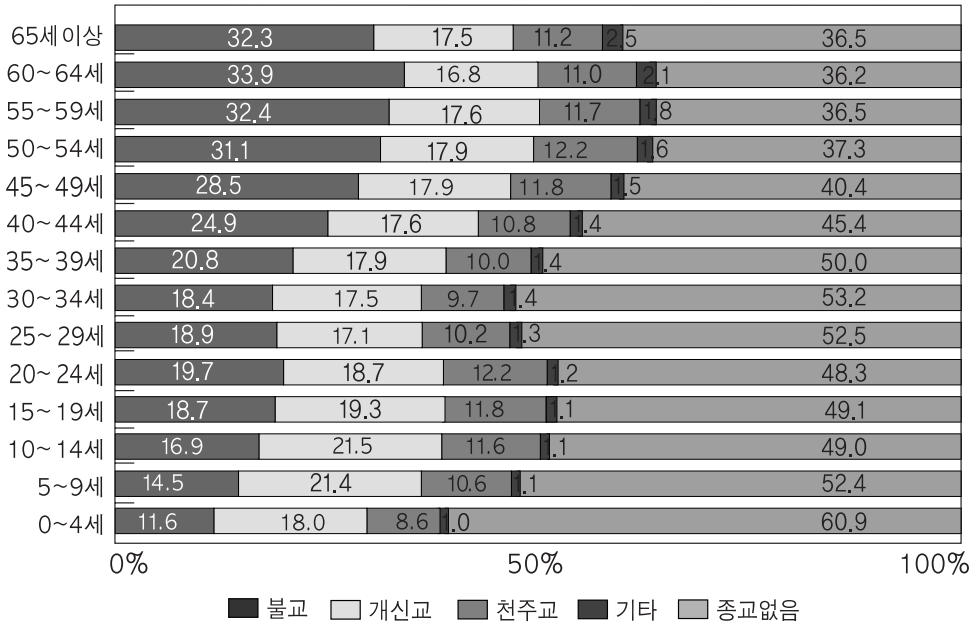
(1) 1985년 연령별 종교 분포 비율



(2) 1995년 연령별 종교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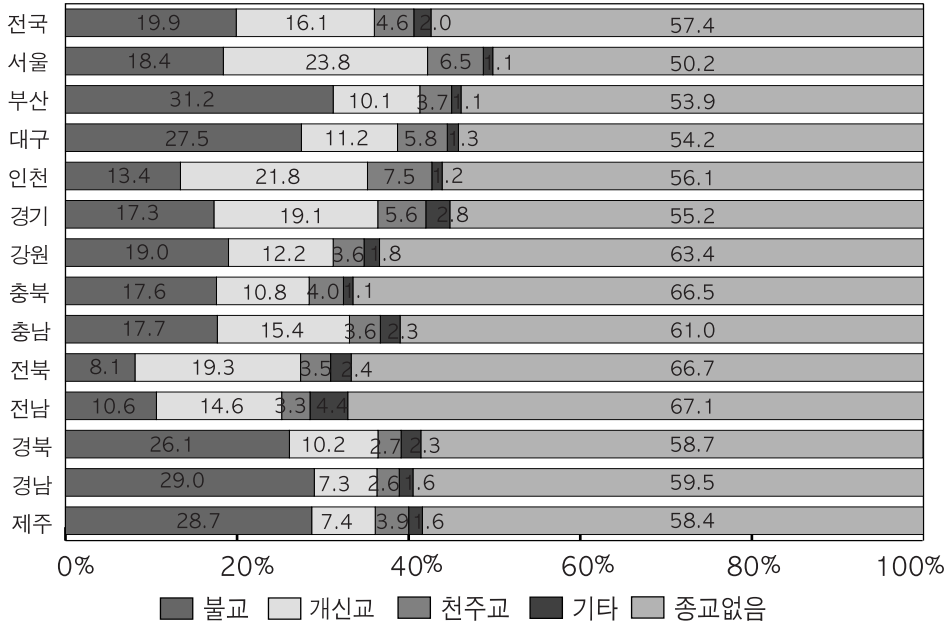
(3) 2005년 연령별 종교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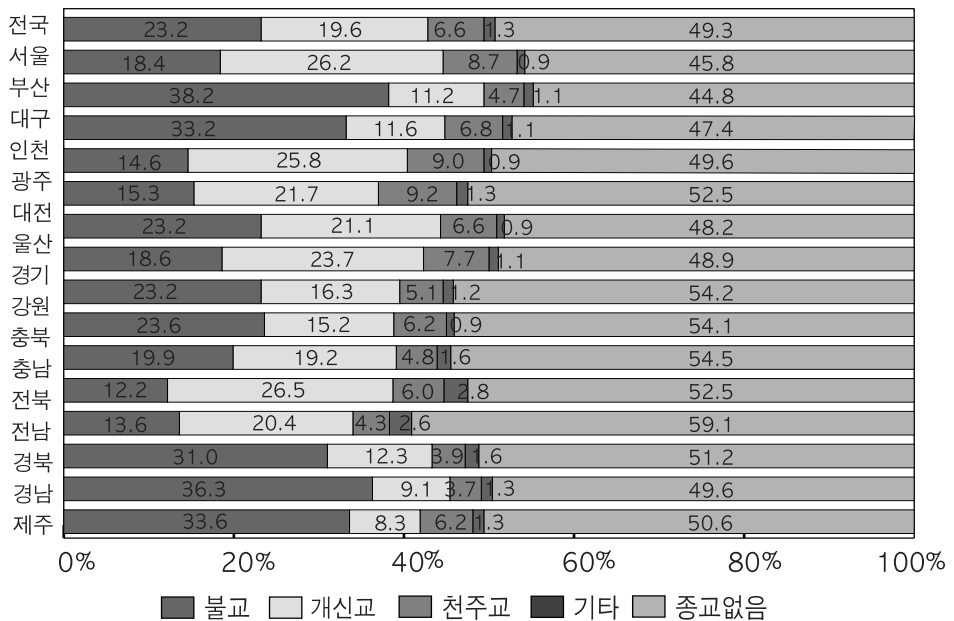
연령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없음
0~4세	11.6	18.0	8.6	1.0	60.9
5~9세	14.5	21.4	10.6	1.1	52.4
10~14세	16.9	21.5	11.6	1.1	49.0
15~19세	18.7	19.3	11.8	1.1	49.1
20~24세	19.7	18.7	12.2	1.2	48.3
25~29세	18.9	17.1	10.2	1.3	52.5
30~34세	18.4	17.5	9.7	1.4	53.2
35~39세	20.8	17.9	10.0	1.4	50.0
40~44세	24.9	17.6	10.8	1.4	45.4
45~49세	28.5	17.9	11.8	1.5	40.4
50~54세	31.1	17.9	12.2	1.6	37.3
55~59세	32.4	17.6	11.7	1.8	36.5
60~64세	33.9	16.8	11.0	2.1	36.2
65세 이상	32.3	17.5	11.2	2.5	36.5

4) 시도별 종교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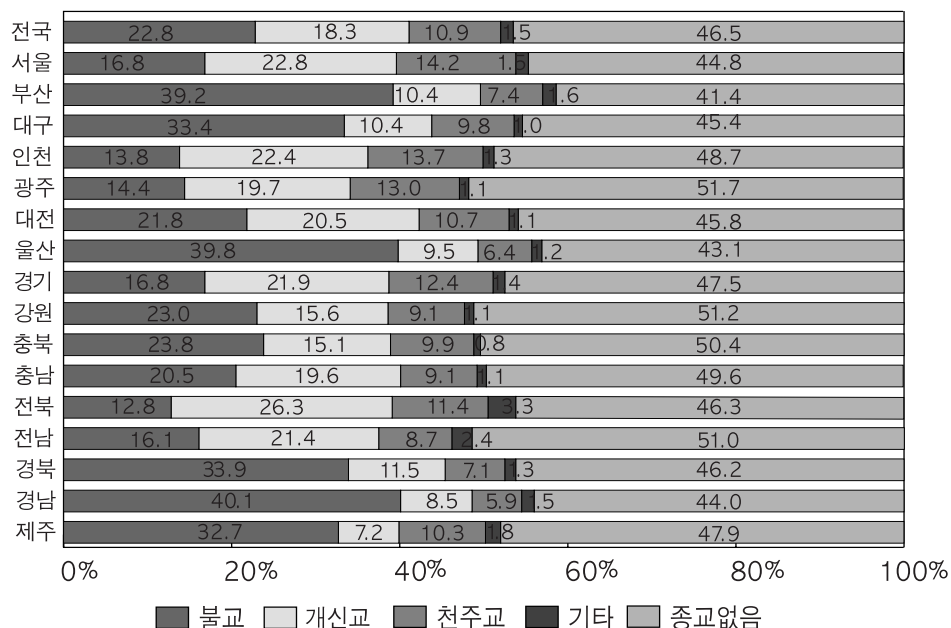
(1) 1985년 시도별 종교 분포 비율



(2) 1995년 시도별 종교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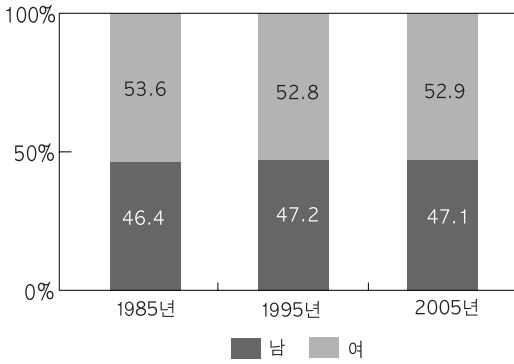
(3) 2005년 시도별 종교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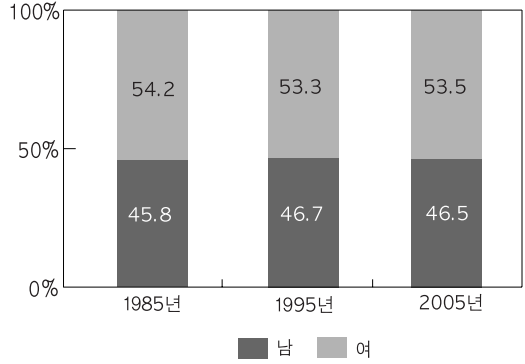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없음
전국	22.8	18.3	10.9	1.5	46.5
서울	16.8	22.8	14.2	1.5	44.8
부산	39.2	10.4	7.4	1.6	41.4
대구	33.4	10.4	9.8	1.0	45.4
인천	13.8	22.4	13.7	1.3	48.7
광주	14.4	19.7	13.0	1.1	51.7
대전	21.8	20.5	10.7	1.1	45.8
울산	39.8	9.5	6.4	1.2	43.1
경기	16.8	21.9	12.4	1.4	47.5
강원	23.0	15.6	9.1	1.1	51.2
충북	23.8	15.1	9.9	0.8	50.4
충남	20.5	19.6	9.1	1.1	49.6
전북	12.8	26.3	11.4	3.3	46.3
전남	16.1	21.8	8.7	2.4	51.0
경북	33.9	11.5	7.1	1.3	46.2
경남	40.1	8.5	5.9	1.5	44.0
제주	32.7	7.2	10.3	1.8	47.9

5) 종교별 신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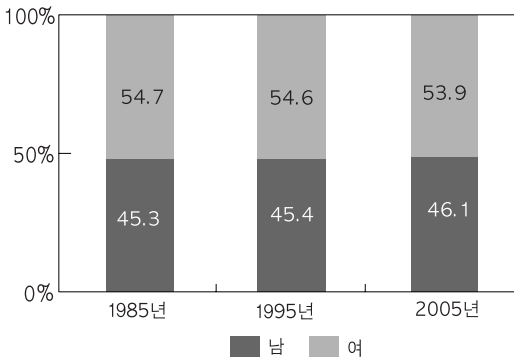
불교 신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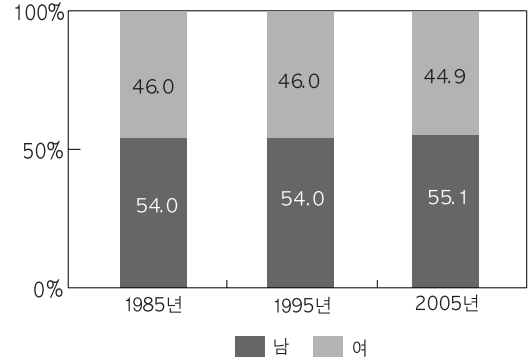
개신교 신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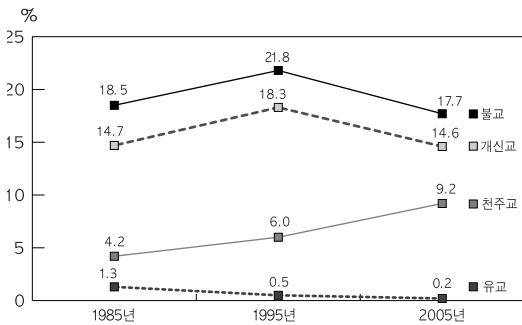
천주교 신도 성비



유교 신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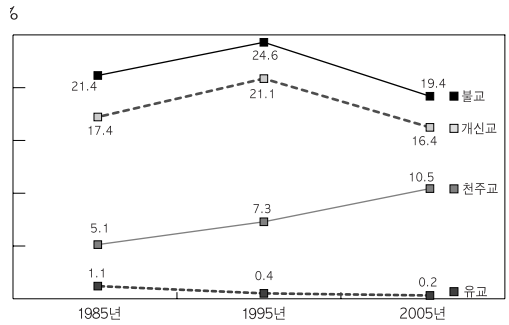


종교별 인구 비율 변화(남자)



(※ 원불교 0.3)

종교별 인구 비율 변화(여자)



(※ 원불교 0.3)

(출처 : 통계청, 1985, 1995, 2005)

2. 남북한 장래 인구 추정 통계

1) 남한지역 시도별 장래 인구 추이(2005-2030년)

(단위: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 국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8,875	49,277	49,326	49,108	48,635
서 울	5,686	8,516	10,473	10,078	10,011	10,039	10,007	9,896	9,696	9,415
부 산	2,046	3,309	3,803	3,733	3,586	3,446	3,322	3,189	3,048	2,899
대 구	1,295	1,889	2,293	2,529	2,506	2,431	2,361	2,279	2,192	2,102
인 천	804	1,253	1,897	2,522	2,578	2,661	2,728	2,783	2,827	2,853
광 주	651	874	1,125	1,382	1,444	1,450	1,451	1,438	1,418	1,393
대 전	548	820	1,036	1,397	1,468	1,515	1,555	1,583	1,599	1,607
울 산	283	546	794	1,036	1,070	1,094	1,107	1,117	1,127	1,133
경 기	2,636	3,774	5,972	9,146	10,612	11,637	12,456	13,107	13,638	14,048
강 원	1,914	1,824	1,562	1,516	1,488	1,443	1,394	1,340	1,282	1,224
충 북	1,516	1,450	1,374	1,494	1,484	1,479	1,465	1,441	1,411	1,377
충 남	2,379	2,191	1,992	1,879	1,918	1,959	1,988	2,003	2,007	2,006
전 북	2,491	2,329	2,047	1,927	1,817	1,703	1,609	1,526	1,451	1,382
전 남	3,450	2,974	2,480	2,035	1,852	1,740	1,631	1,526	1,432	1,347
경 북	3,374	3,157	2,736	2,773	2,652	2,592	2,514	2,428	2,335	2,237
경 남	2,795	2,746	2,776	3,036	3,108	3,141	3,141	3,124	3,103	3,076
제 주	374	472	509	524	542	547	547	544	540	534
수도권	9,126	13,544	18,342	21,747	23,202	24,336	25,191	25,786	26,162	26,316
특별·광역시	11,313	17,207	21,421	22,677	22,664	22,635	22,531	22,286	21,908	21,403

2) 남한지역 시도별 인구구성비 및 인구집중계수

(단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17.6	22.3	24.4	21.4	20.8	20.5	20.3	20.1	19.7	19.4
부 산	6.3	8.7	8.9	7.9	7.4	7.0	6.7	6.5	6.2	6.0

대 구	4.0	5.0	5.3	5.4	5.2	5.0	4.8	4.6	4.5	4.3
인 천	2.5	3.3	4.4	5.4	5.4	5.4	5.5	5.6	5.8	5.9
광 주	2.0	2.3	2.6	2.9	3.0	3.0	2.9	2.9	2.9	2.9
대 전	1.7	2.2	2.4	3.0	3.1	3.1	3.2	3.2	3.3	3.3
울 산	0.9	1.4	1.9	2.2	2.2	2.2	2.2	2.3	2.3	2.3
경 기	8.2	9.9	13.9	19.5	22.0	23.8	25.3	26.6	27.8	28.9
강 원	5.9	4.8	3.6	3.2	3.1	3.0	2.8	2.7	2.6	2.5
충 북	4.7	3.8	3.2	3.2	3.1	3.0	3.0	2.9	2.9	2.8
충 남	7.4	5.7	4.6	4.0	4.0	4.0	4.0	4.1	4.1	4.1
전 북	7.7	6.1	4.8	4.1	3.8	3.5	3.3	3.1	3.0	2.8
전 남	10.7	7.8	5.8	4.3	3.8	3.6	3.3	3.1	2.9	2.8
경 북	10.5	8.3	6.4	5.9	5.5	5.3	5.1	4.9	4.8	4.6
경 남	8.7	7.2	6.5	6.5	6.5	6.4	6.4	6.3	6.3	6.3
제 주	1.2	1.2	1.2	1.1	1.1	1.1	1.1	1.1	1.1	1.1
수도권	28.3	35.5	42.8	46.3	48.2	49.8	51.1	52.3	53.3	54.1
특별·광역시	35.1	45.1	50.0	48.2	47.1	46.3	45.7	45.2	44.6	44.0
인구집중계수	-	-	-	0.626	0.638	0.647	0.654	0.661	0.668	0.673

3) 북한지역 인구 추이(2007-2030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3,200,238	23,298,012	23,380,337	23,455,214	23,501,435	23,586,227	23,707,181	23,861,721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4,047,059	24,170,289	24,302,698	24,443,045	24,590,317	24,743,529	24,859,025	24,978,094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25,100,659	25,226,426	25,354,739	25,422,038	25,503,259	25,598,832	25,709,052	25,834,020

(※ 출처 : 통계청(2007), 2005-203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세 현황

1) 연회 조직과 분할 현황

- 1907년 미감리회 선교연회 조직
- 1908년 미감리회 한국연회 조직
- 1914년 남감리회 한국선교연회 조직
- 1918년 남감리회 한국연회 조직
-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총회
- 1931년 중부·동부·서부·만주선교연회 조직
- 1941년 일본 기독교조선교단 편입, 연회(중부·동부·서부) 해산
- 1946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연합(중부·동부)연회
- 1949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통합총회
- 1955년 남부연회 조직
- 1980년 제14회 총회(서울·중부·동부·남부·삼남연회로 재조정 결정)
- 1981년 서울연회, 삼남연회 조직
- 1986년 제16회 특별총회(국외선교연회 결정)
- 1989년 제18회 특별총회(서울연회를 서울·서울남연회로, 중부연회를 중부·경기연회로 분할 결정)
- 1990년 서울남연회, 경기연회 조직
- 1997년 제22회 총회 입법총회(남부연회를 남부·충청연회로, 동부연회를 동부·충북연회로 분할 결정)
- 1999년 충청연회, 충북연회 조직
제23회 총회 입법의회(국외선교연회를 미주선교연회로 명칭 변경하고, 미주 외 5개 지방은 국내 연회 소속)
- 2001년 제24회 총회 입법의회(경기연회를 경기·중앙연회로 분할 결정)
- 2002년 중앙연회 조직
- 2007년 제27회 총회 입법의회(미주특별연회 결정)
- 2008년 미주특별연회 조직(예정)

2) 연회별 2007년도 교세 현황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특별연회	합 계
지 방 수	13	16	29	25	20	24	14	20	21	21	13	216
교 회 수	354	385	909	670	535	618	363	515	577	581	318	5,825
입 교 인	118,812	83,054	152,878	72,277	50,311	58,583	26,391	54,924	53,727	34,955	13,112	719,024
세 레 인	28,173	10,375	23,985	11,346	7,447	7,720	3,646	9,195	7,154	8,702	2,312	120,055
세레이아동	18,370	10,080	20,570	11,306	6,162	7,739	3,654	6,688	6,162	5,831	2,180	98,742
원입인(성인)	47,768	94,078	118,618	20,454	21,968	25,264	11,515	23,087	16,649	11,446	2,093	392,940
원입인(아동)	39,256	18,327	38,964	19,530	15,507	15,595	8,328	15,605	17,583	13,545	1,503	203,743
교 인 수	252,379	215,914	355,015	134,913	101,395	114,901	53,534	109,499	101,275	74,479	21,200	1,534,504
정 회 원	602	623	1,248	715	542	639	334	579	602	541	320	6,745
준 회 원	98	74	133	89	66	63	34	69	52	71	31	780
담임서리	5	9	18	19	11	19	23	20	12	30	9	175
수련서리 (기관 포함)	26	33	36	19	16	4	4	20	10	4	9	181
협동회원	2	1	5	0	0	1	1	1	0	0	0	11
원로목사	122	76	125	69	39	61	25	56	70	41	22	706
국외거주	78	19	18	43	83	35	10	30	8	8		332
교역자수	933	835	1,583	954	757	822	431	775	754	695	391	8,930
경상수입 (특별회계포함)	141,756,197,651	146,551,565,797	240,017,783,453	133,850,820,112	87,754,075,080	56,633,435,473	22,531,811,667	36,952,884,863	45,293,114,550	35,620,463,675	\$24,580,000	₩946,962,152,321 \$24,580,000

(선교국 국내선교부 2006년 12월 말 기준)

3) 연회별 1998~2007년도 교세 현황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산남연회		미주특별연회		합계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1998	335	228,286	360	219,794	777	302,454	937	190,865			858	140,765			891	178,037			508	69,238			4,666	1,329,439
1999	330	231,701	363	222,555	793	311,882	959	199,484			563	98,165	308	50,974	411	90,588	510	90,460	515	69,681			4,752	1,365,490
2000	346	234,387	364	225,275	818	304,260	1,093	199,754			569	98,282	319	51,372	424	90,102	521	90,124	521	69,046	213	15,352	5,188	1,377,954
2001	346	235,874	365	222,154	832	306,239	1,081	206,435			582	101,398	329	51,034	437	92,049	534	92,120	537	70,007	219	17,205	5,262	1,394,515
2002	378	237,985	379	213,345	845	307,447	592	127,343	453	90,575	588	101,592	337	52,370	454	96,373	540	91,567	549	71,281	222	18,375	5,337	1,408,253
2003	339	238,266	380	214,362	854	312,395	601	125,004	460	95,398	588	101,916	341	50,297	475	97,584	549	91,427	556	73,096	243	17,468	5,386	1,417,213
2004	343	254,077	381	215,913	860	316,380	611	127,913	471	91,744	594	103,891	347	52,718	482	98,169	549	91,766	560	74,449	294	18,519	5,492	1,445,539
2005	344	258,934	384	220,380	859	324,630	627	140,681	514	94,661	605	108,409	351	54,176	484	105,365	563	94,675	560	72,882	328	21,104	5,619	1,495,887
2006	346	248,538	387	227,409	878	340,893	639	129,520	527	98,112	604	111,391	356	52,500	499	105,310	573	100,925	569	74,167	314	19,669	5,692	1,508,434
2007	354	252,379	385	215,914	909	355,015	670	134,913	535	101,395	618	114,901	363	53,534	515	109,499	577	101,275	581	74,479	318	21,200	5,825	1,534,504

※교세 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해당연도 연회보고서에 따른 것임

4)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세 현황 추이(1998-2007년)

(경상수입 단위: 100만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방수	179	182	186	190	189	206	207	214	213	216
교회수	4,658	4,752	4,861	5,043	5,115	5,386	5,489	5,619	5,692	5,825
입교인	559,285	585,740	591,221	604,852	622,432	645,810	645,769	674,789	674,755	719,024
세례인	125,696	124,502	125,591	123,831	123,344	125,214	146,110	153,353	157,370	120,055
세례아동	75,566	80,613	81,120	83,072	85,853	89,460	92,393	94,598	94,221	98,742
원입인(성인)	353,702	347,659	349,073	351,328	343,040	343,623	291,920	362,098	307,093	392,940
원입인(아동)	215,188	226,930	215,597	214,227	215,209	213,106	269,347	211,048	275,360	203,743
교인수	1,328,623	1,365,490	1,362,602	1,377,310	1,389,878	1,417,213	1,445,539	1,495,887	1,508,434	1,534,504
경상수입 (특별회계불포함)	508,985	447,431	479,817	521,243	527,237	467,919	530,738	730,132	785,334	839,050

*표시 해당연도에 미주특별연회가 포함되지 않음

4. 연회 및 지방 평균 교세 현황

연회	지방	교회 수	교인 수	평 균		
				지방 교회 수	지방 교인 수	교회 교인 수
서 울	13	354	252,379	27	19,414	713
서울남	16	385	215,914	24	13,495	652
중 부	29	909	355,015	31	12,242	391
경 기	25	670	134,913	27	5,070	201
중 앙	20	535	101,395	27	5,397	190
동 부	24	618	114,901	26	4,788	186
충 북	14	363	53,534	26	3,824	147
남 부	20	515	109,499	26	7,475	213
충 청	21	577	101,275	27	4,823	176
삼 남	21	581	74,479	28	3,547	128
미주특별	13	318	21,200	24	1,631	67
계	216	5,825	1,534,504	26.6	7,428	278

연회 평균 지방 수	20개
감리교 지방 평균 교회 수	27개
연회 평균 교회 수	530개
연회 평균 교인 수	139,500명

5. 연회별 교회 평균 결산액

(단위 : 원)

연 회	교회 수	총 결산액	평균 결산액
서 울	348	87,075,320,064	250,216,437
서울남	359	69,184,824,513	192,715,389
중 부	880	130,537,671,141	148,338,263
경 기	650	64,647,406,611	99,457,549
중 앙	490	47,021,505,985	95,962,257
동 부	607	55,597,205,409	91,593,419
충 북	361	22,300,817,435	61,775,118
남 부	491	36,980,609,673	75,316,924
충 청	571	43,905,687,061	76,892,622
삼 남	578	35,613,906,447	61,615,755
계	5,335	592,864,954,339	115,388,373

※ 은급부 2006년 결산 통계표 기준
미주특별연회, 유럽지방, 남태평양지방, 일본지방, 남미선교지방 제외

6. 결산액별 교회 통계

금액 연회	500만이하	500만초과 1000만이하	1000만초과 2500만이하	2500만초과 5000만이하	5000만초과 7500만이하	7500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억5천이하	2억5천초과 5억이하	5억초과 7억5천이하	7억5천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20억이하	20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40억이하	40억초과 50억이하	50억초과	계
서울	15	25	52	57	28	15	58	43	25	13	15	-	1	1	-	348
서울남	15	49	75	55	30	20	53	26	13	7	14	-	1	-	1	359
중부	51	109	153	145	93	68	151	49	27	16	13	1	2	1	1	880
경기	53	81	139	125	66	44	80	32	16	8	5	1	-	-	-	650
중앙	38	60	96	103	56	37	66	22	1	3	6	2	-	-	-	491
동부	43	61	128	119	82	43	84	29	8	6	2	2	-	-	-	607
충북	44	71	71	68	27	18	47	9	3	3	-	-	-	-	-	361
남부	55	64	112	102	51	28	49	19	4	1	6	-	-	-	-	491
충청	24	49	79	146	83	47	75	16	6	4	2	-	-	-	-	571
삼남	43	55	57	54	31	18	40	9	3	2	2	-	-	-	-	314
호남선교	34	53	54	55	22	9	30	5	2	-	-	-	-	-	-	264
계	415	677	1,056	1,029	569	347	733	259	108	63	65	6	4	2	2	5,335

※ 은급부 2006년 결산 통계표 기준
 ※ 미주특별연회 유럽지방, 남태평양지방, 일본지방, 남미선교지방 제외

7. 연도별 교회 창립 현황(1885-2006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합계	누계
1885	1		1									2	2
1886													2
1887	1											1	3
1888	2											2	5
1889					1							1	6
1890	2											2	8
1891													8
1892													8
1893			3	1								4	12
1894					1							1	13
1895									1			1	14
1896			2		1							4	18
1897			3	2	3							8	26
1898			1		4	1						6	32
1899			7		3				1			11	43
1900	2		4		3				1			10	53
1901			5			3		1	3	1		13	66
1902	2		2	2	3				1			10	76
1903			3	1	1			3	1			9	85
1904			6	1	2		1	3				13	98
1905		1	4	6	3	2	2	2	3			23	121
1906	1	1	7			2	2		1			14	135
1907	2		2	2	2	2	1	4				15	150
1908	3		2	1	2	2		1	1			12	162
1909	3	1		1	1	1		2		1		10	172
1910	2		1	2		8	1		1	1		16	188
1911	1			1		1		1	2	2		8	196
1912	3		1		1	2	1		1			9	205
1913						2	2		1			5	210
1914				1		2						3	213
1915				1		1	1	1	1	1		6	219
1916	2							1	2			5	224
1917			2		1	1	1					5	229
1918			1	1		1		1				4	233
1919					1	3		1				5	238
1920		1		1		1			1			4	242
1921	1		1			2		1	2			7	249
1922						2		1	1			4	253
1923									1			1	254
1924							1					1	255
1925			1	1		2	1		2	1		8	263
1926			1		1			1				3	266
1927	1					1		2		1		5	271
1928						2		1	1			4	275
1929	1		1				2		1			5	280
1930			2	1					2			5	285
1931			1			3		1	4			9	294
1932			1		1	1	1		2			6	300
1933				1	1			1	2			5	305
1934			1									1	306
1935			1	2		2			1			6	312
1936		1	1	1		2			1			6	318
1937			1		1	3			1			6	324
1938			3						1	1		5	329
1939				1		1		1				3	332
1940			2	1	1		1	2				7	339
1941								1	1			2	341
1942								1				1	342
1943						1						1	343

1944									1	1		2	345
1945	2	1	5		1	4	1	2	2			18	363
1946	1	2	3	1	3	2		2	2			16	379
1947	2	2	2	1	1	4	1	2	3			18	397
1948			3	1	1	4	3	1	6	3		22	419
1949			5	3		2	3	2	2	5		22	441
1950	1	1	5	3		3	7	1	8	9		38	479
1951		3	7	6	5	6	6	6	13	29		81	560
1952	4	1	9	6	5	10	4	18	14	16		87	647
1953	6	3	8	7	8	11	2	11	22	16		94	741
1954	5	1	6	8	7	12	3	8	16	5	1	72	813
1955	5	1	8	5	6	11	8	14	11	4		73	886
1956	5		7	2	2	5	5	3	5	7	1	42	928
1957	5	2	4	5	1	10	4	2	16	4		53	981
1958	1	1	5	2		4	4	2	8	3		30	1,011
1959	2		2	2	5	3	2	1	6	2		25	1,036
1960	1		3		1	5	2	7	10	2	1	32	1,068
1961	4		5	2	2		1	1	13	1		29	1,097
1962	1		4	1	2	3	1	2	4	4		22	1,119
1963	3		4	4	4	1	1	8	4	1	1	31	1,150
1964	1	1	2	3	3	2	4	2	7	2		27	1,177
1965	5		6	2	2	5	1	4	8	1		34	1,211
1966	1	4	1	4		8	3	4	4		1	30	1,241
1967	10	1	2	2	1	9	3	2	4	3		37	1,278
1968	3	7	6	7	2	11	3	3	9	2		53	1,331
1969	4		5	6	6	9	2	3	5	1		41	1,372
1970	4	3	6	1	1	4	2	3	8	6		38	1,410
1971	9	6	6	4	4	3	3	4	7	3	1	50	1,460
1972	4	5	7	7	5	8	2	6	7	3	1	55	1,515
1973	3		2	2	2	11	3	2	4	2	1	32	1,547
1974	5	8	5	4	5	10	9	2	7	3		58	1,605
1975	3	3	7	6	7	13	8	4	10	6		67	1,672
1976	7	13	20	5	7	20	7	3	14	10	1	109	1,779
1977	9	13	16	4	7	15	9	10	8	9	1	101	1,880
1978	10	8	8	10	9	14	2	7	10	6	1	85	1,965
1979	3	7	17	15	11	11	5	5	7	6	3	90	2,155
1980	8	9	28	15	10	12	5	6	16	10	5	124	2,179
1981	6	8	21	12	10	7	6	9	8	12	3	102	2,281
1982	5	9	18	8	3	12	8	3	14	6	1	87	2,368
1983	9	6	17	10	5	17	4	4	5	12	5	94	2,462
1984	8	9	21	15	16	13	6	17	8	19	1	133	2,595
1985	8	8	22	12	14	11	13	11	6	18		123	2,718
1986	4	9	28	17	19	11	9	10	13	14	6	140	2,858
1987	8	6	17	15	16	17	17	19	9	21		145	3,003
1988	8	7	25	17	11	17	10	9	13	16	2	135	3,138
1989	6	9	18	13	14	15	9	13	10	19	4	130	3,268
1990	6	12	25	23	14	19	8	12	13	19	4	155	3,423
1991	6	8	18	26	12	11	10	9	14	18	5	137	3,560
1992	9	9	13	18	9	14	7	5	5	25	7	121	3,681
1993	5	7	20	25	16	12	7	11	12	24	10	149	3,830
1994	5	3	16	11	16	12	7	8	5	17	8	108	3,938
1995	6	12	20	15	12	9	6	12	4	14	8	118	4,056
1996	10	5	18	15	4	8	7	10	9	12	13	111	4,167
1997	10	5	24	28	10	8	9	7	3	13	13	130	4,297
1998	4	6	23	18	11	8	7	15	19	9	8	128	4,425
1999	11	8	28	17	17	9	12	8	14	7	19	150	4,575
2000	5	7	15	17	14	10	10	16	9	10	15	128	4,703
2001	8	10	21	12	11	8	7	6	11	23	17	134	4,837
2002	4	11	12	12	7	9	7	13	6	9	20	110	4,947
2003	5	5	19	17	11	5	3	9	12	8	14	108	2,055
2004	6	12	18	32	14	9	7	15	9	8	25	155	5,210
2005	4	10	23	21	11	6	9	18	11	12	20	145	5,355
2006	9	7	27	30	17	6	6	26	10	10	22	170	5,525

※ 2006년 통계표 참조

8. 각 대학교별 대학원 과정 졸업생 현황(1997-2006년)

1)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단위 : 명)

	대학원 (박사)	신학대학원	목회신학 대학원	선교대학원	세계선교 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23	83		37	2	145	1998. 2
	13	37		17	4	71	1998. 8
1998학년도 졸업생	22	101		39	2	164	1999. 2
	11	20		12		43	1999. 8
1999학년도 졸업생	22	91		28		141	2000. 2
	21	26		10		57	2000. 8
2000학년도 졸업생	44 (1)	99	34	15	1	194	2001. 2
	10	18	5	6	3	42	2001. 8
2001학년도 졸업생	30	74	27	24	4	159	2002. 2
	17	49	4	1		71	2002. 8
2002학년도 졸업생	32	134	40			206	2003. 2
	6 (1)	41	5			53	2003. 8
2003학년도 졸업생	36 (1)	101	39	1		178	2004. 2
	5	27	4			36	2004. 8
2004학년도 졸업생	44 (1)	96	28	1		170	2005. 2
	9	17	5			31	2005. 8
2005학년도 졸업생	54	111	33			198	2006. 2
	6	12	3			21	2006. 8
2006학년도 졸업생	52	116	34			202	2007. 2

(감신대 제공 : 2007년 7월)

2)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단위 : 명)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 대학원	목회신학 대학원	선교 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7	44				51	1998. 2
1998학년도 졸업생	5	50				55	1999. 2
1999학년도 졸업생	10	61				71	2000. 2
2000학년도 졸업생	11	74				85	2001. 2
2001학년도 졸업생	3	103				106	2002. 2
2002학년도 졸업생	8	138				146	2003. 2
2003학년도 졸업생	16	106				122	2004. 2
2004학년도 졸업생	11	93				104	2005. 2
2005학년도 졸업생	10	110				120	2006. 2
2006학년도 졸업생	17	88				105	2007. 2

※ 졸업생 수: 전기와 후기 졸업생 포함(시점은 전기 졸업일자)

(목신대 제공 : 2007년 7월)

3)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단위 : 명)

구 분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합계	졸업년월
1997학년도 졸업생		28	77	46	151	1998. 2
1998학년도 졸업생		75	26	8	109	1999. 2
1999학년도 졸업생		104	20	2	126	2000. 2
2000학년도 졸업생		148	42		190	2001. 2
2001학년도 졸업생	15	118			133	2002. 2
2002학년도 졸업생	12	127			139	2003. 2
2003학년도 졸업생	9	140			149	2004. 2
2004학년도 졸업생	11	133			144	2005. 2
2005학년도 졸업생	14	83			97	2006. 2
2006학년도 졸업생	18	95			113	2007. 2

※ 졸업생 수: 전기와 후기 졸업생 포함(시점은 전기 졸업일자)

(협신대 제공 : 2007년 7월)

9. 연회별 진급자 현황

1) 연회별 진급자 현황(2007년)

(단위 : 명)

연회	담임자					수련목회자					기관목회자(선교사 포함)					총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리	준1	준2	준필	소계	
서울	7	5	8	3	23	35	24	35		94	6	5	6		17	134
서울남	9	10	11	8	38	31	15	16		62	2	2	9	1	14	114
중부	25	18	20	8	71	32	29	33	1	95	11	8	10	1	30	196
경기	16	18	21	1	56	32	17	11		60	10	2	2		14	130
중앙	15	13	7	2	37	11	12	15		38	3	3	1	1	8	83
동부	18	21	21	1	61	7	4	9	1	21	4	0	3	1	8	90
충북	8	22	8		38	6	3	1		10	1				1	49
남부	17	16	18	1	52	14	18	11	1	44	3	4	1	1	9	105
충청	11	12	17	1	41	7	6	7		20	3	4	1		8	69
삼남	26	30	25	9	90	2	4	2		8	0	0	1		1	99
합계	152	165	156	34	507	177	132	140	3	452	43	28	34	5	110	1,069

2) 연회별 준회원 허입 현황(1998-2007년)

(단위 : 명)

연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합계
1998	9	18	36	57	-	42	22	38	-	42	16	280
1999	12	23	36	37	-	32	20	24	19	30	10	243
2000	24	22	51	54	-	20	19	20	28	26		264
2001	20	35	45	72	-	49	32	32	33	42	13	373
2002	31	32	61	40	31	38	20	36	25	46	16	376
2003	37	40	63	40	31	46	35	25	31	36	19	403
2004	46	52	68	41	26	39	28	39	27	44	13	423
2005	33	35	39	44	19	26	21	29	21	32	14	313
2006	33	30	59	38	29	31	9	26	22	29	11	317
2007	31	42	54	38	26	28	23	36	20	34		332
평균(명)	27.6	32.9	51.2	46.1	27.0	35.1	22.9	30.5	25.11	36.1	14	

(연회자료 : 2007년 7월)

10. 향후 30년간 은퇴 예정자 현황

구분	총인원	정년	현재 자원 및 공상 은퇴, 퇴회사	현재 제적자	현재 별세자	생년월
2008	83	31	41	1	10	1937. 4-1938. 3
2009	87	45	34	3	5	1938. 4-1939. 3
2010	111	72	27		12	1939. 4-1940. 3
2011	92	61	25		6	1940. 4-1941. 3
2012	117	91	18	2	6	1941. 4-1942. 3
2013	103	92	5	1	5	1942. 4-1943. 3
2014	92	82	5	1	4	1943. 4-1944. 3
2015	94	85	2	3	4	1944. 4-1945. 3
2016	77	66	5	1	5	1945. 4-1946. 3
2017	127	119	1		7	1946. 4-1947. 3
2018	122	117	2		3	1947. 4-1948. 3
2019	125	118	2	1	4	1948. 4-1949. 3
2020	109	104	1	2	2	1949. 4-1950. 3
2021	97	93	1		3	1950. 4-1951. 3
2022	121	117		1	3	1951. 4-1952. 3
2023	163	157		3	3	1952. 4-1953. 3
2024	153	147			6	1953. 4-1954. 3
2025	189	184		1	4	1954. 4-1955. 3
2026	219	209		4	6	1955. 4-1956. 3
2027	245	238		3	4	1956. 4-1957. 3
2028	258	246	1	4	7	1957. 4-1958. 3
2029	240	227	1	7	5	1958. 4-1959. 3
2030	295	289		2	4	1959. 4-1960. 3
2031	343	339		2	2	1960. 4-1961. 3
2032	322	313		7	2	1961. 4-1962. 3
2033	342	335		2	5	1962. 4-1963. 3
2034	284	279		3	2	1963. 4-1964. 3
2035	302	297		1	4	1964. 4-1965. 3
2036	283	277		3	3	1965. 4-1966. 3
2037	302	299		1	2	1966. 4-1967. 3

(은급부 : 2007년)

11. 여교역자 현황

1) 연회별 여교역자 현황

연회	남성교역자	여성교역자							
		전체	담임	부담임	수련목	기관	선교사	원로	기타
서울연회	886	73	22	7	23	7	6	5	3
서울남연회	814	62	20	9	12	5	9	3	4
중부연회	1,512	94	34	14	13	3	17	9	4
경기연회	936	54	25	3	11	4	5	5	1
중앙연회	721	49	25	6	7	3	2	3	3
동부연회	788	38	20	3	3	0	4	6	2
충북연회	436	12	7	1	0	1	1	2	1
남부연회	760	29	12	2	6	3	1	4	1
충청연회	733	29	11	3	4	2	1	8	0
삼남연회	391	16	7	3	0	4	0	2	0
호남선교연회	309	15	7	2	1	1	1	2	1
미주특별연회	367	20	16	1	0	1	1	0	1
계	8,653(94.63)	491(100%)	206(42%)	54(11%)	80(16%)	34(7%)	48(9.7%)	49(10%)	21(4.3%)

※교회주소록 (2006년 7월)

2) 연도별 여교역자 수

연회	1972		1973		1995		2000		2005	
	개체교회	특별파송	개체교회	특별파송	개체교회	특별파송	개체교회	특별파송	개체교회	특별파송
서울연회	-	-	-	-	17	12	15	19	56	20
서울남연회	-	-	-	-	22	2	20	18	43	21
중부연회	30	22	30	19	15	11	27	18	47	30
경기연회	-	-	-	-	31	8	44	17	31	11
중앙연회	-	-	-	-					33	13
동부연회	38	16	40	15	24	3	18	4	22	9
충북연회	-	-	-	-			8	1	6	4
남부연회	43	5	44	12	28	9	11	1	18	9
충청연회	-	-	-	-			18	7	17	8
삼남연회	18	6	16	8	17	4	14	4	14	4
호남선교연회	-	-	-	-					8	3
미주특별연회	-	-	-	-	5	0	5	0	15	2
계	129(10.6%)	49(15.4%)	130	54	159	49	175	89	310	134

※감리교 전국 여교역자회

12. 대륙별 파송 선교사 현황

(2007년 9월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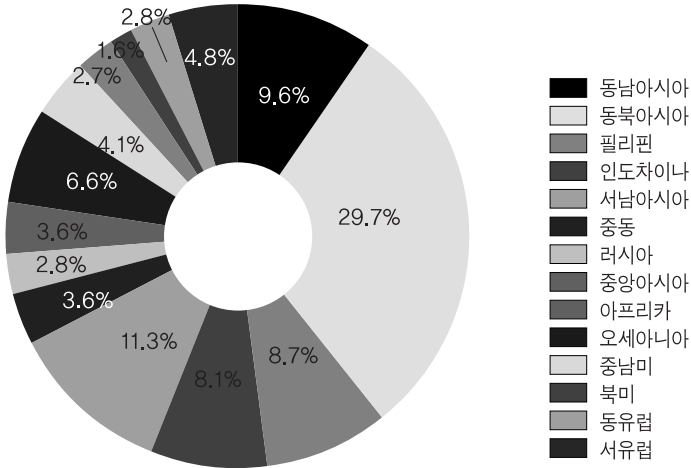
지역	나라명	인원	선교사 현황											비고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남	여	남(명)	여(명)	남	여	남(합)	여(합)	교사	의료	컴퓨터	
동남아시아 (72)	말레이시아	32	15	3				13					1	
	싱가폴	15	7	1				7						
	인도네시아	25	13					11				1		
	계	72	35	4	0	0	0	31	0	0	0	1	1	
동북아시아 (223)	대만	11	5	1				5						
	몽골	13	6					6			1			
	일본	26	17	2				7						
	중국	173	76	13	1		9	67	1	4	1	1		
	계	223	104	16	1	0	9	85	1	4	2	1	0	
필리핀 (65)	필리핀	65	31	3			1	29				1		
	계	65	31	3	0	0	1	29	0	0	0	1	0	
인도차이나 (61)	태국	17	10		1		0	6						
	캄보디아	22	11	1			2	8						
	베트남	10	5					5						
	미얀마	8	4					4						
	라오스	4	2					2						
	계	61	32	1	1	0	2	25	0	0	0	0	0	
서남아시아 (85)	네팔	13	5				2	3	1			2		
	방글라데시	10	4	2				4						
	스리랑카	15	8				1	6						
	인도	43	20	4			1	16		1	1			
	파키스탄	4	2					2						
	계	85	39	6	0	0	4	31	1	1	1	2	0	
중동 (27)	이스라엘	3	1	1				1						
	터키	6	2	1				3						
	바레인	1	1											
	이집트	5	3					2						
	모로코	4	1	2				1						
	요르단	1		1										
	U. A. E	2	1					1						
	알제리	5	3					2						
	계	27	12	5	0	0	0	10	0	0	0	0	0	
러시아 (21)	러시아	21	9	1			2	9						
	계	21	9	1	0	0	2	9	0	0	0	0	0	
중앙아시아 (27)	카자흐스탄	8	3				1	4						
	키르기스스탄	5	2		1			2						
	우즈베크스탄	4	2					1				1		
	타지키스탄	6	2				1	3						
	아제르바이젠	4	2	1				1						
	계	27	11	1	1	0	2	11	0	0	0	1	0	
아프리카 (50)	남아공	10	5					5						
	모잠비크	4	2					2						
	말라위	5	2					3						
	에디오피아	1					1							

아프리카 (50)	토 고	2	1					1						
	케 나	13	6					7						
	탄 자 니 아	13	3	1			2	6			1			
	세 네 갈	2	1	1										
	계	50	20	2	0	0	3	24	0	0	1	0	0	
오세아니아 (31)	뉴 질 랜드	7	4					3						
	호 주	13	8	1			1	3						
	마 살	1			1									
	팜	2	1					1						
	사 이 판	1	1											
	피 지	7	3	1				3						
	계	31	17	2	1	0	1	10	0	0	0	0	0	
중 남 미 (20)	도 미 나 카	5	2	1				2						
	쿠 바	2	1					1						
	자 메 이 카	2	1					1						
	아르헨티나	2	1					1						
	페 루	2	1					1						
	브 라 질	2	1					1						
	칠 레	4	2					2						
	과 테 말 라	1						1						
북 미 (12)	계	20	9	1	0	0	0	10	0	0	0	0	0	
	미 국	6	4		1			1						
	멕 시 코	2	1					1						
	캐 나 다	4	2					2						
동 유 럽 (21)	계	12	7	0	1	0	0	4	0	0	0	0	0	
	루 마 니 아	11	5				1	5						
	헝 가 리	2	1					1						
	우 크 라 이 나	2	1					1						
	불 가 리 아	2	1	1										
	몰 도 바	2										2	컴퓨터	
	슬로베니아	2	1					1						
유 럽 (36)	계	21	9	1	0	0	1	8	0	0	0	0	2	
	독 일	16	16											
	영 국	12	12											
	프 랑 스	2	2											
	이 태 리	4	2	1				1						
	네 델 란 드	1	1											
	오 스트 리 아	1	1											
14개 지역	69개국	751	369	44	5	0	24	288	3	5	4	6	3	본부파송 선 교 사
	미주지역	391												미주연회 교 역 자
	22개국	54												해외지방 교민목회자
총 계	14개 지역 / 84개국 / 1,196명													
비 고	# 한인목회자만 사역하고 있는 4개 나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① 아일랜드 ② 스위스 ③ 파라과이 ④ 스페인													

※선교국 국외선교부

13. 선교사 현황

1) 지역별 파송 선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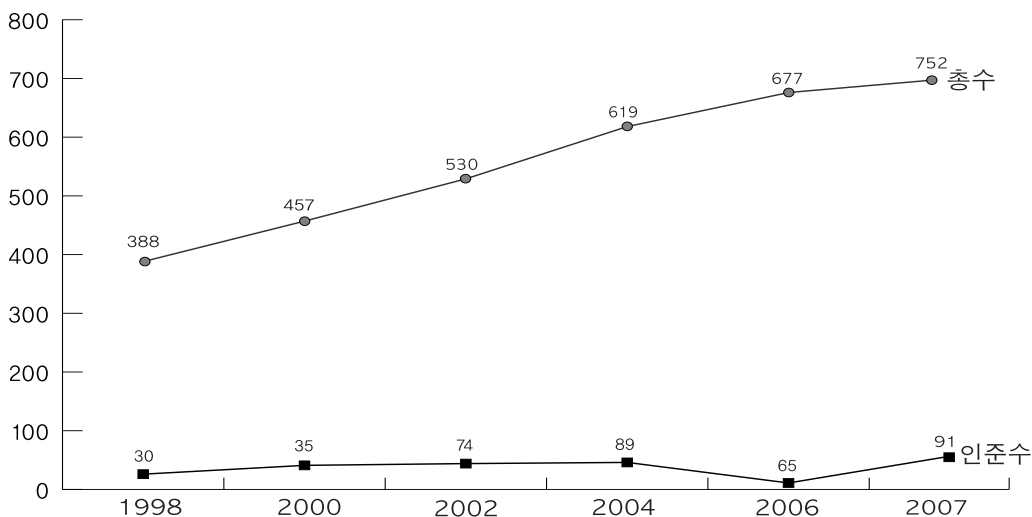
(2007년 9월 말 현재)

지역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	동유럽	서유럽	합계
선교사	72	223	65	61	85	27	21	27	50	31	20	12	21	36	751
비율	9.6%	29.7%	8.7%	8.1%	11.3%	3.6%	2.8%	3.6%	6.6%	4.1%	2.7%	1.6%	2.8%	4.8%	100%

2) 자격별 선교사 수

(2007년 9월 말 현재)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명예선교사	협동선교사	합계
선교사	413	312	13	5	8	751
비율	55%	41.5%	1.7%	0.7%	1.1%	100%



3) 연도별 선교사 인준자 수

(2007년 11월 말 현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준자	30	30	35	49	74	73	89	42	65	91

(출처 : 1999-2006년은 연회보고서 참조, 1998년도는 1998년 11월 선교사 현황보고철 참조)

4) 연도별 선교사 파송 증감 현황

(2007년 9월 말 현재)

	1903	1961	1965	1967	1970	1971	1972	1977	1980	1982	1983	1984
선교사	1	3	2	1	1	1	2	1	1	1	1	6
합 계	1	4	6	7	8	9	11	12	13	14	15	21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선교사	4	6	4	9	9	20	39	47	55	29	30	40
합 계	25	31	35	44	53	73	112	159	214	243	273	31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선교사	49	26	28	41	29	44	43	46	47	11	75	
합 계	362	388	416	457	486	530	573	619	666	677	752	

※선교국 국외선교부

14. 2007년도 군선교 현황

1) 현역 군목 현황

(1) 현역 군목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영관급	소령 8	중령 1 소령 1		10
위관급	28	6	5	39
계	36	8	5	49

(2) 연회별 군목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계
15	10	8	4	3	5	1	2	1		49

2) 군종사관 후보생 현황

편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인 원		13	4	10	9	9	6	1	52
임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출신 학교별 인원수	감신	10	3	7	5	5	5	1	36
	목원	1	-	-	1	2	-	-	4
	협성	-	-	-	-	-	-	-	-
	연세	2	1	3	3	2	1	-	12

3) 군인교회 파송 목회자 현황

(1) 전담 파송 목회자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계
10	14	5	5	7	4	5	1	2	1	54

(2) 설교 지원 목회자 : 22명

(군선교회 : 2007년 11월)

15. 연도별 교회학교 현황(1998-2007년)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영아부	학생	14,905	15,990	15,990	16,515	19,313	19,101	20,998	20,801	17,200	15,564
	교사	1,823	2,229	2,035	2,229	2,181	2,360	2,534	2,593	2,652	2,706
유치부	학생	56,646	58,294	58,294	58,727	59,825	58,346	59,587	58,965	51,120	50,904
	교사	7,471	6,091	6,091	8,114	8,270	8,132	8,244	8,338	8,621	8,548
유년부	학생	84,217	85,804	85,804	84,509	90,459	89,249	70,450	74,229	69,463	69,198
	교사	12,040	12,051	12,051	12,206	12,474	12,316	9,755	10,381	10,893	10,968
초등부	학생	87,328	88,139	88,139	87,188	92,932	91,931	84,961	85,620	77,650	75,681
	교사	12,802	12,864	12,864	14,166	13,121	12,961	11,268	11,283	11,261	11,311
소년부	학생	243,096	248,227	248,227	246,939	262,529	258,627	235,996	32,307	34,249	32,667
	교사	34,136	27,150	33,041	36,715	36,046	35,769	22,056	4,228	4,761	4,725
소계	학생	243,096	248,227	248,227	246,939	261,790	257,879	235,795	271,922	249,682	244,014
	교사	34,136	33,041	33,041	36,715	35,775	41,028	31,763	36,823	38,188	38,258
중등부	학생	66,120	63,417	63,417	58,245	57,041	57,700	58,829	60,914	61,948	61,776
	교사	6,850	6,535	6,535	6,387	6,430	6,255	6,436	6,603	6,909	7,089
고등부	학생	74,779	53,391	53,391	50,452	51,608	48,387	46,948	47,764	47,923	46,853
	교사	5,605	5,788	5,788	5,490	5,560	6,168	5,431	5,556	5,832	5,829
청년부	학생	60,197	63,197	63,197	64,597	67,915	69,412	72,324	77,132	77,941	82,417
	교사	3,036	3,122	3,122	3,148	3,019	3,618	3,256	3,276	3,533	4,444
소계	학생	201,096	180,005	180,005	173,294	175,426	174,465	178,128	185,810	187,812	191,046
	교사	15,491	15,445	15,445	15,025	15,007	16,030	15,753	15,435	16,265	17,362
청장 년부	학생	43,997	38,950	38,950	37,060	37,606	39,315	51,985	47,538	47,636	48,989
	교사	1,456	1,462	1,462	1,581	1,548	1,849	1,823	1,986	2,191	2,268
장년부	학생	132,408	163,607	163,607	129,846	135,357	149,806	136,764	131,698	122,384	134,463
	교사	3,743	5,801	5,801	5,417	6,015	5,962	3,826	5,311	4,235	4,748
노년부	학생										28,126
	교사										1,054
소계	학생	176,405	202,557	202,557	166,906	172,963	184,579	188,393	179,236	170,020	211,578
	교사	5,199	7,263	7,263	6,998	7,565	7,820	5,650	7,297	6,426	8,070
총계	학생	641,287	630,789	630,789	587,139	610,179	616,923	602,316	636,968	607,514	646,638
	교사	54,826	55,738	55,722	58,738	58,347	64,878	53,166	59,555	60,879	63,690

※교육국 (2006년 12월 31일 기준)

16. 사회평신도국 모금 현황

(단위 : 원)

항목 \ 연도	2003	2004	2005	2006	계
수해피해돕기	524,730,222	21,279,000		531,045,472	1,077,054,694
뉴올리언즈시			178,751,155		178,751,155
폭설 및 산불		2,465,950	51,871,130	10,305,360	64,642,440
용천돕기		234,383,866			234,383,866
대구지하철	438,891,694				438,891,694
서남아시아지진돕기			559,356,097		559,356,097
파키스탄			90,440,530	920,000	91,360,530
기타		3,045,000	18,384,896	2,873,000	24,302,896
불우이웃돕기	37,177,302	43,015,510	36,780,660	31,408,670	148,382,142
평신도주일	46,593,000	51,257,750	55,429,500	59,691,005	212,971,255
합 계	1,047,392,218	355,447,076	991,013,968	636,243,507	3,030,096,769

※ 사회평신도국(2007년 4월)

17.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사회복지법인		개 별 복지재단	개체교회	기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운영 시설	계
	기독교대한 감리회 사회 복지재단 ¹⁾	기독교대한 감리회태화 복지재단					
지역사회복지관	10	7	3	2		2	24
노인복지시설	19	1	5	4	3	15	44
여성복지시설	5	2	1	3	3	2	16
장애인복지시설	5	8	9	4	1		27
청소년복지시설	2	1	1	4	4	2	14
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9	3	9	194	2	1	218
푸드뱅크	2					2	4
재가복지시설	5	1		2		7	15
노숙자/부랑인/알코올	2		1	3			6
자원봉사기관						1	1
자활후견기관	3	2					5
상담시설	2			1			3
의료시설		1			1		2
야간학교				3			3
외국인노동자				1	2		3
노인대학				105		14	119
공부방(지역아동센터)		2				146	148
어린이도서관				36			36
기 타	2				2	1	5
합 계	66	28	29	362	15	193	693

1) 2007년 상반기 감사 기준

※사회평신도국 및 각 재단 확인 (2007년 10월 31일)

* 뒷면의 시설 소재 현황은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누락된 시설은 연락을 바랍니다. (사회평신도국 ☎ 399-4347)

1) 사회복지법인(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

번호	시설명	지원교회	소재지	전화	비 고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나라어린이집)	온양서 도고중앙	아산 기곡리	041)543-8123	종합지역사회복지
2	연수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세화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인천연수동	032)813-2791	
3	효자종합사회복지관 (소망어린이집)	춘천동 춘천제일	춘천 효자동	033)262-2390	
4	제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구 대구제일	대구 신천동	053)755-9392	
5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 도봉	서울 창동	02)993-3222	
6	부평중부사회복지관 (중부어린이집)	부평동 부평중부	부평	032)528-3511	
7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안양동 평촌	안양 신촌동	031)466-9125	
8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녹번어린이집)	은평 양광	서울 녹번동	02)388-6341	
9	소사구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기동	부천 괴안동	032)347-9534	
10	군자사회복지관 (군자어린이집)	안산 하나	안산 선부동	031)405-9595	
11	내리요양원	인천서 내리	인천 왕길동	032)066-6651	노인복지
12	원로원	법인	인천 주안	032)864-6081	
13	은빛마을사랑의집	단양동 한사랑	단양 동대리	043)423-7476	
14	안디옥사랑의집	여주서 울극	여주 내양리	031)883-5241	
15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마포 한서	서울 공덕동	02)712-3633	
16	심곡복지회관	부천남 부천제일	소사 심곡본동	032)665-6061	
17	신생노인전문요양원	새인천 신생	인천 백석동	032)566-0580	
18	원곡동경로식당	안산남 안산제일	안산 원곡본동	031)495-6472	
19	심청노인복지센터	전남동 주산	곡성 주산리	061)363-0221	
20	사랑의둥지재가복지센터	전주 순창벤엘	전북 순창	063)653-9191	
21	부안노인복지센터	전북 부안	전북 부안	063)581-1281	
22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철원동 향원	철원 군탄	033)452-9133	
23	샬롬노인복지회	전남동 순천중앙	순천 조례동	061)721-2693	
24	염창노인교실	강서 염창	서울 염창동	02)3665-4476	
25	새하늘가정봉사원파견센터	광주 새하늘	화순읍 대리	061)374-1863	
26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도봉 도봉	서울 도봉동	02)3491-3356	
27	마리실버힐	강화북 은혜	강화 상방리	011)9741-2164	

28	거여중앙노인행복학교	송파 거여중앙	서울 마천동	02)400-4255	노인복지
29	천사노인전문요양원	새인천 신생	인천 백석동	032)773-1400	
30	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주안 인천은혜	인천 주안동	032)868-7076	
31	성환재가노인복지센터	천안북 성환	천안시 성환읍	041)581-1822	
32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전남동 구례	전남 구례	011)644-9462	
33	여주중앙노인주간보호센터	여주서 여주중앙	여주시 여주읍	031)885-9009	
34	하늘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동 하늘	순천시 황전면	011)9220-7930	
35	속초재가노인복지센터	속초북 속초	속초시 동명동	033)635-5114	
36	생생꿈마을노인전문요양원	천안북 성환	충남 보령	041)933-3003	
37	곡성노인복지센터	전남동 죽곡중앙	죽곡 태평리	061)362-4940	
38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삼남연회	부산 아미동	051)253-0270	여성복지
39	해뜨는집	삼남연회	부산 대신동	051)257-9056	
40	엘림의집	제천동 제천제일	제천 화산동	043)643-1721	
41	화성가정상담소	평택서 하북	화성 남양동	031)355-1075	
42	여성의전화1366 (여성쉼터)	주안 인천은혜	인천 주안	032)862-1366	
43	사랑의등지	전국여성교회	마포 신수동	02)711-7935	
44	하양청소년복지관	대구 하양	경산 도리동	053)852-0977	청소년복지
45	품속방과후학교	노원 상계경신	서울 상계동	02)932-5935	아동복지
46	두빛나래지역아동센터	천안북 성환	천안시 성환읍	041)581-5010	
47	이웃사랑어린이집	부평동 이웃사랑	부평 갈산동	032)504-5992	보육시설
48	조양어린이집	속초남 조양	속초 조양	033)632-6320	
49	삼청어린이집	종로 옥인제일	서울 팔판동	02)723-0155	
50	도봉구청직장어린이집	도봉 예수마을	서울 방학동	02)2289-1548	
51	은평구립역촌2동어린이집	은평 은평	서울 역촌동	02)352-8663	
52	서초구립상명어린이집	서초 수표교	서울서 초동	02)522-1117	
53	토리어린이집	웅진 영흥중앙	웅진군 영흥면	032)883-1906	
54	정선지역자활후견기관, 사북공공도서관	정선 연세병원	정선 사북리	033)592-4115	자활시설
55	단양지역자활후견기관	단양남 단양	단양 매포	043)421-6910	
56	홍성지역자활후견기관	홍성 홍성중앙	홍성 고암리	041)631-5815	
57	벤엘의집(아베스공동체)	남부연회	대전 삼성동	042)633-6246	노숙자
58	살림원	인천남 은석	강화 서한리	032)933-2640	장애인복지
59	환한웃음	온양서 대성	아산시 신창면	041)543-0807	
60	사랑의학교	수원장안 복수원	수원 파장동	031)246-2160	

61	사랑나눔회	중구용산 사랑나눔	서울 청파동	02)702-4114	장애인복지
62	서구장애인복지관	새인천 신생	인천 백석동	032)569-1241	
63	서로사랑푸드뱅크	인제 시온	인제 원통	033)462-9491	기타
64	감리교푸드뱅크	중부연회	인천 화수동	032)763-1377	
65	웨슬리무료급식소	중부연회	인천 화수동	032)442-7009	
66	선한이웃네트워크	강서 한우리	서울 발산동	02)2664-2728	
67	행복한가정연구소	구로 베다니	서울 구로동	02)3481-0140	
68	선양원	부평동 선양	충주 조동리	043)855-9104	
69	예사회	홀사모회	서울 방배동	02)596-3332	

2) 사회복지법인(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시설)

번호	시설명	운영형태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직영	서울 강남구 수서동	02)2040-1600	지역사회복지
2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직영	인천 서구 심곡동	032)568-3270	지역사회복지
3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직영	대전 중구 문화동	042)586-1500	지역사회복지
4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직영	충남 공주시 중동	041)856-0881	지역사회복지
5	부산기독교사회복지관	직영	부산 서구 토성동2가	051)257-9404	지역사회복지
6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서울 은평구 수색동	02)307-1181	지역사회복지
7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02)2242-7564	지역사회복지
8	태화샘솟는집	직영	서울 마포구 아현동	02)392-1155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9	태화어린이집	직영	서울 강남구 수서동	02)2040-1600	보육시설
10	태화여성쉼터	직영	서울 강남구 수서동	02)2040-16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강남구청소년쉼터	위탁	서울 강남구 논현동	02)512-794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12	해뜨는샘	직영	서울 강남구 수서동	02)2040-1781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13	예진원	직영	인천 서구 심곡동	032)568-3276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14	태화인천 장애인주간	직영	인천 서구 심곡동	032)568-3247	장애인 보호센터재활시설
15	어울림	위탁	인천 남구 주안동	032)866-3270	장애인작업 활동시설
16	태화인천 노인복지센터	직영	인천 서구 심곡동	032)568-3206	재가노인복지시설

17	꿈사랑어린이집	직영	대전 중구 문화동	042)586-3004	보육시설
18	하담지역아동센터	직영	대전 중구 문화동	042)586-1500	아동복지시설
19	문화노인주간보호센터	직영	대전 중구 문화동	042)586-1500	노인복지시설
20	대광의원	직영	대전 중구 문화동	042)586-8300	의료복지시설
21	새싹어린이집	직영	충남 공주시 중동	041)856-2229	보육시설
22	꿈자람지역아동센터	위탁	서울 은평구 수색동	02)306-1158	아동복지시설
23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위탁	서울 은평구 수색동	02)326-1366	가정폭력상담소
24	은평지역자활센터	위탁	서울 은평구 수색동	02)307-1186	자활후견기관
25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02)2242-7578	자활후견기관
26	하늘샘	직영	서울 용산구 서계동	02)704-4369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27	목동 하늘샘	직영	서울 양천구 목4동	02)2061-1367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28	화곡 하늘샘	직영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02)2065-0853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3) 개별 복지법인 시설

번호	시설명	운영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광림복지재단	서울 강동 천호3동	02)475-4585	지역사회복지
2	서초종합사회복지	광림복지재단	서울 서초 양재1동	02)579-4782	강남 광림
3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강원 춘천 서면	033)263-3995	노인복지
4	광림사랑의집치매센터	광림복지재단	강원 춘천 서면	033)263-3994	
5	서부재활체육센터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88-6622	
6	사랑의마을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마을	충남 연기 서면	041)867-2080	당진 당진
7	이천노인종합복지회관	성원복지재단	경기 이천 중리동	031)636-0190	
8	평안의집	강릉중앙재단	강원 강릉 유산동	033)643-6435	강릉남 강릉중앙
9	성은모자원	강릉중앙재단	강원 강릉 유산동	033)645-3302	여성복지
10	가나안근로복지관	가나안복지재단	경기 성남 분당	031)707-0546	장애인복지
1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51-3982	
12	서울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83-0916	
13	소망의집	경남종합복지마을	경남 의령 가례면	055)574-3633	

14	양무리마을	사회복지법인 양무리마을	경기 이천 대월면	031)632-6857	이천남 양무리
15	은평대영학교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57-1702	
16	은평재활원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85-2046	
17	은평기쁨의집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53-9370	
18	은평천사원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구산동	02)357-1701	
19	은평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 응암2동	02)383-9966	청소년복지
20	성육보육원	감리교여성복지회	경기 평택 이충동	031)664-4152	아동복지
21	음성향애원	사회복지법인 음성향애원	충북 음성 읍내리	043)872-2059	
22	대천애육원	사회복지법인 대천애육원	충남 보령시 신흑동	041)933-9771	
22	평화원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경기 파주 연풍리	031)952-4553	
23	강동복지관어린이집	광림복지재단	서울 강동구 천호3동	02)475-4585	어린이집
24	서초종합사회복지어린이집	광림복지재단	서울 서초구 양재1동	02)579-4782	
25	서강어린이집	원주서강원	강원 원주시 태장2동	033)743-2174	
26	설성어린이집	음성향애원	충북 음성군 음성읍	043)872-1525	
27	참벗어린이집	진우복지재단	경남 김해시 진영읍	055)342-2162	
28	은행제3어린이집	가나안복지재단	경기 성남시 중원구	031)707-0546	
29	진우원	진우복지재단	김해 진영 여래리	055)342-2162	아동종합복지
30	새 삶의집	경남종합복지마을	경남 의령 가례면	055)574-3633	부랑아

4) 개체 교회 사회복지시설

번호	시설명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아현교회 사회관	서대문 아현	서대문 북아현동	02)312-3322	지역사회복지
2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중구용산 정동제일	서울 중구 정동	02)775-4212	
3	상대2동 제2복지회관	성남동 대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031)748-7500	
4	창영사회복지관	인천동 창영	인천 동구 창영동	032)773-1733	
5	감돌재가복지센터	오산서 오산	경기 오산 오산	031)374-2226	노인복지

6	평강의집	새광명 새광명	경기 광명시 광명7동	02)2613-7702	노인복지
7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	강화서 강화미문	인천 강화 남산리	032)933-5822	
8	나눔의집	춘천북 천전	강원 춘천 신북읍	033)242-4427	
9	밀알사회복지관	부천동 밀알	부천 원미구 소사동	032)349-3061	
10	샘터 노인무료급식	부평서 샘터	인천 부평 십정1동	032)516-4597	
11	샤론의집	서산동 새한	충남 서산 고북면	041)664-4462	
12	소망의집	금산 소망	충남 금산 군북면	041)752-4256	
13	수원성주간보호센터	수원팔달 수원성	수원 팔달 화서2동	031)298-8208	
14	은총관	평택 은총복지	경기 평택 고석면	031)662-6637	
15	장수식당	영월 상동시온	강원 영월 상동읍	033)378-2251	
16	참소망의집	제천시 벤엘	충북 제천 백운면	043)652-6455	
17	꿈이있는집	부평서 샘터	인천 부평 십정1동	032)501-8046	여성복지
18	새날여성쉼터	중구용산 새날	서울 용산 서계동	02)3237-3753	
19	아름다운집	원주남 평안	강원 원주시 단구동	033)761-9991	
20	햇순여성상담센터	안산동 안산햇순	안산 상록 사동	031)407-9468	장애인복지
21	방이복지관	송파 임마누엘	서울 송파 방이동	02)3432-0477	
22	엔학고례교실	강서 염창	서울 강서 염창동	02)3665-4477	
23	푸른솔생활학교	인천동 푸른솔	인천 서구 가좌2동	032)577-4009	청소년복지
24	경남청년관	마산동 합성	경남 마산 합성1동	055)252-8229	
25	요셉의집	울산 울산	경남 울산 남구	052)266-0920	
26	고양시열린청소년쉼터	일산서 선교	경기 고양 일산	031)918-1366	
27	동두천야학	양주 섬기는	경기 동두천 중앙동	031)863-0896	
28	정선군청소년문화센터	정선 충만한	강원 정선 사북읍	033)592-8291	
29	기동중고등야간학교	부천서 기동	부천 원미 심곡2동	032)667-5656	
30	삼천청소년문화의집	대전둔산 성광	대전 서구 삼천동	042)486-9199	
31	대신야학	서대문 대신	서울 서대문 신촌동	02)364-1536	아동복지
32	가농소망의집	잠실 가농소망	서울 송파 거여2동	02)407-4566	
33	샘터 아동상담센터	부평서 샘터	인천 부평 십정1동	032)501-8046	
34	소망탁아방	마포 나눔	서울 마포구 아현동	02)363-2697	이주노동자
35	밀알교회 이주노동자복지시설	부천동 밀알	부천 원미 소사동	032)348-7575	
36	사랑의음식나눔은행	안산동 안산광림	안산 단원 고장2동	031)487-1377	푸드뱅크
37	온누리나눔의집	남양주 온누리	경기 남양주 화도읍	031)595-6169	
38	음봉재가복지서비스	아산 음봉	충남 아산 음봉	041)543-2815	
39	꿈이있는쉼터	대전 평안	대전 동구 판암동	042)284-5300	노숙자
40	행려자무료급식소	강서 염창	서울 강서 염창	02)3665-4477	행려자

5) 기타 사회복지시설

번호	시설명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	서울 구로 고척2동	02)2616-6255	청소년복지
2	새날을위한청소년쉼터	사단법인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성남 중원 성남동	031)758-1213	청소년복지
3	햇살센터	운영위원회	평택 팽성 안정리	031)618-5535	여성/노인
4	여선교회 안식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서울 성북 정릉2동	02)914-0839	노인복지
5	평심원	자체운영	강원 원주시 지정면	033)732-6196	노인복지
6	부활소망의집	자체운영	경기 포천시 영죽면	011)9925-6597	노인복지
7	명덕학사	자체운영	서울 서대문 충정로	02)393-9363	청소년복지
8	어울림청소년쉼터	자체운영	서울 은평 응암3동	02)302-9006	청소년복지
9	인우학사	운영위원회	서울 서대문 북아현3동	02)362-5967	청소년복지
10	푸른꿈청소년상담원 용인청소년쉼터	자체운영용인	풍덕천2동	031)276-0770	청소년복지
11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자체운영	대전 대덕 대화동	042)631-6242	이주노동자
1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자체운영	경남 창원 팔용동	055)237-8779	이주노동자
13	새살의집	자체운영	서울 종로구 사직동	02)735-1488	노숙자

6) 노인대학 운영 현황

번호	지방	교회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종로지방	동대문교회	종로구 종로6가 65	02)762-5894	
2	종로지방	종교교회	종로구 도렴동 32	02)6322-2100	
3	종로지방	세검정교회	종로구 홍지동 94-3	02)395-2541	
4	중구용산지방	정동제일교회	중구 정동 34-33	02)775-4212	
5	동대문지방	용두동교회	동대문구 용두2동 140-2	02)923-3393	
6	성동지방	왕십리교회	성동구 하십리1동 773	02)2299-5410	
7	성동지방	성민교회	성동구 사근동 212	02)2292-8114	
8	성동지방	금호제일교회	성동구 금호동4가 96	02)2281-1411	
9	성북지방	돈암교회	성북구 동선동5가 70-35	02)925-5477	
10	성북지방	삼선교회	성북구 동서문로1가 140-75	02)744-9477	
11	성북지방	석관제일교회	성북구 석관1동 178-6	02)957-9191	
12	강북지방	삼양교회	강북구 미아2동 791-116	02)989-0810	
13	강북지방	은파교회	강북구 미아8동 323-52	02)983-7001	
14	서대문지방	대신교회	서대문구 신촌동 1	02)392-4412	
15	서대문지방	아현교회	서대문구 북아현1동 950	02)312-3061	

16	서대문지방	석교교회	서대문구 천연동 71	02)363-5260	
17	마포지방	서강교회	마포구 창전동 400-12	02)325-7142	
18	마포지방	신촌교회	마포구 염리동 518	02)718-7895	
19	영등포지방	영등포중앙교회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4	02)2631-5721	
20	영등포지방	신풍교회	영등포구 신길3동 282-4	02)832-0940	
21	영등포지방	대림교회	영등포구 신길6동 4794	02)833-3025	
22	영등포지방	대림평화교회	영등포구 대림3동 721-6	02)842-0538	
23	영등포지방	고향교회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02)849-7137	
24	동작지방	흑석동제일교회	동작구 흑석3동 80-3	02)817-2541	
25	구로지방	구로동교회	구로구 구로본동 503-10	02)3281-0091	
26	강서지방	염창교회	강서구 염창동 264-30	02)3665-4476	
27	강서지방	새소망교회	강서구 방화동 132-5	02)2663-3393	
28	강서지방	배광교회	강서구 화곡4동 809-14	02)2644-0191	
29	강동지방	천호제일교회	강동구 천호1동 219-2	02)473-6431	
30	강남지방	혜성교회	강남구 역삼동 610-8	02)556-1903	
31	서초지방	수표교교회	서초구 서초동 1488-2	02)582-2557	
32	서초지방	시온교회	서초구 방배동 332-1	02)3486-0133	
33	관악서지방	신림교회	관악구 신림13동 646-351	02)855-3845	
34	송파지방	임마누엘교회	송파구 방이동 45-5	02)415-3021	
35	송파지방	거여중앙교회	송파구 마천동 306-1	02)400-4255	
36	양천지방	한사랑교회	양천구 신정7동 324-1	02)2648-5244	
37	인천동지방	예일교회	서구 가좌2동 30-81	032)576-0823	
38	인천동지방	인천성민교회	서구 석남3동 469-1	032)575-1984	
39	인천동지방	가좌교회	서구 가좌2동 249-4	032)576-4111	
40	인천남지방	도화교회	남구 도화2동 119-17	032)865-8002	
41	인천남지방	송의교회	남구 송의2동 303-7	032)884-1301	
42	인천남지방	학익교회	남구 학익1동 251-16	032)868-1151	
43	인천북지방	온누리교회	계양구 용종동 212-1	032)549-5454	
44	주안지방	주안교회	남구 주안1동 193-3	032)867-0301	
45	주안지방	인천은혜교회	남구 주안5동 9-9	032)868-8311	
46	연수동지방	은혜교회	연수구 선학동 411-2	032)816-2231	
47	연수서지방	청학교회	연수구 청학동 529-7	032)832-9191	
48	연수서지방	안국교회	연수구 옥련동 261	032)834-8851	
49	부평동지방	부광교회	부평구 부평1동 542-7	032)527-5711	
50	부평동지방	이웃사랑교회	부평구 갈산동 171-17	032)507-2450	
51	부평서지방	십정교회	부천구 십정2동 317-23	032)438-6257	
52	새인천지방	마전교회	인천시 서구 마전동 577-8	032)563-5292	

53	새인천지방	복지교회	인천시 서구 연희동 712-18	032)561-1004	
54	남동지방	논현교회	남동구 논현동 68-20	032)446-6266	
55	부천동지방	밀알교회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22	032)348-9191	
56	부천남지방	부천제일교회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032)663-6741	
57	부천남지방	성광교회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202-2	032)343-7111	
58	부천남지방	남부교회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82-5	032)663-1005	
59	부천남지방	이웃사랑교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26	032)343-3476	
60	일산동지방	산성교회	일산구 일산4동 1332	031)907-7004	
61	시흥북지방	신천교회	시흥시 대야동 418	031)311-1581	
62	시흥북지방	매화교회	시흥시 매화동 250-1	031)313-9732	
63	시흥북지방	과림교회	시흥시 과림동 353	02)2685-7219	
64	시흥북지방	아멘교회	시흥시 도창동 산 44-1	031)314-9714	
65	김포지방	김포제일교회	사우동 385 길훈4차상가 401호	031)987-0581	
66	수원권선	오목천교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6	031)292-5331	
67	수원팔달지방	수원종로교회	수원시 장안구 복수동 368	031)251-6156	
68	수원팔달지방	수원성교회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10-7	031)298-8201	
69	수원팔달지방	수원제일교회	수원시 장안구 신충동 110-1	031)247-1009	
70	수원장안지방	영화교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7-21	031)248-7891	
71	수원장안지방	조원교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8-21	031)248-5560	
72	용인서지방	목양교회	용인시 동천동 산10-3	031)263-0990	
73	안양지방	안양교회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2-6	031)458-5941	
74	군포지방	부곡교회	의왕시 삼동 170-33	031)462-2000	
75	광명지방	광명중앙교회	광명시 철산3동 주공13단지	02)2616-1131	
76	안산동지방	명성교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2-1	031)486-9171	
77	안산동지방	안산광림교회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32	031)484-3333	
78	안산동지방	수암교회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38	031)483-2322	
79	안산대부지방	대영교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409	031)886-4307	
80	사강지방	사강교회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48	031)357-0888	
81	남양지방	천천교회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204	031)293-4929	
82	오산지방	오산교회	오산시 오산동 844-7	031)374-2226	
83	오산지방	열린교회	오산시 누읍동 555-1	031)375-2815	
84	오산지방	동탄교회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72-10	031)376-7185	
85	오산서지방	영천교회	화성시 동탄면 영천3리 387	031)376-3408	
86	분당지방	만나교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3	031)706-3351	
87	의정부동지방	의정부중앙교회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3-9	031)846-4715	
88	의정부동지방	호원중앙교회	의정부시 호원동 423-1	031)874-2182	
89	여주서지방	여주중앙교회	여주군 여주읍 하리 347-13	031)883-7771	

90	이천남지방	장호원교회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2리 150	031)642-9191	
91	이천중앙지방	오천교회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128-1	031)631-5091	
92	강릉지방	강릉중앙교회	강릉시 금학동 92-1	033)646-7575	
93	동해삼척지방	동해교회	동해시 평릉동 176	033)532-3123	
94	속초북지방	속초교회	속초시 동명동 338	033)635-5114	
95	영월서지방	생수교회	영월군 주천면 주천3리 2반 1257-1	033)372-7410	
96	원주서지방	원주제일교회	원주시 일산동 114	033)743-0713	
97	원주서지방	우산교회	원주시 우산동 204-3	033)742-7372	
98	춘천서지방	춘천중앙교회	춘천시 퇴계동 212-2	033)259-3000	
99	태백지방	하사미교회	태백시 하사미동 185-1 23/2	033)552-9373	
100	평창지방	평창중앙교회	평창군 평창읍 하리 173-7	033)332-2800	
101	홍천서지방	한서교회	홍천군 서면 모곡2리 386	033)434-1069	
102	횡성지방	횡성교회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64	033)343-1286	
103	충주서지방	충주제일교회	충주시 교현2동 766-5	043)843-3233	
104	대전중부지방	선화교회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1	042)221-4411	
105	대전서남지방	산성교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35	042)585-8113	
106	대전둔산지방	대전제일교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30	042)482-9084	
107	공주지방	공주제일교회	공주시 봉황동 10	041)853-7007	
108	공주지방	공주중앙교회	공주시 교동 162-1	041)852-2422	
109	강경지방	채운동교회	논산시 강경읍 채운1리 373	041)745-2863	
110	청양지방	청양교회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041)943-2677	
111	천안지방	천안제일교회	천안시 문화동 109	041)551-9123	
112	천안동지방	수신제일교회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28	041)552-1804	
113	천안북지방	성환교회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56-22	041)581-1822	
114	홍성지방	홍성제일교회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76	041)633-0051	
115	당진지방	당진교회	당진군 당진읍 동문리 513-10	041)354-0161	
116	아산지방	둔포교회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57-1	041)531-7070	
117	예산서지방	삼교교회	예산시 삼교읍 두리2구 532-5	041)337-3407	
118	부산서지방	빛과진리교회	부산시 영도구 영선1동 108	051)415-6351	
119	부산서지방	부산제일교회	부산시 동구 좌천1동 678-1	051)637-6670	
120	마산서지방	회성교회	마산시 회성동 176-10	055)299-3204	
121	경북북지방	점촌교회	경북 문경시 점촌동 180-26	054)553-3402	
122	울산지방	소망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150-3	052)236-8991	
123	전남동지방	순천중앙교회	순천시 조례동 833	061)721-2693	
124	전남동지방	관덕교회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 42	061)835-9247	
125	전남서	무안광림교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2구	061)452-8720	
126	제주지방	임마누엘교회	제주시 화북1동 1021-4	064)755-1014	

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시설 현황

번호	시설명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방과후 교실	은평 수색	서울 은평 수색동	02)372-8979	
2	은평 방과후 공부방	은평 은평	서울 은평 녹번동	02)389-8541	
3	광현 지역아동센터	은평동 광현	서울 은평 갈현3동	02)385-9320	
4	나눔 공부방	마포 나눔	서울 마포 아현동	02)363-2697	
5	한서 방과후교실	마포 한서	서울 마포 망원동	02)334-6601	
6	옹달샘 공부방	마포 신정	서울 마포 아현3동	02)363-0951	
7	샘터 지역아동센터	도봉 샘터	서울 도봉구 창1동	02)908-3506	
8	한길 지역아동센터	동대문 행복한	서울 동대문 이문1동	02)957-5090	
9	큰나무 공부방	성북 안암	서울 성북 안암동1가	02)923-7511	
10	지에 공부방	성북 장위	서울 성북 장위2동	02)909-0031	
11	아현 지역아동센터	서대문 아현	서울 서대문 북아현동	02)393-7419	
12	홍제 지역아동센터	서대문 홍제	서울 서대문 홍제3동	02)396-5561	
13	꿈이있는푸른학교	은평 새빛	서울 은평구 응암1동	02)382-1496	
14	도화 방과후공부방	마포 마포중앙	서울 마포구 도화동	02)3274-0207	
15	서강 방과후공부방	마포 서강	서울 마포구 창전동	02)325-7148	
16	품속 방과후학교	노원 상계경신	서울 노원구 상계1동	02)952-2774	
17	성원미디어스쿨	금천 성원	서울 금천 독산4동	02)858-9919	
18	생명지역아동센터	금천 생명	서울 금천 시흥1동	02)807-0691	
19	평화의신나는집 공부방	구로 평화의	서울 구로 궁동	02)2613-9895	
20	시온 방과후교실	서초 시온	서울 서초구 방배1동	02)3486-0103	
21	희망신나는집	관악 희망	관악구 봉천10동	02)876-3582	
22	꿈바라기 공부방	인천동 일꾼	인천 동구 화수1동	032)772-5792	
23	푸른솔생활학교 공부방	인천동 푸른솔	인천 서구 가좌3동	031)577-4009	
24	또래모아 공부방	인천남 복음의빛	인천 남구 도화3동	032)763-4100	
25	이웃사랑 공부방	부천남 이웃사랑	부천 소사 소사본3동	032)345-2540	
26	꿈향기 지역아동센터	부천북 산성	부천 오정구 여월동	032)674-2924	
27	샘터 공부방	부평서 샘터	인천 부평구 십정1동	032)516-4597	
28	살림 지역아동센터	남동 평화	인천 남동구 만수6동	032)464-7557	
29	산돌 공부방	남동 산돌	인천 남동구 만수1동	032)467-3054	
30	동넉 공부방	일산동 동넉	고양 일산동구 풍동	031)903-2768	
31	굿모닝 공부방	일산동 굿모닝	고양 일산동구 풍동	031)901-5715	
32	비전 공부방	강화남 온수중앙	강화 길상면 초지1리	032)937-7173	
33	목감 지역아동센터	시흥남 살림	경기 시흥 조남동	031)403-7284	

34	솔로몬 공부방	파주 적성	경기 파주 검산동	031)958-6295	
35	하늘문 공부방	고양 고양	고양 덕양구 고양동	031)963-3295	
36	소망 공부방	수원장안 소망	수원 장안구 파장동	031)256-2668	
37	꾸러기마을 공부방	안산동 명성	경기 안산시 고잔동	031)482-5000	
38	영재 공부방	안산남 영광중앙	경기 안산시 상록구	031)408-0138	
39	예은신나는집	안산 예은	경기 안산시 원곡동	031)494-7936	
40	평택신나는집 공부방	경기남 평택선교	경기 평택시 비전1동	031)651-2075	
41	비전솔레 공부방	경기남 새생명	안성 미양면 고지리	031)674-9101	
42	포도원비전하우스 지역아동센터	군포 포도원	경기 의왕시 오전동	031)477-9994	
43	내손공부방	군포 포도원	경기 의왕시 오전동	031)424-9993	
44	꿈이있는 푸른교실	새광명 행복한	경기 광명시 하안1동	02)898-8568	
45	큰나무 지역아동센터	새광명 새광명	경기 광명시 광명7동	02)2615-7751	
46	정남 지역아동센터	오산서 정남	경기 화성시 정남면	031)352-7406	
47	영천 지역아동센터	오산서 영천	경기 화성시 동탄면	031)376-3408	
48	각공 어린이공부방	평택 푸른	경기 평택시 서정동	031)668-0691	
49	나눔의지역복지선교센터	평택 나눔의	경기 평택시 신장2동	031)668-0691	
50	안정금빛사랑 공부방	평택서 안정	평택 팽성읍 안정9리	031)691-7963	
51	산성 공부방	광주 산성	경기 광주시 송정동	031)764-3265	
52	한빛 공부방	광주 한빛	경기 광주시 쌍령동	031)765-9193	
53	동심 공부방	광주 성화	경기 광주시 역동	031)765-8844	
54	비전 공부방광주동	임마누엘	경기 광주시 초월읍	031)768-9185	
55	진우 지역아동센터	광주동 진우	경기 광주시 도척면	031)764-9730	
56	한우리 공부방	광주동 한우리	경기 광주시 실촌읍	031)769-8301	
57	태전 공부방	광주동 구유	경기 광주시 장지동	031)765-7084	
58	소망 공부방	광주동 소망	경기 광주시 오포읍	031)767-7283	
59	예일 공부방	광주동 예일	경기 광주시 실촌읍	031)769-3228	
60	신나는 방과후 공부방	광주동 밀알	경기 광주시 오포읍	031)766-2634	
61	노루목 공부방	광주동 노곡	경기 광주시 도척면	031)762-5044	
62	늘푸른 공부방	광주동 늘푸른	경기 광주시 초월읍	031)762-6420	
63	에덴 공부방	광주동 초월에덴	경기 광주시 초월읍	031)768-5091	
64	새소망 공부방	성남 새소망	성남 중원구 성남동	031)721-7225	
65	선단 공부방	포천 선단	경기 포천시 선단동	031)541-0091	
66	창전 지역아동센터	이천북 이천	경기 이천시 창전동	031)638-9191	
67	설악 지역아동센터	가평 설악	경기 가평군 설악면	031)584-9459	

68	청소년비전센터 지역아동센터	분당 목양	경기 성남시 분당구	031)718-6041	
69	은혜 공부방	춘천동 효자	강원 춘천시 효자3동	033)255-8865	
70	드림 공부방	춘천동 등대	강원 춘천시 후평2동	033)255-0091	
71	갈릴리 공부방	춘천북 갈릴리	강원 춘천시 신사우동	033)256-5922	
72	벤엘 공부방	춘천북 춘천벤엘	강원 춘천시 신사우동	033)253-4210	
73	햇살 공부방	춘천북 금성중앙	강원 춘천시 신북읍	033)242-0331	
74	꿈마을 공부방	춘천북 원평	강원 춘천시 사북면	033)243-1138	
75	임마누엘 공부방	춘천남 임마누엘	강원 춘천시 효자2동	033)257-1509	
76	늘기쁜 공부방	춘천남 성암	강원 춘천시 동내면	033)263-1425	
77	새목호 공부방	동해삼척 새목호	강원 동해시 발한동	033)535-0191	
78	다니엘 공부방	철원서 월촌	강원 철원군 동송읍	033)455-3371	
79	햇불 공부방	원주서 햇불	강원 원주시 무실동	033)746-6153	
80	솔로몬방과후교실	인제 시온	강원 인제군 북면	033)461-6091	
81	안경다리 공부방	정선 성은	강원 정선군 신동읍	033)378-5602	
82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정선 아우라지	강원 정선군 북면	033)562-4130	
83	삼성어린이 공부방	음성서 삼성	충북 음성군 삼성면	043)878-5139	
84	물한골 공부방	영동 물한계곡	충북 영동군 물한리	043)745-0884	
85	용산비전 공부방	영동 용산중앙	충북 영동군 용산읍	043)742-9326	
86	한빛 공부방	청주서 한빛	충북 청주시 흥덕구	043)263-5181	
87	한무리 방과후 학교	청주서 한무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043)265-0212	
88	내수제일 공부방	청주북 내수제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043)213-9112	
89	주덕제일 아동복지센터	충주서 주덕	충북 충주시 주덕읍	043)846-6340	
90	우리 지역아동센터	대전 우리	대전 동구 대동	042)624-7143	
91	꿈땅 지역아동센터	대전동 제자들	대전 동구 성남2동	042)633-0100	
92	유천 지역아동센터	대전남 대광	대전 중구 유천1동	042)584-1424	
93	산서 공부방대	전남 산서	대전 중구 목달동	042)285-6188	
94	어깨동무 공부방	대전남 주님의	대전 중구 사정동	042)586-5591	
95	사랑샘 지역아동센터	대전서남 흑석	대전 서구 흑석동	042)581-4622	
96	샬롬 지역아동센터	대전대덕 샬롬	대전 대덕구 송촌동	042)673-9865	
97	상서 지역아동센터	공주서 상서	충남 공주시 우성면	041)853-6054	
98	제일 지역아동센터	홍성 홍성제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041)633-0051	
99	해비타트 공부방	온양서 해비타트	충남 아산시 도고면	041)543-6741	
100	솔로몬 공부방	아산 해암	충남 아산시 인주면	041)533-3792	
101	솔로몬 공부방	태안 연포	충남 태안군 근흥면	041)673-5474	

102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태안 은혜	충남 태안군 태안읍	041)673-9535	
103	삼교 지역아동센터	예산서 삼교	충남 예산군 삼교읍	041)338-3407	
104	사랑빛 공부방	부산서 애광	부산 진구 개금3동	051)893-2690	
105	꿈나무 공부방	부산서 빛과진리	부산 영도구 영선1동	051)415-6352	
106	모덕 지역아동센터	부산서 부산중앙	부산 사상구 모라2동	051)328-7869	
107	서구위탁수능 공부방	부산서 보수	부산 서구 부민동1가	051)253-1650	
108	청학 지역아동센터	부산서 빛과진리의	부산 영도구 연선1동	051)415-6351	
109	샘터방과후 스쿨 공부방	대구 진량중앙	경산 진량읍 신상리	053)854-9396	
110	꿈이있는집 공부방	대구 평강	대구 서구 비산7동	053)357-9195	
111	낙옥 공부방	대구 하양	경북 경산시 하양읍	053)852-0977	
112	이레어린이도서관 공부방	대구 고령	경북 고령군 고령읍	054)954-1447	
113	꿈을심어주는집 공부방	대구 서대구	대구 달서구 감삼동	053)566-1201	
114	북대구 공부방	대구 북대구	대구 북구 검단동	053)384-8494	
115	반야월 지역아동센터	대구 밀알	대구 동구 동호동	053)962-7488	
116	예술신나는집 공부방	마산동 창녕	경남 창녕군 창녕읍	055)533-8595	
117	파수 공부방	마산동 파수	경남 함안군 함안면	055)583-4307	
118	웅달샘 공부방	마산동 성은	경남 마산시 회원2동	055)246-1225	
119	대산 공부방	마산동 대산	경남 함안군 대산면	055)582-8337	
120	햇살 공부방	마산서 의령중앙	경남 의령군 의령읍	055)572-1041	
121	복민 공부방	마산서 복민	경남 진해시 풍호동	055)552-5934	
122	한울 공부방	경북동 시온	경북 포항시 남구	054)286-4790	
123	울릉섬 방과후학교	경북동 동산	경북 울릉군 울릉읍	054)791-4798	
124	사동 공부방	경북북 사동	경북 영양군 청기면	054)682-7012	
125	동로 공부방	경북북 동로제일	경북 문경시 동로면	054)552-7860	
126	자연 공부방	한려 자연	경남 하동군 옥종면	055)883-2984	
127	방주 공부방	한려 방주	경남 사천시 곤양면	055)854-7488	
128	물건리 지역아동센터	한려 물건리	경남 남해군 삼동면	055)867-1770	
129	해오름 공부방	한려 거제광림	경남 거제시 거제면	055)633-0574	
130	선탘이웃 지역아동센터	한려 선탘이웃	경남 고성군 영오면	055)673-4575	
131	성내 공부방	고성			
132	만나 공부방	한려 하동제일	경남 하동읍 읍내리	055)884-3185	
133	그루터기 공부방	한려 고읍	경남 사천시 전동면	055)852-4154	
134	하늘바라기 공부방	한려 남양	경남 사천시 죽림동	055)834-4575	
135	창대 공부방	한려 창대	경남 사천시 향촌동	055)833-5770	
136	솔로몬 공부방	한려 복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055)674-3189	

137	지리산평화 공부방	한려 지리산평화	경남 하동군 옥종면	055)883-7252	
138	남해로템 지역아동센터	한려 남해대교	경남 남해군 설천면	055)862-2995	
139	밀알 공부방	진주 수동제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055)963-1355	
140	미천 공부방	진주 미천	경남 진주시 미천면	055)744-1091	
141	천지 공부방	진주 천지	경남 진주시 미천면	055)745-9169	
142	둔기 지역아동센터	진주 둔기선교	경남 거창군 고제면	055)945-0350	
143	진성 공부방	진주 진성영일	경남 진주시 진성면	055)759-6786	
144	영덕열린 지역아동센터	울진 영덕중앙	경북 영덕군 남석1리	054)732-7302	
145	중화산동 공부방	전주 한누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063)287-3004	
146	백곡 지역아동센터	전남동 백곡	전남 곡성 고달면	061)363-9144	
147	별교원동 공부방	전남동 별교원동	전남 보성군 별교읍	061)857-1944	
148	늘사랑 공부방	전남동 늘사랑	전남 고흥군 두원면	061)835-9964	
149	주봉 공부방	전남동 주봉	전남 보성군 보성읍	061)852-4689	
150	현정 공부방	전남동 현정	전남 곡성군 겸면	061)362-9300	
151	목석죽 지역아동센터	전남동 죽곡중앙	전남 곡성군 죽곡면	061)362-4940	
152	고향사랑 공부방	전남동 고향사랑	전남 고흥군 남양면	061)833-1265	
153	주산 공부방	전남동 주산	전남 곡성군 옥과면	061)363-0221	
154	황월 지역아동센터	전남동 하늘	전남 순천시 월등면	061)754-5324	
155	순천중앙 지역아동센터	전남동 순천중앙	전남 순천시 조례동	061)721-2692	
156	곡성제일 공부방	전남동 곡성제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	061)362-1941	
157	숨쉬는 공부방	전남서 해송	전남 해남군 송지면	061)533-3482	
158	꿈장이 공부방	전남서 무안광림	전남 무안군 청계면	061)453-5860	
159	황조 공부방	전남서 황조	전남 해남군 산이면	061)0532-9218	
160	꿈바라기 공부방	전남서 해남새롬	전남 해남군 해남읍	061)536-5382	
161	희망 공부방	제주 희망의	제주시 연동	064)746-7047	
162	함열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익산 초대	전북 익산시 함열읍	063)861-7409	
163	선유샘 공부방	여수 선유샘	전남 광양시 옥곡면	061)772-9283	
164	옥곡 공부방	여수 옥곡	전남 광양시 옥곡면	061)772-4852	
165	동광양평화 공부방	여수 동광양평화	전남 광양시 마동	061)791-2883	
166	태인 공부방	여수 태인수표	전남 광양시 태인동	061)792-0741	
167	어울림배움터 갈릴리 공부방	여수 갈릴리	전남 여주시 돌산읍	061)644-3815	
168	예닮 공부방	여수 예닮	전남 광양시 중동	061)794-1255	

8) 보육시설 현황

(1) 어린이집 위탁운영 시설 현황(유지재단)

번호	시설명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은아새 어린이집	은평 세계로	서울 은평구 응암3동	02)386-4498	
2	신수 어린이집	마포 성광	서울 마포구 신수동	02)703-1686	
3	상수 어린이집	마포 신성	서울 마포구 당인동	02)323-5045	
4	공덕1동 어린이집	마포 마포중앙	서울 마포구 공덕1동	02)716-0202	
5	도화2동 구립어린이집	마포 참좋은	서울 마포구 도화2동	02)303-8122	
6	구립 합정 어린이집	마포 한강중앙	서울 마포 합정동	02)337-6629	
7	장안2동 어린이집	동대문 장안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02)2247-4155	
8	별밭 어린이집	동대문 장안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02)2215-0248	
9	도림1동 어린이집	영등포 영등포제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	02)849-9570	
10	미아9동 어린이집	강남동 영동	서울 강북구 미아9동	02)986-7533	
11	새싹 어린이집	강서 새소망	서울 강서구 방화1동	02)664-9192	
12	해바라기 어린이집	강서동 신도	서울 양천구 신정1동	02)2647-6784	
13	풍성 어린이집	강남동 성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02)471-6177	
14	구립 온수 어린이집	구로 구로반석	서울 구로구 온수동	02)684-4745	
15	공작 어린이집	주안 만수중앙	인천 남구 송의1동	032)883-5766	
16	한울타리 어린이집	주안 신기	인천 남구 주안7동	032)424-0139	
17	공립 초지 어린이집	강화남 온수중앙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32)937-2827	
18	비둘기어린이집	오산 오산	경기 오산시 갈곶동	031)377-9559	

(2)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현황(자영)

번호	시설명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예향어린이집	구로 예향	서울 구로구 고척1동	02)2613-7634	
2	성원어린이집	금천 성원	서울 금천구 독산4동	02)858-9919	
3	품속어린이집	노원 상계경신	서울 노원구 상계1동	020952-2770	
4	하얀어린이집	노원 동원	서울 노원구 공릉2동	02)972-2256	
5	가나안어린이집	마포 가나안	서울 마포구 용강동	02)711-2282	
6	서강사랑어린이집	마포 서강	서울 마포구 창전동	02)334-4020	
7	아현어린이집	서대문 아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02)393-7419	
8	대신어린이집	서대문 대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02)313-1357	
9	시온어린이집	서초 시온	서울 서초구 방배1동	02)3486-0103	
10	수표교어린이집	서초 수표교	서울 서초구 서초3동	02)597-7172	

11	돈암어린이집	성북 돈암	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02)922-6259	
12	신월중앙어린이집	양천 신월중앙	서울 양천구 신월1동	(02)2694-7567	
13	세신어린이집	양천 세신	서울 양천구 신정6동	(02)26496204	
14	남산중앙어린이집	중구용산 남산중앙	서울 용산구 후암동	(02)754-9919	
15	은현어린이집	은평동 은현	서울 은평구 갈현동	(02)359-0671	
16	종교어린이집	종로 종교	서울 종로구 도림동	(02)6322-2190	
17	꿈터어린이집	중구용산 예수마을	서울 중구 신당5동	(02)2237-5211	
18	평강어린이집	중랑 평강	서울 중랑구 신내동	(02)493-3225	
19	백합어린이집	인천북 부평제일	인천 계양구 작전2동	(032)547-3631	
20	신정어린이집	인천북 작전동	인천 계양구 작전3동	(032)542-2681	
21	논현어린이집	남동 논현	인천 남동구 논현동	(032)446-6269	
22	중부어린이집	부평동 부평중부	인천 부평구 부평1동	(032)528-4022	
23	샘터어린이집	부평서 샘터	인천 부평구 십정1동	(032)516-6459	
24	동광선교어린이집	부평동 동광	인천 부평구 부개2동	(032)505-8079	
25	성암어린이집	연수서 성암	인천 연수구 옥련동	(032)831-0072	
26	중부어린이집	인천서 중부	인천 중구 송학동3가	(032)763-5352	
27	청평어린이집	가평 청평	경기 가평읍 외서면	(031)584-0237	
28	신생어린이집	고양 신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02)3158-5053	
29	숲속어린이집	광주 분원	경기 광주시 남종면	(031)765-7245	
30	빛나어린이집	광주 하늘빛	경기 광주시 퇴촌면	(031)767-5764	
31	명석어린이집	수원영통 명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031)202-9145	
32	꿈나무어린이집	군포 포도원	경기 의왕시 오전동	(031)456-0788	
33	밀알어린이집	부천동 밀알	경기 부천시 소사동	(032)349-3061	
34	성광어린이집	부천남 성광	경기 부천시 소사구	(032)343-7113	
35	온누리어린이집	부천남 온누리	경기 부천시 소사구	(032)655-1756	
36	성화어린이집	부천동 부천성화	경기 부천시 원미구	(032)651-6745	
37	기둥어린이집	부천서 기둥	경기 부천시 원미구	(032)664-6004	
38	내동어린이집	부천북 내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	(032)671-7999	
39	민들레어린이집	안산남 신성	경기 안산시 상록구	(031)418-6694	
40	반월어린이집	안산남 반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031)438-8048	
41	샘물어린이집	안양동 관양	경기 안양시 동안구	(031)423-8883	
42	초원의꿈어린이집	안양동 초원의꿈	경기 안양시 동안구	(031)387-8888	
43	지혜의샘어린이집	양주 회천	경기 양주시 덕계동	(031)863-3325	
44	민들레어린이집	양평 양동중앙	경기 양평군 양동면	(031)774-7654	
45	에덴어린이집	여주동 북내중앙	경기 여주군 북내면	(031)882-9515	

46	초성어린이집	연천 초성	경기 연천군 청산면	031)835-1990	
47	백의어린이집	연천 백의	경기 연천군 청산면	031)835-7770	
48	대광어린이집	연천 대광	경기 연천군 신서면	031)835-6614	
49	남사어린이집	용인동 남사	경기 용인시 남사면	031)334-7297	
50	오천어린이집	이천중앙 오천	경기 이천시 마장면	031)632-3860	
51	기쁜어린이집	평택 기쁜	경기 평택시 이충동	031)668-0889	
52	새빛어린이집	포천 이동제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031)531-5616	
53	신북어린이집	포천 신북	경기 포천시 신북면	031)536-1245	
54	선단어린이집	포천 선단	경기 포천시 포천읍	031)541-9191	
55	예담어린이집	화성 예담	경기 화성시 향남면	031)353-8761	
56	가산어린이집	포천 가산	경기 포천시 가산면	031)541-7004	
57	서신어린이집	화성 서신	경기 화성시 서신면	031)357-3751	
58	천사어린이집	화성 자안	경기 화성시 비봉면	031)356-1004	
59	마도어린이집	화성 마도	경기 화성시 마도면	031)357-6744	
60	양감어린이집	화성 양감	경기 화성시 양감면	031)352-1799	
61	천천어린이집	화성 천천	경기 화성시 매송면	031)294-4389	
62	사강어린이집	화성 사강	경기 화성시 송산면	031)357-5755	
63	성산어린이집	강릉북 성산	강원 강릉시 성산면	033)641-9019	
64	강릉어린이집	강릉북 강릉	강원 강릉시 교1동	033)643-3613	
65	호산어린이집	동해삼척 호산	강원 삼척시 원덕읍	033)573-6463	
66	소망어린이집	영월 영월동부	강원 영월군 영월읍	033)374-5833	
67	부론어린이집	원주서 부론	강원 원주시 부론면	033)732-7015	
68	신림어린이집	원주남 신림	강원 원주시 신림면	033)762-3988	
69	태장어린이집	원주동 태장	강원 원주시 태장2동	033)733-0604	
70	용대어린이집	인제 가평	강원 인제군 북면	033)462-8806	
71	서화어린이집	인제 서화	강원 인제군 서화면	033)463-2578	
72	희망어린이집	영월서 영월대	강원 영월군 영월읍	033)373-8184	
73	우두어린이집	춘천북 우두	강원 춘천시 우두동	033)251-1921	
74	은혜어린이집	춘천동 효자	강원 춘천시 효자3동	033)254-8865	
75	창촌어린이집	홍천동 창촌	강원 홍천군 내면	033)432-6898	
76	햇살어린이집	춘천남 동춘천	강원 홍천군 화촌면	033)435-8738	
77	양덕어린이집	홍천서 양덕원	강원 홍천군 남면	033)432-4056	
78	평창어린이집	평창 평창제일	강원 평창군 평창읍	033)332-2270	
79	호산나어린이집	단양 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043)422-0710	
80	매포어린이집	단양동 매포	충북 단양군 매포읍	043)422-4073	

81	금성선교어린이집	제천동 금성	충북 제천시 금성면	043)652-5018	
82	송학어린이집	제천동 송학	충북 제천시 송학면	043)644-0164	
83	남부어린이집	제천서 남부	충북 제천시 영천동	043)652-1910	
84	시온성어린이집	제천서 시온성	충북 제천시 서부동	043)647-1717	
85	소망어린이집	진천 진천제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043)533-5893	
86	에덴어린이집	청주북 에덴	충북 청주시 상당구	043)255-6534	
87	천사어린이집	청주서 한무리	충북 청주시 흥덕구	043)214-7647	
88	좋은어린이집	충주서 칠금	충북 충주시 칠금동	043)846-4369	
89	북이어린이집	청주북 송현	충북 청원군 북이면	043)214-5379	
90	한사랑어린이집	대전서 한사랑	대전 서구 괴정동	042)535-1004	
91	서광어린이집	대전유성 서광	대전 유성구 원내동	042)542-3392	
92	진잠어린이집	대전유성 진잠	대전 유성구 원내동	042)545-1003	
93	상서어린이집	공주서 상서	충남 공주시 우성면	041)855-5335	
94	행복한어린이집	공주 공암제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041)857-2048	
95	착한어린이집	금산 금산제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	041)751-1142	
96	아람자람어린이집	논산 화악	충남 논산시 연산면	041)735-0799	
97	새싹어린이집	논산 상도	충남 논산시 상월면	041)732-4788	
98	강경제일어린이집	강경 강경제일	충남 논산시 강경읍	041)745-7741	
99	당진어린이집	당진 당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041)356-0161	
100	중흥어린이집	당진동 중흥	충남 당진군 중흥리	041)358-9408	
101	미래어린이집	당진 유곡	충남 당진군 송산면	041)354-0693	
102	꿈이있는어린이집	합덕 양유	충남 당진군 순성면	041)355-9476	
103	중앙어린이집	대천남 대천중앙	충남 보령시 공촌동	041)936-1050	
104	제일어린이집	대천서 대천제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	041)936-6762	
105	우리어린이집	부여 규암중앙	충남 부여군 규암면	041)836-2945	
106	송악골어린이집	온양동 송악	충남 아산시 송악면	041)541-0208	
107	음봉어린이집	아산 음봉	충남 아산시 음봉면	041)543-4865	
108	에덴어린이집	아산 둔포	충남 아산시 둔포면	041)531-8301	
109	꼬마학교어린이집	아산 대성	충남 아산시 신창면	041)544-0330	
110	오가어린이집	예산 오가	충남 예산군 오가면	041)332-2235	
111	신양어린이집	예산 신양	충남 예산군 신양면	041)331-1206	
112	꿈꾸는어린이집	천안남 실만한물가하늘평안	충남 천안시 성정2동	041)575-2484	
113	박사어린이집	천안서 천안늘사랑	충남 천안시 쌍용동	041)572-6698	
114	샬롬어린이집	홍성 홍성중앙	충남 홍성군 홍성읍	041)631-7007	

115	에벤에셀어린이집	마산동 창녕	경남 창녕군 창녕읍	055)533-8595	
116	복민어린이집	마산서 복민	경남 진해시 풍호동	055)547-6952	
117	울진중앙어린이집	울진 울진중앙	경북 울진군 울진읍	054)783-9104	
118	소망어린이집	울산 울산소망	울산시 동구 화정동	052)236-8992	
119	상록어린이집	전북 김제	전북 김제시 검산동	063)544-3883	
120	부안어린이집	전북 부안	전북 부안군 부안읍	063)583-4740	
121	반석어린이집	전주 임실반석	전북 임실군 임실읍	063)643-3680	
122	벨엘어린이집	전북 신태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063)571-0494	
123	광림어린이집	제주 제주광림	제주시 이도2동	064)755-7275	
124	예쁨유치원	구로 초운	서울 구로구 온수동	02)2615-3145	
125	한양유치원	노원 한양제일	서울 노원구 월계3동	02)973-4142	
126	영중유치원	영등포 영등포중앙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02)2676-8276	
127	세검정유치원	종로 세검정	서울 종로구 홍지동	02)395-2541	
128	선일유치원	부평동 선일	인천 부평구 부평4동	032)519-8822	
129	명석유치원	수원영통 명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031)202-9145	
130	예향유치원	구리 예향	경기 구리시 인창동	031)556-3001	
131	창은유치원	분당 안디옥	경기 성남시 분당구	031)718-2610	
132	혜성유치원	성남동 혜성	경기 성남시 중원구	031)731-2045	
133	천사유치원	안산동 안산중앙	경기 안산시 상록구	031)482-1004	
134	오산유치원	오산 오산	경기 오산시 오산동	031)374-2226	
135	무지개유치원	인제 시온강	원 인제군 북면	033)462-9106	
136	제천유치원	제천동 제천제일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043)646-5315	
137	중곡선교원	성동 중곡	서울 광진구 중곡4동	02)444-6504	
138	용두동선교원	동대문 용두동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02)924-3662	
139	한사랑선교원	양천 한사랑	서울 양천구 신정7동	02)2646-9974	
140	솔로몬유아학교	새광명 행복한	경기 광명시 하안1동	02)898-8564	
141	샬롬영어선교원	수원권선 오목천	경기 수원시 권선구	031)292-5331	
142	어린이영어교실	동대문 장안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02)2215-0248	

9) 어린이도서관 현황

번호	도서관 이름	운영교회	소재지	전화
1	가나안	가나안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6	031)665-8080
2	감자꽃	예수사랑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30 태릉 현대A 상가 3층	02)972-1005
3	강아지똥	소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592-50 정원상가 2층	031)975-0182
4	느티나무	사랑	서울시 중구 신당2동 363-6	02)3298-0918
5	동넙	동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3-4 보민프라자 6층	031)903-2768
6	두껍아 두껍아	솔내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45 2층	02)2631-2534
7	들꽃방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7	043)235-5063
8	반딧불	문래동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23	02)2672-9363
9	백석느티나무	푸른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148-10	031)826-9209
10	샘터꿈의	샘터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65-7	051)628-6009
11	우리마을작은	도창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385-4 3층 도창복지문화센터	031)315-4482
12	참좋은	참좋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10 3층	031)551-0405
13	초롱초롱	남해고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9-1	055)862-9759
14	푸른	청파	서울시 용산구 청파2동 3가 85	02)713-2224
15	기쁜	기쁜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39	031)665-7158
16	맑은샘	맑은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362	031)733-8720
17	옹달샘	은빛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31-21	02)3141-9413
18	반딧불이	새예루살렘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2리 산26	053)582-8214
19	꽃우물	화정	안산시 단원구 화정1동 159-1	031)405-8193
20	꿈꾸는 뜰	영생	전북 익산시 부송동 716	063)834-0088
21	꿈과 십	삼청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49-1	02)734-1054
22	도토리과 친구들	초계중앙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2 1층	055)931-2191
23	사랑나무	옥토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715-2 유호상가 301호	031)492-4342
24	꼬마정원	생명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57-3	033)262-0656
25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수갈릴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7	061)644-3815
26	수주 꿈터	수주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1리 886-1	033)372-8052
27	신생	신생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8-2	032)568-1560
28	새하늘	새하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537 태평1차A 상가	
29	정동	정동제일	서울시 중구 정동 34	
30	해맑은	해맑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269-96 1층	031)664-9125
31	살림	아산살림	충남 아산 방축동 한성A 상가동 2층	041)541-7815
32	너나드리	신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1리 220	031)375-7106
33	우리	우리	대전시 동구 대동 405-22	041)624-7143

18. 사회선교 현황

1) 경찰 선교

선교기관명		성 명	주 소	전 화
1	경찰대학	박성만 목사	용인군 구성면 연남리 88	031)284-5256 031)283-8393(F)
2	경찰청	백동현 목사	서대문구 미군동 209 경찰청경비 3606 경찰청사 14층 경찰청교회	393-5428(F)
3	서울 경찰청	이중석 목사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15층 경목실	720-3863
4	인천 경찰청	김진곤 목사	인천시 중구 항동3가 7	032)763-0047 032)433-3391(F)

2) 교도소 선교

선교기관명		성 명	주 소	전 화
1	감리교교정선교회	채기화 목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69-2	031)710-4261
2	공주법무부치료감호소	석승기 목사	대전시 서구 둔산2동 샘머리㉠ 108-504	042)369-7142(주)
3	기독교청소년선교회	공효순 목사	노원구 상계6동 주공㉠ 318-103	6261-5876(F겸용) 931-5446

3) 직장 선교

소속기관		성 명	주 소	전 화
1	직장선교연합회	이영환 목사	종로구 도림동 32 도림B/D 705호	3471-5070 738-5863

4) 병원 선교

근무지		성 명	주 소	전 화
1	서울대학교병원	강태석 목사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병원교회	02)2072-3101
2	인천기독병원	고신자 전도사	인천시 중구 울목동 237 원목실	032)762-7831
3	영동세브란스병원	공재철 목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146-92 원목실	02)3497-3240
4	연세대의료원	곽수산나 전도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원목실	02)2228-1016

5	성애병원	길영애 목사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9-33 경동빌라 201호	02)693-1390
6	인천사랑병원	김광숙 전도사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4-2 원목실	02)425-2001
7	연세대의료원	김성애 전도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원목실	02)2228-1077
8	인천기독병원	김정균 목사	인천시 중구 을목동 237 원목실	032)832-0242
9	인천기독병원	김정희 전도사	인천시 중구 을목동 237 원목실	032)762-7831
10	원주기독병원	문애경 전도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원목실	033)761-9398
11	사북연세병원	박두범 목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033)592-1394
12	분당차병원	박재연 목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원목실	031)780-5151
13	용인세브란스병원	송우용 목사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05 원목실	031)331-8803
14	이대 목동병원	이강진 목사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1-1 기독교원목실	02)2650-5110
15	연세대학교의료원	이애경 전도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원목실	02)2228-1020
16	연세대학교의료원	이광실 전도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원목실	
17	인천기독병원	이은희 전도사	인천시 중구 을목동 237 원목실	032)762-7831
18	인천사랑병원	이흥철 목사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4-2 원목실	032)425-2001
19	한양대 구리병원	임완예 전도사	구리시 인창동 주공A 415-701	031)555-4669
20	한양대학교병원	전 순 전도사	경기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6-21	031)763-6724
21	원주기독병원	정택진 목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원목실	033)761-3462
22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선용 전도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46-92 원목실	031)708-7259
23	한양대학교병원	진문일 목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원목실	02)2290-9144
24	이대 목동병원	최은경 전도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1 원목실	02)2650-5110
25	영동세브란스병원	한난수 전도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46-92 원목실	02)3497-3241
26	대전보훈병원	배만복 전도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43-16 원목실	043)262-6768
27	대전한국병원	김주선 목사	대전시 동구 성남동 496-15 원목실	
28	강릉중앙병원	윤성규 목사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2-1 강릉중앙감리교회	033)610-3903
29	대전중앙병원	정경진 목사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5-3 원목실	042)485-7268
30	을지대학병원	정효숙 전도사	대전시 서구 가장동 43-25 203호	
31	인천재활의원	안규석 목사	인천 남구 주안3동 800-17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032)861-0107
32	인천성민병원	정병화 목사	인천 서구 석남동 522-1 신현감리교회	

5) 농촌 선교

소속기관	성 명	주 소	전 화
농촌선교회	김고광 목사		
농촌선교훈련원	차홍도 목사	충북 음성군 소여리 233	043)873-1969(F) 043)873-0053
농도생협	차홍도 목사	서대문구 북아현1동 950 아현감리교회 내	02)313-8093 02)364-3646(F)

6) 환경 선교

소속기관	성 명	주 소	전 화
환경선교위원회	권종호 목사	종로구 청운동 89-111	02)735-1608 02)738-0850

7) 외국인근로자 선교

	교 회	성 명	주 소	전 화
1	소 망	김두한 목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0-13	031)976-2842
2	금 파	이경재 목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21-3	031)981-7794/5
3	사 랑 의	정정희 목사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1-3 homepage: www.fwmc.or.kr	031)874-8077
4	승 의	이호문 감독	인천시 남구 송의2동 303-7	032)884-1301
5	평 화	이수기 목사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원리 544-10	031)234-5291
6	공 향	남기성 목사	강서 방화1동 247-188	02)2665-9700~1 02)2662-3996(F)
7	수 표 교	황신희 목사	서초구 서초동 1488-2	02)582-2557
8	외국인선교	이경민 목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42-3	031)681-7681

8) 장애인 선교

	교 회	성 명	주 소	전 화
1	서울농아	남순석 목사	강남구 포이동 239-9	02)577-3323 02)576-3323(F)
2	농아사랑	이호구 목사	동작구 사당1동 1031-14 지층	02)598-3323(F겸용)
3	한뜻선교	백남석 목사	송파구 문정동 80-13	02)558-0691

4	인천농아	오경은 전도사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369-512 2층	032)528-9896
5	계산농아인	박재환 전도사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73-6, 7, 17호	032)544-4782 429-5056(주,F점용)
6	인천미문	김도진 목사	부평구 십정2동 501-2	032-423-4271 426-5576
7	강화미문	황두휘 전도사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90-1	032)934-6929
8	원주농아	이관혁 목사	원주시 단계동 510-7	033)746-0093
9	청주농아	강장호 목사	청원군 남이면 석관리 77	043)236-0191 043)236-0192
10	웅진농아	김종인 목사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 [㉠] 201-905	041)856-9716
11	서산농아	이용민 전도사	산시 동문동 512-2	041)663-3323 041)667-3323
12	전남실로암	주명국 목사	목포시 산정동 1303	061)244-6529

9) 빈민 선교

	기 관 명	담 임 자	주 소	전 화
1	나눔교회	김명희 목사	마포구 아현동 678-7	031)953-4972
2	희망교회	전준우 목사	관악구 봉천5동 480-91	02)876-8513
3	가농소망의 집	편추자 목사	송파구 거여2동 181-608호	031)333-3758

10) 여성쉼터

	시 설 명	성 명	운영단체	주 소	전 화
1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구로)	관장 윤문자 목사 상담실장: 김선옥 전도사 생활교사: 김선희 선 생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구로구 고척2동 241-291	02)2616-5515 02)2616-6255(F)
2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성남)	상담실장: 김은녕 목 사 생활교사: 나희정 전도사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3 시온빌라 101호	031)758-1213
3	햇순여성 상담센터	배월수 목사	햇순교회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06-9	031)408-1640
4	새날여성쉼터	강인혜 전도사	새날교회	용산구 서계동 33-7 하성빌라 201호	3272-3753~4

5	청소년 푸른쉼터	윤기선 목사	선교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마을 동성④ 8단지 동성상가 3층	031)918-1366
6	여성장애인 쉼터	최경애 목사	평안교회	대전시 동구 관암동 477-4	042)284-5300
7	햇살 사회복지회	우순덕 전도사	햇살센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195	031)618-5535 031)618-6636(F)

11) 노숙자 쉼터

	기 관 명	성 명	위 치	주 소	전 화
1	사회선교센터	원용철 목사	대 전	대전시 동구 삼성1동 121-3	042)633-6246
2	노숙자 선교회	최요한 목사	서 울	중구 중림동 129-15 (서부역)	02)392-2867

12) 인권 선교

	소속기관	성 명	주 소	전 화
1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진광수 목사	서대문구 냉천동 20-1 서원빌딩 305호 homepage: gonan.or.kr	02)393-4662 02)364-6076(F)
2	한국교회 인권센터	최재봉 목사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13) 기타 사회 선교

	소속기관	성 명	주 소	전 화
1	장애인선교회	장병호 목사	용산구 청파동 2가 107 사랑나눔교회	702-4114 702-4440(F)
2	알콜 의존자선교회	이옥녀 목사	강서구 화곡7동 1075-10 경민빌 402	02)2695-5777 2605-4857(F)
3	감리교스포츠 선교연합회	김성기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794	02)833-9332
4	한국생명나눔 운동본부	조정진 전도사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 1호선 대합실	02)2616-7179 2618-7179(F)
5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회	이승원 전도사	용산구 청파동2가 107	02)702-4114 702-4440(F)
6	한국뇌성마비 장애인연합회	유흥주 전도사	광진구 중곡2동 161-23 우진빌딩 4층	3437-2081 3437-3161(F)

감리교회 복음화 지도

일러두기

1. 복음화 지도는 전국 감리교회의 분포를 10개 연회 국내 199개 지방과 전국 시, 군, 구 행정단위별로 비교하여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2. 시, 군, 구 인구통계는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2006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중 내국인 수입니다.
3. 전체 교회와 복음화율은 한국컴퓨터선교회 세계정보연구원이 2006년에 발행한 <대한민국복음화지도>를 참조하였습니다.
4. 감리교회 수는 《2007년도 교회주소록》을, 감리교인 수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통계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 연회별 지방회 순서는 《2007년도 교회주소록》의 순서를 따랐으며, 지도 배치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인구 : 10,181,166 | 교회 : 7,601 | 교인수 : 9,762,546 | 복음화 비율 : 22.8%

종로지방		감리교회: 18 교인 수: 10,278		중구용산지방		감리교회: 33 교인 수: 16,774		동대문지방		감리교회: 24 교인 수: 10,944		중랑지방		감리교회: 23 교인 수: 120,018		성동지방		감리교회: 33 교인 수: 12,652	
지역명	종로구	지역명	중구	용산구	지역명	동대문구	지역명	중랑구	지역명	성동구	광진구								
전체교회	138	전체교회	102	152	전체교회	260	전체교회	333	전체교회	192	272								
인구	166,793	인구	130,649	232,035	인구	378,860	인구	426,078	인구	334,437	374,442								
교인수	33,797	교인수	24,639	50,626	교인수	69,654	교인수	83,905	교인수	64,178	73,450								
복음화비율	22%	복음화비율	19.5%	24%	복음화비율	18.8%	복음화비율	20.4%	복음화비율	19.8%	20.2%								
		감리교회	16	17					감리교회	13	20								

성북지방		도봉지방		강북지방		노원지방		서대문지방	
감리교회: 33 교인 수: 16,140		감리교회: 25 교인 수: 6,084		감리교회: 24 교인 수: 6,354		감리교회: 31 교인 수: 10,677		감리교회: 33 교인 수: 15,538	
지역명	성북구	지역명	도봉구	지역명	강북구	지역명	노원구	지역명	서대문구
전체교회	355	전체교회	297	전체교회	310	전체교회	310	전체교회	196
인구	472,843	인구	377,534	인구	348,990	인구	618,093	인구	349,020
교인수	90,219	교인수	78,676	교인수	73,227	교인수	139,379	교인수	92,458
복음화비율	20.5%	복음화비율	21.4%	복음화비율	21.7%	복음화비율	23%	복음화비율	25%

은평지방		은평동지방		마포지방	
감리교회: 21 교인수: 10,925		감리교회: 25 교인수: 5,049		감리교회: 31 교인수: 10,946	
지 역 명	은평구	지 역 명	마포구	※ 마포지방 1 교회는 말레이시아에 속 함	
전체교회	353	전체교회	276		
인 구	473,456	인 구	390,583		
교 인 수	110,679	교 인 수	84,409		
복음화비율	24.8%	복음화비율	22.8%		
감리교회	46	감리교회	30		
감리교인수	15,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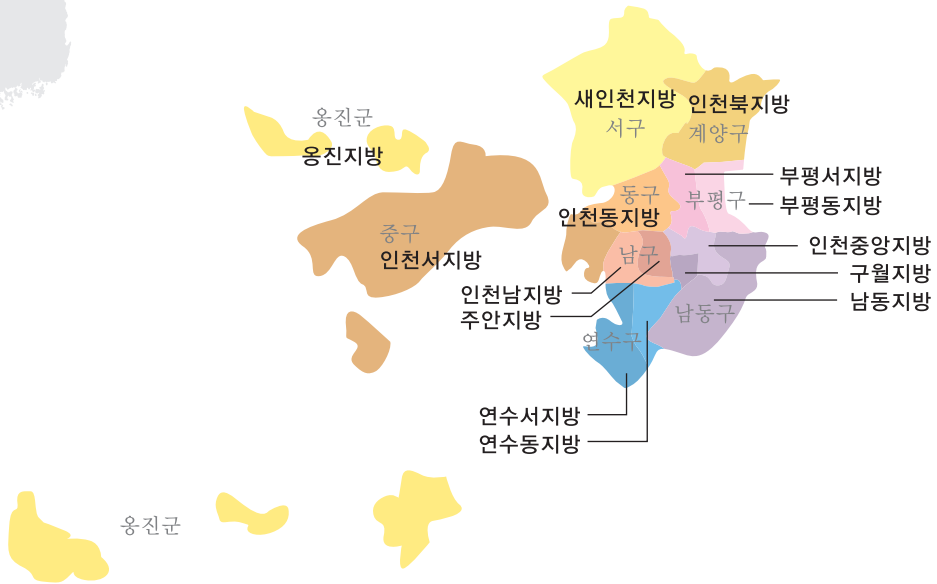


영등포지방	영등포구	동작지방	동작구	구로지방	구로구	금천지방	금천구	강서지방	강서구
감리교회: 26 교인수: 9,836		감리교회: 31 교인수: 7,264		감리교회: 31 교인수: 17,792		감리교회: 21 교인수: 4,228		감리교회: 43 교인수: 18,171	
지역명	영등포구	지역명	동작구	지역명	구로구	지역명	금천구	지역명	강서구
전체교회	252	전체교회	304	전체교회	329	전체교회	247	전체교회	480
인구	408,698	인구	408,582	인구	419,832	인구	253,243	인구	554,945
교인수	85,252	교인수	99,374	교인수	85,127	교인수	51,762	교인수	136,544
복음화비율	21.8%	복음화비율	24.4%	복음화비율	21.2%	복음화비율	20.8%	복음화비율	25.4%

양천지방	양천구	강동지방	강동구	강남지방	강남구	강남동지방	강남구	서초지방	서초구	※ 서초지방 1교회는 필리핀에 속함
감리교회: 39 교인수: 18,120		감리교회: 28 교인수: 3,711		감리교회: 13 교인수: 85,016		감리교회: 20 교인수: 7,018		감리교회: 25 교인수: 18,136		
지역명	양천구	지역명	강동구	지역명	강남구	지역명	강남구	지역명	서초구	
전체교회	397	전체교회	426	전체교회	335	전체교회	556,964	전체교회	196	
인구	501,717	인구	461,760	인구	119,272	인구	23.5%	인구	408,266	
교인수	118,358	교인수	112,828	교인수	33	교인수	92,458	교인수	25%	※ 서초지방 1교회는 필리핀에 속함
복음화비율	25.1%	복음화비율	25.4%	복음화비율	92,034	복음화비율	24	복음화비율	24	
감리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		

관악지방	관악구	관악서지방	관악구	송파지방	송파구	잠실지방	잠실구
감리교회: 22 교인수: 5,285		감리교회: 25 교인수: 8,645		감리교회: 16 교인수: 9,191		감리교회: 25 교인수: 3,504	
지역명	관악구	지역명	관악구	지역명	송파구	지역명	송파구
전체교회	433	전체교회	433	전체교회	580	전체교회	580
인구	535,217	인구	535,217	인구	607,005	인구	607,005
교인수	121,672	교인수	121,672	교인수	137,627	교인수	137,627
복음화비율	23.1%	복음화비율	23.1%	복음화비율	23.9%	복음화비율	23.9%
감리교회	47	감리교회	47	감리교회	41	감리교회	41
감리교인수	13,930	감리교인수	13,930	감리교인수	12,695	감리교인수	12,695

※ 남태평양지방 22개
※ 중국선교지방



※인천광역시 인구 : 2,624,351 | 교회 : 2,821 | 교인수 : 563,433 | 복음화 비율 : 22.4%

인천동지방			감리교회 : 30 교인수 : 15,780	인천서지방			감리교회 : 35 교인수 : 17,491	인천남지방			감리교회 : 42 교인수 : 85,354	주안지방			감리교회 : 38 교인수 : 22,352	인천북지방			감리교회 : 42 교인수 : 18,468
지역명	동구	※ 인천동지방 17교회는 서 구에 속함		지역명	중구		지역명	남구		지역명	계양구		지역명	계양구		지역명	계양구		
전체교회	71			전체교회	94		전체교회	392		전체교회	358		전체교회	358		전체교회	358		
인구	75,699			인구	91,916		인구	416,672		인구	342,335		인구	342,335		인구	342,335		
교인수	10,861			교인수	18,325		교인수	88,339		교인수	73,332		교인수	73,332		교인수	73,332		
복음화비율	14.7%			복음화비율	21.5%		복음화비율	21.4%		복음화비율	22.6%		복음화비율	22.6%		복음화비율	22.6%		
감리교회	13		감리교회	21.5%		감리교회인수	107,706		감리교회	22.6%		감리교회	22.6%		감리교회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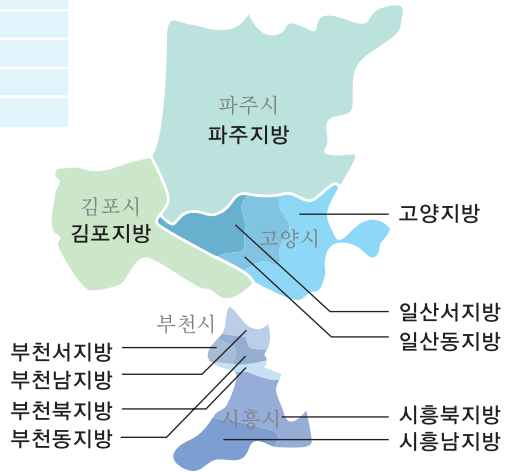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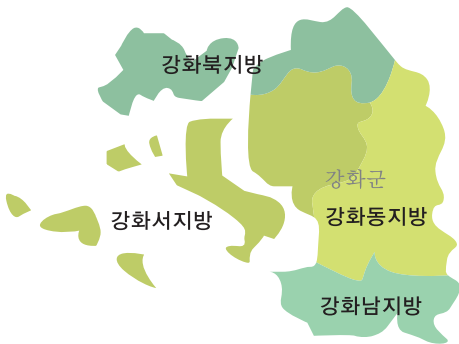
인천중앙지방			감리교회 : 27 교인수 : 7,779	남동지방			감리교회 : 41 교인수 : 14,057	구월지방			감리교회 : 24 교인수 : 5,093	연수동지방			감리교회 : 25 교인수 : 8,085	연수서지방			감리교회 : 27 교인수 : 6,029
지역명	남동구		지역명	구월구		지역명	연수구		지역명	연수구		지역명	연수구		지역명	연수구		지역명	연수구
전체교회	501		전체교회	501		전체교회	246		전체교회	246		전체교회	246		전체교회	246		전체교회	246
인구	390,044		인구	390,044		인구	271,010		인구	271,010		인구	271,010		인구	271,010		인구	271,010
교인수	87,811		교인수	87,811		교인수	60,436		교인수	60,436		교인수	60,436		교인수	60,436		교인수	60,436
복음화비율	23.8%		복음화비율	23.8%		복음화비율	23%		복음화비율	23%		복음화비율	23%		복음화비율	23%		복음화비율	23%
감리교회	92		감리교회	92		감리교회	52		감리교회	52		감리교회	52		감리교회	52		감리교회	52
감리교회인수	26,929		감리교회인수	26,929		감리교회인수	14,114		감리교회인수	14,114		감리교회인수	14,114		감리교회인수	14,114		감리교회인수	14,114

부평동지방			감리교회 : 34 교인수 : 16,905	부평서지방			감리교회 : 29 교인수 : 6,491	새인천지방			감리교회 : 48 교인수 : 12,420	웅진지방			감리교회 : 24 교인수 : 1,564
지역명	부평구		지역명	서구		지역명	웅진군		지역명	서구	※ 서구 17교회는 인천동지 방에 속함	지역명	웅진군		
전체교회	477		전체교회	444		전체교회	53		전체교회	444		전체교회	53		
인구	570,283		인구	384,431		인구	16,491		인구	384,431		인구	16,491		
교인수	120,859		교인수	82,616		교인수	3,569		교인수	82,616		교인수	3,569		
복음화비율	22.2%		복음화비율	22.3%		복음화비율	29.2%		복음화비율	22.3%		복음화비율	29.2%		
감리교회	63		감리교회	65		감리교회	29.2%		감리교회	65		감리교회	29.2%		
감리교회인수	23,396		감리교회인수	65		감리교회인수	29.2%		감리교회인수	65		감리교회인수	29.2%		

부천동지방	감리교회: 19 교인수: 5,201	부천서지방	감리교회: 24 교인수: 15,348	부천남지방	감리교회: 28 교인수: 13,528	부천북지방	감리교회: 30 교인수: 9,448
지역명				부천시			
전체교회				954			
인구				860,020			
교인수				188,616			
복음화비율				22.7%			
감리교회				101			
감리교인수				43,525			

시흥남지방	감리교회: 37 교인수: 11,172	시흥북지방	감리교회: 26 교인수: 8,715	파주지방	감리교회: 35 교인수: 5,874
지역명	시흥시			파주시	
전체교회	527			341	
인구	390,477			292,752	
교인수	85,305			46,625	
복음화비율	22.2%			19.5%	
감리교회	63				
감리교인수	19,887				

고양지방	감리교회: 38 교인수: 6,100	일산동지방	감리교회: 21 교인수: 5,817	일산서지방	감리교회: 29 교인수: 2,885
지역명	고양시				
전체교회	914				
인구	910,206				
교인수	213,132				
복음화비율	24.7%				
감리교회	88				
감리교인수	14,802				



강화동지방	감리교회: 33 교인수: 6,458	강화서지방	감리교회: 32 교인수: 3,676	강화남지방	감리교회: 28 교인수: 3,459	강화북지방	감리교회: 29 교인수: 4,122	김포지방	감리교회: 42 교인수: 5,344
지역명				강화군				김포시	
전체교회				185				283	
인구				65,510				207,824	
교인수				19,653				42,393	
복음화비율				30%				22%	
감리교회				122					
감리교인수				17,715					



수원권선동지방		수원권선서지방		수원영통지방		수원장안지방		수원팔달지방	
감리교회 : 19		감리교회 : 25		감리교회 : 18		감리교회 : 29		감리교회 : 20	
지 역 명	수원시								※ 수원시 1교회는 오산지방에 속함 ※ 수원시 감리교회 는 2007년 연회 에서 3지방이 5지 방으로 확대, 개편 됨
전 체 교 회	968								
인 구	1,068,906								
교 인 수	207,175								
복음화비율	20%								
감 리 교 회	112								
감리교인수	25,284								

안양지방		안양동지방		군포지방			광명지방		새광명지방		
감리교회 : 23 교 인 수 : 8,971		감리교회 : 20 교 인 수 : 3,403		감리교회 : 29 교 인 수 : 7,431			감리교회 : 14 교 인 수 : 5,164		감리교회 : 14 교 인 수 : 1,661		
지 역 명	안양시			지 역 명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지 역 명	광명시		
전체교회	534			전체교회	37	221	122	전체교회	298		
인 구	624,280			인 구	60,482	274,569	138,253	인 구	313,372		
교 인 수	145,599			교 인 수	16,934	65,781	38,289	교 인 수	78,361		
복음화비율	23.9%			복음화비율	30%	24.5%	26.7%	복음화비율	24.6%		
감리교회	43			감리교회	1	14	14	감리교회	28		
감리교인수	12,374			감리교회	1	14	14	감리교인수	6,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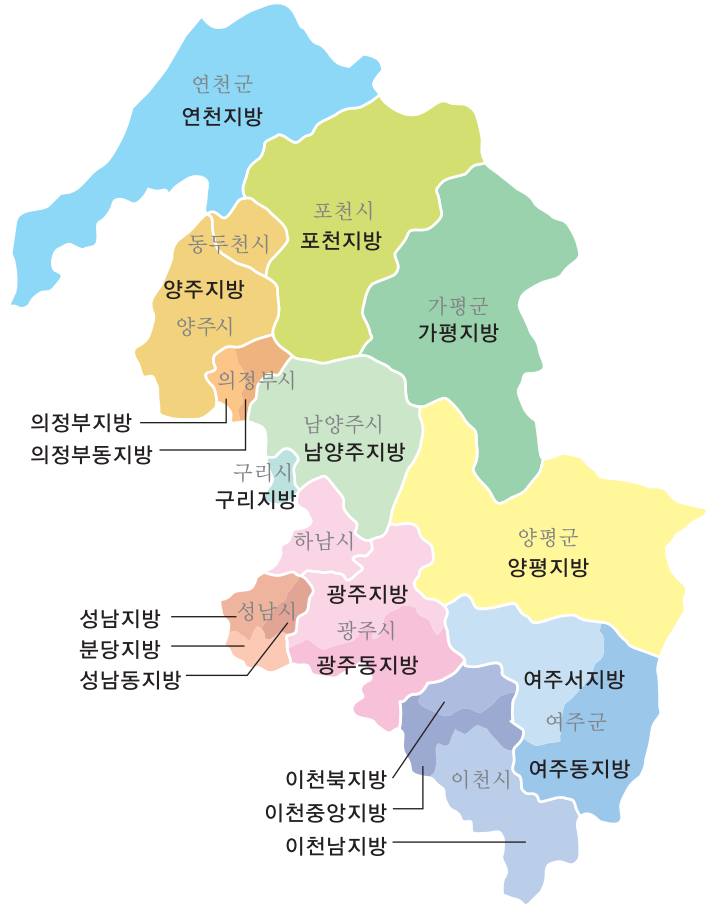
안산지방	감리교회 : 34 교 인 수 : 5,041	안산동지방	감리교회 : 38 교 인 수 : 6,957	안산남지방	감리교회 : 39 교 인 수 : 11,459	안산대부지방	감리교회 : 12 교 인 수 : 1,160
지 역 명	안산시						
전체교회	774						
인 구	698,819						
교 인 수	151,748						
복음화비율	22.7%						
감리교회	123						
감리교인수	24,617						



용인동지방	감리교회: 23 교인수: 2,769	용인서지방	감리교회: 36 교인수: 6,302	사강지방	감리교회: 23 교인수: 3,658	남양지방	감리교회: 31 교인수: 4,150	화성지방	감리교회: 48 교인수: 5,980
지역명	용인시	지역명	화성시	지역명	화성시	※ 화성시 17교회는 오산지방, 17교회는 오산서지방에 속함			
전체교회	508	전체교회	395	전체교회	395				
인구	766,569	인구	310,171	인구	310,171				
교인수	165,528	교인수	58,772	교인수	58,772				
복음화비율	24.1%	복음화비율	20.9%	복음화비율	20.9%				
감리교회	59	감리교회	136	감리교회	136				
감리교인수	9,071								

오산지방	감리교회: 31 교인수: 4,786	오산서지방	감리교회: 27 교인수: 4,002	평택지방	감리교회: 36 교인수: 8,499	평택서지방	감리교회: 31 교인수: 3,469
지역명	오산시	※ 오산지방 1교회는 수원시, 17교회는 화성시에 속함	지역명	평택시	※ 평택시 1교회는 오산서지방, 13교회는 평안지방, 10교회는 경기남지방에 속함		
전체교회	141	※ 오산서지방 1교회는 평택시, 17교회는 화성시에 속함	전체교회	519	전체교회		
인구	136,311		인구	396,765	인구		
교인수	23,826		교인수	74,396	교인수		
복음화비율	18.1%		복음화비율	19.9%	복음화비율		
감리교회	22(13/9)		감리교회	91	감리교회		

평안지방		경기남지방	
감리교회: 37 교인 수: 5,956		감리교회: 19 교인 수: 3,418	
지 역 명	안성시		
전체교회	210	※ 평안지방 13 교회는 평택 시에 속함	
인 구	159,655	※ 경기남지방 10교회는 평 택시에 속함	
교 인 수	22,912		
복음화비율	14.6%		
감리교회	33(24/9)		



가평지방		감리교회: 17 교인수: 1,961
지역명	가평군	
전체교회	75	
인구	54,855	
교인수	8,096	
복음화비율	16.6%	

광주지방		감리교회: 32 교인수: 3,801
지역명	광주시	
전체교회	147	
인구	222,048	
교인수	28,170	
복음화비율	23.2%	
감리교회	47(18/29)	

광주동지방		감리교회: 29 교인수: 3,030
지역명	하남시	
전체교회	305	
인구	134,824	
교인수	43,950	
복음화비율	21.6%	
감리교회	14(14/0)	

구리지방		감리교회: 19 교인수: 4,609
지역명	구리시	
전체교회	37	
인구	193,847	
교인수	16,934	
복음화비율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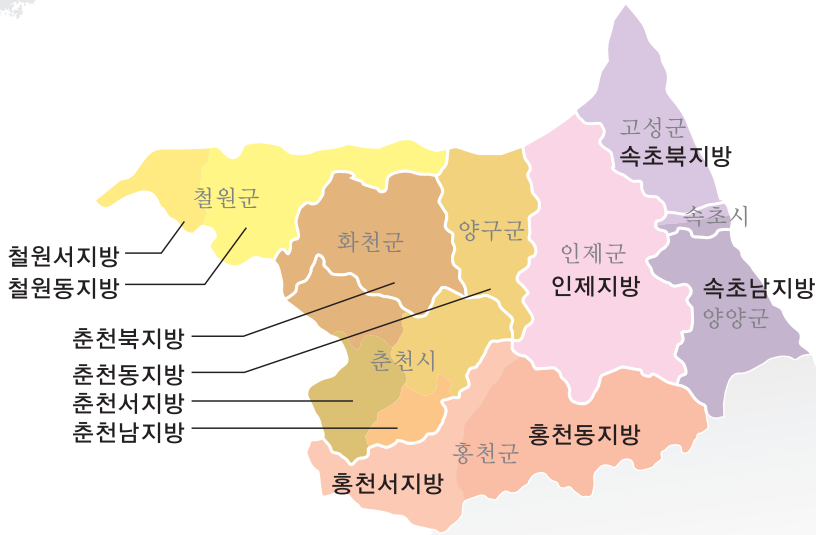
남양주지방		감리교회: 32 교인수: 3,286
지역명	남양주시	
전체교회	445	
인구	470,617	
교인수	99,881	
복음화비율	23.6%	

분당지방		감리교회: 23 교인수: 17,040
지역명	성남시	
전체교회	778	
인구	964,831	
교인수	201,126	
복음화비율	21.7%	
감리교회	67	
감리교인수	31,001	

성남지방		감리교회: 21 교인수: 6,320
------	--	------------------------

성남동지방		감리교회: 23 교인수: 8,641
-------	--	------------------------

양주시방			양평지방			여주동지방			여주서지방			연천지방		
감리교회 : 43 교인수 : 4,573			감리교회 : 17 교인수 : 823			감리교회 : 31 교인수 : 3,691			감리교회 : 29 교인수 : 5,661			감리교회 : 16 교인수 : 2,249		
지역명	양주시	동두천시	지역명	양평군		지역명			여주군		지역명	연천군		
전체교회	197	87	전체교회	156		전체교회			190		전체교회	86		
인구	169,806	85,803	인구	86,298		인구			105,022		인구	46,075		
교인수	28,395	15,510	교인수	14,854		교인수			16,719		교인수	6,960		
복음화비율	19%	19.7%	복음화비율	19.8%		복음화비율			17%		복음화비율	16.9%		
감리교회	31	12	감리교회			감리교회			60		감리교회			
감리교인수			감리교인수			감리교인수			9,352		감리교인수			
의정부지방			의정부동지방			이천남지방			이천북지방			이천중앙지방		
감리교회 : 23 교인수 : 4,178			감리교회 : 23 교인수 : 5,866			감리교회 : 38 교인수 : 5,460			감리교회 : 26 교인수 : 7,839			감리교회 : 27 교인수 : 4,206		
지역명	의정부시		지역명	이천시		지역명	이천시		이천시		지역명	이천시		
전체교회	402		전체교회	289		전체교회	289		289		전체교회	289		
인구	410,938		인구	194,369		인구	194,369		194,369		인구	194,369		
교인수	78,046		교인수	36,005		교인수	36,005		36,005		교인수	36,005		
복음화비율	19.7%		복음화비율	19.3%		복음화비율	19.3%		19.3%		복음화비율	19.3%		
감리교회	46		감리교회	91		감리교회	91		91		감리교회	91		
감리교인수	10,044		감리교인수	17,505		감리교인수	17,505		17,505		감리교인수	17,505		
포천지방														
감리교회 : 38 교인수 : 7,150														
지역명	포천시													
전체교회	206													
인구	157,269													
교인수	19,004													
복음화비율	13.7%													
※유림지방			감리교회 : 42 교인수 : 1,011											



속초남지방		속초북지방		인제지방		철원동지방		철원서지방	
감리교회: 23 교인수: 5,039		감리교회: 30 교인수: 3,968		감리교회: 17 교인수: 1,895		감리교회: 24 교인수: 2,573		감리교회: 17 교인수: 3,663	
지역명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지역명	인제군	지역명		철원군	
전체교회	45	69	58	전체교회	51	전체교회		106	
인구	28,661	86,073	31,285	인구	32,493	인구		48,024	
교인수	3,055	12,135	3,968	교인수	4,516	교인수		8,561	
복음화비율	10.4%	14.4%	13.7%	복음화비율	14.9%	복음화비율		19.7%	
감리교회	14(14/0)	14(9/5)	25(0/25)	감리교회		감리교회		41	
						감리교인수		6,236	

춘천동지방			춘천서지방			춘천남지방		춘천북지방	
감리교회: 27 교인수: 8,438			감리교회: 28 교인수: 8,795			감리교회: 30 교인수: 11,682		감리교회: 28 교인수: 6,446	
지역명	화천군		춘천시	양구군		지역명	인제군	지역명	철원군
전체교회	52		350	31		전체교회	51	전체교회	106
인구	23,317		256,239	21,269		인구	32,493	인구	48,024
교인수	4,554		50,604	4,062		교인수	4,516	교인수	8,561
복음화비율	21%		19.5%	21%		복음화비율	14.9%	복음화비율	19.7%
감리교회	12(1/0/0/11)		93(18/28/30/17)	8(8/0/0/0)		감리교회		감리교회	41
						복음화비율		감리교인수	6,236

홍천동지방		홍천서지방	
감리교회: 25 교인수: 2,067		감리교회: 23 교인수: 2,593	
지역명	홍천군	지역명	홍천군
전체교회	137	전체교회	137
인구	70,037	인구	70,037
교인수	10,425	교인수	10,425
복음화비율	15.7%	복음화비율	15.7%
감리교회	48	감리교회	48
감리교인수	4,660	감리교인수	4,660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동해삼척지방		
감리교회: 20 교인 수: 6,868		감리교회: 18 교인 수: 3,470	감리교회: 35 교인 수: 4,080		
지 역 명	강릉시	지 역 명	동해시	삼척시	※ 삼척시 8교회는 태백지방에 속함
전체교회	201	전체교회	90	90	
인 구	222,016	인 구	97,497	71,750	
교인 수	26,791	교인 수	11,074	5,981	
복음화비율	12.2%	복음화비율	12%	8.9%	
감리교회	38	감리교회	20	23	
감리교인수	10,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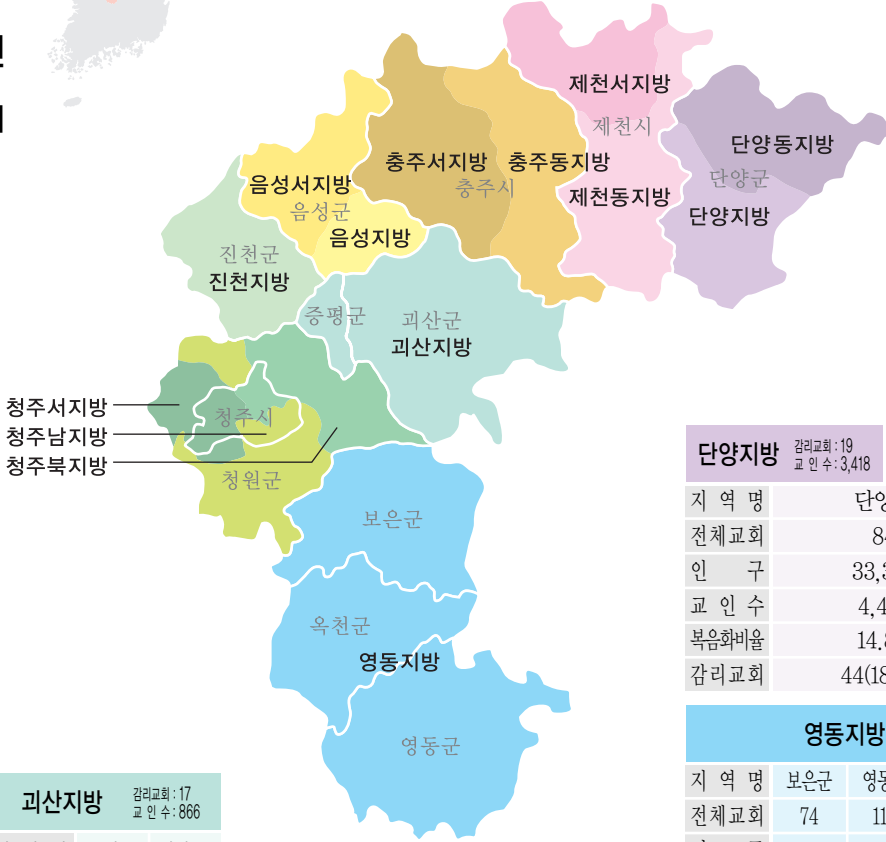
※남미선교지방 10개

영월지방		영월서지방	원주동지방	원주서지방	원주남지방
감리교회: 24 교인 수: 1,535		감리교회: 20 교인 수: 2,342	감리교회: 26 교인 수: 8,514	감리교회: 36 교인 수: 10,002	감리교회: 26 교인 수: 3,533
지 역 명	영월군	※ 영월군 3교회는 평창지방, 2교회는 제천시지방에 속함	지 역 명	원주시	
전체교회	111		전체교회	375	
인 구	40,511		인 구	294,155	
교인 수	5,627		교인 수	52,728	
복음화비율	15.3%		복음화비율	18.6%	
감리교회	49		감리교회	88	
감리교인수	3,877		감리교인수	22,049	

정선지방		태백지방		평창지방		횡성지방	
감리교회: 36 교인 수: 2,761		감리교회: 29 교인 수: 2,454		감리교회: 38 교인 수: 4,038		감리교회: 30 교인 수: 4,657	
지 역 명	정선군	지 역 명	태백시	지 역 명	평창군	지 역 명	횡성군
전체교회	93	전체교회	63	전체교회	81	전체교회	82
인 구	43,186	인 구	51,593	인 구	44,332	인 구	42,982
교인 수	5,265	교인 수	6,106	교인 수	5,362	교인 수	6,624
복음화비율	12.9%	복음화비율	11.1%	복음화비율	14%	복음화비율	17.2%
		감리교회	18	감리교회	35		

※ 태백지방 8교회는 삼척시, 3교회는 경북봉화군에 속함

※ 평창지방 3교회는 영월군에 속함



청주서지방
청주남지방
청주북지방

괴산지방		
감리교회: 17 교인수: 866		
지역명	증평군	괴산군
전체교회	35	96
인구	30,483	37,570
교인수	3,830	3,991
복음화비율	13.4%	12.4%
감리교회	5	12

단양지방		단양동지방	
감리교회: 19 교인수: 3,418		감리교회: 27 교인수: 3,418	
지역명	단양군	※ 단양지방 1교회는 제천시에 속함 ※ 단양동지방 1교회는 경북영주군에 속함	
전체교회	84		
인구	33,346		
교인수	4,479		
복음화비율	14.8%		
감리교회	44(18/26)		

영동지방			
감리교회: 24 교인수: 1,221			
지역명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전체교회	74	110	85
인구	36,293	50,819	54,923
교인수	3,148	6,300	6,135
복음화비율	9.8%	12.8%	11.9%
감리교회	5	13	8(6)

음성지방	
감리교회: 18 교인수: 2,042	
지역명	음성군
전체교회	135
인구	86,789
교인수	10,335
복음화비율	12.7%
감리교회	37
감리교인수	3,912

음성서지방	
감리교회: 19 교인수: 1,870	
지역명	음성군
전체교회	135
인구	86,789
교인수	10,335
복음화비율	12.7%
감리교회	37
감리교인수	3,912

제천동지방	
감리교회: 30 교인수: 6,623	
지역명	제천시
전체교회	163
인구	136,398
교인수	20,400
복음화비율	15.4%
감리교회	56(30/25)

제천서지방	
감리교회: 27 교인수: 3,763	
지역명	제천시
전체교회	163
인구	136,398
교인수	20,400
복음화비율	15.4%
감리교회	56(30/25)

진천지방	
감리교회: 22 교인수: 2,761	
지역명	진천군
전체교회	81
인구	60,111
교인수	7,287
복음화비율	12.7%

청주남지방	
감리교회: 41 교인수: 6,452	
지역명	청주시
전체교회	516
인구	626,679
교인수	104,434
복음화비율	16.6%
감리교회	70(33/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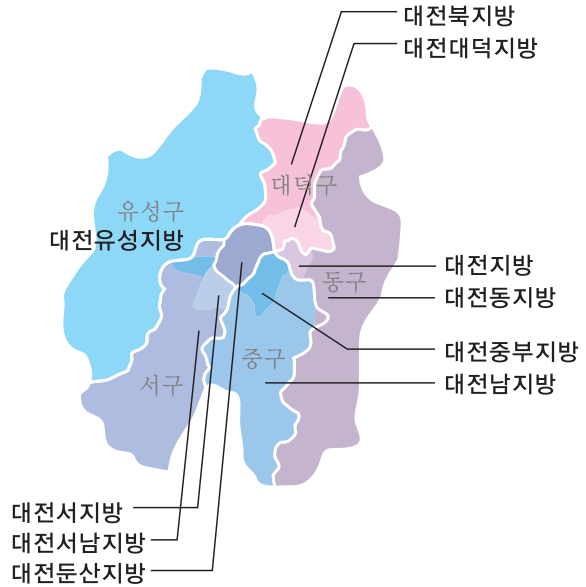
청주북지방	
감리교회: 27 교인수: 3,607	
지역명	청주시
전체교회	516
인구	626,679
교인수	104,434
복음화비율	16.6%
감리교회	70(33/18/19)

청주서지방	
감리교회: 22 교인수: 6,295	
지역명	청주시
전체교회	516
인구	626,679
교인수	104,434
복음화비율	16.6%
감리교회	70(33/18/19)

충주동지방	
감리교회: 34 교인수: 5,910	
지역명	충주시
전체교회	288
인구	204,610
교인수	30,801
복음화비율	15.1%
감리교회	73
감리교인수	14,616

충주서지방	
감리교회: 39 교인수: 8,706	
지역명	충주시
전체교회	288
인구	204,610
교인수	30,801
복음화비율	15.1%
감리교회	73
감리교인수	14,616

※ 청원군 1교회는 연기지방에 속함



※대전광역시(2005년) 인구 : 2,624,391 | 교회 : 1,598 | 교인수 : 295,330 | 복음화 비율 : 20.6%

대전중부지방		대전남지방		대전지방		대전동지방	
감리교회: 24 교인 수: 6,225		감리교회: 32 교인 수: 4,491		감리교회: 20 교인 수: 2,054		감리교회: 16 교인 수: 6,203	
지 역 명	중구	※ 대전중부지방 1교회는 탄자니아, 3교회는 서구에 속함 ※ 중구 1교회는 대전지방에 속함	지 역 명	동구	※ 대전지방 1교회는 중구, 1교회는 유성구, 2교회는 충북옥천군에 속함 ※ 동구 2교회는 대전대덕지방에 속함		
전체교회	270		전체교회	280			
인 구	263,592		인 구	236,504			
교 인 수	50,317		교 인 수	39,889			
복음화비율	19.7%		복음화비율	17.2%			
감리교회	53(20/32)		감리교회	34(16/16)			

대전서지방	감리교회: 21 교인 수: 11,776	대전서남지방	감리교회: 26 교인 수: 8,695	대전둔산지방	감리교회: 33 교인 수: 22,146	대전대덕지방	감리교회: 24 교인 수: 5,347	대전북지방	감리교회: 18 교인 수: 5,637
지 역 명	서구	※ 대전서남지 방 1교회는 유성구에 속 함	지 역 명	대덕구	※ 대전대덕지 방 1교회는 서구, 2교회 는 동 구에 속함				
전 체 교 회	557		전 체 교 회	257					
인 구	505,600		인 구	217,332					
교 인 수	111,717		교 인 수	42,609					
복음화비율	22%		복음화비율	19.3%					
감리교회	83(21/25/33)		감 리 교 회	40(21/18)					

대전유성지방		감리교회: 43 교인수: 5,285
지역명	유성구	※ 대전유성지방 1교회는 대덕구에 속함
전체교회	234	※ 유성구 1교회는 대전지방, 1교회는 대전서남지방에 속함
인구	243,130	
교인수	50,798	
복음화비율	23%	
감리교회	44(42)	



금산지방		연기지방		공주지방		공주서지방	
감리교회: 21 교인 수: 1,168		감리교회: 20 교인 수: 2,300		감리교회: 33 교인 수: 5,432		감리교회: 24 교인 수: 3,056	
지 역 명	금산군	지 역 명	연기군	지 역 명	공주시	지 역 명	공주시
전체교회	130	전체교회	123	전체교회	200	전체교회	200
인 구	57,552	인 구	82,747	인 구	128,330	인 구	128,330
교 인 수	8,404	교 인 수	12,201	교 인 수	21,670	교 인 수	21,670
복음화비율	15.8%	복음화비율	15.2%	복음화비율	17.2%	복음화비율	17.2%
		감리교회	19	감리교회	57	감리교회	57
				감리교인수	8,488	감리교인수	8,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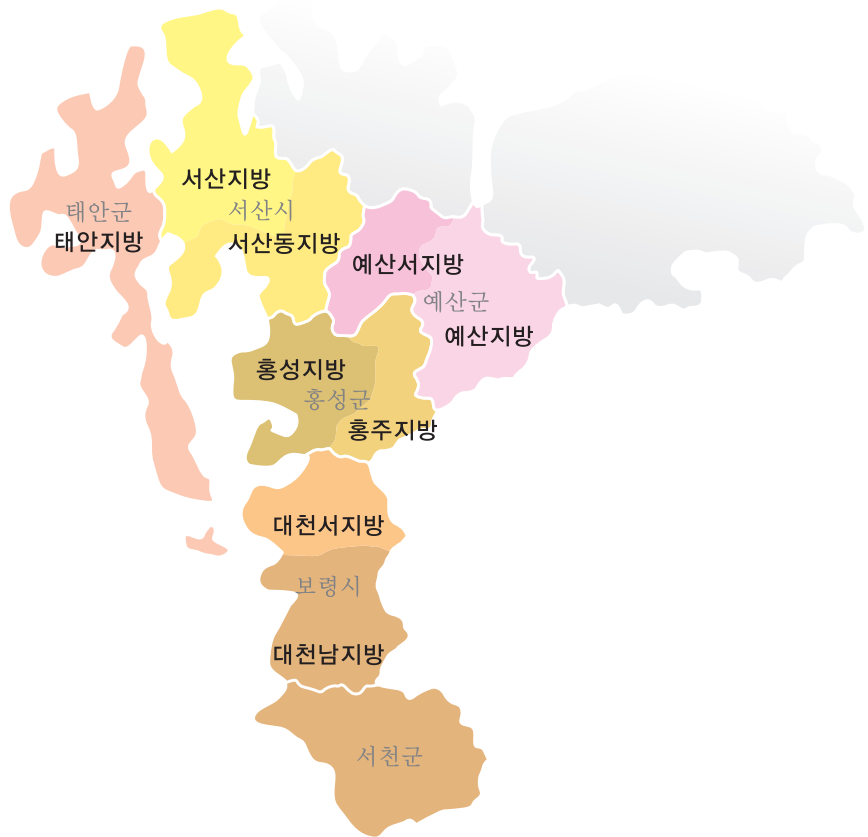
부여지방		논산지방		연무지방		강경지방		청양지방	
감리교회: 20 교인 수: 2,185		감리교회: 50 교인 수: 6,596		감리교회: 33 교인 수: 3,654		감리교회: 20 교인 수: 3,129		감리교회: 31 교인 수: 2,921	
지 역 명	부여군	지 역 명	논산시	지 역 명	계룡시	지 역 명	청양군	지 역 명	청양군
전체교회	245	전체교회	186	전체교회	186	전체교회	83	전체교회	83
인 구	79,595	인 구	131,466	인 구	36,846	인 구	34,086	인 구	34,086
교 인 수	16,463	교 인 수	27,168	교 인 수	27,168	교 인 수	3,571	교 인 수	3,571
복음화비율	22.5%	복음화비율	21.8%	복음화비율	21.8%	복음화비율	11.5%	복음화비율	11.5%
		감리교회	95(44/31/20)	감리교회	8(6/2/0)	감리교회		감리교회	

※일본지방 감리교회: 18
교인수: 1,199

※충청남도인구(2006. 12. 31)



천안지방 감리교회 : 26 교 인 수 : 5,512		천안동지방 감리교회 : 26 교 인 수 : 2,650		천안서지방 감리교회 : 27 교 인 수 : 9,834		천안남지방 감리교회 : 38 교 인 수 : 7,859		천안북지방 감리교회 : 22 교 인 수 : 4,138	
지 역 명				천안시					
전 체 교 회				625					
인 구				523,323					
교 인 수				97,474					
복음화비율				18.9%					
감리교회				139					
감리교인수				29,993					
아산지방 감리교회 : 27 교 인 수 : 4,001		온양동지방 감리교회 : 39 교 인 수 : 7,577		온양서지방 감리교회 : 27 교 인 수 : 2,881					
지 역 명		아산시							
전 체 교 회		279							
인 구		211,560							
교 인 수		38,385							
복음화비율		18.6%							
감리교회		93							
감리교인수		14,459							
당진지방 감리교회 : 31 교 인 수 : 9,993		당진동지방 감리교회 : 23 교 인 수 : 4,042		당진서지방 감리교회 : 26 교 인 수 : 4,141		합덕지방 감리교회 : 24 교 인 수 : 3,072			
지 역 명		당진군						※ 합덕지방 1 교회는 예산 군에 속함	
전 체 교 회		193							
인 구		124,925							
교 인 수		27,251							
복음화비율		24.3%							
감리교회		103(31/23/2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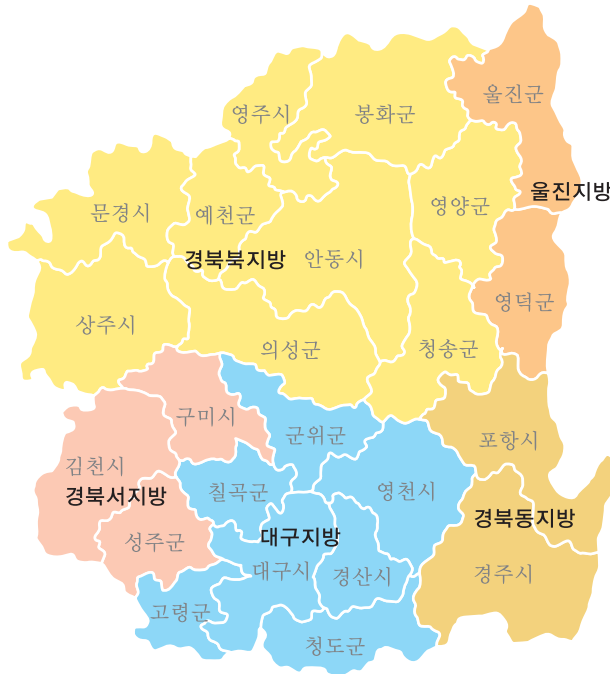


서산지방		감리교회: 38 교인수: 6,097	서산동지방		감리교회: 31 교인수: 3,522	태안지방		감리교회: 22 교인수: 2,586	예산지방		감리교회: 39 교인수: 6,702	예산서지방		감리교회: 27 교인수: 3,359
지역명	서산시		지역명	태안군		지역명	예산군		※ 예산군 1교회는 합덕지방에 속함					
전체교회	227		전체교회	134		전체교회	146							
인구	150,889		인구	63,754		인구	89,585							
교인수	27,202		교인수	9,332		교인수	13,796							
복음화비율	19%		복음화비율	16%		복음화비율	16.8%							
감리교회	69		감리교회			감리교회	67							
감리교인수	9,619		감리교인수			감리교인수								
홍주지방		감리교회: 24 교인수: 3,552	홍성지방		감리교회: 19 교인수: 2,655	대천서지방		감리교회: 21 교인수: 1,922	대천남지방		감리교회: 26 교인수: 5,187			
지역명	홍성군		지역명	보령시		지역명	서천군							
전체교회	146		전체교회	210		전체교회	165							
인구	89,555		인구	107,591		인구	62,629							
교인수	13,796		교인수	20,495		교인수	16,004							
복음화비율	16.8%		복음화비율	21.2%		복음화비율	27.8%							
감리교회	43		감리교회	33(21/12)		감리교회	14(0/14)							
감리교인수	6,207		감리교인수			감리교인수								



울릉도
독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구 : 2,496,115 | 교회수 : 913 | 교인수 : 255,593 | 복음화 비율 :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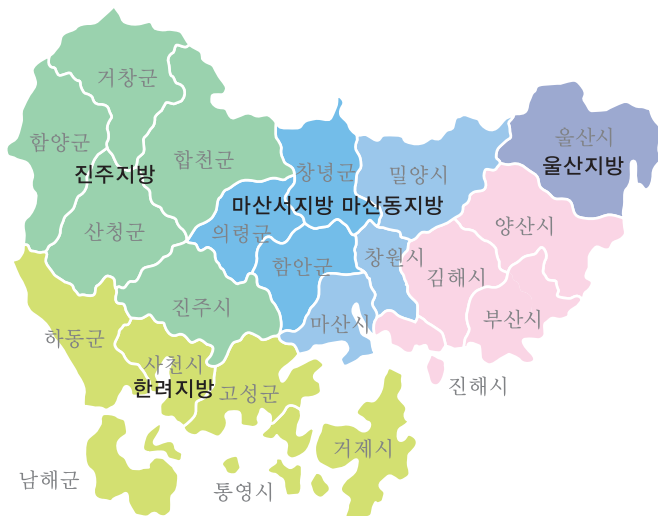
대구지방														감리교회: 28 교인수: 3,861
지역명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							
	달성군	달서구	북구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						
전체교회	38	78	65	103	159	73	102	229	174	64	60	77	208	173
인구	34,777	111,390	26,687	105,029	234,839	46,144	158,314	589,041	468,030	243,560	78,615	180,481	440,172	337,902
교인수	2,447	9,562	3,177	9,215	29,048	3,299	14,855	58,216	46,745	20,173	8,685	19,560	51,681	35,678
복음화비율	8%	8.9%	13.1%	9%	12.1%	8.4%	10%	9.9%	10.2%	8.3%	7.7%	10.9%	12.2%	10.7%
감리교회	1	1	0	1	3	1	1	4	5	3	1	1	2	4

경북북지방										감리교회: 25 교인수: 1,679
지역명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영주시	안동시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전체교회	170	97	98	164	117	194	77	40	72	※ 봉화군 3교회는 태백지방에 속함
인구	108,280	76,177	50,218	62,947	116,965	168,733	35,608	19,615	28,465	※ 영주시 1교회는 단양동지방에 속함
교인수	10,681	6,668	4,568	7,108	15,887	18,104	3,896	1,698	4,129	
복음화비율	10.2%	9.5%	10%	12.6%	14%	10.7%	12.1%	9.7%	15.6%	
감리교회	8	4	1	1	3(2)	6	3(0)	1	2	

경북동지방				감리교회: 17 교인수: 1,870
지역명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전체교회	348	190	37	
인구	505,008	273,419	10,235	
교인수	71,676	26,965	2,639	
복음화비율	14.7%	10.2%	31.7%	
감리교회	9	6	2	

울진지방			감리교회: 24 교인수: 2,305
지역명	울진군	영덕군	
전체교회	72	77	
인구	55,076	46,460	
교인수	6,248	4,463	
복음화비율	12.3%	11.1%	
감리교회	22	2	

경북서지방				감리교회: 18 교인수: 1,452
지역명	김천시	구미시	성주군	
전체교회	197	211	52	
인구	139,682	386,465	46,358	
교인수	19,874	35,402	2,882	
복음화비율	14.8%	9.3%	7.4%	
감리교회	10	7	1	



마산동지방					마산서지방		
지 역 명	진해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마산시	밀양시	창원시
전체교회	81	67	45	63	187	103	185
인 구	161,175	63,476	31,625	63,460	421,783	112,025	503,881
교 인 수	17,852	3,249	1,497	3,107	29,677	6,904	40,454
복음화비율	12%	5.7%	5.5%	5.8%	7%	6.6%	8.2%
감리교회	3(0/3)	5(4/1)	3(1/2)	7(6/1)	13(7/6)	5(4/1)	15(8/7)

※ 마산시/마산동지방

※ 마산동지방
1교회는 필
리핀에 있음

한려지방							진주지방					
지 역 명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지 역 명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함창군	진주시
전체교회	68	86	61	70	126	161	전체교회	58	68	55	67	180
인 구	52,898	112,300	50,792	55,309	133,127	201,412	인 구	41,162	63,917	35,704	55,104	333,554
교 인 수	3,165	9,387	4,129	3,564	11,402	25,282	교 인 수	3,081	5,614	2,231	2,430	25,263
복음화비율	7%	8.9%	8.9%	7.3%	9.5%	13.1%	복음화비율	8.3%	9.3%	6.9%	5.1%	7.6%
감리교회	3	12	6	2	6	2	감리교회	3	7	1	6	17

※ 울산광역시 인구 : 1,102,988 | 교회수 : 517 | 교인수 : 99,571 | 복음화 비율 : 9.6%

※ 제주시 인구 : 558,496 | 교회수 : 340 | 교인수 : 38,183 | 복음화 비율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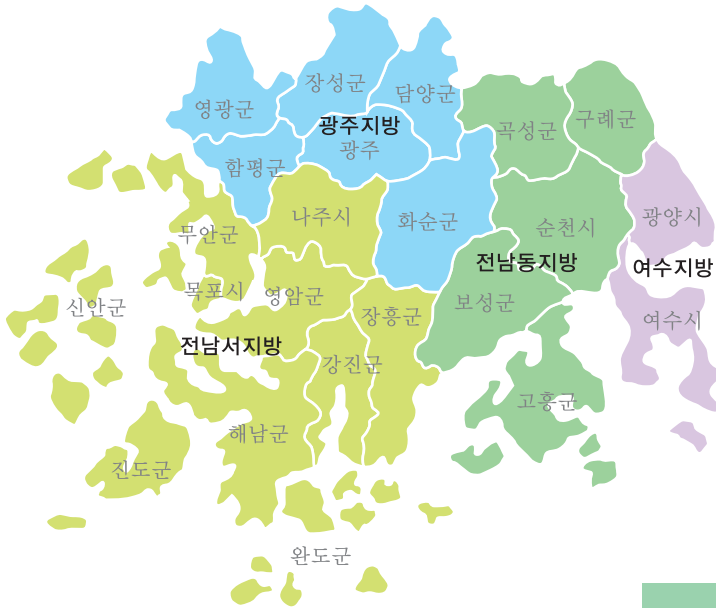
울산지방



제주지방

울산지방					
지 역 명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전체교회	107	158	97	70	85
인 구	177,103	345,769	234,896	148,772	185,954
교 인 수	14,689	31,076	19,283	13,739	20,784
복음화비율	9%	9.3%	8.6%	9.8%	11.8%
감리교회	3	10	1	3	8

제주지방		
지 역 명	제주시	서귀포
전체교회	229	111
인 구	403,601	154,895
교 인 수	28,540	9,643
복음화비율	7.1%	6.2%
감리교회	27	10



전남동지방						감리교회: 29	교인수: 2,433
지역명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전체교회	74	51	304	88	177		
인구	33,631	28,837	269,940	51,948	81,068		
교인수	5,007	3,575	63,440	8,639	13,557		
복음화비율	17%	14.5%	24.3%	18.7%	18.7%		
감리교회	6	1	10	4	8		

※전북 인구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남서지방											감리교회: 31	교인수: 1,999
지역명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	진도군	나주시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전체교회	190	139	293	112	139	105	143	80	75	128		
인구	46,714	61,766	241,679	35,953	96,417	61,546	84,338	41,938	44,451	57,464		
교인수	3,453	13,377	60,717	4,559	14,536	10,657	14,026	7,144	7,511	8,809		
복음화비율	35.1%	24.7%	24.9%	14.3%	16.8%	17.5%	19%	19.6%	18.8%	17.2%		
감리교회	1	3	5	1	5	4	8	1	1	2		

여수지방			감리교회: 22	교인수: 2,289
지역명	광양시	여수시		
전체교회	145	424		
인구	138,237	297,489		
교인수	30,383	72,531		
복음화비율	22.5%	26.2%		
감리교회	8	14		



광주지방

※광주광역시 인구 : 1,407,798 | 교회수 : 1,126 | 교인수 : 278,884 | 복음화 비율 : 19.8%

광주지방											감리교회: 24	교인수: 1,830
지역명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동구	담양군	화순군		
전체교회	93	95	79	254	256	379	161	76	62	75		
인구	60,045	38,647	47,870	311,621	309,362	460,985	211,744	114,086	50,332	72,615		
교인수	10,360	7,831	7,085	59,680	61,420	90,707	46,371	20,706	6,280	7,511		
복음화비율	17.2%	21.8%	17%	19.9%	19.6%	19.8%	21.7%	17.3%	14.5%	18.8%		
감리교회	2	3	1	2	3	4	2	3	1	3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 및 집행자 명단

■ 조직

- 위 원 장 : 권오서
- 부위원장 : 윤형노, 홍은파
- 서 기 : 유희용
- 정책분과장 : 조경열
- 제도개선분과장 : 박상철

■ 분과

분 과	연구과제	위 원
제1분과	·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장 : 김진두 • 서 기 : 전준구 • 위 원 : 엄마리 정용치 표석은 김영민 조은하
제2분과	·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교회 부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장 : 김종훈 • 서 기 : 최현영 • 위 원 : 최선길 이원재 방인순 최은영 김종복 문상욱 박정훈
제3분과	·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장 : 전용재 • 서 기 : 김학중 • 위 원 : 윤형노 정양희 강석봉 김두범
제4분과	· 효율적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장 : 박상철 • 서 기 : 차홍도 • 위 원 : 고신일 김홍규 유광조 홍은파 김영동 신동선 유희용 조명동
제5분과	· 미래형 감리교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장 : 황대성 • 서 기 : 조경열 • 위 원 : 유영완 강천희 김광덕 박영천 안현아 임영택 천무엽

■ 각 분과 대표 집필자

제1분과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는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제1부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	김진두 (장단기위원)
제2부 웨슬리 영성 실천을 위한 훈련체계	전준구, 조은하 (장단기위원)
제3부 웨슬리 영성을 기초로 한 감리교회 신앙교육의 과제 및 실천정책	김용택(본부)

제2분과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 교회 부흥정책

제1부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감리교선교학연구소
제2부 건강한 교회 모델 연구	건강한목회연구소
제3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목회연구소

제3분과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제1부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이용운 (본부)
----------------------	----------

제4분과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제1부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	차홍도 (장단기위원)
	박상철 (장단기위원)

제5분과 미래형 감리교회상

제1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	심광섭 (위촉필자)
제2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역사적 반성	박창현 (위촉필자)
제3부 섬김의 영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민경보 (위촉필자)
제4부 미래 교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	조경열 (장단기위원)
	황대성 (장단기위원)

〈설문조사〉 감리교회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이원규 (위촉필자)

■ 장단기발전위원회 경과보고

회의명	일시 / 장소	주요 결의사항
1차 위원회	2006. 4. 27(화) 본부 회의실	① 위원회 조직 ② 향후 계획 협의
1차 (확대) 임원회	2006. 5. 23(화) 감독회의실	① 위원회 목적, 역할, 운영방안 논의 ② 수련회(2차 위원회) 준비
2차 위원회 (수련회)	2006. 6. 15(목)~16(금) 속초	① 문제 발굴을 위한 특강 ② 우선집중과제와 장단기 특별과제 선정 ③ 연구 주제별 5개 분과 조직
2차 (확대) 임원회	2006. 8. 14(월) 감독회의실	① 희망프로젝트 논의 ② 연구 분과별 모임 및 재조정
3차 위원회	2006. 9. 7(목) 이천	① 감리교회 개혁방안 강의 및 토론 ② 희망프로젝트 보고 ③ 연구 분과별 모임
3차 (확대) 임원회	2006. 9. 25(월) 감독회의실	① 설문 조사를 위한 설명 및 토론 ② 희망프로젝트 확정 ③ “신실한 사람들” 확정 ④ 백서 작업을 위한 로드맵
임시 위원회	2006. 11. 23(목) 횡성	① 제27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재구성 논의
4차 (확대) 임원회	2006. 12. 21(목) 감독회의실	① 설문조사 진행사항 보고 ② 제2기 위원회 조직 논의 ③ 각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 보고
4차 위원회	2007. 1. 22(월) 본부 회의실	① 제2기 위원회 구성(연회 총무 3인, 평신도단체장 5인 추가참여) ② 각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보고 ③ 3월 말까지 1차 연구작업 완료
5차 위원회	2007. 3. 30(금) 본부 회의실	① 설문조사 중간결과 보고 ② 각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보고 ③ 장정개정 요구사항 정리하기로 함 ④ 포럼 개최는 TF에서 결정
5차 (확대) 임원회	2007. 5. 1(화) 감독회의실	① ‘감리교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완결 ② 각 분과별 연구결과보고 ③ 5분과가 CI작업 수행키로 함
6차 위원회	2007. 5. 31(목) 본부 회의실	① 각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보고 ② 로드맵 검토 및 확정 ③ 백서 발간 이후 위원회 운영방안
6차 (확대) 임원회	2007. 11. 14(수) 감독회의실	① 백서 최종검토 ② 장단기발전위원회결산 ③ 차기 위원회 구성 논의

T.F.		2007. 3. 2(금)	① 분과별 모임 진행과정 확인 ② 예산안 지출방안 협의
		2007. 3. 23(금)	① 5차 위원회 준비모임 ② 포럼 개최 방안 논의
		2007. 6. 28(목)	① 백서 목차 검토 ② 백서 발간 일정 재조정
		2007. 7. 19(목)	① 분과별 원고 검토
		2007. 10. 30(화)	① 분과별 원고 검토
분과 모임	1분과	2007. 2. 15(목)	① 웨슬리영성연구 ② 수도권 영성 회복 및 적용연구 ③ 신앙교육훈련 연구
		2007. 3. 2(금)	
		2007. 3. 23(금)	
		2007. 5. 17(목)	
		2007. 7. 19(목)	
	2분과	2007. 10. 30(화)	①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패러다임 연구 ② 건강한 감리교회 모델 연구 ③ 부흥하는 교회상 연구
		2007. 2. 9(금)	
		2007. 3. 2(금)	
		2007. 3. 8(목)	
		2007. 8. 16(목)	
	3분과	2007. 8. 20(월)	① 목회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연구 ② 통합대학원 방안 연구 ③ 3개 신학대학원장 초청 간담회(3. 29, 본부) ④ 포럼(5. 1, 종교교회)
		2007. 10. 22(월)	
		2007. 11. 23(금)	
		2007. 2. 8(목)	
		2007. 3. 9(금)	
	4분과	2007. 3. 29(목)	① 의회제도 개혁 연구 ② 감독제도 연구 ③ 본부기구개편 연구
		2007. 4. 5(목)	
		2007. 5. 1(화)	
		2007. 5. 31(목)	
		2007. 9. 10(월)	
	5분과	2007. 2. 12(월)	① 한국 기독교 교단별 비교연구 ② 미래 교회의 가치 연구 ③ 섬김의 영성 연구 ④ 미래형 감리교회상 연구 ⑤ 포럼(7. 19, 목원대학교)
		2007. 3. 12(월)	
		2007. 5. 17(목)	
		2007. 6. 8(금)	
		2007. 6. 21(목)	
		2007. 8. 13(월)	
		2007. 10. 30(화)	
		2007. 2. 2(금)	
		2007. 2. 16(금)	
		2007. 3. 2(금)	
		2007. 3. 20(화)	
		2007. 3. 28(수)	
		2007. 4. 13(금)	
		2007. 5. 4(금)	
		2007. 5. 29(화)	
		2007. 6. 19(화)	
		2007. 7. 3(화)	
		2007. 7. 13(금)	
		2007. 7. 19(목)	
		2007. 7. 27(금)	